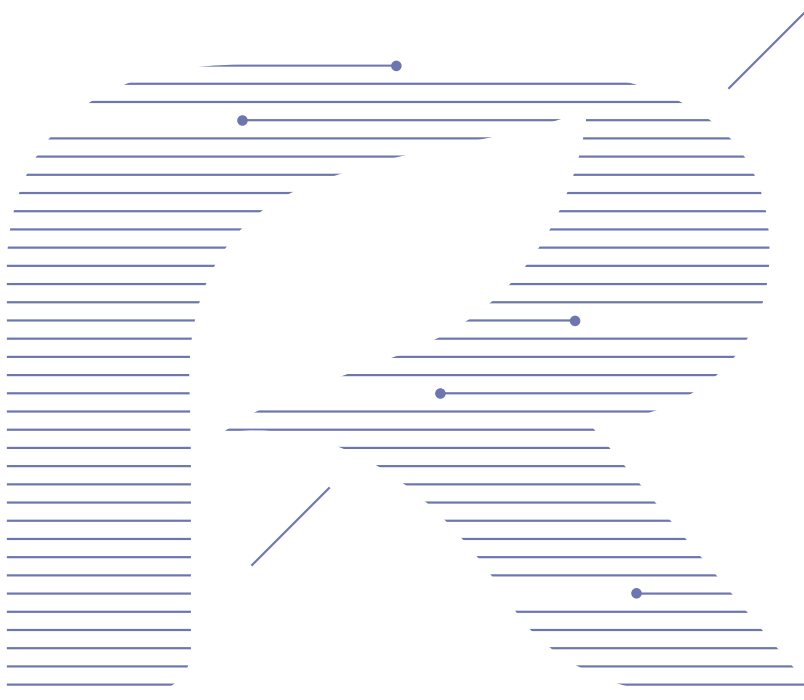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초점집단토론 자료(1)

김정섭 · 마상진 · 허주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4-37-01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 (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4-37-02	농촌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역할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 구상	충남연구원
24-37-03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초점집단토론 자료(1)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4-37-04	농촌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저출생·초고령화 대응 과제: 초점집단토론 자료(2)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저자	김정섭, 마상진, 허주녕, 강마야, 박춘섭, 이다겸		
주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마상진 선임연구위원 허주녕 전문연구위원
협력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	박춘섭 책임연구위원 이다겸 연구원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초점집단토론 자료(1)

김정섭 · 마상진 · 허주녕



연구 담당

김정섭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초점집단토론 진행, 집필

마상진 | 선임연구위원 | 초점집단토론 진행 보조

허주녕 | 전문연구위원 | 초점집단토론 진행 보조

R2024-17 연구자료-2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초점집단토론 자료(1)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4.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B N | 979-11-6149-745-7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서론

- 1. 배경 1
- 2. 초점집단토론의 내용과 초점집단 구성 3
- 3.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5

제2장 예비 조사

- 1. 개요 9
- 2. 초점집단토론 내용 12

제3장 G그룹(완주군, 50세 미만 여성)

- 1. 개요 45
- 2. 초점집단토론 내용 48

제4장 H그룹(완주군, 50세 이상 여성)

- 1. 개요 85
- 2. 초점집단토론 내용 88

제5장 F그룹(평창군, 50세 이상 남성)

- 1. 개요 127
- 2. 초점집단토론 내용 130

제6장 E그룹(평창군, 50세 미만 남성)

- 1. 개요 169
- 2. 초점집단토론 내용 171

제7장 B그룹(거창군, 50세 이상 남성)

1. 개요 217
2. 초점집단토론 내용 219

제8장 D그룹(거창군, 50세 이상 여성)

1. 개요 261
2. 초점집단토론 내용 263

제9장 C그룹(홍성군, 50세 미만 여성)

1. 개요 301
2. 초점집단토론 내용 303

제10장 A그룹(홍성군, 50세 미만 남성)

1. 개요 343
2. 초점집단토론 내용 345

부록

1차 초점집단토론(저출생·초고령화의 경험) 가이드 379

참고문헌 383

제1장

〈표 1-1〉 초점집단 구성 및 초점집단토론 진행 일정 5

〈표 1-2〉 초점집단토론에서 제기된 주제: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변화와 경험 7

제1장

〈그림 1-1〉 인구감소율과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한 초점집단 구성 지역 표집 ..4

1

서론

1. 배경

농촌 읍면들은 대부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현재까지의 추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 농촌 주민이 경험하는 사회변동의 여러 측면 중에서 ‘저출생·초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 감소’만큼 심대하고 전방위적인 것이 또 있을까? 그러나 인구가 더 고령화되고 감소한다면 농촌 주민의 삶은 어떤 압력을 받게 될지를 상세히 살펴본 자료는 드물다. 농촌 인구를 전망한 연구는 여럿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고 만다. 질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증대한 사회변동을 주민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 농촌 지역 중에서도 먼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은 주민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큰 변동요인이 없다고 가정할 때 나타날, 타 농촌 지역의 장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농촌 주민들은 앞으로 인구가 더 줄고 더 고령화된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무엇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 진행하는 연구의 첫해 시작 무렵에 이와 같은 생각에 이르렀다. 저출생·초고령화에 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을 생생한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기 위해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초점집단토론은 특정 내용과 연관된 이들을 6~8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으로 모으고, 그들에게 토론 주제를 제안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방법이다. 표본의 대표성을 중시하는 설문 조사와는 달리, 토론 참여자들의 경험, 의견, 태도, 생각 등을 알아내는 데 적합하다(이가옥·장묘옥, 1993: 87; 이재열·신인철, 2014: 4; 이재열, 2019: 33-34). 이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사회 현상을 탐색하려는 연구에서 유용하다고 평가되며 자주 활용된다.¹⁾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칠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 감소의 효과를 농촌 현장에서 다양하게 포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주민들의 경험과 주민들이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최대한 예단(豫斷)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급적 추상성이 낮은 수준에서 기술(記述)한 자료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얻은 자료가 나중에 관련 정책을 개발하거나 평가하는 데 실제적인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그런데 농촌의 사회변동과 관련해, 특히 요즘의 인구학적 위기를 배경으로 삼아 이 방법을 활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근래에 네덜란드 농촌을 배경으로 인구가 줄어 공공 서비스가 철수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나서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주도 프로젝트’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주제로 삼은 연구에서 초점집단토론을 시도한 바 있다(De Haan, E. et al., 2017 참고).

2. 초점집단토론의 내용과 초점집단 구성

2.1. 내용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3월 5일에 성별과 연령이 다른 충남 홍성군 장곡면 주민 8명으로 초점집단을 구성해 토론 가이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초점집단토론을 각 집단마다 두 차례 진행하였다.²⁾

1차 초점집단토론에서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른 주민이 경험한 일상생활상의 변화에 관해 회고하고, 그 예를 들고, 논의 내용을 요약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때 ‘일상생활상의 변화’란 분야나 주제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다만, 아무런 초점(focus)도 없이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구진이 개략적으로 논의 거리를 몇 가지 사전에 준비해 제시하였다.³⁾

2) 2차 초점집단토론에서는 장래에도 당분간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하였다. 농촌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적응’하면서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행위자는 지역사회 주민,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출생율을 높여야 한다’거나 ‘귀농·귀촌 등 전입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식의 과제 제시는 배제하였다. 그 둘은 ‘인구 감소에 맞서 인구를 늘리자’는 대안인 셈인데, 이 조사의 배경이 되는 본 연구과제에서는 저출생·초고령화 상황에서의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생율 제고나 전입인구 증가 같은 대안에 관한 논의는 학계, 언론계, 정부 등에서 수없이 많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2차 초점집단토론의 내용은 별도의 부속 자료집 ‘농촌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저출생·초고령화 대응 과제: 초점집단 토론 자료(2)’를 참고.

3) <부록 1>의 ‘1차 초점집단토론(저출생·초고령화의 경험) 가이드’를 참고.

2.2. 초점집단 구성

모두 8개의 초점집단을 구성하였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도 진전되는 읍 및 면 지역 주민들을 초점집단토론에 초대하기 위해 초점집단을 구성할 지역(읍면)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그림 1-1). 인구 변동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 내용이나 그것을 체감한 내용에 참가자가 부여하는 의미가 그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림 1-1〉 인구감소율과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한 초점집단 구성 지역 표집



주: 인구감소율은 log 척도로 표현하였다.
 자료: 김정섭 외(2024: 86).

〈표 1-1〉 초점집단 구성 및 초점집단토론 진행 일정

지역	성별	20~49세	50세 이상
AUB 높은 고령화	남	그룹 (A) , 6명, 4월 4~5일 홍성군(장곡, 흥동)	그룹 (B) , 7명, 3월 27~28일 거창군(주상, 마리, 웅양, 가북, 위천, 신원)
	여	그룹 (C) , 7명, 4월 4~5일 홍성군(장곡, 은하, 결성)	그룹 (D) , 7명 거창군(위천, 가북, 웅양, 고제, 남하, 신원)
CUD 낮은 고령화	남	그룹 (E) , 8명, 3월 20~21일 평창(봉평, 진부, 평창)	그룹 (F) , 8명, 3월 20~21일 평창(봉평, 진부, 평창)
	여	그룹 (G) , 7명, 3월 13~14일 완주(삼례, 상관, 동상)	그룹 (H) , 8명, 3월 13~14일 완주(삼례, 상관, 동상)

주: A, B, C, D는 2015~2020년 사이의 인구감소율과 2020년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분류한 읍면 지역의 분류 기호다. A는 인구감소율이 5% 이상이면서 고령화율 40% 이상인 곳, B는 인구감소율이 0~5% 범위에 있고 고령화율 40% 이상인 곳, C는 인구감소율 0~5% 범위에 있으면서 고령화율 30% 미만인 곳, D는 인구감소율 5% 이상이면서 고령화율 30% 미만인 곳이다. 단, 홍성군의 경우 그룹 (가)의 참가자를 모집하기 어려워 흥동면에 거주하는 주민도 참가하게 하였다. 흥동면은 〈그림 1-1〉에 제시한 분류에 따르면 B 지역에 속한다

자료: 김정섭 외(2024: 86).

그리고 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다차원 대비 초점집단토론 (polyphonic focus groups discussion)’을 준비했다. 즉, 참가자를 성별, 연령, 거주하는 시군의 인구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하고, 각 초점집단에서 산출된 자료를 대조하거나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농촌에서는 성별에 따라 역할 기대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향이 있고, 나이에 따라서 주로 또는 자주 수행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내용과 맥락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3.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매회 초점집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장별로 수록하였다.⁴⁾ 토론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본 보고서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 정책의 전환(1/2차년도)’에 수록하였다. 이 부속 자료집에 자료를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4) 연구진을 제외하고, 초점집단토론 참가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바꾸었다.

제시한 이유는 분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상(捨象)된 내용이나 초점집단토론 현장의 맥락 등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자료 삼아 추가적인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초점집단토론을 녹취한 내용 그대로 텍스트화할 경우에 분량이 방대하므로, 각 장마다 해당 회차의 초점집단토론 내용을 짧게 요약해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예비조사부터 시작해 초점집단토론을 실시한 일자순으로 내용을 배치하였다.

예비조사와 첫 번째 초점집단토론에서 참가자들이 자신과 이웃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초고령화의 영향을, 즉 인구학적 변동(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으로 인해 일어난 지역사회의 변화 양상을 진술하게 하였다. 그 내용을 18개의 주제로 분류했다<표 1-2>. 전체적으로 보아, 빈번하게 논의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학교 교육’, ‘마을 활동’, ‘노인 돌봄’,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농업’, ‘지역사회 내 조직’, ‘대중교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나 정책 사업’, ‘마을 인구 구성의 변화’, ‘일자리’, ‘환경·경관’, ‘보건의료’, ‘영유아 보육’ 등의 순이었다.

통계학적 엄밀성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참가자들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더 관심을 갖고 자주 언급한 주제를 몇 개 식별할 수 있었다. ‘노인 돌봄’ 문제와 관해서는 50세 이상 참가자로 구성된 초점집단에서 더 자주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와 관련해서는 여성 참가자로 구성된 초점집단에서, ‘보건의료’에 관해서는 남성 참가자로 구성된 초점집단에서 더 많이 논의되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남성 참가자와 50세 이상 여성 참가자로 구성된 초점집단에서 더 많이 논의되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주로 50세 이하 참가자들의 초점집단에서 언급되었다.

〈표 1-2〉 초점집단토론에서 제기된 주제: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변화와 경험

주제	전체	예비조사 남녀 20~75세 홍성 (a)	여성				남성			
			50세 미만		5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완주 (G)	홍성 (C)	완주 (H)	거창 (D)	평창 (E)	홍성 (A)	평창 (F)	거창 (B)
학교교육 관련 (초중고교, 학원)	74	8	10	10	4	7	5	12	13	5
마을(리) 활동	72	17	3	6	12	17	5	4	2	6
노인 돌봄	59	11	3	1	26	8	4	0	2	4
일상생활 소비(상점, 음식점, 이미용실 등)	57	5	7	14	9	8	3	2	4	5
농업	53	5	2	0	5	5	8	8	15	5
읍면 지역사회 조직 활동	51	8	5	5	3	5	4	4	10	7
대중교통	50	3	5	14	9	2	2	3	6	6
행정(지자체 정책사업 및 서비스)	48	0	2	11	6	9	9	6	1	4
마을의 인구 구성	44	7	1	5	7	13	1	3	1	6
일자리	38	4	3	7	2	2	4	6	4	6
환경·경관(빈집, 마을환경경관, 쓰레기, 유해시설)	34	8	11	0	6	1	0	7	0	1
보건의료(병의원, 보건소, 약국)	31	2	6	4	3	-	3	6	4	3
보육(어린이집, 유치원)	27	1	6	5	3	4	3	3	1	1
문화 여가(도서관, 청소년센터, 공연)	20	1	4	3	1	4	4	1	0	2
가족관계	18	3	2	3	1	2	3	0	4	0
농업의 전후방 연계 산업(사업지원 서비스)	13	4	0	0	1	1	0	1	2	4
치안	9	2	1	3	1	1	0	0	1	0
정치력 약화와 소외	9	0	0	5	0	0	0	2	2	0
주거 및 정주체계	9	3	0	0	0	3	1	0	2	0
다문화사회	7	0	2	0	1	0	2	1	0	1
비농업부문 노동력	6	0	0	1	0	2	2	0	1	0
세대 간의 관계	4	0	0	2	1	0	0	1	0	0
관광	4	0	0	0	0	0	1	0	3	0
소방	2	0	1	0	0	0	0	0	1	0
계	739	92	74	99	101	94	64	70	79	66

주 1) 숫자는 각 초점집단에서 해당 주제를 언급한 텍스트 의미 단위(chunk)의 빈도를 적은 것이다. 물론, 빈도가 높다고 해서 낮은 주제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통계학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다만,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2)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각 초점집단별로 기대빈도를 초과하여 텍스트 의미 단위가 출현한 주제이다. 마찬가지로 통계학적 의미는 없다.

자료: 김정섭 외(2024: 87).



2

예비 조사

1. 개요

- 일시: 2024년 3월 5일(화), 14:00~16:10
- 장소: 충남 홍성군 장곡면,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실
- 참석자: 연구진 3명 외 홍성군 주민 8명

예비 조사의 성격으로 진행된 이 초점집단면담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는 농촌 지역 사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다. 연구진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저출생·초고령화의 결과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주민들이 겪는 실제 불편함과 지역사회가 처한 위기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홍성군 장곡면에서는 30여 년간 아기가 태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젊은 세대가 현저히 부족하다. 마을에 남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며, 청장년층은 거의 없다. 주민들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마을 청소나 공동 작업 등 필수적인 마을 관리 작업도 어렵게 수행되고 있다. 한편, 귀농을 통한 인구 유입도 젊은 세대보다는 퇴직 후 정착하는 고령층이 대부분이라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1.2.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부족

참가자들은 주요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강조하였다. 교통수단의 감소와 마을 내 상점, 방앗간, 약국 등이 없어져 주민들은 생필품을 구하거나 병원에 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해 읍내에 나가기조차 쉽지 않아 차를 소유하지 않은 고령층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마을 주민 생활의 자립성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을 외지로 나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3.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 결속 약화

마을 내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고령층 주민 중 독거노인이 증가하며, 이들이 마을회관을 찾아 모임을 갖거나 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은 집에 홀로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공동체 결속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역 내 단체들의 활동이 예전보다 활발하지 않으며, 기존 단체들이 유지되더라도 젊은 후임자가 없어 앞으로 단체의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 청년 유입 및 귀농 귀촌 활성화의 한계

참가자들은 젊은 층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부업이나 겸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을에 정착한 청년층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지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 일부 귀농인은 농업 외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없다.

1.5. 농업과 경제활동 문제

농촌 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 활동에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는 지역에서 품앗이를 하며 일손을 도왔지만, 지금은 젊은 인력이 없고 외국인 노동자도 쉽게 구하기 어려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일부 주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거나 거꾸로 대규모 영농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농업이 사라지고 있다. 농업 관련 기반 시설과 자재 공급도 어려워져 장비 수리 및 농자재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6. 제안된 해결 방안

1.6.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주민들은 젊은 주민들이 농사와 함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건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화된 마을의 일손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1.6.2. 생활 인프라 유지 및 보강

교통수단, 상점, 약국, 방앗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생활 자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6.3. 건강 및 복지 서비스 강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대상 맞춤형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마을 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 초점집단토론 내용

김정섭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상진 박사님, 허주녕 전문연구원님과 함께 ‘저출생·초고령화’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농촌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되어 그렇게 동네가 그렇게 변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주민이 살아가는 데 무엇이 어렵고 불편해지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함입니다. 지난 몇 년 또는 10년 동안 장곡면에서 인구가 줄고 주민들이 늙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동의해 주시면 녹음하겠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보고서 등에 인용할 때에는 가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연구보고서나 논문 같은 글을 쓸 때 활용됩니다. 즉, 연구 목적으로만 쓰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것은 간단한 설문지입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적게 되어 있는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물론 보고서에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오늘 해 주신 말씀들을 분석할 때 참고할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김정섭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진홍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게 벌써, 우리 마을 같은 경우 아기가 태어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없고. 앞으로는 더 심각하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지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노인 양반들한테 애 낳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사실 시골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젊은 사람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양무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2명이거든요. 올해 1학년 입학생 1명 있고 5학년 있고. 그리고 장곡초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우선 친구가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데서부터 실감을 하고요. 동네에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 둘밖에 없어요. 제가 2006년도부터인가 한 10년 동안 지금은 폐교된 ○○분교, 그 학교 살려보겠다고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통학차량 운행하고 귀농하신 학부모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고. 그런데 인구 감소, 아이들이 감소하는 건 막을 수 없더라고요. 결국은 폐교했죠. ○○초등학교로 통폐합됐죠.

조진홍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귀농할 무렵인 한 10년 전에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귀농정책 교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에 여건상 맞지 않아서 되돌아가신 분들도, 젊은 층이 있겠지만, 일단은 적응을 못 하죠. 또 생활 기반이 없고. 그래서 어떤 정부 정책을 한다고는 했지만, 더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정책이 더 따라줘야지만 젊은 사람이 내려와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 가까운데 농수산대학교 거기 가면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외지에서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끼리끼리 어떤 친구끼리 부모들은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고 어떤 조건이 맞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듯이, 각 지자체에서도 귀농정책을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연구를 다시 해서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 뭐 유령의 도시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빈집 한 집 두 집 이렇게 요즘 이렇게 철거를 하니까, 그다지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 빈 그냥 두면은 진짜 흉물스럽잖아요. 저희 마을은 그나마 어떤 여건으로 공원이 조성되면서 빈집은 없는 그런 추세인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게 그 뚜렷한 대책도 없고 정부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정 지금 이제 고령화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13년 차 이제 귀농인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제법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반찬을 이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20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열네 분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벌써 다섯 여섯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저출생이 되다 보니까 고령화가 더 심해

지고 또 인구 감소가 되고 하는. 그런 처지가 돼서 참 아쉽고 아이들이 결혼한, 저기 뭐야 신혼부부나 이제 결혼 적령기인 분들이 결혼을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힘드니까, 둘이서 살기도 힘든데, 먹거리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주거가 우선 문제고. 아파트가, 집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도 안 되고. 그리고 애를 낳아도 봐줄 사람이... 둘째는 없고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제 애를 낳는 걸 기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같은 경우도 폐교되는 학교가 이제 자꾸자꾸 생긴 대요. 우리 여기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도 이제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문제를 좀 풀어가려나? 그 정책을 조금 신혼부부 결혼하면 그런 정책을 좀 이제 아파트에 지금도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상 닥친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감이라는 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저리로 해서 그런 아파트를 신혼부부들 위한 그런 거 좀 해주고 그다음에 회사나 이런 데도 애들을, 큰 대기업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서 어린이집에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반 회사 다니는 우리 딸도 지금 막 혼자서 힘들게 제가 하고 돈을 벌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애들 보내는 게 참 문제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도, 그냥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보내는데 또 일찍 끝나니까 또 허겁지겁 와서 애를 이렇게 해야 되지. 케어를 해야 되니까 진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은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다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걸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어떻게 개선이 돼야지 다들...

김부선 저는 그전부터 여기서 살아서 홍성군이 어떻게 됐다는 거는 대충 알거든요. 여기 장곡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귀농을 하시는 분이 분들이, 젊은 분이 신혼부부들이 귀농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귀농하시는 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퇴직을 했다가 연세가 50을 넘었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오면, 저출생과는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령화와 관계가 되는 거지. 저출생하고는 관계가 아닌데 따지고 보면 젊은 분들이 오게끔 어떻게 만들어서, 진짜 그분들이 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제가 항상 이렇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귀농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나이가 들어서 오시지 말라'고 그래요. 젊어서 와야지. 왜 그러냐면 퇴직금 타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쓴다고 하다가 보면, 시골은 돈이 없고 돈거리가 되지는 않거든요. 생활해 나가기가 어려운데도 오셔 가지고 곤란을 겪는 분들도 중간에 있으니까. 저는, 젊은 분들이 와서 진짜 얘기도 여기 와서 낳고 애들 땅도 밟게 해주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게 좋다. 그러면 거기서 자리를 잡게 해주는 거가 우선인 것 같아요.

신희숙 저는 그냥 장곡면이라는 걸 인식한 게 한 4, 5년 전, 6년 전에 장곡 초등학교

졸업생이 한 명이었을 때 이거 장곡초는 장곡면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인구 감소, 저출생...’ 이런 얘기 들으면 장곡초등학교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해마다 지금 막 입학생이 2명, 3명밖에 안 돼 가지고, 그게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판 동네 다닐 때도 길가 풀이 너무 막 이렇게 도로까지 나와 있고 정말 아무렇게나 관리되지 않는 마을 가보면, 진짜 이제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이 없고 하면 그냥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아무도 못 하니까. 그거 사실 마을에서 같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풀에 다 치이고. 네 예초기 못 치니까... 그런 풍경이 떠올라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마을길...

한숙영 저는 저출생 얘기 들으면 기분이 화가 나요. 뭐냐면, 어쨌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노동자 농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풍토 이런 것들이. 그럼 이렇게 각박하고 경쟁 중심이고 이런 사회에 또 내 새끼를 낳았을 때 그 고통을 다시 되돌림 해야 돼?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사회철학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출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이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고령화는, 일단 마을에서 제가 30대에 왔는데 지금 40대가 돼서, 어르신들이 70대 초반이셨던 분들이 지금 80대 가까이 되고. 중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달체계, 뭔가 정책에 대한 전달체계를 할 마을의 일꾼이 없고 허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을 일에 대해서 뭔가 생산적으로 마을 공동체적으로 뭔가 같이 유지하거나 관리해 나갈 일꾼들이 없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30~40대는 마을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본인 생계, 일단 사회적 기반이 경제적 기반이 너무 약하니까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결혼이든 뭐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자기 기반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농업 정책에서 또 농민을 중요시하지 않으니까 먹고살기 힘들어서 계속 겸업을 해야 되는, 생존 현장에 계속 내몰리는 현실이 악순환되는 것 같아요.

정희태 사실 저출생과 초등학교 얘기는 이제 와서 얘기하기에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15년 전에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저 입학할 때 15명이었던 게 졸업할 때 8명에서 장곡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다 이제 도시로, 읍내로 빠져나가고 이사 가고, 일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입학 때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졸업할 때 되면 이제 다 전학 가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당장 해결하겠다? 답이 당연히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있는 사람이라도 잘 지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 저도 지금 바쁘지만,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생활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도 여기 동네 친구들 몇 명 없지만 20대 30대 초반까지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사실 모이더라도 읍내에 나가

서 모이지 여기서의 일을, 또 일을 저희가 제일 바쁘게 할 때잖아요. 지금 경제적 기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 막 일하고 저녁에 와서 술 한잔 할 곳이 여기 없어요. 치킨집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오래까지도 하지도 않고 일찍 닫고. 또 몇 군데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모일 그런 편의시설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농사짓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냥 와서 살라고 하면 살 수도 없고요. 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도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여자친구도 저희가 농사를 짓지만 아파트 가서 살고 싶어 해요. 내포에 가서 그렇게 해서 제가 출퇴근하는 식으로 되는 거를 오히려 약간 바라는 눈치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면 단위에 들어와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실정이라서... 있는 사람 잡는 것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걸 해결 당장 해결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농사짓는 분들조차도 외지 아파트나 읍내 쪽에 아파트를 잡아서 (출퇴근해서 농막 하나 놓고 거기 출퇴근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애들 교육도 있고)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홍성읍이나 내포에 있는 학교 다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지금 밖으로 지금 다 빼돌리고 있다.

정희태 내포 쪽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홍성군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면 단위 지역의 문제지 내포 가면은 초등학교에 자리 없어요.

김정섭 제가 이제 전에 그냥 분위기를 만들려고 소감을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같은 얘기 반복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드릴 질문은 장곡면 얘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니면 살고 계신 리, 장곡면에 행정리가 있어가지고 행정리라고 하면 헛갈려요. 리 얘기 마을 얘기도 좋고 장곡면 근데 장곡면 넘어가서 홍성 얘기가 아니고, 이 지역사회에서 리나 장곡면에서 지난 여기서 사신지 10년이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대략 한 5년에서 15년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줄고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변했을 겁니다. 그중에 딱 머리에 떠오르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조진홍 이게 우리 마을이 이제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마을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꿔놨는데, 이제 연세가 들다 보니까. 개활지가 있고, 제방이 굉장히 길어요. 한 4~5킬로미터예요. 그걸 1년에 한두 번씩 예취기질로 깎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 좀 그만 만들어라고. 풀 매기 어렵다고... 그게 사실은 작년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마을, 명절 때도 막 추석맞이 대청소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고. 도시는 거의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시골도 그동안에 시골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걸 했다고.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연세가 이제 고령이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단 예초기 하시는 게 못해 버려. 근데 호미만 들고 나오시니까. 호미 갖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누가 하나, 청년이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70대까지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분들이 몇 명 없으니까. 그 마을 한 번 청소하는 데 엄청 애를 먹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아마 행정에서 신경 써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우선은 마을이 막 지저분해진다. 느낌상. 느낌도 있고 실제로 보면은 좀 정리가 안 되고. 가끔가다 보면 풀도 깎아주고 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다행히 현장 얘기는 농프프로그램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초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남성분들이 그래서 그나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게 안 되는 마을들은 막 정신없어요. (농프프로그램이라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마을이 깨끗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으면 마을이 지저분해지죠. 그리고 빈집도 계약 남아 있고 거의 대부분 그 한 10년만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돼요. 10년까지 그거 상상하기도 싫어요. 상상하기도 싫고...

한숙영 저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그 추석 맛이 마을 안길 애초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7년 전만 해도 예초기 남자들이 매고 뒤에서 할머니들이 한 2km 정도 되는 길을 뒤따라서 이 풀을 이 도로 아스팔트 도로에서 끝으로 마을 자기 안방 쓸듯이 빗자루질을 해서 쫓아왔거든요, 여성분들이. 그게 이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근처에 계시... 거기만 조금 빗자루질을 하시거나 하시거나 할머니들이 이제. 아니면 아예 벌금을 내, 안 나오시면 5만 원씩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동이 안 되시니까. 아니면 와서 정자 근처만 하는 분에 대해서 뒷담화가 서로. 동요가 돼서 80대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 어르신들끼리 뒷담화를 해요. 다 저기 와서 “꼬짝 꼬짝하면서 차라리 안 나오고 벌금을 내야지, 저 사람 뭘 하는 거냐” 이런 갈등이 좀 생기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경관보존 농프사업이나 마을 회관에서 공동 급식하는 게 있어요.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해 먹거나 하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걸 신청을 해서 그걸 중간에 사진 찍고 이렇게 서비스를 중간에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행정 서류를 할 마을의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받으셔야 할 분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걸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갖다가 자원을 끌고 올 사람 그걸 수행할 사람들이 마을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신청을 못 하는 사업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저희 마을이 작기 때문에 허리(세대)가 거의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 차원에서 계속 제대로 서비스가 개개인한테 가지 못하는 장벽들이 더 강화될 거다. 근데 (서

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데...

양무현 어떤 공통적으로 다 노동력이 없어서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저도 60대인데 제가 막내 축이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동네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이 더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것도 뭐 규정이라는 게 그런 한계가 있겠지만 동네 분들이 따라잡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랑 같지만 저런 마을은 참 재미있게 잘 지내고 계세요. 어떤 먹거리라든가 어떤 노인분들 건강 관리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 오늘도 이제 건강 체조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만 한 사람 아닌 여러 사람 한 사람보다는 더 더 많은 사람이 노력과 희생이 있으면은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질 수 있다. 다른 건 다 알겠지만 그만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사람이. 다 고령화되니까 그냥 그래도 이렇게 남녀 구분 없이 부녀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위주로 더 발벗고 나서야 될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령화 되고 있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령화를 떠나서 인구 감소도 되고 있으니까. 더 그래도 외지에 계신 분들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학교. 귀농학교 학교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좀 펼쳐서 우리의 우리 마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랑거리라든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자꾸 공유를 해서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옥정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요. 어르신들은 감소되고 있는데 오히려 귀농 귀촌 분들이 저희 마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50대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갖고 지금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저희 마을은 그냥 싸워요. 같이 어우러서 무슨 아까도 예초 작업 이게 그런 거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저희 마을은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올바르게 되어있어) 그래서 이런 거 공익 활동할 때도 뭐 다 나와서 같이 해서 점심도 같이 해서 먹고 이렇게 저희 마을은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김정섭 어르신들 중에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몇 안 남으셨고 그 사이에 오히려 들어온 사람이 많이..

이옥정 네 많이 그 사이에 많이 생겼어요.

양무현 남자만 이주해 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가족이 같이 이주해 오는 케이스가.

이옥정 네.

양무현 다 그래요. 3분의 2 이상이 귀농자들이예요.

김부선 우리 마을에는 회관이 소재지에 있으니까 그래도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전에는 노인분들이 엄청 모여있어요, 회관에. 회관은 좁은데 사람은 많이 모여 가지고 북적 북적하면서 그래도 다른 부락에 비해서는 밥도 많이 해 먹고 무슨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 상태였었거든요. 요 근래에 봄만 되면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3월 되면은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데다가 회관은 좋아졌는데 그전에 비해서 넓어지고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오토바이가 회관 앞에서 있었다면 요즘에는 노인 보행기가 무슨 자가용처럼 쪽 서 있어가지고 젊은 저는 젊잖아요. 젊은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젊은 층에 들어가면은 대우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심심하셔서 붙잡고 먹을 것도 엄청 잘 주시고 잘 주시고 그전에는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더 반갑다고 그러는데 말상대로 대화의 주로 상대로 챙겨 주셔서 들어가 보면은 또 그런 색다른 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바뀌는 환경이 그 안의 환경과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가 있더라고.

신희숙 그런 마을마다 상황이 진짜 다른데 저는 이제 도산2리에 사는데요. 도산2리에는 지금 젊은협업농장 같은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사무실도 생기고, 돌아가신 이제 어르신 집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는 하지만 이제 그들만의 좀 영역이 있고요. 오누이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다 모여 있고 사실 그전에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마을회관에 할머니들이 한 네다섯 분 항상 모여서 그 옷놀이 하셨거든요. 원래부터 많이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을에 다 잠겨 있어요. 아무것도 안 오시고 그 사이에 돌아가시고 요양원 가시고 치매가 오셔서 집에만 계시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또 안 나오시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마을회관은 아무도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문이 계속 닫혀 있어요. 1년에 한 번 총회 가는 날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좀 분리되어 있고... 또 그냥 그 사이에 변화라고 하면은 저희 빨래방으로 잘 쓰고 있지만 예비군 중대도 없어지고, 지금 파출소에 상근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방앗간 없어지고... 네, 그런 게 없어졌어요.

김정섭 희태 씨가 여기 장곡 토박이 아니야? (네) 장곡이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 어렸을 때 비해서?

정희태 있는 거는 되게 이제 뭔가 깔끔해지긴 하는데 많이 없어지긴 했죠. 여기도 가게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마트 하나 남았잖아요. 옛날에 슈퍼도 두 개 있었는데 (다방도 몇 개 있었어) 네, 다방도 여러 개 있었고 술집도 더 있었어요. 다 없어졌고. 약방도 있고... 다 있는 거는 학교도 그렇고 학교도 시설도 엄청 좋아지고 농협도 깔끔해지고 여기 주차장도 다 깔끔하게 해놨는데 정작 쓸 사람이 없어진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마을도 행사도 막 이것저것 다 챙겨서 열고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청년회나 그런 부녀회 분들도 다 보면은 귀농 귀촌 아니면 귀향자분들만 젊은 분들이 있고 토박이 젊은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도 이제 한 10년 지나고 그분들이 이제 한 70, 80 되시면 우리 마을도 이제 다른 마을... 지금 그런 게 안 되는 마을들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한 20년 뒤면은 저희 집밖에 안 남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 같이 이야기) 저는 밭이 거기 있어서 그 주변에 살고 싶은데 집을 짓고 저는 살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김정섭 이제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다 몽똥그러서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얘기를 했지만 따지고 보면 다 각각이긴 한데 결론은 하여간 사람 수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도 가야하고 머리로 해야 하고 국가나 행정에서 해줘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돈 주고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쭙볼 거는 그동안 장곡면에서 홍성 안에 살면서 예를 들면 돈 주고 세탁소 가서 빨래를 맡기고 해야 되는데 세탁소가 장곡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있었다가 없어졌다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광천까지 가야 되고 이럴 테니까. 그런 식으로 돈 주고 해결해야 되는데 없어져서 불편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또 어떤 분은 “불편할 거 없어 난 차 있어가지고 아무 상관 없어 내포 갔다 오면 돼 홍성 갔다 오면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뭐가 없어져서 돈 주고 어디 가서 뭘 사거나 뭘 해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사람 적어서 장곡면에 그게 없어져서 불편해졌거나 또는 나는 불편한 건 없지만 우리 동네 사는 누구를 보면 그런 거 없어졌더니 되게 불편하고 힘들 것 같더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몇 장씩 쪽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나눠드릴 테니까. 초록색에는 내가 불편한 걸 적어주시고, 지금 노란색에는 나는 불편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남들이 그게 없어져서 불편해진 것 같다 싶은 거 있으면 그 볼펜으로 간단하게 그 단어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없어져서 불편해진 건 뭐냐면 학교니 경찰서니 이런 거 빼고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물어볼 거고 돈 주고 사서 해야 되는데... 크게 여기다 붙여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없어져서 불편한 그것만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4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정섭 다 적으신 분은 저기 판대기를 보면 위쪽에는 초록색 아래쪽에는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불편한 거 적으셨잖아요. 보면 이제 왼쪽 한쪽으로 아주 많이 불편한 건 오른쪽 칸에, 불편하긴 한데 조금 불편한 거는 왼쪽 가운데는 어지간히 불편한 것 이렇게 한번 붙여봐 주십시오. 제가 저기다 붙여 달라고 했는데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없어져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한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걸 전부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투표수가 제일 많은 것 두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제일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 나오는 게 보면 대충 보면 교통입니다. 버스, 차, 안 가리는 거 그다음에 나오는 게 방앗간이에요. 이걸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방앗간, 약국, 교통. 그다음에 중간 불편하다고 하는 게 이제 본인들이 불편한 마트, 가게인데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차가 있으셔서 아주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면 버스, 방앗간, 약국, 마트 네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얘기만 무슨 저한테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야 고향이 충남 예산이고 여기 시골이나 대충 아는데 이 보고서를 보는 많은 분들은 시골에 버스가 잘 안 다녀서 불편하다 그러면 그게 그가 얼마나 불편한 건지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시골에 버스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우리 연구원 직원 박사가 “카카오 택시 부르면 안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것도 좋고 누가 그런 일을 하는 일을 당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다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스가 끊기고 안 다녀서 불편했던 구체적인 사건 얘기 그런 생각 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조진홍 아니 그게 마트하고 버스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김정섭 네 같이 얘기해 주세요.

양무현 노인 양반들이 장을 보러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을은 버스가 들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버스가 안 들어요.

김정섭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조진홍 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장 보러 못 나가. 그렇게 두 가지가 연관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읍내에 나갔다가 우리 딸내미가 이제 차를 놓치면 태우러 가야 돼. 읍내로. 그거 비밀비재하니까 이게 노인 양반들 같은 경우도 거의 갔다 오시다가 안 되면 전화가 와요. 나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면 모시고 와야 되고. 특히 아플 때나 이럴 때는 수시로 읍내로 모시고 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섭 읍내 병원으로, 의원으로?

조진홍 네. 그런 일은 다반사죠.

김정섭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으세요? 이장님 하실 때 그런 부탁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조진홍 자주 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 그렇죠.

김부선 근데 안 헤드릴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양무현 그러니까 전화 오면 방법이 없어요. 모시고 가야지.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래도 기동성 있고 차를 갖고 있다... 이런 조 회장이 얘기한 게 어느 마을이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응급환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골에서는 읍내 나간다고 그러죠 “아, 읍내 나가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취약 지역이에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러니까 청양하고 어떤 경계 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읍내에 나간다고 저는 면회를 매일 나오거든요. 버섯을 납품차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 언제 가는가 나 약국에서 저 약 타러 가야 되는데 병원에” 나가려면 버스를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노인 복지 차원에서 쿠폰 택시도 이렇게 지급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두 장 이렇게 있다가 소진해서 쓸 수가 없을 때 그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좀 헤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저기 안전을 적었느냐 하면은 마을 교통수단으로 어떤 차량, 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차량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에서 아주 취약 지역에는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손을 좀 빌릴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섭 사람 정해 놓고 품삯 주고 기름값 주면서?

양무현 그렇죠. 어차피 봉사 차원에서 하지만

김경호 일정 정도 비용을 주면서,

조진홍 아니 그걸 확실하게 한다면 뭐냐면 단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사고가 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죠.

양무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해줘야지.

김경호 마중버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계단 자체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노인은. 마중버스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김정섭 제가 예상치 못했던 거는 곁가지지만 방앗간 없어서 불편하다. 방앗간 갈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조진홍 방앗간이 옛날에 마을마다 다 있었어요.

양무현 정미소, 방앗간이라는 게 떡부터 다 했어, 옛날에는. 기름 짜고. 근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김정섭 지금 장곡 전체에 없죠?

조진홍 있어요. 떡방이 천태리만 두 개가 있고.

정희태 대현리에도 하나 마을에 있고 그것도 부녀회장님이. 안 하겠다고 돈이 되는 거 귀찮기만 하고 또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있는 것도 지금 안 하려고... 저희 마을에 하나 있는 거 (마을 방앗간?) 네, 부회장님이 내년에는 안 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것 때문에 부녀회 그게 정해져 있는 게 마을 교육 방앗간을 부녀회장이 관리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거 하기 싫어서 부녀회장이 못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어쩔 수 없이 하시기 하거든요. 지금 부녀회장 하고 계시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부녀회장 안 하고 싶다고 그러셨어.

김정섭 가게라는 게 장곡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옥정 농협마트 하나 있어요.

김경호 저 같은 경우에는 마트 광시(면)에 가요. 광시는 24시간 늦게까지 문 여는 편 의점 아니더라도 늦게까지 문 여는 가게도 있고 하니까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곡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김부선 옛날에 말했던 하꼬방,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조금씩 갖다 놓고 파는 그런 하꼬방이 필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신희숙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여기 앞에 이렇게 (미용실 앞에) 옆에 구멍가게가 있어서 (거기 문 닫았어요?) 네, (2018년까지 있었는데) 거기가 일찍 여기가 문 열기 전에 일찍 문을 여시니까 아침에 여름철에 6시부터 일하면 7시 8시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때 거기서 빵이든 뭐 컵라면이라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김없이 여기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닫으면 광천으로 가야 하고...

양무현 제일 불편한 게 남자분들 담배 사러 가야 될 때 밤 12시 넘어 문 열어 놓은 데 없다.

김정섭 이발소나 미용실이 장곡에 있는데 없어졌나요?

이옥정 있어 있어요.

김경호 사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가지고 거의 문 닫으면 다...

정희태 많이 여시는데 잠깐 입원하시고 그러시면 또 닫혀 있고...

김정섭 미용실 같은 텐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도 사실은 필요한 텐데.

김경호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미용을 했었거든요. 주민자치회로 하긴 했었는데 어르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김정섭 미용을 한다는 얘기는 미용사를 데리고 와서...

김경호 네, 마을 회관에서 미용 봉사를 했어요. 근데 진짜 미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나가시면 힘드시니까 나가서 하시기가... 그리고 또 읍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또 비싸잖아요, 또. 카드 비용 퍼머 비용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커트는 쉬운데 퍼머는 이제 여자분들이 지금 문제지 남자분들이야 커트 하니까 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할머니들이 제일 문제지.

김정섭 염색도 하셔야 되고...

김경호 그래서 광시로 가야해. 광사에서... 모시러 와서 할머니들 파마 하니까 점심까지 해드리고... 광시에는 인프라가 다 돼 있어요.

김정섭 광시면은 장곡보다 훨씬 변화하죠. 예산군 광시면, 면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은 생활권이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어서.

김경호 아니 우리는 어차피 생활권이 광시라기보다는 청양이 장곡 가는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장곡에 뭐 생기는 것 신경 안 쓰고...

김정섭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적는데 이걸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아까는 미용실 등 돈 주고 사서 해야 되는 것들이 없어진 건데. 이번 거는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나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소, 경찰서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중에 그러니까 행정도 사실은 행정에서 해주는 일은 사람이 많은 적든 적더라도 다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는 그렇게 못하죠. 사람이 적으면 내가 적자 나니까. 그럼 이제 행정의 책임은 사람이 적어도 그 국민이 살고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

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줄면 행정도 철수를 합니다. 많이 없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초록색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 장곡에서 인구가 줄고 그러면서 행정에서 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약해져 가지고 내가 불편함을 겪은 거. 또는 나는 해당이 안 되지만 남들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어리든 남들은 보면 그게 없어서 좀 힘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쪽 적으셔서... 일단 적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붙일 겁니다.

양무현 행정이라면 꼭 이렇게 자치를 수반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관도 되는 거죠?

김정섭 관에서 하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학교, 교육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 거. 관에서 하는 건 변하죠. 몇 개 있죠.

신희숙 쓰레기도 원래는 서울에서는 다 공공에서 치워주잖아요. 내놓기만 가능해 그 것도 그것도 관에서 해야 하는 것.

이옥정 관에서 하는데?

신희숙 지정 장소까지 가야 하잖아요. 서울에는 집 앞에다 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어쨌건 쓰레기는 차를 끌고 갔다 봐야 돼요.

조진홍 제일 문제가 심각한 걸 텐데 진료소가 이제 광역제로 편제돼 있잖아요. 시골 할머니들이 일요일 날이라고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아프다고 진료소 가야 된다고 난리가 나. 부서져 갖고 막 욕을 먹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진료소라는 것은 최일선에서 진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건데 이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사실은 진료소를 다 없앴으면 좋겠어. 아예 필요도 없어. 하루에 몇 명 가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 받는 사람 몇 명 있고 진료소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출장도 안 돼. 거기 없어져도 돼. 출장도 안 가요.

김경호 예전에는 출장을 갔어요?

조진홍 예전에는 나갔지 예전에는... 할머니들 막 링거도 맞춰주고 했다고 지금은 싹 없었어. 그러면 뭐 5시 넘으면 끝이야 없는 게 거기도 관사가 있잖아. 관사가 있는 이유가 뭐야? 그 취약자들 도와주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되니까 혹시 관사를 둘 필요 없고 이유 없고 그러면 노인분들이 거기 갈 이유도 없어. 출퇴근 하니까.

김정섭 일단 적어주시죠. 예 적으신 분들은 저희도 한번 붙여주세요. 관에서 해주던 것 중에 좀 힘들어진 것 얘기를 해달라니까 원래 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 진료소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쓰레기 얘기, 중학교 얘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료소 얘기를 아까 좀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진료소가 있긴 있잖아요. 여기 장곡에.

조진홍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도 있는데 내가 제일 황당했던 건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어. 김 선생님이 전화하니까 안 와. 119가 더 빨리 와. 얼마나 열 받는지.

양무현 소장님이 늦게 오셨구만.

조진홍 예전에 출장을 왔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안 하고. 지금 그거는 문제가 5시까지 근무하고 문 닫아버리니까. 시골에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양무현 그러니까 근무시간 끝나면 땡치고. 어디에도 불러도 안 간다는 거야.

한숙영 여기 장곡보건소도 의사 휴진하는 날짜가 평일에도 많더라고요. 문이 잠겨있어요.

김정섭 장곡 여기는 보건지소죠? (네, 보건지소)

김부선 저는 그 오서산에 놀러 갔다가 신발을 잘못 벗어놔서 신발 속에 지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 선생님하고 (물리셨어?) 그냥 물리지도 않았고 신발 벗어갖고 정자에서 놀았는데 신발을 딱 신으니까 따끔 하는 순간에 다리가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보건소 오잖아요. 보건소에 그런 약은 있지를 않대요. 그런데 그쪽에서 내가 했던 얘기는 시골이면 지네, 벌, 뱀이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있는 약은 노인 분들이 흔히 쓰는 감기약 그런 종류만 있지. 뭐 지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약은 없대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흥성으로 갔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쪽에서 보건소 쪽에다 얘기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시골 병원이면 시골에 맞는 약을 갖다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인 위주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대요. 그래서 저 그때 조금 그렇더라. 그럼 약은 어지간한 거는 비상 약은 좀 챙겨놔다. 우리 오래 발에서 일하다 노인분들만 다치는 건 아니잖아. 벌에도 쏘이고 뱀에도 물릴 수 있고. 그런데 그 지네 같은 약은 없다 그러더라고.

신희숙 저는 그 얘기 전달해 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좀 봐달라고 왔는데 우리는 소아과 (그런 것도 없어) 없어서 아예 그냥 진료 봐주는 것조차...

김경호 그거는 소아를 아예 안 봐요.

신희숙 완전 거부를 해서...

김정섭 쓰레기 수거 문제를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거는 한 선생님 쓰신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좀 좀 해주세요. 상황이 어떤가...

한숙영 이렇게 집집마다는 아니더라도 도시처럼, 쓰레기차가 들어오는 회차도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나온다고 2주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걸로 '우리환경'에서 청소 업체 위탁하는 청소 업체에서 자기들이 조율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많아지면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겠다"라고 하고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 교육을 마을회관마다 다니면 주민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거점, 쓰레기 차가 들어오는 거점 자체가 너무 단출하고 거기 마을 회관까지밖에 안 온다, 한두 포인트밖에 안 온다. 그래서 그 동선 안에 있더라도 있는 집들은 집 앞에 놔 놓으면 도시처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두 포인트 정도만 마을에 수습 장소를 두니까 거기까지 이 고정화된 인구들이 쓰레기를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저분하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그때 그때 또 태우시는 거죠. 마당에서...

김정섭 영농 폐기물 같은 건, 그건 '우리환경'이 아니죠?

한숙영 이거는 환경공단인데요. 그것도 마을에서 갖고 가야 되고 작년부터 생긴 흥성군에서 마을로 '찾아가는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단이 생겼어요. 조례가 더 생겨지면 서. 그것도 1년에 한두 시즌을 잡아서 가을작기에 한 번 한다든지. 한계가 있어서 그때 그때 나오는 것들 대해서 처리가 안 되니까 또 다음 작기 시작하기 전에 지저분하니까 먼저 태우시거나...

김정섭 어떤 분이 중학교가 없어진 게 문제다.

조진홍 폐교된 지 오래되었죠.

김정섭 얼마나 됐습니까?

조진홍 한 20년 가까이 됐나?

신희숙 근데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여기서 통학하기가 너무 아까 다 연결됐잖아. 버스가 없으니까 통학하기 어려우니까 다 기숙사 들어가,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없는... (기

숙사 있는 중학교가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다 태워줘야지.

양무현 여기는 장곡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렇게 (통합)하면 안 되나?

김경호 같이 하는 거요?

양무현 그런 데 있어.

김경호 대흥처럼 대흥은 그렇지. 대흥은 중고등학교가 그때 딱 중고등학교는 그런 그런 케이스들이... 일본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냥 초중고를 그냥 합쳐가지고 그게 별개로 초등 따로 중등 따로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진홍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딸내미가 6년을 혼자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그렇게 하고 중학교를 홍성으로 보내니까.

김경호 거기다가 막판에 불편하지.

조진홍 이 사회성이 부족해가지고.

김경호 막판에 한 명 한 명이 내려와서 같이 막판에 1년 동안...

조진홍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사실은 이 학교 조그맣게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제가 고집을 엄청 피웠었는데 애들을 보니까 그건 부모 욕심이고... 애들 마을에서 크는 게 맞는 거지...

김정섭 근데 제 또래만 해도 고등학교 정도는 천안 나가서 자취도 하고 가끔 중학교에서도 자취하는 애가 드물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애들도 “외지 나가서 너 살아” 할 수는 없으니 학교는 지역에 없고 그럼 부모가 누군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조진홍 그럼 우리도 애들 다 홍성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다녔잖아요. 아침에 첫차 있으니까 아침 저녁에는 데리고 와야지.

정희태 전 3년 동안 집에 안 보내줬어요. 막차가 일찍 끊기니까 야자 하다가 중간에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강제 더 있었죠. 때문에 그때는 그랬죠. 선생님이 안 보내줬습니다.

김부선 누가 와서 아이를 낳아도 문제야. (웃음)

김정섭 다 복잡하게 얽혀있어 갖고... 여기 희숙 씨가 적은 것 같은데 여기 파출소에 이제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은 지 한 3~4년 된 것 같은데.

신희숙 2년...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상주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고 경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마을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 낚시꾼들이 낚시하러 많이 오는데 몇날 며칠은 있어요. 그리고 제철이 되면 정말 차들이 많고 주말마다 차들이 오고 하면 다른 것보다는 쓰레기 버린다거나 또 한 번은 그 마을에 사는 어린이한테 막 아저씨들이 말 걸고 그런... 쫓아오고 이런 것도 있었어 가지고 행사를 자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네”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치안의 문제가 좀... 정말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르는...

김부선 그건 우리 위원회 방법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인가?

신희숙 하실 수 있는지... 방법대.

조진홍 옛날에는 방법대가 좀 했는데 지금은 안돼. 방법대가 와해가 돼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해.

양무현 조직이? 와해됐어요?

조진홍 파출소가 없는데 와해될 수밖에 없지...

한숙영 파출소 3월부터 상주인력 왔다고 이장단 회의에서 인사하시더라고. 밤에는 불 켜져 있고..

김정섭 방법대가 와해됐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어서 방법대가 안 돌아가는 건가요?

김경호 사람이 없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양무현 그것도 고령화인가?

조진홍 그렇지.

김부선 청년회도 없어지고.

김정섭 시골에서 그래도 조금 젊음 층에 들어가면 한 50대 정도 4H하고 방법 다 하는데.

이옥정 소방대도 그렇고.

양무현 그런 데는 소방대는 그래도 돈이 나오니까. (수당이 나와요?) 돈이 나오니까 운영이 돼요. 한 번 출동하면 얼마씩 나와요. 금전적인 혜택을 받아요.

김정섭 그게 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여기는 자율방범대, 자율은 돈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조진홍 그리고 소방대는 도 관할이에요.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김정섭 장곡은 자율 방범대도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나...

조진홍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김정섭 보통 젊은 사람 있는 동네는 방범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조진홍 옛날에는 여기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올라온 사람이니까 밑에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김정섭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쓰는 건 다 끝났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주업이 농사이신데. 하여간 농업도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이렇게 인구 줄고 그러면서 본인의 소득 활동, 경제활동 돈 버는 일과 관련해서 또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것 하고 경제활동 하는 거하고 관계돼서... (있죠) 그 예를 들면?

양무현 예를 들면요. 지금 제가 정비 쪽으로, 이런 일을 하다가 귀농을 했는데. 어떤 법적인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어떤 접근할 수 없는 문제지만 특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로하신 분들이 어떤 장비라든가 어떤 이런 걸 수리, 용접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리고 외지까지 나가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제 주위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우스에 비닐을 씌워야 되는데 못하시는 분, 그런 부분.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창고를 하나 부탁한다” 지어드릴 수 있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기술을 요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혼자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신희숙 다른 거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그전에는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일손이 필요할 때 동네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일해 주시면서 이렇게 좀 품삯 드리고 하시던가, 아니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두 분이 항상 그 집 일을 같이 해 주시는 걸 보

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다 어쨌거나 대규모 일손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거나 전문적으로 그런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낚을 잡는 것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돈을 들이는 것도 거기 품삯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은 애매한 규모에서는 일손이 필요한데 일손 인력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이거 되게 어려워요.

김경호 본인이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포기하고.

신희숙 애매한 규모가 없어졌죠. 옛날에 막 양파 5~600평 정도를 하셨는데 지금은 엄두를 못 내요.

김경호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만 남은 거예요.

이옥정 안 하는 거지.

정희태 저희도 이제 농사지으면서 저희는 많은 할머니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노지는 저희 너무 뜨겁고 그러면 할머니들 이제 쓰러지시니까 시원할 때 하우스에서만 하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좀 몸이 불편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기도 하고. 또 농업 인구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논농사... 노인분들 다 논농사 지으시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소득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농협 같은 데 물건도 많이 없고. 저도 갔다 와도 저기 농협 경제사업장이 있지만 기구 같은 거 사려면 다 읍내 나가서 농자재 같은 데서 사 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흥동농협 경제사업장만 가더라도 여기의 물건 거의 4배 정도의 품목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사는데 이쪽은 너무 낙후되어 있다...

김정섭 농사가 쇠퇴해지니까 농협도 물건을 많이 가져다 놓고 팔 생각을 못 한다 이거죠?

정희태 또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기에 너무 생산자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화도 어려워요. 애초에 생산자량 면적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홍유(홍성유기농)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 계속 줄고 있거든요. 생산 면적도 계속 줄고 있고. 홍성유기농 조합원들도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매년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도 이제 면 단위에서는 영농조합 같은 것도 어려우신...

김정섭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일명 홍유, 최근엔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정희태 50몇 명이었다가 이제 좀 생산자 위주로 가자고 해서 생산자는 또 30명 왔다 갔다 할거예요. 실제로 물건을 내는...

김정섭 2018년에는 90명 일추 됐었는데.

정희태 물건 내는 사람 그중에서도 몇 명 없었어요. 그래도 50명 가까이 되었거든요. 어르신 분들 많이 탈퇴도 이뤄졌고 물건 안 내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해서 지금 면적도 엄청 줄고. 어렵다고 친환경 그만두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 분들 삼채 같은 것도 많이 하셨는데..

조진홍 친환경이 메리트가 없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또 한 200마지기 혼자 하고 있는데 대책이 안 서...

김정섭 논 200마지기로? 대충 이장님들이 200마지기 정도 하시더라고. 다 힘들어서 맡기니까...

조진홍 그것 가지고 한 600마지기 했었어. 600마지기 했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지금은 400마지기 정도.

양무현 근데 사회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아요.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친환경이 되든 관행이 되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쪽에는 점점 이제 등한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노령연금 받아가지고 지내려고 하시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남 주고.

조진홍 잘못된 게 내가 85년도에 옛날에는 이제 농업인 후계자 그 자금을 받고. 여기에서 아마 장곡에서는 내가 한 다섯 번째 정도나 될 거예요. 일찍 받았는데 그때 300만원.

이옥정 85년도니까 자금을 300만 원.

조진홍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그때 후계자 자금 받은 사람은 다 빚쟁이가 되어버렸어. 그냥 자금 주면 끝이야 관리를 안 해. 근데 대만인가 그쪽은 이제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관리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 안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이 농업이 사는 거지 일단은 그냥 돈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7년 안에 7년 있다가 돈 안 갚으면 그냥 압류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나는 사실은 우리 청년농이나 농업인, 경영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진짜 키우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이중 곡가제를 써서라도 이

사람 물건은 정부에서 사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되잖아. 나는 그래서 직불금 주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야. 그런 거는 그 젊은 농부들 키우고 직불 그렇게 주는 거 지금 노인 양반들이요. 그냥 붙잡고 있는 이유가 직불금 때문에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애고 젊은 농부 키우고 이렇게 해야 농업이 사는 거지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표 때문에 그래. 막 그냥 쥐야 지금 이게 공익직불제 되고 나서는 더 해요. 직불금이 늘어서 심각해요.

신희숙 주변에 보면은 저희 돌봄반장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을에서 저희 이거 할 때도 50대 60대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 나와서 지역 활동을 하시거나 아는 50대가 안 계신데 그 50대들이 대부분 밖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거나 여성분들이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밖에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의 50대는 대부분 다 요양보호사죠. 사실.

김정섭 그런데 요양보호사 활동을 장곡 안에서는 별로 없고 다른 면으로..

신희숙 네 다른 흥성읍에 있는 센터에 이제 연계 소속으로 하시는데 요양보호 일을 장곡 안에서 장곡 어르신들 만나긴 하는데 그거를 연결하는 데는 흥성읍의 센터에 소속돼서 하시고

조진홍 농사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니까.

신희숙 여성분들은 대부분 (일할 수 있는 분이) 밖에서 그런 돌봄 노동이라거나 급식 도우미로 나서서.

김정섭 급식 도우미라면 학교 같은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일거리가 생긴 거는 고령화돼서.

이옥정 네 맞아요. 어르신들 경제활동은 줄었지만 오히려 50~60대 70대 초반까지는 오히려 경제활동이 늘어난 거예요. 요양보호사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거의 다 요양보호사예요.

김정섭 자기 본업 예를 들면 농사 말고 딱 정해져 있죠? 50대 60대까지는 요양보호사, 30대, 40대까지는 학교 방과후 강사 그다음 70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은 건강이 허락하면 농사, 농사 품... 품삯 받고 일하는 남의 집 농사를 하고 있다...

조진홍 지금 남의 집 농사도 안 해요.

김부선 지금 외국인 많이 쓰지.

조진홍 그리고 시골 노인 양반들이 사실은 다 먹고 살 만합니다. (웃음) 그래서 노인 복지는 지금처럼만 해주고.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결혼하면 나 애 하나 낳으면 막 갖다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노인 양반들한테 지금까지 쓴 것만 해도 지금처럼만 지금처럼 해줘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런데 막 더 못 해줘가지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돈 모아둔 거 통장에 돈 모아둔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줘버려.

양무현 노인정책은 너무 잘 돼 있지, 우리나라.

조진홍 너무 과해.

김부선 이제 일을 못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안 지었다가 농사를 지으려니까 힘이 벅차고 그래서 이제 동네 할머니들을 저희 고추 따는 일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정적인 할머니들이 계셨었어요. 광천에서 여기를 오시는. 그러면 이제 제가 6시에 모시러 가서 고추를 따는 일을 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항상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60대 초반이었거든요.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미련맞게 사냐고, 농사짓지 말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일하러 다니라”고. (웃음) 저한테... 그러면 항상 받아서 모아 놓고 또 거기서 일한 데서 싸게 구입을 하고 또 이제 하고 나면 주잖아요. 조금씩 뭐를...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왜 미련 맞게 이렇게 농사를 지을지도 모르면서 농사짓는다고.

정희태 일당 다니는 게 더 많이 버니까.

김부선 그 할머니들이 날마다 저한테 얘기했어. 나한테 미련 맞다고.

조진홍 이 친구가 노가다 다니거든요. 근데 농사 백 마지기 짓는 것보다 그런 일 하는 게 나아요.

김부선 맞아요.

김정섭 희태 씨는 농사 말고 다른 일은 안해요?

정희태 저요? 다른 일어요? 다른 일은 딱히... 저는 아무래도 하우스 시설이다 보니까 또 판매도 같이 하느라... 판매도 온라인으로 다.

김정섭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벌써 한 15년?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집안의 가족 구성 같은 게 많이 달라졌죠? 그다음

에 막 들은 얘기도 있을 거예요. 집에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살아 혼자 남게 되거나, 또 서울에 있는 사람 아무도 와보지도 않고 가족 문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구 줄고 고령화되면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동네에서?

조진홍 내가 20년 전에 내려왔을 때는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자꾸 이혼을 많이 해 그러니까 애들을 할머니한테 맡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김정섭 IMF 직후에 많았어요.

조진홍 우리 애하고 애하고 동갑인데 개들 친구 반 이상이나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김정섭 조손가정이라고 하는.

조진홍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없어요. (없죠) 지금 그것도 없고 지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한 60%가 독거노인이예요.

김정섭 여자분들이 훨씬 많죠?

조진홍 남자는 지금 세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여자예요. 23가구 중에 나머지 세 분 중에 나머지는 다...

신희숙 저는 작년에 어르신이 약간 우울증이 있으신 것 같다 하는 분들을 이제 추천 받아가지고 이제 청년 지원하러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과의 관계나 연락이 너무 뜸한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막 치매 진단 같은 거 받아야 돼서 보호자 연락처 그래도 안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저게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락드리고 하면은 그 좀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자녀분들은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지역에서 누가 챙겨서 이렇게 챙겨드리고 어렵다”라고 전달해 드리니까 그때야 좀 관심을 갖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연락이 딱 그동안에 많이 됐잖아요. 할머니가 대번 너무 싫어하시면서 자녀가 자기를 또 요양원 같은 데 보내려고 하시는 줄 알고 오히려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지에 있어서 자기가 챙기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이 끊겼다가 뭔가 신경 쓰이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떤 시설이나 그런 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시진 않으셨지만 할머니가 오히려 자녀분들이랑 연결이 되고 “나를 어디로 보낼지도 모른다”라는 게 이제 되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긴 했었어요. 자녀분들이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돈 들어간다’는 이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오히려 또 연락을 안 하시더

라고요. 먼저 연락을...

김정섭 내가 아프다 소리 하면, 자식들이 돈 쓰게 되니까?

신희숙 돈 쓰게 되거나 혹은 어디 가야 되거나. 이런 것들...

양무현 핵가족화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풍속도도 많이 바뀐 게, 별초는 그냥 동네 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고 그래도 차례 자체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혼자 쉽게 말해서 귀찮으시면 물이나 한 그릇도 떠 놓고 절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족 관계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기 부모 자식 간에도 개인 이익을... 생존 때문에 그러겠죠. 너무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신희숙 자녀분들이 오라고 해도 가기 싫고 그냥 혼자를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양무현 외국 가잖아요, 명절날.

조진홍 그리고 이 시골 분들이 서울 가면 못 살아요. 서울 가면 금방 돌아가셔. 우리 아버지도 서울에서 한 달 있다 오셨는데 걷지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시골 와가지고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한 두 달 전에 이렇게 잘 돌아다니시고. 일단 가뉘놓으니까, 아파트에 가뉘 놓으니까... 가서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못 살아요.

양무현 저도 그래요. 우리 나이도 그래.

조진홍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본인이 하기 싫지 않으면 하게 뉘야 돼요. 못 하게 하면 막 뿔나.

신희숙 저희 저번에 총회 갔을때 오성리는 쪽파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오성리에 쪽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바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녀들한테 “어머니 일시키지 말라는 얘기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그 자치회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양무현 뭔가 이제 동네 분들이 어울리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들 하세요. 그리고 그걸 또 못지않게 어떻게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또 협조를 잘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테마공원이 생기면서 구절초 가지고 어떤 음식화 하기 위해서 가공도 하고 이렇게 손질 작업하고 있는데 인부들을 사서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9만 원씩 샅이 나가니까 그 제안을 이제 제가 했어요. 그러지 말고 저희들 마을에 노인분들 계시는데 매일 화투만 치고 계신다. 그것도 소일거리니까 한 포대당 얼마씩 정해서 이렇게 달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마을에 안 나오시던 분들도 나오시거든요. 그 수익이 생기고 밥도 같이 드실 수 있고 근데 동네 분들이 이제 좀 정이 그리워서 그러겠죠? 오시기는 참 잘 오시는데. 그런 어떤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면서.

김정섭 자식들도 없고 혼자 집에만 계신 분들도 있고 기왕이면 같이 동네에서 모일 수 있게.

정희태 저희도 그런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돌아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을회관에 저희는 매일매일 나오시거든요. 주말 빼고. 매일 문 열어가지고 모여서 그냥 얘기하시고 주무시더라도 마을회관 나가서 주무시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혼자 사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회관까지도 못 나오시니까 혼자 그냥 하루 종일 집에 tv 보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죠.

김정섭 이제 장곡면 차원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그 4H를 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하는 4H는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4H지만, 그래서 4H 회장을 하니까 면에서 10대 청소년 주제에 이 청년들 면장실에 불러가 가지고. 단체장이잖아요. 단체장 회의에 가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릴 때 생각을 해 보면 그땐 인구가 많았죠, 80년대. 그러니까 덕산면만 해도 별의별 단체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죠. 보통 지역사회. 마을마다 다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4H... 면에 가면 또 그게 그대로 면 단위가 있고, 그 외에 무슨 또 뭐 면에 회장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리고 일들도 꽤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장곡에서도 지역사회 안에 조직들의 활동, 동네 분위기, 장곡면에 지역사회 조직, 단체, 이런 활동들이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뀐 것 같습니까? 사람 줄고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조진홍 저도 4H를 83년도에 면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김정섭 아, 장곡에 아예 4H가 없어졌어요?

조진홍 지금은 군에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마을마다 다 있었어요. 4H가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회관에 거기서 경진대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없어졌고. 지금은 우리 경영인 모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지금 깨질 위기에요. (경영인이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네, 대상자는 사실 장곡에 100명이 넘는데 지금 남은 건 열 몇 명이요. 지금 옛날에 있던 단체들은 거의 지금 저기 방법대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대가...

신희숙 (여기는) 다 단체장 하고 계신 분들이예요.

김정섭 어때세요? 적십자 봉사회나 이런 데는 큰 변화 없이 계속 갑니까?

김부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내 혈기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으면 자연적으로 돈과 조금 관련이 돼요.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이 되고, 또 이제 무슨 배달을 하더라도 기름값도 생략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선뜻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 그전에 우리 나이 때 젊었을 때 하고 지금 나이가 조금 들면서 주머니에서 돈이 조금 뭐 있어요 하고 조금 차이가 저는 그거 차이를 조금 가끔 가다가 다른 데에서도 느끼거든요. 다른 데서도 느끼고 이렇게 사람 인식이 봉사활동 이렇게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봉사활동도 이루어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전하고 지금하고 달라 조금 급전적으로 그걸...

김정섭 적십자회 회원 이제 계속 연세가 드시면 젊은 사람들 회원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걱정은 안 되세요? 앞으로 어떡하나, 누가 들어오나...

김부선 아니 이제 장곡은 지금 18명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70세, 75세 넘은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아주 봉사활동 못 하잖아요. 실질적인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다른 면은 없어진 데가 많아요. 지금 없으면 그 선에서 끝나지지 다시 결성은 되지 않더라고요.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저희 젊은 층에... 거기서는 진짜 얘기죠, 저희가. 그래서 할머니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가 그만두면 여기도 없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내가 뭘 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는 없어지는... 서서히 없어지는 것 같아.

정희태 후임자를 키우셔야 할 것 같아요.

김부선 후임자가 요양보호사로 다 나가고

신희숙 그러니까 50대가 없어요.

김부선 이 요양보호사의 시대가 와가지고...

조진홍 장곡의 단체가 단체장 회의 들어가 보면 나 단체장 때는 27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는다고요. 그게 다 겹쳐요. 장만 있는 단체가 또 있어. 문고회 그런 거는. 문고회 알아요?

김정섭 새마을 문고회요?

조진홍 네, 그게 지금도 있어요.

김정섭 그 마을회관에 도서관을 만든다고 책 모아놓고 그래서 '새마을금고회'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신희숙 받을 힘도 없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닫았다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는다고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

양무현 그런 거는 행정에서 만든 거예요. 다른 단체는 일반 여기서 그냥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인데, 새마을 문고회나 이런 거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 하여튼 희한한 단체가 많은데 모든 게 60년대 70년대에 4명 5명 6명 이렇게 사실은 막 식구가 많을 때 그렇게 큰 게 우리 세대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그나마 이바지했지만 4명이니까 자식 네 명이니까 이바지했는데. 안 좋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활동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진홍 아니, 낱을 형편이 돼야지.

양무현 나는 형편 안돼도 낱았다니까.

조진홍 형편 되니까 낱지. 옛날에는 제 밥그릇 자기가 갖고 나온다고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

양무현 농사지을 때는 그래도 먹는 살고는 했는데.

김정섭 이제 하여간 조직 숫자가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고 (조직은 늘었어요.) 알고 보면 이제 다 사람이 줄고 고정화돼가지고 이게 다 껍데기인 경우가 많고, 당연히 활동이 예전처럼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을 거라는.

조진홍 그렇죠. 그리고 희한하게 이 단체 하시는 분들이 신입을 잘 안 해.

정희태 어디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조진홍 여기 지도자회의라든지 이런 기술센터에서 하는 데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꺼주더라고요.

이옥정 맞아요.

조진홍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그런가.

정희태 사람 없으면 받으려고 해야 될 텐데.

조진홍 나이가 막 70 80 되신 분들이 지금도 기술센터 가서 앉아 있어요.

신희숙 역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역할을 지키고 싶으셔서.

조진홍 글썽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활동은 안 하면서 자리는 지키고 있고 신입은 안 받으려고 해요.

김부선 그러니까 기술센터를 가봐도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평균으로 저도 거기 가도 젊더라고요. 거의 그러신 분들이 이제 계시면서 어떤 때는 이제 무슨 말을 하던 은 못 알아들을 때 있어. 나와 관계된 거 하나만 딱 아시는데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서 앉아 있다가 여기에도 고령화가 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희숙 특히 먼 단위의 사실 단체들은 관에서 조직하는 단체, 관에서 관리하는 단체... 이런 지부, 지부, 지부로 내려오는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에서 뭘 주거나 시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단체 이름만 걸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김정섭 더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 장곡의 인구 변화 고령화 인구 감소 저출생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불편한 점, 바뀐 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통틀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나 또는 아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걱정이다 싶은 거겠죠. 그거를 지금부터 몇 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논하셔서 하나를 골라 보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거, 아무튼 인구 줄고 고령화되면서 생긴 일 중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 장곡에서는. 의논하셔서 그거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정희태 기반시설이 약화되고 있는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계속 축소되고 없어지고 저는 그게 걱정이예요.

신희숙 기반시설이라면, 마트.

정희태 네. 마트나, 마트에 있는 물품이 계속 축소된다거나. 가게들이 하나씩 없어진 다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지 않을까...

신희숙 저는 학교 닫을까봐 제일. 장곡초등학교, 두 명씩 들어오다 이제 10명 이하가...

김부선 옛날에는 다방도 있어가지고 오전쯤 되면 노인분들도 많이 가서 계시고 그랬는데. 여기가 다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방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진짜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관에 가도 여자 노인분들은 아주 활개를 치고 누워 계시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또 그러시대요.

양무현 방 따로 드려야죠.

김부선 따로 드리는 데 이렇게 문 열어보시고 저 밑에 앉아 계시면 도로 나가시더라고요.

김정섭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 합의 못 보시겠죠? 그래도 이제 각자 말씀 지금 나온 게 이제 특히 노인 문제가, 지금 그것도 남성 노인. 요새는 모르겠는데, 제가 2018년에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도산 2리 이장님이 저한테 해 주신 말씀이... 한 번은 요 앞을 이렇게 나왔더니 봄에 낮에 점심 먹을 시간에 할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보니까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히태씨는 미장원 없고, 가게도 농협 하나로마트만 남았고, 약국도 없고, 이런 거 자꾸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다. 그리고 희숙 선생님은 초등학교가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아니냐 이런 거... 말씀 안 하신 나머지 세 분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각자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숙영 저는 현재 있는 걸 유지하거나 뭔가 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도 변했고 이게 뭔가 새로운 변화,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지역의 활력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일꾼이 없다는 거 새마을 지도자분들 얘기 들어봐도 면 단위의 행사, 저기 행정에서 내려오는 이 소재지 면 소재지에 이거를 예초 해달라든지 저수지 청소를 해달라든지 이런 요청 말고는 농약병이나 폐비닐이나 지역 각 마을 단위로 들어가서 원래 해왔던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오라고 하면 몇 명의 70대 60대 후반 분들 몇 분만 맨날 다섯 분 정도 나오셔서 회장님도 맨날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인이 됐든 연세가 있든 없든 어쨌든 뭔가 활력이 없다 그런 부분들.

양무현 저도 우리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보충적인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귀농자와 원주민 간에 의견 차이가 상당히 많고요. 그 생각하는 차이가 좀 틀려요. 그러면은 외지에서 와서 나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밀고 가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충돌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

어서 어떤 우리 마을에 노인분들이 도로가 하나 생기고 해서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내용을 적어서 이장님한테라든가 노인회장이 됐다든가 내용을 공지를 하고 알려드리고 서명 날인을 받으면 나중에는 왜 이걸 하나라는 식으로 하나까 저도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좌절감도 느끼게 되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지역적인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여기는 좀 느긋하신 면이 있고, 저는 지역적으로 좀 경상도가 되다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직선적으로 나가는 이런 게 있지마는 그런 면에서는 누가 충청도에는 경상도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까지 저는 내렸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좀 하시는 걸로.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해요. 또 근데도 쉽게 말해서 그걸 대우를 받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지역적 성향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김정섭 마지막으로 조진홍 전 이장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조진홍 근데 저는 노인 문제를 계속 저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이 회관에 안 나오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봤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서너 분이 매일 나오셨던 말이야, 회관에. 그리고 저희 마을이 또 한 달에 청소를 두 번씩 하잖아요. 마을 청소를 그렇게 해서 자꾸 모이게 하나까 노인 양반들이 건강하고 일단. 거기 가고 그리고 또 이장이 일이 줄어요. 집집마다 방문을 안 해도 되니까.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우리 부락이 이제 초고령 부락은 맞는데 평균 나이가 75세인가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딱 부락도 거의 이제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그 앞으로는 우리 마을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제 천태리는 1리, 2리를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 10년, 15년 있으면 한 10가구? 그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45호인데 그 정도 남으면 통합해야지. 그럼 10가구 마을 남고. 지금 시골이 그런 게 제일 문제예요.

김정섭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제가 마지막에 들은 얘기를 한 번 오늘 나온 얘기를 정리하는 이런 건데 “제가 맞게 정리했나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요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불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2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빠진 얘기가 있을까요? 또는 고령화되고 인구 주는 게 나쁘지 않고 이런 좋은 점도 있어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나 싶은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숙영 제가 젊은 40대 다른 동네 형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쓰레기 얘기를 하다가 쓰레기 분리배출이 안 되고 계속 소각한다. 근데 자기 동네는 그래도 잘 되는 편이래요. 생활 지도자 젊은 청년들이 이제 못 갖고 나오신 분들은 다 분기별로 가서 갖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어느 계층분들은 안 바뀌어, 그분은 돌아가시면 바뀔 거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무현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은 노인회, 관에서 저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건강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 느낀 게 오늘 오면서 내가 한번 여쭙보려고 그랬는데, 희숙 씨한테. 이거를 마을 단위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단기간이란 말이예요. 항상. 그러면 그 나름대로 마을을 유지하는, 우리 조 회장님처럼 마을이 없어지겠다 그러면 그나마 계시는 분들이라도 건강을 좀 챙겨서 더 오래 살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마을에서 그나마 좀 활동력 있고 젊은 분이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기술을 좀 전수시켜서 연중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장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정섭 그러면 좋은데 준비를 많이 해야죠. 여기 정희태 같은 젊은 친구는 지금 먹고 기 바빠가지고...

신희숙 그런 활동들은 사실은 장곡면에서도 돌봄 반장님들이 해주시고, 또 여기에 행복지킴이 팀도 있으셨고 그런 걸 좀 더 많이 같이 배워서 나누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양무현 요리 한 몇 개월, 그다음에 비누 만드는 거 몇 개월.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농한기 때는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노인 양반들이 제일 한가할 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김정섭 그렇죠 3월 전은 아무것도 못해요.

조진홍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가을부터 봄 3월까지지.

한숙영 농업 정책이 어쨌든 계속 거지 같으니까 농업으로는 생계가 안 되니까 청년들이 내려와도 좀 해보려고 하다가 대부분 다른 직장을 내포나 어디로 가든가 아니면 반농반X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랬을 때 권역별로 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을 사무장의 역할들을 반상근 정도의 급여를 줘서 생활을 하고 농촌에서 자기가 원래 하고

삶은 개인적인 일들을 하면서 살면서 같이 100%를 만들어가는 이런 걸 원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정섭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도 여러 종류가 있죠. 나 다른 거 못 하겠고 땅이 넓어서 농사만 죽어라고 하겠다. 그럼 거기 지원해주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고 난 어차피 서울에서 내려와서 돈도 없고 농토라고 있어 봐야 일주일 내내 가서 일할 것도 없어, 땅이 적어서. 그러면, 제 동생도 그렇지만, 그럼 남은 시간을 보니까 노가다 하러 다니잖아요. 남은 시간에 노가다를 할 수도 있지만 남은 시간은 동네에서 마을에 관해서 어르신들하고 뭘 하거나 서류 만드는 걸 하든 마을 사무장 일을 하거나 이런 걸 해주면 돈을 주자. 이런 청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도 전업으로 농사짓는 젊은이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젊은 사람만 몇 명 갖다 놓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 농사지으면서 딴 일 다 하는 젊은이도 있어야 이런 고민이...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G그룹(완주군, 50세 미만 여성)

1. 개요

- 일시: 2024년 3월 13일(수), 10:00~12:30
- 장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완주경제센터 1층 배움터
- 참석자: 연구진 3명 외 완주군 거주 50세 미만 여성 7명

전북 완주군에서 여성 젊은 세대들이 모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다룬 초점집단토론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주거지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농촌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공동체와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1.1. 육아와 교육 인프라 부족

참석자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

했다. 일부 지역은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시설이 없어 자녀의 치료를 위해 먼 도시로 이동해야 하며, 교육 시설과 학원 역시 부족해 아동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일부는 폐원 상태이며, 중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어도 고등학교는 거의 없어 청소년들이 도시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관면 등에서는 교육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으며,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공간도 부족해 교육 및 문화적 환경이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1.2. 편의시설과 생활 인프라 부족

편의시설이 부족해 생필품을 구하기가 어려우며, 교통수단도 원활하지 않아 이동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부 지역은 교통편이 제한적이어서 병원 방문조차 어렵고, 고령층 주민은 특히 불편을 겪고 있다. 상점이나 마트가 거의 없거나 축소되어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그마저도 배송 서비스가 제한적인 곳이 많아 생활 편의성에 큰 불편이 따른다.

1.3. 공동체 결속력 약화와 고립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로 사회적 고립을 겪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증가와 젊은 층의 외부 유출로 인해 마을 공동체 활동이 줄어들고 있으며, 남아 있는 주민들 간의 교류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녀회와 청년회 등의 지역 단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주축 인력이 고령화되었고, 청년회는 젊은 세대가 적어 실제로는 거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다.

1.4. 외부 유입의 한계와 농업 일자리 부족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 귀촌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주로 고령층에 국한되어

있다. 젊은 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이주 후 정착이 어렵다. 농업 외에 직업이 제한적이어서 젊은 세대의 지역 유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 인력도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

1.5. 공공 서비스 부족

병원, 특히 소아과, 중고등학교, 경찰서 등의 공공 서비스가 잘 제공되지 않아 주민들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의료,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인근 도시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계속 머물지 고민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1.6. 제안된 해결 방안

1.6.1.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

교통, 상점, 의료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고령층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6.2. 교육 및 청소년 문화시설 강화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을 마련해 농촌 내 교육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젊은 가족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1.6.3.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경

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체 공간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6.4. 귀농, 귀촌 지원 정책 개선

젊은 귀농인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농업 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초점집단토론 내용

김정섭 방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저출생 초고령화’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네 군데 시군을 짚어가지고 이렇게 7~8명씩 해서 지역마다 두 팀 전부 8팀 주민들을 모시고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애들은 안 태어난 그런 농촌 지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런 얘기를 듣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는 그 네 군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우선 완주 전체로 봐서 그렇다는 거고 살고 계시는 읍면으로 보면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완주지만 어디는 굉장히 심각한 인구 위기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좀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고서에 좀 넣으려고 하고요. 파일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걸 다 녹음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연구진하고 저희 연구를 도와주는 보조 인력 5명만 들을 수가 있고요. 해 주시는 말씀들 중에는 논문이나 보고서에 인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전부 다 인용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서류는 그런 내용들에 동의하신다는 서류니까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쓰시는 분은 그냥 쓰시고 그냥 여담으로 여쭙보면 다 알고 계신 분은 아니죠. 오늘 처음 보는 사이도 계시죠? 그렇죠. 잘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한 가지 얘기로 흘러가 가지고. (웃음) 원래 이런 모임을 하면 초반에 좀 분위기를 만들고 좀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농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유머가 없는 인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쓰셨으니까 배 선생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면서 이름하고 사는 곳, 그다음에 하시는 일, 그다음에 살고 계신 읍면에 지역사회에 혹시 이런 거에 평소에 관심이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돌아가면서 쪽 소개를 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배니운 저는 올해 42이고요. 연극 일하고 삼례에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이제 육아휴직, 아이들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선배나 이쪽이 너무 이제 취약하잖아요. 문화도 취약하고 그럼 아이들 소아과도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 그리고 치안, 유치 이런 거 있잖아요. 방법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하는 일은 거의 육아를 위주로 하고, 이제 어린이 연극 배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랑이 농사를 짓고, 이제 농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좀 도와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박민혜 저는 박민혜이고요. 44살이고, 하는 일은 엄마 농사일 아빠 일 하는데 뭐 힘드니까 제가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건 별로 없어요. 힘들어서 관심을. (웃음)

강미나 저는 강미나이고요. 나이는 46이고, 살고 있는 지역은 삼례인데 지금 저쪽에 마련되어 있는 삼봉이라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전업 주부인데 이제 가끔 아이들 픽업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관심사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신덕영 안녕하세요. 저는 상관 신리 지큐빌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46이고요. 하는 일은 애들 돌보고 있고 관심사는 애들이 커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저희 상관 같은 데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좀 있다고 해도 뭐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저번에 들어보니까 성폭행하신 그런 그 팔찌 차신 분도 저희 동네에 살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깐 좀 아이들 학교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좀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든 이야기를 나누든 공부를 하든 그런 곳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고 학원은 많은데 아이들 스스로 모여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돌봄 쪽이나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은지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지이고요. 살고 있는 곳은 상관에 죽림편백길에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뭐 주부입니다. 요즘의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상관에 의료 폐기물 소각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지금 들어오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환경 쪽 환경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임희영 안녕하세요. 저는 임희영라고 하고요. 제가 사는 곳은 상관면 지큐빌아파트

고 저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구하지 못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진안군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교육이고요. 네 저희 상관면의 특징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 많아요. 거의 외동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외동이에요. 그래서 교육 쪽에 제일 저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지 저는 동산면에서 왔고요. 지금 여기 있는 지역보다 최고로 낙후된 곳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주에 살다가 7년 정도 지금 이사한 지 7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 전주에 살 때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가 시골로 들어오고 나서 소아과며 이제 아이들 유치원부터 어린이집 학교 다 모든 거를 너무 힘들게 7년 동안 이제 지내다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안정이 됐고요. 전주 살 때는 아이들 교육도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동산면에서 꿈나무 체험 관찰 학습장이라고 동물 체험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 보다는 이제 체험 이제 일 쪽으로 많이 지금 관심도 갖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계모라고. 아이들한테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아이가 셋인데 이제 갓 중학교 이제 간 친구도 있고 이제 2학년 이제 7살인데 거의 밥도 못 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김정섭 어색하죠? 아직도. 이제 이제부터 순서대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오늘 000 센터장님이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전달해 들으셨을 거예요. 인구문제, 저출생, 초고령화 관련된 얘기하는 자리다. 그 얘기 듣고 오늘 오실 때까지 오시면서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또는 지방 소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편한 대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기분 또는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생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강미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학부모다 보니까 교통봉사를 하게 되는데 해마다 아이들이 줄고 있구나 이렇게 확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가 졸업하자마자 유치원이 폐원이 됐는데 이러면 학교도 없 어지겠구나, 이게 점점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렇게 되면 이 사회에 어린 아이들은 없어지고 노인들만 남게 되나? 그럼 노인들만 남게 되면 그 부담을 다 누가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도 조금씩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현지 저는 이제 7년 전에 이사 왔을 때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제 40살 됐는데 제가 밤타마을이라는 곳에서 제가 제일 젊고, 저희 아이가 1살 때 들어왔으니까 제일 어리고, 애기 소리가 그전에는 아예 들리지 않았던 곳인데 저희가

이사함으로써 아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됐는데 이제 최근에 들었던 거는 동산면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다고 들었어요.

김정섭 무출생면이라고 하죠.

박현지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동네 어르신들도 돌아가신 경우인데 거의 저희 평균 연령은 90에서 70대예요. 60대는 아예 젊은 층에 끼는데 저희 때문에 평균 연령이 깎여 떡었거든요. 그 정도로 80~90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최근에 지금 몇 달 사이에 안 된 사이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인구가. (웃음)

김정섭 그런 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박현지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지, 마을이 없어지겠구나. 지금도 옆 마을을 합쳤어요. 마을이.

김정섭 이장님 2명이 1명이 된 거죠.

박현지 네, 그래서 그 옆에 동네랑 같이 합쳐지겠구나. 동네라는 밤티마을이라는 곳이 없어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덕영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어린이집이 네 군데가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신혼부부로 왔을 때는 네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하나 사라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고 저도 어린이집 교사를 함으로써 제 애를 보낼 곳이 없었어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격증도 있고 해서 저희 신랑이 군에 알아봐서 제가 원을 설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구가 정해져 있는 수에 맞춰서 원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구에 맞춰서 설립이 딱 됐대요. 네 군데가 그러면은 ‘저는 내 새끼를 못 보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소 변경 같은 걸 해 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이 정도면 상당히 신리가 살 만한 곳이거나, 더 많이 발전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도 없어지면서 학원 같은 것도 수학 학원도 세네 군데 있었는데 아이들이 점차 줄면서 학원도 줄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이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 독점을 하다 보니까 학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미술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신혼부부가 이사를 오고 아예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가 이사와와도 여기서 얼마나 정착을 할 것인가. 아이들을 위한 곳을 조금 더 생각해줘서 설립해 줄 수 있는 건 좀 해주고 그러면 어른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더 많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도시로만 아니라 지금 상관면도 조금만 넘어가면 전주거든요. 솔직히 이 바로 옆 동네인데 그 조금 차이로 인해서 엄마들이 전주로 많이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 친구들도 전주로 지금 많이 나가니까 제 아이도 ‘엄마 우리도 전주로 나갈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나도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보면은 “엄마 나 이거 뭐 배우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그게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시골에는 어르신들만 남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막 들거든요. 조금 인구가 없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인구가 없는 곳에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서 지어주시고 창립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도시에 사는 어르신 아니,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씩 가끔씩 하거든요. 시에다만 집중적으로 막 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도시에도... 이게 돈이 문제겠죠.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박현지 근데 보면 저희가 체험을 오잖아요. 그럼 한 번에 원래 25명이 한 점인데 요즘은 20명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주나 군산에서도 오거든요. 군산 다 모든 지역이 20명이 안 돼요. 다.

신덕영 솔직히 여기 똑같은 완주군 보면은 봉동(읍)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다 없는 것 없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봉동에 살고 저는 완주 신리에서 사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면 “아니 니가 와, 여기는 있을 거 없을 거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먹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놀고 있는데, 너희 집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놀 데가 없어서 게임만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완주군만 가도 선생님, 학교 가면은 1학년이 막 12반 13반까지 돼. 근데 저희 신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올해 두 반 됐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한 반이. 그러잖아 봉동도 완주 군이고 저희도 완주군이잖아요. 그 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이쪽은 아무래도 산업화가 되다 보니 직장들이 많이 아빠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완주군이나 소양(면) 같은 데도 좀 애들 위주로 아니라 이제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것도 조금씩 만들어 두면 이게 동생처럼 완주나 소양도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정섭 임 선생님이나 정 선생님은 인구 얘기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임희영 사실은 저는 체감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집은 그냥 쉬는 공간이라서 사실 제가 거주는 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잘 못 느껴요. 직장을 가면 제가 막 많이 느끼는 편이긴 한데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5학년 6학

년은 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반이지만. 근데 그 밑에 학년으로는 다 20명대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이가 3학년인데 19명이예요. 그것도 1명이 전학을 와서. 전학 와서 그렇고. 그래서 저도 아이 저희가 아이가 유치원 때 이제 처음으로 여기 오기 시작했는데 숲이 있는 이런 데서 키우고 싶어서 이사를 왔는데 점점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줄기도 하고 일단 교육의 격차를 제가... 예를 들어서 댄스를 배우고 싶어도 제가 맨날 학교에 조사를 하거든요. ‘아이가 뭐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엄마 나 댄스도 배우고 싶고 발레도 배우고 싶고 맨날 써서 내요. 근데 되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몇 명 이상 돼야지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이런 식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인원이 되지 않으면 강의가 개설이 되지 않아서 벌써 거기서부터 교육의 격차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섭 분노가 드세요? 분노감이 일어나... (웃음)

임희영 저는 그래서 학교에 홈페이지에 엄청 잘 접속을 해요. 뭐가 있으면 저는 가서 막 무슨 정책을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학교에 하면 저는 정책을 내려고 막 홈페이지를 뒤지고 막 정책을 내요. 근데 실상 정책을 내려고 하다 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말은 이렇게 안내문에서 정책을 내세요. “붙임1’을 참조하세요.” 그러면 붙임2를 올려야 되잖아요. 붙임2를 안 올려요.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그럼 저는 끝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올릴 건데 붙임2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따져서 올리거든요. 저는 조금 교육의 격차가 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분노하는 편이라서, 예...

김정섭 정 선생님은 없습니까?

정은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지금 상관면에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큐빌 아파트 쪽에 있는 상관 초등학교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이제 남관 쪽이어서 남관초가 있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남관초 같은 경우에는 특색 있는 학교라고 해가지고 전주에서도 많이 전화 와가지고 정말 좋은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를 정말 땅에서 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도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온 케이스였는데, 있다 보니 결국에는 이 특색 있는 학교도 몇 명의 이제 선생님 정말 그 선생님이로 인해 이루어진 학교였고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임기가 끝나서 다른 데로 이제 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은 이제 전주하고 똑같은 이제 학교,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의 친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전학을 가서. 그럼 누가 오냐 조금 불편한 친구들, 장애 있는 아이들 전주에서 이제 생활을 못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 학교를 보내기에는 TO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쪽 시골 학교로 와가지고 같이 이제 어우러져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 좋다

고 생각을 해요. 나와 다른 아이를 친구로 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되는지 여러 방면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좋은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다 전주로 전학 가서도 본인은 혼자 여기 학교에 있겠다고 해서 끝까지 졸업은 했는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딱 여기. 상관에는 엄마들이 있어요. 4학년 이 되면 애들이 적응을 잘 못 하기 때문에 빨리 전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진 4학년 때 되면 전주로 많이 가거든요. 늦지 않게 거기에 있는 이제 전주에 있는 친구들 이랑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아이는 남관에 결국 친구들 가면 한두 명밖에 안 남겠더라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관초로 전학을 시켰어요. 상관초로 전학을 시켰는데 애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아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고생을 하고 이 아이도 좀 힘들어 있었 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학원을 보내지 않았으니까 이 상관초에 있는 친구 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러 오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고 제가 데려다 줘야 되니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굳이 아이들 많은, 차라리 지큐빌 아파트라도 살았으면 이 아이가 좀 잘 그곳에라도 적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텐데, 왜 아무 친구도 없는 왜냐하면 저희가 가구 수 저희 마을에 있는 가구 수가 4가구밖에 없어요. 근데 다 이제 할머니 다 계시는데 지금은 다 요양병원에 두 분이 계시어서 정말 옆집에 있는 이 장님하고 딱 저희 집. 그래서 밤이 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밤에 두고 나갈 수 가 없어요. 너무 고요해서. 그래서 저희는 강아지 4마리를 키우거든요. 아이들을 무섭 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느덧 이제 중학교를 가긴 했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내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시골을 택했을까?’ 저는 지금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애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뭐였지? 그리고 이 아이 의 정서에 무엇을 주고 싶어서 내가 여기에 이 삶을 택한 거지? 그러면서 ‘전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마상진 키우는데 뭔가 이제 전원적인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막상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정은지 네 저는 아이한테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시골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바쁜, 이제 사람들 많은 전주나 이런 쪽에 살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잘 적응하고 크는 아이도 있는데 저는 시골의 정서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시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되게 늦게 보냈어요. 제가 케어를 하면서 매일같이 산책을 다니면서 바람을 느끼게 해줬고, 꽃의 향기를 맡게 해줬고, 소들을 보게 해줬고 물가에 발도 같이 담그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 저희 큰아이가 중2거든요

요. 저는 정말 이 아이가 굉장히 T(thinking, MBTI에서의 사고형)의 감성인, 이성적인 아이인지는 이제 커가면서 느꼈는데, 이 지금 요 중3 아이가 제가 그렇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거진 90% 뇌의 이성이에요.

김정섭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이나 배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배나운 이들도 문제긴 한데 시골 저희 이제 시댁 동네를 가면 아이들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일단은 거기 같은 경우는 수박이 주 농사거든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셨던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요양병원에 가시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아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10년 20년 되면 주인이 있어야 그것도 노동자들 불러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60~70대시니까 더 이상 50대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수박도 못 먹을 것 같고, 이제 그럼 딸기 농사는 또 누가 짓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농촌에는 아예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김정섭 박 선생님은 어떤.

박민혜 저도 큰일 났다(큰일났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을 불러서 하는데 인건비도 진짜 비싸요. 근데 그거를 외국인을 많이 불러서 하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농사지를 사람은 없고, 이거 일을 좀 가르쳐 놓으면 이것들이 또 잡혀가요. 외국으로. 다시 그럼 또 초짜를 데리고 와서 또 교육시키면 또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그래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인력들이 없어서 좀 많이 그래요. 그걸 못하니까 다리 아파도 엄마 아버들이 그냥 해야 되고 그게 많이 불편해요, 많이.

김정섭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리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오늘 할 이야기들 앞에 서론, 몸풀기였구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일부러 저희가 여성분들로 50세 미만인 분들, 그리고 하여간 이 완주에서 5년 이상 사신 분들로 모여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모여놓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이 문제, 이런 농촌 사는 거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또 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이번 질문은 아이 얘기는 조금 아까 많이 했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자세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사는 동안 아마 5년 이상, 어떤 분은 십몇 년 사셨을 수도 있는데 아주 그동안 이 지역의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지역 또는 지역사회가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 변했었던 것 중에 아이 키우는 거하고 관계없는 걸로 대략적으로 한 가지씩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변했다 지역

에 남는 것 인상 깊은 것.

정은지 그래도 각 집마다의 어르신들은 계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폐가가 되더라고요. 빈집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자녀분들이 와서 그 집을 한 번씩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들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 집은 이제 폐가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안 가꾸면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되게 음산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시골에 이렇게 산책을 가면 ‘정겹다, 평화롭다’ 이걸 느꼈는데 요즘에는 좀 무섭다 전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박현지 덧붙여서 말하면 그 집을 자녀들이 팔아요. 땅이 그리고 땅 투기로 그냥 변해요.

정은지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집값이 올라가면서.

박현지 땅투기로 변하더라고요.

신덕영 집뿐만 아니라 옆에 애들하고 산책하다 보면 뭐 들어있었던 상가들도 다 빈집이거나 그냥 막 그냥 월세 내고 잠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장면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주인 없는 집에서 키워서 개들도 막 돌아다니고 어떨 때는 무서워서 나가기가 혼자 산책하기가 무서우니까 동네 아줌마 끌고 가서 같이 가자. 운동은 해야겠고 운동을 해야겠고. 저도 이제 무서운 거 산다 그러면 풀도 우수수 자라나고 우거지기도 하고. 가끔 많이 살면서 많이 친했던 사람들이 눈에 익숙해졌는데, 어느 날 부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사하러 오시고 젊은 사람 나가고 어르신들이 이사 오시면 좀 거리감도... 어르신이니까 이제 공경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어쩔 때는 무서움도 느끼고. 이런 시골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행 같은 거 그런 분들도 그냥 막 시골에 오시는 것 같고 의료 폐기물도 그렇고 지금 항공 그것도 지금 막 써 있거든요. 우리 항공 익산으로 가야 되는데 익산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여기 있던 상관에 있어라 하면서 상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항공대를 다시 운영을 한다는 거야.

김정섭 항공대학이요?

신덕영 예. 항공대학. 비행기가 뜨고...

정은지 그거는 아마 인구가 없어서 더 인구가 없으니까 그거예요. 저희 상관이...

김정섭 인구가 없으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기가 쉽다...

정은지 왜냐하면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폐기물 소각하는 것도 그거는 진짜 상관 사람들을 다 나가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는 그걸로 인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근방 1km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병에 걸리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다 저희는 근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은 한 가지는 힘이 없다는 거죠.

박현지 저희도 그래요. 저희 회사 오지에 있거든요. 우리 마을은 그 석산 개발 그런데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정은지 앞으로 계속 인구가 없게 되면은 이제 상관면에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되게 암담한 정말 예쁜 우리의 고향을 자녀들의 고향이 정말 암담한 곳이 되지 않을까...

임희영 그러면서 더 소멸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동네가 맞아요.

신덕영 그래도 올해 상관은 5~6년 10년 전만 해도 젊은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의견도 많이 내고 뭐 행사했으면 했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젊은 엄마들이 더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꾸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막 유치를 시키다 보니 근데 나부터도 이제 그런 게 들어오면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승낙이 됐다고는 말은 들었는데 이게 진짜 승낙이 됐나 어떤 엄마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볼 질러야 된다고 (웃음) 상관도 되게 깨끗하고 계곡도 있고 너무 이쁘거든요. 살고는 싶는데 자꾸 그런 게 공략해서 들어오면 솔직히 내 자식 병 걸리면 누가 해줄 거예요? 저야 뭐 좀 살았다 치지만 앞으로 살아갈 얘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워요. 진짜.

김정섭 삼례는 인구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은 것은 아니죠. 최근 10년 동안 주로 삼례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좀 많이 다를 텐데 어쨌든 다른 데보다는 좀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령화됐고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동안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삼례 쪽에는 인상적인 거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오.

강미나 저는 구도심에서 이제 신도심으로 이렇게 이전해 간 케이스이긴 한데요. 삼례 읍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이제 소아과가 없어진 상황이고, 인구가 없다 보니 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런 병원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할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이 안 돼서 어르신들은 밤중에 이제 시내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반면에 신도심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또 다른 시내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섭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시면서.

박민혜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김정섭 그러니까 지역 인구는 줄었는데 일손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박민혜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외국인들이고, 뭐 이렇게 사람 불러서 할 때도 말이 안 통하니까 다들 죽을 것 같아요.

박현지 그리고 좀 비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외국인 엄마를 갖고 있는 시골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정서적이거나 이런... 우리 한국 정서하고 좀 많이 달라서 아이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면 많이 아이들 행동이나 이런 그런 인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요.

김정섭 그러니까 이른바 그것도 인구 감소하고 관련이 있죠. 인구가 줄고 하다 보니까 이른바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른바 다문화 가구, 결혼 이민자들이 와서 그런 집들이 늘어났고 전국적으로는 뭐 요새는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다문화 가구가 결혼할 사람이 별로 없어(웃음) 한 2천년대 초반부터 얼마 전까지는 농촌에 특히 2010년 전후에서 굉장히 늘어났던 것 같아요. 개들이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동산은 뭐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박현지 최근에 저희 아이가 원래 소양 동상면에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사 왔을 때 병설유치원을 가려면 5살 이상부터 병설을 가기 위해서 이제 문의를 했는데 그때 아이가 둘째가 4살이었고 큰애가 막내가 1살이어서 어쩔 수 없이 소양으로 이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지금 저희 아이가 빠져나감으로써 소양면에서도 선생님이 한 명으로 줄어든다고 하고. 왜 병설로 옮겼냐 하면 병설은 2명 이상 되지 않으면 병설이 폐쇄가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병설로 갔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애가 1학년 입학했을 때 동산초등학교 처음부터 입학할 했는데 그때는 9명이 입학할 했는데 4명으로 줄업을 했고요. 올해는

2명밖에 입학은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점차 점차 어른들도 이제 연세가 고령하지만 아
이도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인구수도 다 점차적으로 다 줄고 모든 게 다...

김정섭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
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변화가 인구 변화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지
금 쪽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그러면 없는 게 많아집니
다. 그렇죠 점점 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없어지는 것들이 보면 생활하는 데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그렇죠 약국에 가서 돈 주고 약을 판다든지 가게 전방에 가서 라면
을 산다든지 돈 주고 사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가격을 주고 사는 건 아니지
만 국가나 완주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죠. 경찰서... 이
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한번 돈 주고 사야 되는 것들 중에 최근에 인구가 줄고 그래서
없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없어지거나 작아졌거나 그래서 불편해진 것이 무엇이 있
는지... 이거는 좀 조직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불편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할 건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뭐가 없어지면 이거는 여자분들이 불편해지
는 게 있고, 뭐가 없어지면 이거는 노인들이 불편해지는 게 있고, 이거는 뭐 그런 거 따지
지 않고 전부 다 불편해지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 장씩 그러니까 제가 포스트잇을 아직 붙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
면 붙이지 여기다가 불편한, 없어진 것 그게 없어져서 불편해진 인구 집단, 노인, 여성,
아이들 등등 이런 식으로 한 글썩요. 두세 개씩...

박현지 동산면은 처음부터 없었는데요.

김정섭 불편해진 게 하나도 없다.

박현지 아니 아예 없었으니까. (원래가 불편했어, 없어)

정은지 생긴 거는 편의점 생겨서... 저희 집은 원래 편의점이 없어서 편의점 생겨서
좋은 거...

김정섭 적으신 분들은 자 저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많이 불편하다 불편하다, 조금 불
편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해당되는 칸이 있고요. 생활물품 사는 게 불편해졌다,
약국 하는 게 불편했다. 근데 내가 적은 건 저게 없다. 그럼 맨 밑에 기타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서 포스트잇을 붙여주세요. 같은 내용을 붙이니까 겹쳐
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나가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김정섭 이제 잠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병원 특히 이제 소아과 병원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 이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트죠. 이게 많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중간쯤으로 불편한 분들도 있고. 물건, 생활용품 사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얘기는 이따가 지금 물론 유치원에 돈을 내긴 내지만 이걸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다음번에 또 할 겁니다. 병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마트 교통 얘기네, 대중교통 얘기 그다음에 기차가 유치원 말고는 없고 이 얘기를 잠깐 좀 알겠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짝 모이시면 방앗간 없어져서 불편하다고. 농사만 짓는 동네에 가서 하면 그렇더라고요. 방앗간이 없어서 힘들다. 왜냐면 그때그때 쌀 찌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아과 병원 얘기부터 좀 할게요. 또는 그냥 일반 병원도 있는데 저기에 소아과라고 안 쓰고 병원이라고 쓰신 분 누구실까요?

신덕영 상관에 제가 살았을 때 둘째 나 거기 망했다... 가정의학과가 들어왔어요. 그래 병원 들어왔어 병원 들어왔어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좀 아팠어요. 감기 기운이고 하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도 좋고 간호사 쌤도 좋고 진찰도 되게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전 전조는 네 뭐 어떻습니다 하는데 여기도 만져주시고 여기도 만져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려고 도와 좋다 했는데 1년 뒤에 거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의원이 들어왔다가 한의원이 또 한 6개월 있다가 사라져... 솔직히 그냥 가정학과는 애기들 데리고 가기 좀 그렇지만 어른들도 아플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도 있기는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자리를 좀 자주 비우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보건소보다 그냥 내가 돈 내고 좀 더 내고 그냥 병원 갔을 때 내가 땀땀하게 진료를 받아서 조금 좋았거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귀도 좀 안 좋고 두통도 자주 있는 편이라...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다시 하나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예요. 그래서 소아과는 조금...

김정섭 소아과 병원이 없거나 없어져서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쓰신 분이 세 분 정도 계신데 본인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한 2~3분 정도는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덕영 혁신도시로 다녔거든요, 병원을. 근데 아침에 9시쯤 못해서 도착을 했는데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접수도 안 했는데 끝났다고 1시 반인가 이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까지 또 아픈 애를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 저는 또 그 애를 또 데리고 집에 왔다가 약을 먹여서 재우고 밥 먹이고 1시에 갔더니 대기 번호가 20 몇 번인 거예요. 벌써 또. 그게 너무 갈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아기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병원에서 거의 기본 1시간 반은 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면 하루가 그냥 다 지나고, 항상 매번 그랬어요. 근데 얘기가 이제 막내가 이제 6살인데 크니까 그냥 저는 삼례 그냥 내과로 다니거든요. 소아과 안 가요. 아이 거기 갔다가 오히려 더 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안 가고. 그냥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삼례 내과에서 어른들 거기서 약을 지어서 먹고 소아과 가기가 겁나고 여기 삼봉도 새로 생겨서 갔는데 2시간 기다렸어요. 그래서 거기도 안 가요. 여기 삼봉도 가깝지만. 그래서 소아과는 애들도 지금은 막 치를 떨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갈 때마다 안 가기로 해서 그냥 어른들 내과로 다니고 있는 실정이...

박현지 저는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전주로 다닌 경우는 원래 저희가 효자동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동산면에서 효자동까지 가면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새로운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데 저 군데 하다가 한 군데를 정착했는데 그게 전주 호성병원인 거예요. 호성병원에 호성동에 있는 소아과를 갔는데 아이가 저희는 둘째가 태변을 먹어서 감기 걸리면 후두염이 와버려요. 그러면 제가 원래 직업이 간호사였거든요. 간호사인데 후두염이 오면 응급 상황까지 오는데 그거를 제가 다 처치를 해요.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기구랑 다 사서...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그걸 증상을 알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불안한 상황까지 알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 나이 때는 아마 아이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경우가 다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섭 병원이라고 또 적으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네 분이에요. 네 분 중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강미나 저는 삼례에 소아과가 있을 때 계속 거주했었는데 그때는 주치의처럼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있어서 아이의 그 병명이 꼭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애가 조금만 아파도 선생님이 “애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이상이 있을 거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이런 진단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소아과가 없어진 이후로는 전주 시내로 떠돌이처럼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약 처방도 맨날 달라지고 애의 병명을 정확히 아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김정섭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로 마트가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 또는 불편하다 이거는 꼭 젊으신 젊은 엄마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박현지 저는 저희 집에 오만 손님이 다 오는 집이에요. 우리 저는 3대가 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식구들 저희 신랑은 또 오지랖이 많아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김정섭 봉상면에 가게가 없습니까?

박현지 아예 없어요.

김정섭 농협 하나로마트도?

박현지 이제 갓 뒀는데 편의점 형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걸 쿠팡으로 배달을 시키는데 쿠팡도 2~3일 걸려요.

김정섭 농협 하나로마트도 없었다는 얘기는 동상 농협이 없다는 얘기죠.

박현지 농협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그맣게 간이 슈퍼처럼 음료수하고 과자 정도 팔 수 있게.

김정섭 농협 사무실만 있다가 그것도 최근에.

박현지 이제 라면이나.

김정섭 그러면 전부 다 인터넷으로 쿠팡에 주문을?

박현지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마트를 가면요. 고기도 몇 건씩 다 사갖고 와서 저온 창고에 넣어놓을 정도로.

김정섭 그 동네에 몇 분 안 계시겠지만 사실 다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떡한 대요?

박현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김정섭 뭘 사러 가지 않는다.

박현지 자녀분들이 주말마다 오시면 하면 될까. 그리고 저희 동네는 이제 마을 회관에서 같이 먹는 게 대부분이고. 이것도 최근에 중국성이라고 중국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다 일하다가 말고 아버님 친구분들 모시고 다 요리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최근에는 중국집이 생겨서 그나마 동산면에는 중국집을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섭 가게도 없는데 중국집 생겼네, 거기 몇 인분 이상 주문해야 배달 옵니까?

박현지 배달 안 돼요. 왜냐면 바로 옆집이거든요. 바로 옆집이고, 배달은 안 돼요. 그

것도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그 흔해 빠진 피자를 시키려고 배달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들은 일하기 싫고 많이들 좋아하는 거 한 번씩 사 먹이고 싶는데 피자랑 치킨도 원래 좋아하지도 않는데 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섭 또 그 마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시죠. 또 누가 저기 적어주셨나?

정은지 저희가 이제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을 때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형, 근교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얼마 이상이면 배송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걸로 먹으면서 저희는 이제 회복을 해갔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 다녔을 때도 아이들이 이제 저녁을 먹거리를 뭘 해줘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는 배송을 해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2시나 5시, 이렇게 배송을 해줬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왜냐면 수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홈플러스에서 이쪽이 상관 쪽으로 배송 자체를 끊어버렸더라고. 취소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도 마찬가지로 배달도 없죠. 그리고 먹거리 자체가 이제 다 똑같은 음식점 몇 개 안 되는 음식점이다 보니까 애들도 별로 선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있는 재료로 해 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새로운 거 좀 편하게.

박현지 백반집 같은 음식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중국집은 짜장면을 10번을 먹으면 6일밖에 일 안 하는데.

김정섭 상관면 면사무소 근처에는 가게가 몇 개 있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점빵이라고 하는.

정은지 저희는 슈퍼는 정말 많이 생겼어요. 마트는, 5개 정도 될 거예요. 네, 5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도 그래도 한 4, 5개 정도 되죠. 중국집은 하나 정도 있고, 치킨집도 한 3개 돼요. 3개 되고, 그 정도 배달도 됩니다. 저희는

신덕영 배달비가 있습니다. 없었는데 배달비가 생겼어요.

박현지 저는 상관으로 이제 친정으로 갈 때 상관을 지나거든요. 피자집이 부럽거든요.

김정섭 교통 얘기 대중교통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지 버스 시간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어른들이 두 번을 갈아타야 돼요.

김정섭 어디를 가려면요?

박현지 전주 고려병원만 가더라도 원래는 직통으로 고려병원 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버스 회사에서 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소양을 들러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어른들이 솔직히 한 번에 가는 것도 힘드신데 갈아타야 되는데 그 시간 텀이 있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놓치면 어른들은 그대로 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일 때문에 소양을 들리면 어르신들이 이제 차 놓쳤다고 기다리시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 안쪽에 태우고 저랑 이제 같이 가신 분도 트럭에서 누워서도 오고 어르신들 생각해야 되니까. 어르신들은 병원을 가셔야 되는 입장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게 버스 시간대 특히 이번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를 갔는데 시간 텀이 등교시랑 안 맞아서 다행히 스쿨 택시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거가 이제 됐는데, 이런 버스가 최고 걱정도 많고 왜 어르신들한테는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강미나 거기는 스쿨 택시가 되는데 삼봉은 스쿨 택시가 안 되거든요. 이 지역 거리가 신도심이라서 그런데 지금 버스가 완주군버스라고 해가지고 큰 버스에서 작은 버스로 바뀌었어요. 배차 시간을 똑같이 하고 버스는 작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옛날 만원버스처럼 타고도 못 타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픽업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김정섭 왜 작은 버스로 바꿨을까요?

박민혜 ‘부릉부릉 버스’인가 수도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오 그가지고 버스가 작으니까 좋던데...

신덕영 사람들이 많이 못 타면 몰려 있으니까 이게.

박민혜 아, 아침에는 난 아침에 안 일어났어.

김정섭 수소 연료로 가는 버스.

배나운 그리고 원래 1,500원이었다면 500원으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런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은지 저희는 부릉부릉 그 버스가 배차 시간은 없고요. 전화를 하면 1시간 전에 전화를 해야 1시간 전에 예약을 예약하잖아. 예약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배차 시간이 길어요. 25분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정말 빨리 가거나 아니면 지각을 하거나 텀이 이제 굉장히 길죠. 거기에다가 이제 주말 되면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없는 건너뛰는 버스가 있다.

임희영 우리도 버스가 줄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돈이 안 된다고 버스를 예를 들어서 4대 왔던 거를 3대로 줄이고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순환하는 버스를 이제 하게 했는데 어르신들은 아마 병원 가기가 다 전주로 병원을 갔을 거예요. 아마 남부시장 그쪽으로 다 보니까 거의 주로 병원을 그쪽으로 다니시는데, 그때 많이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봤을 때,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 그 시간 텅 때문에.

김정섭 극장 청소년 쉼터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임희영 아예 없어서...

김정섭 없어서 있으면 좋겠다.

강미나 둔산리에 '휴시네마'라고 해가지고 있었어. 작은영화관이... 거기는 다른 극장이 9천 원 이 정도면 거기는 6천 원, 전에는 5천 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거든요. 역시 수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지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쉬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좀 많이 안타까웠다가 최근에 다시 열렸죠.

신덕영 청소년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삼레 시장 2층, 그쪽에 중학교 애들이 밤이랑 오후에 모여서 막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서 애들이 밤에 몰래 놀았던 거예요. 그게 신고가 들어가고 학교에도 알려지곤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 데가 없으니까 모여서 객사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논 다거나 (객사요?) 시내...

김정섭 전주시내...

신덕영 버스 타고 한 40분 걸려요. 거기를 간다거나 그냥 만나서 애들이 앉아서 얘기 할 공간도 없고. 그리고 애들이 그냥 편의점 앞에 추운데 이렇게 털털 떨고 앉아 있고. 저는 이제 작은 애들도 물론 문제인데 중학생 애들도 너무 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부모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더 비행 청소년을 양산하는 것 같아. 집단으로 모여 있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어른도 무서워요. 지나가려고 하면. (웃음)

김정섭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얘기 하는데도 피곤하시죠? 지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질문을 할 건데, 이 다음 질문은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닌 것. 초등학교, 중학교, 보건소, 또 뭐가 있나 경찰, 등등등 이런

공공 부문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쉬는 시간 동안 해보셨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지금... 여기 시계가 없구나. 지금부터 10분 뒤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김정섭 시작할까요?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영유아 보육 문제는 아까 다 얘기하셨다고 생각해서 안 쓰신 거죠? 사실은 저게 제일 많이 짝혀야 될 것 같은데.

강미나 아이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우리 때는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사라지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상황이 되어서...

박현지 저희는 막내가 5살 때니까 생겼더라고요. 근데 두 명밖에 없어요.

김정섭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뜻밖에 중고등학교 쪽에 여러 장이 붙어 있거든요.

정은지 그때여서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김정섭 지금 상관은 학교가 중학교가 없습니까?

신덕영 있어요. 고등학교가 없고요. 중학교까지 있는데. 얘기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 중학교를 전주로 보낼까 해서 시택에 있는 주소를 옮길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배우는 건 똑같잖아. 본인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신앙은 내보내자고 했는데 저는 그냥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친구 만나면 좋기는 하나 공부 뭇은 제 뭇이니 그냥 여기서 선생님도 그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있었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건데, 고등학교 이제 이 친구 엄마 말 들어보니까 이제 중3이니까 이제 내년이 고등학교잖아요. 상관을 나가야 되잖아요, 얘기가. 고등학교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인문계 공부를 해서 자기 성적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농어촌 혜택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인문계 공부를 해야 되는지. 특성화 고등학교를 내가 지원실에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박현지 완주군에 고등학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다 전통학교, 특성화 뭐 이런 거잖아요.

마상진 완주에 인문계 없어요?

신덕영 있는데 후기 고등학교나, 대안학교...

마상진 농어촌 전형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없다고 한 건가요?

신덕영 있죠. 한별고도 있고... 있긴 있죠.

마상진 그건 이제 특수 목적?

신덕영 아니 일반고요.

김정섭 일반고인데 숫자가 되게 적은 모양이죠.

신덕영 일반고를 이제 농어촌 혜택을 받아서 점수 특혜 받아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마상진 예 그런 학교는 있죠.

신덕영 있기는... 전주로 나가는 대부분.

마상진 전주로 나가면 농어촌 전형이 안 되니까.

정은지 지역을 바꿔야 되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저희 부모는 고산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학교거든요. 거기가. 거기도 이제 대안학교다 보니까 규모 수는 이제 아이들이 적고 그래서. 어차피 그 적은 수로 애가 학교를 다니니까 조금 이제 그 인문계 아이들 친구들 많은 전주로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농어촌 전형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낼까도 생각은 하는데, 그건 부모의 생각인 거고 선택은 또 자녀의 몫이라 지금 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부터 자기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고. 엄마 굉장히 안일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이제...

김정섭 상관에서 고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전주나 상관에 있는 고등학교가 없으면 다닐 수는 있어요?

정은지 다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전주로는 다닐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가까운 거는 교통편이 좋은 거는 전고. 이런 쪽인데 100% 전고를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먼 거리로 또 갈 수 있는 학교가 또 또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교통편이 굉장히 힘들죠. 진짜 꼭두새벽부터 가가지고 두 번 버스를 갈아타느냐, 아니면 부모가 3년 내내 픽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항상 항상 그래서 고민하는 것 같아.

박현지 그래서 저도 아예 생각 없이 저희는 고산이 거기도 40분 50분 거리예요. 기숙사라서 아이 생각 없이 아이가 편리하려면 기숙사에 넣고 (맞아요.) 그 수밖에 없어요.

김정섭 고산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박현지 그게 대안학교예요.

마상진 그러니까 일반 공립 고등학교는 없다고요?

강미나 삼례에는 한별고가 있는데 여학교고요. 그 남학생 부모님들이 보낼 학교가 없는 거고 봉동에 완주고가 있는데 한별고나 완주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전주 인문계에서 탈락한 아이들이 대부분 왔던 그 고등학교라는 이미지가 커가지고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도 많고. 간혹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에서 내신 따기 위해서 왔다가 서울대를 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김정섭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가거든요. 저희 당장 2명을 대학을 작년까지 보내갖고 완주의 특성이 있어요. 고산에 있는 고등학교도 지금은 평가가 좋지만 20년 전에는 고산도 거기 있는 학교도 전주에서 성적이 안 되거나 문제 있는 애들이 오는 학교로. 그러니까 완주가 전주를 싸고 있어서 고등학교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산은 그 뒤로 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학교가 많이 달라진 거고. 근데 완주고나 한별고는 아직 그런 상태인 거다...

박현지 시별로 하나씩 인문계가 하나씩 있었으면 그게 바로... 초등학교는 이 아이가 없어도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시에다가 그러니까 면 단위로 하나씩은 아니면 두 개의 면 단위에 하나씩은 인문계가 있으면...

김정섭 그쵸 계속 이제 부모가 그 군에 살고 있을 동력이 되는 거죠.

정은지 100% 되죠.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나가도 전주니까, 네...

마상진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핵심이 되는 정책을 하나씩 이제 제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계속 살게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등학교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정은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학교가 없고.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도 거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상관면에서

도 찾아보기 나중에는 없을 정도가 될 상황이에요.

김정섭 그다음에 또 많이 써 붙여주신 게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근데 뭐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정은지 저는 아파트가 아니어서요. 주택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무조건 옛날에는 이제 태우셨고 소각 소각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불법이라고 자꾸 이제 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들 조심스러워서 날이 닳으면 그렇게 태우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르신들이 있었을 때는 이제 태우셨는데 다 나이가 드시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입에 입구 들어가는 초입에 거기다 쓰레기를 넣어요. 이게 일주일이라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도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제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놓고 하나씩 근데 그나마 그거는 주 1회도 괜찮은데 음식물은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은 안 가져가기 때문에 땅을 파고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다가 버리고 올 수는 없는 거 양심상의 문제라.

신덕영 저희 할머니들이 바케스(양동이)에다가 담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서 버리고 가시고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랬는데 아시는가 봐요. 니가 왜 여기다 버리냐고 할머니가...) 알고도 다 그냥 모른 척하시더라고요.

배나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불편한... 네. 음식물은 좀 그렇습니다. 진짜...

박현지 힘들겠어요. 그냥 밭에서 버려요.

박민혜 획 던져버려야지.

배나운 밭에다 버리기에 되게 애매한... 저희가 사는 곳이 네네네 (아 밭이 없어...) 앞에 그냥 다 잔디 이런 쪽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버릴 수 있는 게 이제 마땅치 않아서 저희는 이제 저운 창고에다 제가 거기다 쌓아놔요. 일단은 급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버리긴 하지만 일단 식으로 해...

김정섭 지금 소방대가 아까 누가 적어주셨는데.

강미나 여기 삼례에 소방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가 적어지다 보니 삼봉이 큰 소방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불이 나면

저쪽에서 출동을 해야 되니까 시간 문제도 있고. 봄철 같은 땀 많이 태우시거든요. 부위 부위에 막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박현지 2년 전만 해도 경찰관이 상주를 하셨는데 2년... 경찰관이 없어요. 인구가 없다고.

김정섭 그러니까 지서라고 그러죠. 지서 건물만 있고 거기에 이제 상근은 안 하고 가끔 어디서.

박현지 순찰만. 소양에서 순찰만...

김정섭 소양지서에 있는 분이 그러고. 이 동네 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나요?

박현지 그것 때문에 많이 말은 하는 것 같아요. 면에다 이거 사건이 없어서 그런 거지.

김정섭 경찰 예산도 줄어서요. 계속 그래왔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경찰 순찰을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신문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와서 농촌에 순찰을 줄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경찰청에 전화해보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공공 부문도 인구가 적은 곳에서 안 하죠. 돈이 모자라면.

박현지 전체적으로 인구도 다 주는 이유가 젊은 부부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시골까지 안 들어온 이유는 이런 편의시설도 없으니까. 굳이 굳이 그리고 일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악화되는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김정섭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적어주셨어요. 경로당 얘기를 누가 적어주셨는데...

배나운 제가 노인분들이 항상 있었던 곳이 이 경로당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여서 식사도 하시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없고 이제 다 이제 점차 매년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청소할 사람이 필요하고 밥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것도 너무 귀찮으신 거야. 결론은 이게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 보니 이제 또 몇 명 되지 않으시니까 이 노인분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않으시더라고. 차라리 내가 가서 밥을 못 할 거면 그냥 각자 집에서 그냥 먹고 그러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독거노인처럼 자식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프신지 어머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뒷집 할머니가 연로하신데 원래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식사를 못 하시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냥 요양병원 요양 병원으로 모시는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시설도 솔직히 얘기하면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다른 이제 임실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돈을 주고 식사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해주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용해 봤자 한두 분 계시니까 아 예 그거에 자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보면 인구 대비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김정섭 또 다른 거 적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많이 불편한 거라고 적지 않았지만 미용봉사라고 적으셨죠? 그 얘기를 해주세요. 미용봉사?

박민혜 아니 뭐 미용실 한번 가려면 버스 타고 어디 가야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못 가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늘려서 우리 동네 좀 와 줬으면 해서. 어르신들은 나가기 불편하잖아요. 추울 것 같아서.

김정섭 작년에 소양면에서 미용봉사를 6번 했어요.

박민혜 누군지 한 번도 못 봤어.

김정섭 6번 했고. 처음에는 면사무소 앞에 그러니까 미용사 데려와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보행기 내지는 유모차를 이렇게 할머니들이. 그게 한 100대 정도 주차를...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세 번째부터는 마을을 돌면서 그래서 거기는 좀 크게 하고 있어요. 미용봉사를.

박민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김정섭 하는 얘기가 유모차를 주차를 기가 막히게 다 하셔서. 어르신들이 그러면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있는데 보통은 전주로 나가셔야 되나요?

박민혜 산내도 나오려면 저희 동네 같은 거는 버스 타고 나가야 되니까 늦어도 또 한참 걸어 걸어가야 되고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었네요.

김정섭 아니 소양만. 아니 소양은 제가 아는 이유가 그거 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하는 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서관, 문화, 공연 이런 얘기 누가 적어주셨죠?

신덕영 근데 도서관이 되게 여기 골짜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공간도 없고. 도서관이 너무 멀어요. 솔직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차 타고 가는데 몇 번 잘못 들어가서 헤매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한 번 가는데. 그래도 도서관이 조금 이렇게 도심에 있으면 좀 크게 깨끗하고 어른도 가고 그래서 같이 아이들도 공부하고 도서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김정섭 문화시설 욕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극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신덕영 다 전주로 저희가 차 타고 나가야 되고 뭐 하나 배우려고 해도 (할 게 없어...) 그런 부분이 TV만 봐야 되니까 집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상관도 할 게 없잖아요.

임희영 상관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문화 시설에... (주말에도 어디 갈 곳도 없고. 딱히...) 애들이 그래서 다 버스 타고 나가더라고요. 전주 보면은 객사 가는 그 길 쪽에 보면 막 초등학생들 막 보면 저기 상관초 애들. 왜냐하면 애들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거진 반이 하나기 때문에 거진 애들이 다 위아래로 다 같은 학원을 태권도를 다닌다든지, 피아노를 다닌다든지, 이래서 보통은 얼굴이 눈에 익어서 보면 애들이 막 이렇게 떼지어서 주말에 막 이렇게 그제 보여요. 그제 애들이.

신덕영 어쨌든 반갑지 않나요? 우리 우리 누구. 어 반가워요.

김정섭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아까 처음 질문 때 다 그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봉상에는 없죠.

박현지 저희 아이가 5세 지나고 나서 어린이집이 생겼어요. 0세에서 이제 4세까지 받을 수...

김정섭 면사무소 근처에.

박현지 봉상초등학교 앞에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가 지금 병설로 다니지만 그전에는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낼 수도 없죠. 이미 아이가 나이가 있어서...

김정섭 지금 그 어린이집 운영은 되는 거 같아요?

박현지 네 하는데 두 명.

김정섭 두 명? 그게 어떤 계기로.

박현지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처음

에는 이제 병설에다가 조금 해달라고 같이 조금 선생님을 보충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청하고 이제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안 하다가 이제 거기 지역 의원 때문에 이제 설립은 됐는데 이미 아이는 커버렸어요.

김정섭 그러니까 두 명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박현지 근데 그전에는 아이가 꽤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이는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김정섭 거기도 금방 이제 없어지겠네.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무슨 복지기관 같은 겁니까? 아니면 개인?

임희영 아니 완주군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김정섭 군에서? 그러면 보육교사 인건비는 군에서 내주고 원래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어린이집 아이가 규정이 복잡하긴 한데 최소 11명 이상 있어야 보육교사 1명 월급을 줘요. 두 명인데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돈 받는 게 아니고 완주군청에서 돈 준다는 얘가지.

정은지 농어촌 특혜 뭐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이하여도 운영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에서...

김정섭 규정은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다 확인을 해봤는데 실상은 농어촌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안 돼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줄 수 있다. 근데 그거 하려면 신청을 하려면 시군에 보육위원회가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군청 담당자 위원회에서 우리 이거 해달라라고 의결을 하고. 그럼 해주느냐? 아니예요. 이걸 들고 도 보육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도지사가 싸인을 하면 그 시군에 어느 면회 거기는 인원은 안 돼도 인건비를 준다 이게 되는데 요새는 모르겠는데 제가 재작년에 전국에 그렇게 해서 하는 데를 봤더니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고, 다른 도는 그렇게까지 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군수가 그냥 내가 돈 줄게 이려고 막 이게 더 편하죠. 사실은. 삼례는 어린이집 같은 게 좀 있지 않아요?

정은지 또 있었고 저희 둘째가 다니던 유치원 사립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이 100명 미만 99명까지 받을 수 있는 꽤 큰 유치원이었고 근데 이게 3년 전에 폐원을 했어요. 그러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냐 막 이렇게 공황상태였는데 이것도 이제 3년이 지나다 보니 지금은 병설유치원조차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아이를 끌어

와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 없는 게 전에는 큰 문제였으나, 지금은 좀 적응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도 없으니까.

박현지 무더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시설이 없었을 때는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무더진 거예요. 없어도 생활하는 거에 불편하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진 않겠죠.

김정섭 그렇죠. 없으면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게 없으면 젊은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사 올 엄두를 못 내겠죠?

정은지 이렇게 농촌 내에서 인구로 이동했던 것 같아.

박현지 저쪽으로 역귀촌 하는 거 아니에요? 역귀촌.

김정섭 여기서 어디로 많이 갑니까? 삼례로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삼례 안에서?

정은지 여기 산내 읍내가 있고 또 산봉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임희영 군수님은 인구수 많이 늘어난다고 좋아 좋아하시던데.

정은지 이제 전주 시내에서 이렇게 산봉으로 오시는 분들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까지 있으니까 지낼 만하다 이런 의견이지만 지금 중학교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좀 있으면 나가야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연 유입된 인구들이 얼마나 정착할지는 좀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마상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 인프라가 되면은 여지는 있는데 다시 올 여지가 있는데 없으니까.

정은지 중고등학생이 되면 가까운 에코시티라든지 이런 데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김정섭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활동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 장사든 농사든 뭐가 됐든 그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이렇게 자기 집 얘기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돈 버는 일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말씀 농업적으로는 아까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그것도 없죠. 요새는 특히 그런 얘기하셨고. 또는 다른 분야 장사 같은 건 됩니까?

정은지 인구가 줄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감당 못해서 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김정섭 예를 들면 뭐 주변에 문 닫은 가게를 보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몇 년 사이에...

정은지 저희 친정엄마는 슈퍼를 하셨는데 진작 몇 수년 전에 닫으셨고요. 우석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학생 이모들이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말고는 별로 없어서 (이태원 같아..) 학기 중에 막 반짝 이용하는.

김정섭 아... 우석대 근처 상가들이.

마상진 우석대도 지금 학생이 많이 없어서.

정은지 그나마 외국인 교환 학생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섭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들 본인 집 말고도 같은 리에 주변에 옆집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좀 길게 보면 하여간 가족 구성이나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변했죠. 그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네 집들을 보면 그 안에 가족들이 누가 누가 살던 게 지금은 바뀌어 있고 관계들은 어떤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좀 남의 집 얘기라...

신덕영 자식과 같이 사는 동네 어르신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거의 없지 거의)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명절 때나 오지 솔직히 그렇게 거의 다 혼자 사시거나, 부부끼리만 그냥 사시거나. 대부분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저희도 저희 집만 3대. 다...)

김정섭 그래서 독거 가구나 자식 없이 두 부부만 사는 노인 가구들이 마을에 제일 숫자가 많겠죠? 거의 마을 주민의 80~90% 그러지 않습니까?

박현지 최근에 아쉬웠던 게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분이 치매 있으신데 자녀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요즘은 누가 부모 모시려고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왔다 갔다 하는데 자녀분들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위급한 상황이 오는데 그게 조금 마을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죠. 요양병원으로 가려고 해도 요양병원 비가 있잖아요. 그걸 책임을 못 지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뽑는 것 같아요.

김정섭 그 마을에서 뭐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의논 같은 것도. 의논하기도 거시기한가...

박현지 자녀분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김정섭 옆에서 보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치매가 많이 심하세요?

박현지 심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김정섭 이제 좀 심해지면 뭐 이제 집 나가서 길도 잃으실 수 있고 그럴 텐데.

박현지 아침 새벽에 밤에 막 돌아다니시니까.

김정섭 그렇게 해서 노인 독거가구나 노인 부부 가구만 대부분 남아가지고 마을에 뭐 여러 가지 변한 게 있습니까?

박현지 변한 것보다 예전에 그러니까 어른들 말로는 예전에는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는데...

김정섭 예를 들면 뭘 했다는 거죠 예전에?

박현지 같이 밥도... 이렇게 보름날 같은 경우도 같이 밥도 해먹고, 달집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이 조금 오지랖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마을 관련돼서 이제 행사를 하긴 했어도 이제 마을 주민들끼리 그 어르신들끼리는 으 싸으 싸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김정섭 예를 들면 무슨 행사를 최근에 하셨습니까?

박현지 떡국 먹은 것 같아요. 어른들. 근데 저희는 일 때문에 이제... 떡국 드시러 왔대요. 아 보름날에 찰밥 드시고.

김정섭 그렇게 해도 다 원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니까 분위기가 살지 않더라. (네네...) 이제 마을 말고도 읍면으로 보면 또는 군 단위에서. 군 단위 그렇고 읍면에서 농촌에 원래 예전에는 이러저러한 조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리만 봐도 기본적으로 몇 개 깔고 가잖아요.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그다음에 4H. 이런 것도 있고 면으로 올라오면 거기에 몇 개 더 붙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굉장히 조직이 많고 이게 보통 도시하고는 다르게 그런 주민들의 전통적인 조직들. 물론 이제 최근에 생겨난 조직들도 있을 텐데 이런 주민들 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그랬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한 몇 년 사이에 한 10여 년 사이에 그런 조직들 지역사회 활동 분위기 이런 거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느끼십니까? 사람은 줄곧 고령화돼서...

배나운 많이 느끼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 몇 년에는 각 마을별로 이제 부녀회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부녀회장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 이제 맡을 수 있는 부녀회장이 없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 계시니까 거기에는 그 마을에는 부녀회장이 없으면 이게 이제 이 부녀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봉사도 있고 아니면 소금 같은 경우에도 다 마을 어르신들 이제 가구 별로 몇 포대씩이 필요한지 다 조사해가지고 다 이제 하는데 그것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또 하물며 이제 원래 20명의 부녀 회장님들이 계셨다고 하면 지금은 같은 12명, 13명 이렇게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이 조직들이 조직에서 하는 것들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김장 봉사랄지, 그다음에 마을 위해서 환경 이렇게 쓰레기 줍기랄지. 그다음에 뭐 상관 저희가 하는 게 상관면 행사할 때 음식을 만들어준다든가...

김정섭 예를 들면 면민 체육대회...

배나운 체육대회 할 때나 여러 이제 다른 이런 행사가 몇 개 있는데 있었는데, 그런 거 할 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그 뷔페 있잖아요. 왜냐면 돈들은 또 있으니까. 회비로 모은 돈들은 있으니까 뷔페식으로.

김정섭 출장 뷔페를...

배나운 출장뷔페로 해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만든 음식, 같이 어우러서 먹었다면 지금은 불러서 네, 그렇게 세팅이 된 음식을 서로 그냥 나누고 이렇게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김정섭 아까 소금 얘기하셨는데 그럼 군청에서 소금을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배나운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유통 경로는 모르겠는데 이제 농협에서 (농협에서 저렴한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소금을 살 수 없잖아요. 무거우니까. 다 각 가구에 전화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다...

김정섭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동네 부녀회장님 있으면 우리 동네 누구네 몇 kg, 몇 kg 이렇게 쪽 모아가지고 농협에 단체로 신청이라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부녀회장이 없는 동네는...

배나운 없으면 그거는 신청을 할 수도 없죠, 네...

박현지 영농회장님이 있는데 영농회장님이 따로 그거를 활동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배나운 그거를 원래 그 회장님이 조사를 해서 농협에...

김정섭 또 뭐 지역사회 조직이나 그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또 변화를 느끼는 다른 이야기들이 없을까요?

박현지 청년회가 60살이 넘어도 청년회더라고요. (요즘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손주 있어도 청년회고. 우리 기준은 청년회는 20~30대. 60대도 청년애들하고 청년에도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신랑도 이제 이제 마흔이 넘었는데 청년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환갑분들이... (웃음)

김정섭 청소년회를 만드세요. (웃음) 오늘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는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없어지는 것도 많고 동네 분위기도 그렇고 어르신들 노인 가구 문제도 있고 등등등등... 그중에서 각자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아니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얘기 안 한 게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계속 농촌에서 살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떠나야겠다.

박현지 돈이겠죠, 뭐. 전 대놓고 말해요. 돈 있어야... (웃음)

김정섭 아니 그거는 인구 변화하고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인구 변화 생각해서 이런 식의 인구 변화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효과들인데 그중에 제일 심각하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미래를 생각하면 해결을 해야 어떻게 지역이 좀 나아질 거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주세요.

신덕영 상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적이라는 게 의료 폐기물이 제일... 엄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상관을 떠나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솔직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을 봐서라도...

마상진 쾌적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농촌에 살고 싶은 건데 그게 없어져버리는 거...

신덕영 그러니까 학교 앞에 또 그거 있었잖아요. 레미콘 레미콘 회사도 이전시켜야 된다고. 그 먼지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저희 아파트도 학교 뒤편에 있는데도 베란다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닦아보면 그 시멘트가루 같은 그런 게 날라와요. 아이들이 그걸

먹고 공부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것도 막 플랜카드 걸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간 줄 알았더니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하겠어요?

박현지 주인도 그 가족일 거예요. 그럼요. 그...

김정섭 그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또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건 지역에서 사람이 적어서 그렇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다.

신덕영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라 너희도 그거 하는 사업하는 사람이야 배불리 먹고 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병만 연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생각을 50%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정은지 제가 좀 덧붙이자면 지금 전일환경 이거를 반대를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후원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셔야 되는 활동비가 있잖아요. 플랜카드도 달아야 되고, 군청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저희는 이제 그쪽에다가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허가를 안 해줬어요. 계속 저희가 이제 시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안 해줬다가 이제 계속 이 전일환경 측에서는 워싱턴 위원들을 움직이는 거죠. 로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로비가 들어왔냐면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조직에 있는 이제 아까 부녀회나 이장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한테 명절날이면 선물을 보내요.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의식 있는 분들은 반송을 하죠. 그러면 또 보내요. 또 반송을 하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최근 들어 거진 허가가 될 거라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저희가 이만한 이제 이걸로 '청정 지역 상관, 이대로 유지하게 해달라'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제 이름도 있고 저희 아이들 이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수막을 하나씩 짧게 하나씩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일환경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세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별로 움직임은 없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너네가 아무리 외쳐봐라, 나는 돈으로 여기를 살 것이다.

김정섭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면 하여간 정치적 파워도 같이 줄어들어 가지고 버티기 어려운 또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시는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가 될까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신덕영 저는 그래서 도시 말고 여기에 사는 거를 친구들에게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다 안 좋은 점만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도 친

구들한테 얘기하면 부러워하는 점은 이제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되게 무섭잖아요. 요즘에. 교통사고도 무섭고. 근데 그런 거에 많이 도시들이 문제 있는 거에 비해서는 여기는 아직 그런 거에는 조금 안전하고, 애들이 그냥 뛰어놀아도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런 부분에 많이 저는 좋은 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도시에서 솔직히 일자리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농촌은 일한 만큼 자기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점을 오히려 더 많이 부각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김정섭 박 선생님.

박민혜 농촌에서 지금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해먹고 살 게 없어 농사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좀 그래도 일자리가 좀 많아야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여기는 아직 이렇게 막 애들 데리고 살기는 좀 괜찮거든요. 시골은 그래서 좀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김정섭 그러니까 농사는 사람 없어도 땅이 있으면 물론 농사가 크면 사람이 없으면 힘들지만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종류의 일자리는, 예를 들면 상업은 사람들이 많아야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어쨌든 일거리 일거리는 많은데 일자리는 없고. 할 일이 할 일은 많은데 시골에 할 일은 많은데 그게 다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닌 것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걸 돈 받고 하는 일로 바꾸면 좀 나아지려나 이런 고민도 있긴 있습니다.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예를 들면 면민체육대회 하는데 예전엔 부녀회에서 다 싸들고 가서 국수 싸먹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힘들다고 하니 돈 걸어서 출장뷔페를 시키잖아요. 동네 분들이 부녀회가 출장뷔페 회사를 만들면 안 되나? 이거 15년 전에 강원도 화천에서 그렇게 한 팀을 본 적 있어요. 돈 많이 버시더라고.

신덕영 젊은 분들이 많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이 후다다해서 하는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니...

정은지 중간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중간층.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도 연로하시지만 부녀회를 떠나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놔두는 거예요. 유지는 조직은 유지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연령 분들이 좀 계셔야 되는데 그 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령층 그리고 그 40~50대분들은 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에는 맞벌이하기는 생계 유지가 힘들다 보니까 거진 일하시니까 그래서 출장뷔페 그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미나 저 시골에 있으면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케어를 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으면 애를 잠깐 보살펴줄 수 있고 재능 기부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알려줄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 같이 모이면 저기 고산 같은 경우는 육아공동체가 세워지고 이랬잖아요. 이런 게 쪽 연관이 되어지면 연계가 되어지면 농촌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아빠만 단독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가정 경제가 꾸려진다면, 엄마는 지역 사회 일과 육아를 하면서 지역을 다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학교에는 육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학부모 모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는 졸업식 각종 행사 입학식 이럴 때 도시에서는 업체를 불러서 하잖아요. 저희가 학부모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학부모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이런 작은 모임들이 뭔가 좀 어떤 단체나 실제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로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김정섭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인 것 같습니다?

박현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보다 최고 처음에 이제 다 똑같이 시골에 들어온 이유가 하나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들어온 아이 교육 때문에 다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게 심해서 연고를 진짜 한 달 분량 연고를 한 움큼을 사고 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그걸 다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 처분할 정도로. 아이 건강이 저는 그거는 자랑해요. 다른 건 다 힘들어도 진짜 아토피나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 건강은 진짜 환경밖에 없다고.

김정섭 그래서 그러니까 농촌이 굉장히 불편하고 살기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는 데는 좋은 환경이어서 왔는데 인구가 변하는 걸 보니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박현지 걱정이 돼 안 되겠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신랑이 제일 젊으니까 이장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5년 후면 아마 동네가 없어질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통합돼서 이장이 한 명으로. 아까 우스갯소리로 돈 이야기했지만 진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시골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반복적인 순환인 것 같아요. 악순환이...

정은지 그러니까 공동체의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연령층들 그거를 프로젝트 사업을 맡 수 있거나 아니면 발표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주체적으로 있어야 이 마을도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하는데 없어요.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또 따서 우리가 지금 요 마을에 활기를 한번 불어넣는 게 어떨까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진짜 사람들 막 우스갯소리 하는 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도 잘 무탈히 갔으면 이것 또한 감사한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멀리 예전에는 정말 멀리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상관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 또한 자꾸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일하러 맞벌이를 하러 일자리가 생기고 어찌고 이렇게 하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박현지 저희 신랑도 사업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배 아파하세요. 너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 돈 들고 내 시간 다 능력을 다 소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래서 더 발전하지도 않고 그냥 낙후되게...

김정섭 이제 좀 요약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이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죠. 와서 ‘이제 인구 고령화 저출생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렇게 여쭙봤더니 몇 분은 기분이나 느낌을 얘기하셨는데 대부분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기분이 아닌데, 그때 이제 쭉 다 기억나실 거예요. 나온 얘기가 아이 키우는 문제, 이런 쪽이 지금 인구 줄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써 붙여가면서 무엇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서 불편한 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것 중에는 가게의 문제, 점빵의 문제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고, 공공 부문에서는 뜻밖에도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학교가 지역의 고등학교가 이렇게 딱히 없다 보니 다 전주로 나가야 되고. 완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아니더라도 놀러 가거나 학원을 가려도 전주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 얘기해 주셨고... 일일이 다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상관을 같은 경우는 현재 당면한 문제가 인구가 줄어서 지역의 정치적 힘이 없다 보니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시설들이 강제적으로 떠밀려 들어올 판이고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그다음에 또 많은 젊은 사람 특히 비교적 젊은 분들이 완주에서 사는 거는 아기,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생각해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줄면 앞으로는 그것

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내일도 10시죠? 이 팀이 오늘 한 얘기에 이어서 내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 하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뭐 써오시는 건 아니구요. 오늘 쪽 들은 얘기를 돌아가셔서 생각을 하셔서 내일은 각자 한 두 가지 정도씩을 뭐냐 하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살고 계신 곳이 인구가 더 줄어들 거다, 더 고령화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에서 갑자기 우리 완주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엄청 늘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시나리오는 없다고 전제를 하고. 인구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지금보다 더 늘거나 더 줄어든다라는 전제 하에 5년이나 10년 뒤에 그래도 남아 있는 분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전제하에 더 힘들어질 거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것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5년 뒤에 10년 뒤에도 힘들어지겠지만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게 뭘까? 그게 무슨 시설일 수도 있고 무슨 서비스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뭐를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여유가 되시면 내일 토론할 내용은 뭐냐면, 각자 두 가지는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이렇게 생각해 오신 걸 가지고 의논하셔서 이 전체에서 두 가지를 정할 겁니다. 아마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가지를 유지시키려면 지역사회 주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나 완주군청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내일 좀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토론이 약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더 줄고 고령화돼도 꼭 유지해야 될 것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상태에서라도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거 이게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정도를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제가 빼먹고 안 한 게 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신덕영 상관중학교가 중학교는 있는데요. 식당이 없어요. (읍내에)

김정섭 읍내에? 학교 식당이 없다고요. 급식을...

신덕영 그래서 초등학교로 가서 급식을 먹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는 12시에 먹는 줄 알았더니, 3교시 끝나면 밥을 먹더라고요. 중학생들...

김정섭 먼저 먹고 비워줘야 초등학교.

신덕영 애들은 4시 반까지 수업을 하잖아요. 그전에 뭐 간식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이 배가 많이 고파라 해요. 그래서 상가 중학교에 식당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인원수가 부족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든지 부족한 거 되게 많잖아요. 이거 정부에서 다 해주면 다 해결되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안 해주니까 이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은 한 두 가지 정도 토론거리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내일 토론한다고 해서 거기서 토론이 잘 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대로 정부가 해주거나 완주 군수님이 해줄 리가 없습니다. 저희 보고서에만 조금 실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혹시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4

H그룹(완주군, 50세 이상 여성)

1. 개요

- 일시: 2024년 3월 13일(수), 14:00~17:00
- 장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완주경제센터 1층 배움터
- 참석자: 연구진 3명 외 완주군 거주 50세 이상 여성 7명

완주군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여성 주민들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주요 관심사는 농촌의 인프라 부족, 사회적 고립, 세대 간 갈등 등으로 인한 공동체의 변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주거 및 생활 편의시설 부족

주민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 마을 내 슈퍼마켓, 방앗간, 목욕탕 등의 편의시설이 사라져 생활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차량이 없는 고령층이 병원이나 상점에 가기 어려워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동형 편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2.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결속력 약화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마을의 기존 주민과 신규 이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며, 사회적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다. 젊은 세대와 기존 고령 세대 간의 소통 부족으로 지역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1.3. 농업 인력 부족 및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증가

지역 내 노동력 감소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해졌으며, 이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제기되었다. 농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 노인 복지와 돌봄 서비스의 한계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일부 계층을 제외한 고령자들은 이동목욕차나 기타 돌봄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요양원, 경로당, 공동생활시설

등 노인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1.5. 공공 서비스 접근성의 부족

공공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보건소, 경찰서, 치안센터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센터가 폐쇄되었고, 주민들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 보건소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1.6. 제안된 해결 방안

1.6.1. 기본 인프라 및 교통 서비스 강화

농촌 내 생활 편의를 위해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강화하고, 고령층이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생필품 편의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방문형 서비스나 공공교통 확충을 통해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1.6.2.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소통 및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 인구와 기존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세대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이주민과 토박이 주민 간의 상호 교류가 가능한 모임과 공동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6.3. 지역사회 리더 양성 및 지원

마을을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마을을 유지하고 결속력을 다질 필요가 있다.

1.6.4. 노인 돌봄 대책 마련

고령자를 위한 공동생활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요양보호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고령 인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5.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에서 노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마을 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2. 초점집단토론 내용

김정섭 오늘 이제 오늘하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요. 한 2시간 정도씩 오늘은 살고 계신 곳에서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애들은 안 태어나고 이러는 동안 지난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고 계신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얘기를 듣는 것이고요. 내일은 약간의 토론을 할 겁니다. 약간 심각한 토론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건데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귀농·귀촌도 있고 외지에서 인구도 오고 많이 오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아무리 귀농·귀촌을 많이 해도 인구가 지금보다 늘지는 않는다. 와야 될 서울에서 줄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늘고 있어서 늘지는 않고 물론 더 많이 줄을 거를 조금 덜 줄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인구를 늘리는 걸로는 늘릴 수는 없다. 앞으로 이게 농촌만 그

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를 늘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다. 이민을 봐줘도 소용 없다 그러고. 그러면 내일 얘기할 거는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 완주 지역 살고 계신 삼례나 동상이나 상반에서 그렇게 줄어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은 살 텐데 인구가 줄면 없어지거나 안 돌아가는 게 많은데 그렇게 인구가 줄어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거 한 두어 가지 정해놓고 그게 꼭 있게 만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종류의 토론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건 내일 얘기니까 오늘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오늘은 지나간 얘기 그동안 겪으셨던 그런 얘기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30초씩 성함하고 어디 살고 계시고 하시는 일 직업 같은 것도 좋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쪽부터 돌아가면서 한 30초씩 짧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숙진 안녕하세요. 저는 상관에 사는 배숙진이고요. 지금은 뭐 조그맣게 이렇게 농사짓고 우리 남편은 전주 시내로 일을 다니고. 어떻게 보면 전문 농업인은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관심사는 모든 게 다 관심사죠. 경제도 관심사고, 교육도 관심사고, 농촌에서 하는 일도 관심사예요. 이상입니다.

장정숙 안녕하세요. 저는 장정숙입니다. 상관에서 왔고요. 저는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 조경수 철쭉 같은 거 이런 거 참빗살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하고 있어요. 관심사는 그냥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한 번씩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성지순 안녕하세요. 저는 삼례읍 전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성지순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희 아기 아빠가 결혼, 그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6남매 중 막내인데 아버님 저희하고만 산다고 해서 제가 정말 직장 다니다 어렵게 와가지고 지금 농사를 한 40년 짓고 있어요. 40년 짓고 있는데 하는 일은 농사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 관심사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지금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세대가 정말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며느리도 없고. 보니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게 제일 큰 관심사... 감사합니다.

이주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여기 삼례 삼봉로 여기 삼례읍이죠. 삼례읍에서 태어나서 지금 제가 52살인데 지금까지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하는 일은 제가 지금 마을센터에서 광역사무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주군의 대부분의 마을 사업이 들어가는 마을에 이제 자금 이제 이장님들이 하지 못하는 이렇게 정산이나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저희 이제 광역사무장들이 지원하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은입니다.

구희은 안녕하세요. 저는 삼례에 사는 구희은입니다. 저 하는 일은 여기 저 2층에 제 사무실이 있고요. 저희는 찾아가는 연극을 하는 단체 대표로 가고 대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농사짓는 사람으로 온 건 아니고 이제 지역에 어렸든 오래 살았으니까 와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래도 관심사는 이제 아이들도 하고 저희가 아이들 찾아가는 공연도 하지만 어르신들 지역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했거든요. 좀 더 많은 지역의 그런 곳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확장시키는 일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현정 안녕하세요. 저는 동상면에서 온 이현정입니다. 저는 원래 전주에 살다가 여기 동상면으로 간 지 9년 차 됐는데요. 부모님 때문에 들어가게 됐어요. 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들어갔는데, 옆에 마침 아이들 관련된 꿈나무 관찰 체험학습장이라는 곳이 생겨서 거기서 같이 아이들 이렇게 이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행사 있어서 행사장도 가서 막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게 관심이 많이 생겼고 취미 활동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관심사가 됐습니다.

조순정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귀촌한 지 22년 차 되는 조순정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느꼈던 게 너무 가난하다는 거 농촌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 소득 경제에 기여할 수 없을까 이런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성과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집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동네 분들이 이제 다 일을 못하시는 유모차 부대가 되셨어요. 그 정도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거죠. 제가 들어올 때는 45가구 94명이었는데, 지금은 60분 정도죠. 그것도 주소만 이전해 놓고 실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주소가 있지만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귀촌하지만 세컨하우스로 다들 오세요. 실제로 농촌, 우리 농촌 사회가 형성되는 데 기여도는 별로 없죠, 그분들은. 그래서 요즘은 제 일하는 데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계해 나가야 되나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소리가 끊긴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한 7년 전에 귀촌한 젊은 친구 덕분에 이제 아이 소리가 들리긴 해요. 제 관심사는 어떡하면 농촌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될까 그 관심입니다.

김정섭 그 맥에서 하시는 일은 농사인거죠?

조순정 네 버섯 농사입니다.

김정섭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원래는 소개할 때 제가 농담도 좀 하고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해가지고요. 큰일 났다 지루하기 시작을 할 것 같아서 아직은 몸 푸는 단계입니다. 그 오늘 모임이 주제가 그런데 인구가 줄고 있다, 고령화, 저출생, 요새는 또 지방 소멸 이런 단어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얘기하셨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됩니까? 무슨 사실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 얘기는 좀 이따 계속할 거니까 기분이나 감정... 저출생, 고령화, 농촌 소멸,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구희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먹여 이제 거의 연금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김정섭 걱정인데 지금.

이주은 저는 고령화 이야기를 딱 들어 이제 제 이야기... 저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제 곧 예전엔 남의 일 이제 엄마의 어르신인 이런 일이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해야 될. 내 옆에 슬퍼요. 마음이 아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좀 그런 느낌이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정말 내일은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배숙진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시골로 남편하고 같이 내려왔거든요. 시어머니가 이제 혼자 사시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저희 동네에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내려오고 인구가 저희 잠깐 몇 년 사이에 좀 늘었어요. 왜냐면 계시던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집을 지어서 이제 들어와서 완전히 사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서 다 전주로 이제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는 돈을 안 벌고 그냥 소농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짐이 될까 이런 걱정이 그게 이제 제일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까운데 병원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아프면 전주 시내로 나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대도시로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겠다.

김정섭 다른 선생님들 어떤 기분인지...

성지순 저는 저희 마을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한 65가구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35가구 정도 거주를 해요. 근데 이제 그중에 80세 이상인 분들이 90%를 차지하고, 65세 이하는 10%... 그 정도가 됐어요. 그게 또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됐는데. 어르신

들을 보면 정말 지금 우리... 제가 완주군을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완주군이 참 이 북지 쪽으로는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르신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지지만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을에 그러니까 요양보호시설, 약간에 경로당을 요양보호시설로 해가지고 어른들이 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장 선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정숙 근데 지금 이제 저출생이다 보니까 진짜 동네에 지금 저희가 50대 지금 후반인데 저희가 지금 제일 어려워. 다 70~80대 이제 그분들이고. 그리고 집집마다 한 분 아니면 두 분 어떤 때는 진짜 전에는 저희가 이제 농사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동네분들을 많이 썼어요. 일을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모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짓는 데도 조금 문제점이 좀 있고.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혼자서 가끔씩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일할 때 외국 분들을 데려다 써요. 근데 이제 데려다 쓰면서도 저 혼자 생각으로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그 동물들처럼 일반 동물들처럼 우리 한국인이 멸종위기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김정섭 수고 많았습니다.

조순정 저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프랑스는 이제 저출산이 되니까 아주 이 고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건재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제 일하는데 일손이 없으니까 전주에서 불러다 써야 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이 있죠. 이제 농촌도 지금 면 단위에서 또 들어가면 리 단위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리 단위로 계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걸 벽을 깨부수고 이제 좀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노인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도 아스팔트 도로가 있는데 우리 마을이 밤티마을이에요. 도로 밑에는 이제 하울, 위에는 상륜. 근데 이제 아랫밤티 윗밤티인데 각각 회관이 있어요. 각각 회관이 있는데 아랫밤티가 제가 들어올 때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회관을 이용하는 분이 두 분이에요. 두 분인데 정부에서 기를 팡팡 넣어주죠. 그리고 윗밤티에는 아랫마을에 회관이 있으니까 사랑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저는 윗밤티에 속하니까 상반기에 3만 원, 하반기에 3만 원 관리비를 내야 돼요. 주민은 다 그런데 제가 “한번 통합을 하자” 그랬어요. “이거 불필요하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대주는 돈은 다 써야지, 이

건 잘못된 거다. 국가적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돈을 차라리 복지에 쓰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돌아오는 말이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이겨 먹으려 든다”고. 그런 말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특산품이 고종시예요. 우리 지방에. 감 따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감나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감 따기 위해서 이제 외부 인력, 외국인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저놈들이 저렇지.” 그거예요. 그래서 학습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걸 어른들이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젊은이들이 따라와” 이걸테 그거 틀을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일어나야 인식이 바뀌어야 내 동네 이 동네 없이 다 공동체의 느낌을 가지고 함께 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가 낳으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기잖아요. 그러면 애가 하원할 때 아기 받으러 나가려면 일하다 손을 놓고 우리 동네 애기도 전화해서 급하면 “누구 애기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애기 받는 대표, 대표적으로 아기 받으러 나가는 사람이예요. 우리 마을에 있는 애기가 귀하니까, 귀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걸 저는 우리 마을도 유닛 개념으로 지역 통합적으로 어른 서기 비어 있는 경로당 마을마다 다 두 분 네 분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걸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걸 그런 것을 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면은 고령화 문제도 서로 돌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른들 생각이 요양원으로 가시는 것을 ‘고려장’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세요. “저놈이 나를 고려장시켰다”고 맞아요. 현대판 고려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또 운동 능력이 없어지고 이 기억이 다 잊어버려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 그 정도쯤 되면은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되 내가 익숙한 지역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서로서로 돌봄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을 이 마을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동상면이면은 면 단위로 면 단위로 그런 공동체를 묶어서 관리 체계로 넘어가야 이제 고령화 문제가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김정섭 이현정 선생님은…

이현정 저는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대아수목원 고로쇠 축제할 때 군수님이 오셨어요. 군수님이 오셨는데 완주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상면에는 응애 소리가 안 들렸대, 올해”요. 그만큼 그래서 저출생 동상초등학교 얼마 전에 이제 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니고 옆에 얘기 때문에 갔는데 학생 수가 확실히 적어요. 그 애들이 정말 없다, 그걸 시골은 자꾸 고령화되고 애들은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다 외국인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하고. 아까 언니가 한 선생님 말한 것처럼 잘 이렇게 설명을

외국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안 하고 “그거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외국 사람들도 누가 와서 일을 하나 이거죠.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점점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진짜 이 시골 자체도 이게 이제 귀신같이 이렇게 집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고령화가 되니까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런 게 점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 도시나 도시처럼 시골도 이렇게 이제 찾아갈 수 있고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는데 점점 고령화가 되고 저출생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김정섭 그 시장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냥 소감을 여쭙았는데 벌써 설명을 다 해주셔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다 여기서 다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 10년 이상 사셨죠? 그러면 최소 10... 아무튼 10년 안 되시면 가장 처음 사셨을 때부터 한 10년 또는 더 오래되면 좋습니다. 15년 이렇게 아마 그동안 약간 인구가 살짝 늘었다가 이런 적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로 보면 인구가 줄고 더 고령화돼 왔을 테니, 그동안 마을이어도 좋고 자기가 사는 면이어도 괜찮습니다.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로 변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했을 텐데 그중에 딱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거 이렇게 변했다. 고령화되고 인구 줄면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한 1~2분 정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그럼 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동네에 슈퍼가 있었어요. 저 올 때만 해도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고령화가 되니까 돌아가시면서 슈퍼가 없어졌어요. (돌아가신 거 맞죠? / 돌 아가셨어요.) 그래서 슈퍼가 없어졌어요. 저희 마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옆에 중국집이 생겼어요. 엄청 좋아요. 먹고 싶은 갖고 이런 게 처음에는 “시골에 이거 왜 생겨 와서 장사를 할 수 있어?” 이제 막 그랬죠. 근데 와서 하니깐 웬만큼 사람들이 와서 먹어요. 맛있다고 저기 멀리서도 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옆에 그 체험장 관찰학습장이 생겨서 거기가 이제 오면서 애기가 있으니까 우리 마을이 인구 연령대가 확 내려갔어요. 젊은 부부가 또 와서 아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만 이제 변화가 좀 있었고 여튼 그랬습니다.

조순정 저는 이제 우리 면을 보면 우리 마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면을 보면요. 우리 면에는 이제 대아저수지 동상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수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물을 끼고 장사를 하죠. 상권 지역과 장사를 하지 않는 농업 지역으로 나뉘어요. 제가 20년 전에 들어올 때는 상권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물가에 평상 장사죠. 그리고 닭 백숙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나고 그쪽에서 성장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이제 다들 돌아가셨거나 2세가 들어와서 그걸 물려받아 하거나 매매로 들어오거나 이러니까 그

분들은 철저하게 이권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쪽은 뭐 시내처럼 네온사인인 있는 건 아닌데 물가 중심으로 거기는 돈이 돌아요. 근데 이쪽은 우리가 산악 지역인데 94%가 산이에요. 나머지 6%가 저기 농지인데 농지도 일조량 부족이고 척박하니까, 좋은 양질의 어떤 결실이 안 나와요. 그게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인데 이게 생활 수준 격차가 많이 나게 됐죠, 이제. 제가 들어올 때 하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생활수준이 제가 보니까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김정섭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세요.

이주은 저희 삼례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서 저희는 먼저 삼례여중과 삼례남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례남중 따로 여중 따로 있었는데-지금 여기가 남중자리 저희가 여중자리였는데- 이게 이제 통합돼서 삼례중으로 지금 여기 삼내 행정복지센터 그 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여기 삼례 제가 사는 이 공간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학교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는 삼례초, 중앙초, 동초가 있는데 이제 동초가 없어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청안초가 있었는데 저쪽 아파트 단지 속으로 그 학교는 없어지고, 자기 학교 건물들은 그대로 있고 학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학교들이 계속 옮겨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직도 그래도 여기 중앙초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숫자가 정말 줄어드는 게 예전에는 8~9반 있었는데 저희 이제 저희 때 아니고도 근데 지금은 2반 이렇게 줄고 이제 학교가 이제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여기 있다 보니 가장 눈에 띄게 이 지역에서는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배숙진 저희는 저가 사는 동네는 만덕산 아래라고 그래서 정말 저희 동네에 딱 들어오면은요. 빙 둘러 산이에요. 근데 저희가 세 마을을 합쳐서 마수대라 그래요. 근데 거기가 거리가 1.2km씩 떨어져 있어요. 마을당 그래서 세 마을을 합쳐서 마수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마을은 대웅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97년도에 시집을 이제 남편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어머니 혼자 계셔서 이제 저희가 귀촌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들어왔을 때는 어르신들이 거진 한 12분 정도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한 4분 정도?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분들 자리에 자식들이 들어와서 이제 귀촌으로 해서 이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다 보니 매번 이렇게 마을이 낮으면 조금 뭐라고 그러지 활기찼다고 해야 되나요? 모여서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도 하고 저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젊은 층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 다 나가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그러다 보니 낮에는 동네가 정말 아무도 없어요. 행하니

편요. 그런 데다가 대화가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 각자 씻고 저녁 먹고 생활하기 바쁘니, 이웃 간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일도 없고. 그러다 애기들도 또 커가지고 다 학교 간다고 외부로 다 나가게 되니. 아이들 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낮에는요. 할머니들도 병원 가신다고 가시잖아요. 어떨 때는 저 혼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동네에.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참 이제 앞으로 제가 만약에 나이가 더 들어서 아파가지고 저도 병원에 가면 우리 동네 정말 비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제일 큰 문제는 이웃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죠. 옛날에는 정말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고 이런 걸 다 아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모른다는 거지. 저 집에 누구 왔나 보다 이게 이제 무관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동네가.

이현정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전 먼저 웃긴 얘기 먼저 하나 더 할까요. 아까 마을에 이렇게 누가 있나 관심 있게 얘기했는데 저희도 이제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던 게 옆집 할머니가 문을 벌컥 벌컥 들어오셔서 저희 신랑이 이제 이렇게 문을 안 닫고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거실로 벌컥벌컥 들어오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하자 이렇게 문을 닫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정말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문을 잠금장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시골 분들은 당연한 건데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는 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아무 때나 막 진짜 옷 갈아입을 때도 막 돌아오시고 막 이러니까 그게 불편함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서울이나 저도 서울에도 살아보고 다 했지만 옆집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게 지금 현실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외지인을 반기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삼례는 진짜 뭐가 제일 많이 생긴 줄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촌에 관련, 인력사무소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저희 신랑도 이제 농사 양과 농사랑 막 짓고 해서 사람들을 쓸 때 다 한국인들이 왔어요. 아줌마들이 지금은 다 아줌마들이 한 명도 안 와요. 다 외국인들로 바뀌다 보니까 인력사무소가 없이는 연결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좀 먹는 것도 농사짓고 나서 대접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막 좀 저렴한 거 막 그런 거 막 하고 이렇게 백반집 이런 데에서 쟁반 들고 아니면 배달도 하고 차로 배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휴식 시간을 다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좀 많이 농촌이 문화가 그런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여기 삼례는 솔직히 인구가 감소하진 않았어요. 늘었어요. 삼봉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고,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그냥 알바로 농촌 그거 조사 한 번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 해전 같은 경우는 3모작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 부모님 대를 이어서 계속하고 해서 인구가 줄기는 줄었지만 그다지 여기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어

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외국인으로 대처가 되고. 또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 그런 일본 같은 경우들도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양복지사 대부분이 다 노인분들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

김정섭 요양보호사가 늘어난 것이?

장정숙 아니요.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일자리 그리고 어쨌든 노인 일자리를 많이 지금 학교에서 노인들이 노인분들이 아침에 안전 봉사 이런 것들도 해주시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예전에는 저희가 다 엄마들이 했었어요, 그 역할을. 근데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해주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약간 이제 용돈벌이를 할 수 있고. 엄마는 아침에 막 새벽같이 그거를 하려면 아이보다 더 일찍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그러면 아이도 막 새벽같이 같이 달려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정신없는 날인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 그 어른들 노인들의 일자리들은 계속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배숙진 어르신들이 너무 무료하게 지내시니까 사랑방이나 경로당 같은 데 왜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등급이 있어야 갈 수 있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요양보호사나 다른 그렇게 레크레이션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려서 취미생활을 하든 뭐를 얘기를 하든 그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좀 덜 무료해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도 보면 이제 저희 상담면 이렇게 학교를 보면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들어와요. 왜냐하면 학교가 조금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니까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교 될 때쯤이면 다 이사를 가요.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인구가 혹 빠져나가요. 그럼 저희 동네만 해도 버스가 시내버스가 다니다가 지금은 마을 버스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의 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버스 자체도 안 들어오지 않을까...

김정섭 장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동네가 어떻게 변하는 것 같습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장정숙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버스 타는 사람도 거의 빈 차로 다니고. 저는 저기 뭐야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있으니까 이제 젊은 층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한 번씩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아까 회관처럼 그런 데서, 이렇게 요양원도 갈 수 있지만 요양원 가기 전에 그냥 될 수 있으면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동네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한다든가, 이렇게 돌봤으면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김정섭 또 말씀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성지순 저는 이제 저희 삼례는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삼봉시가 생기면서 인구는 늘었어요. 한 2만 명 정도 늘었는데 그게 차이가 심해요. 빈부차가 아니라 마을별로. 제가 이제 부녀회 부녀회장을 하면서 연합회장을 했어요. 삼례읍에 그러니까 이 마을 70개 이상 마을을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돌며 돌며 이제 경로당 식사도 해드리고 참 행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면 너무... 물론 어른들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대접은 받아야 사실 맞아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서 볼 때 저희가 어르신들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이 정부 차원에서 어르신들 위주로 하잖아요. 저희 생각은 좀 젊은 층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나눔 봉사 삼례에서 밥도 40명 50명 해가지고 점심밥을 무료로 드리고 그런 것도 해보고 별 거 다 했는데, 받아서 드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고마움을 별로 못 느껴요. 별로 못 느껴요. 그리고 지금 삼례읍에서 나눔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무료로 드리거든요. 가게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셔서 가져가요. 몇 점 정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는데 “뭐 먹을 것도 없으면서 왜 가져가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가져가면서도 불만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리고 보면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알아요, 얼굴을. 다 잘 살아요. 서류상으로 정부에서 하나까 이거는 정말 사각지대는 못 받아 먹어요, 어르신들이. 사각지대는 못 봤고, 옛날에는 이장님들이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다 서류로 하잖아요. 서류로 그러니까 정말 사각지대는 받지를 못해요. 저희가 추첨을 하면 떨어져요, 서류에서. 왜 저희 마을만 봐도 기와집에 엄청 부자예요. 제가 볼 때 저희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집은 차상 쌀 2만원 짜리 타는 거예요.

김정섭 차상위(계층)자...

성지순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들도 잘 살아요. 다 찢어서 해놓고 가난해 그 집이... 땅도 많아요. 몇 필지 있어요? 근데 가난해요, 서류상으로. 정말 저희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이게 좀 평준화가 돼서 좀 다 똑같이...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어르신들은 고생은 했지만 조금 덜 드리고. 경로당 같은 데는 약간 요양원 수준의 공동 시설을, 생활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식사를 해드리는 그런 분들을 좀 두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렇게 추우니까 요양원 생활도 못해요. 요양원은 잘 돼 있지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가지를 못해요. 1년 동안 앓으실 거예요. 다 집에 계시고 거기서 그냥

1년 12달 먹고 사는 분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처음에 저 부녀회장 할 때는 뭐 조기도 사오고 라면도 사오고 경로당이 먹을 게 남아 돌아갔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쌀 주지, 뭐 계란 주지, 국수 주지, 하니까 자식들이 한 사람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저런 동상 같은 데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이 자식들이 경로당에서 당연히 하려니 해요. 부녀회장들이 밥 해야 되고, 모르시니 자녀한테 전화 해가지고 나 오늘 밥도 못 먹었다고 “경로당이 뭐 하는 경로당이나”고 전화도 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젊은 층으로 이렇게 맞벌이 부부나 어린이들 있는 그런 집들을 위주로 이걸 조금 나눠가지고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숙진 서류상으로는 하나씩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수당 받으려고 부모님을 퇴거를 해갖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데는 마치 리인데 주소는 전주시로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아무 도움도 못 받아요. 서류상으로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나는 전주 사람이잖아요. 사랑방에를 가도 전주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같이 어울리지도 못해요.

성지순 그래서 이 싱크대 밑에가 이제 따뜻하잖아요. 불은 아까워 틀기는. 경로당 가기는 왕따를 당해서요.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저희 마을에 저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 집이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다 가져가요. 가져가고 엄마는 경로당 가자니 좀 경로당 생활도 이 성격이 원활해야 잘 하는데 좀 어르신들이 보면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생활을 못 하면 혼자 집에 있게 되는데 생활관리사들이 물론 요새 많이 있잖아요. 돌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휴일에는 생활관리사들이 안 와요. 그럴 때 저희 마을에 싱크대 밑에서 추우니까 이제 자꾸 그리 들어가서 누워 있다가 얼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장정숙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은 식사를 부녀회장님이 준비도 하고 마을에서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식사비 인건비로 지급이 마을 경로당에서…

성지순 아니, 전혀 안 돼요.

장정숙 3만 원씩 인건비 인건비 지급되고…

성지순 근데 그걸 지급을 되는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받고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왜 돈 받고 하면서 반찬도 이러나” 또 돈 받고 하니까 다 와요, 다 와. 10명 먹다 30명…

장정숙 식자재까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김정섭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 복잡하고 복잡하긴 한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돈 안 받고 봉사로 계속하자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런 말이 나와서 인건비를 드리는데. 인건비를 주면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봉사가 아니잖아요. 또 “돈 받고 일하는 거니까 똑바로 해.” 좀 이제 그런 얘기가 전국 각자 경로당에서... 그래서 이게 “돈을 주는 게 맞냐, 안 주는 게 맞냐” 이게 동네마다 다르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 여기서 주민은 늙은 사람부터 아이까지 그냥 짝 다양하게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 텐데, 인구 줄고 그러면서 없어지는 게 많잖아요. 아까도 이제 누가 “슈퍼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누구든지 이제 시골에서 살아가려면 뭔가는 필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돈 주고 사든가 아니면 어떤 거는 돈 줄 필요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수나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학교 이런 거죠. 아니면 이제 뭐 라면 사 먹고 이런 거는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이번 질문은 돈 주고 사는 거에 관한 겁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인구 줄고 그래가지고 없어지면 이제 그 필요한 사람은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져서 불편해진 사람도 다를 겁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거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떤 종류에 예를 들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지면 뭐가 불편해지고 여자분들은 뭐가 없어지면 불편해지고 돈 주고 해결해야 될 것 중에 없어져서 불편해졌다, 이런 것들을 여기 파란색 좀 큰 볼펜으로 1인당 몇 개씩 적어주셔도 됩니다. 2~3개씩.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뭐가 없어져서 불편해졌다. 내 얘기도 적고 동네 사람 다른 사람도 좋고 그런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장에 하나씩 그래서 그걸 어디다 붙여놓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김정섭 보통은 뭐가 없어져도 차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주변에 이제 다른 집들 보면 짐작이 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완주는 덜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충청도 어디 가서 했는데 거기는 다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난 깜짝 놀란 게 방앗간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

조순정 예를 들어서 관에서 고추 빵는다 그러면 “오늘 고추 빵을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몇 시에 준비해 주세요.” 하면은 차가 와서 싹 실어 가서 딱 와서 갖다줘요. 기름 짠다 그러면은 기름을 다 짜서 갖다준다는 말이에요.

김정섭 방앗간이 없어도 되네.

조순정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떡 한다 그러면 떡도 가서 싹 해주고 싹 갖다 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없었어 없어...

허주녕 보니까 저런 서비스가 없어지는 게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네요.

장정숙 그러니까 지금 저걸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서비스 차량인 거잖아요. 약간 이동 그런 거는 약간의 고용 식으로 해서 물건 필요한 물품들을 군내나 이런 데에서 좀 지원을 해서 월급처럼 한다면 하실 분들 있지 않을까요?

배숙진 맞아요. 저희 동네는 '잡화트럭'이라고 그래서 식품부터 별 잡화, 그러니까 만물상이라고 해야 되죠. 그 트럭이 월요일마다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두부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쥐꼬끈이 파리 잡는다고 그런 것도 하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트럭이 어느 순간 안 들어와요.

성지순 안 들어온 건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팔기도 힘들어..

배숙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없어요. 없고 사랑방이 저희 동네가 하나 있고 경로당은 밑에 아래쪽 법정 관리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서 모여 야지... (땅만 있으면 / 땅도 없을뿐더러, 사야지 안정을...)

김정섭 결론은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 없어진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나.

배숙진 저희가 애초부터 그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도 땅을 사려고 마을 새마을이 돈도 다 모아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를 보시면 다 조경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르신들 자녀분이 와서 조경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놓으실 분도 없을뿐더러 내놓는다고 한들 또 어르신들이 거기까지는 멀어서 못 간다 이렇게 트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유아무야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방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처음에는 컨테이너를 갖다 댔어요. 근데 왜 중간층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80대 이상이라고 치면 60~70대의 그분들이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좀 시끄러웠어요. 그러니 군에서 여기 시끄럽다 그러니 갖고 갔어요. 다시 반납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빈집, 놓고 있는 집 거기를 사랑방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좀 원래는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총무나 회장은 젊은 층에 해도 상관없다 해서 예외를 두셨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 젊은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러블 있으니 젊은 사람이 나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김정섭 그거는 이제 사랑방이 없는 이유고. 그래서 잡화트럭은 한 언제쯤 안 오게 된 것 같습니까?

배숙진 한 2~3년 된 것 같아요.

김정섭 원래 가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숙진 그러니까 이제 가게 주인 (그 사장이 있어.) 그러니까 그 트럭에다가 사장 트럭 주인분이 그걸 싣고 월요일마다 들어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셨어.

김정섭 이유는 모르시고...

배숙진 이유는 모르죠.

성지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시는 분이 그 마을 트럭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돈을 잘 벌었어요. 정말 그런 동상... 예를 들어서 거의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다 돌았어요.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 서서히 경로당 지원, 고령화가 되면서 경로당에서 다 해결을 해요. 그러면 저희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미역을 팔잖아요. 하나만 사주시라고도 어른들 안 사요. 왜 뭐 하나 이거예요. 먹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경로당에서 다 해주니까 지원이 나오잖아. 한 달에 한 번씩.

구희은 근데 그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마을로 찾아가는 게 어르신들하고 하는 3회차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어르신들하고 같이 1, 2회차는 노래도 하고 뭐 하고. 3회차는 잔치를 마을 잔치를 벌여서 마을에 모든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연습하신 분들이 공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 했는데요. 경로당에 모이시는 분들 모이는 마을이 있고요. 안 모이는 마을도 상당히 많아요. 지어져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사용 안 하는 경로당도 진짜 많아서... 그런데는 이장, 부녀회장님들이 좀 문제지...

장정숙 그래서 그분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또 하나가 저도 트럭도 마찬가지로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렇게 경로당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저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농사... 나이가 드셔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대를 맞추기도 되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트럭 몇 시에 정확한 시간에... 그때 근데 일손 놓고 막 나오고 하지를 못하세요. 그분들의 습

성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더 장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아예 마을에 그런 부분들 몇 시에 딱 오니 공지 그렇게 해서 그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다면 좀 더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김정섭 아무튼 이렇게 교통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서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은 노인분들은 저렇게 이동식 차량으로 실어갖고 가서 장사하는 게 있으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없어지니까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결국 이게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문제하고 연결되거든요. 사실은 차 타고 읍 내려가기 쉬우면야. 뭐...

이주은 근데 그러기에는 연령대들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마을에 80대만 돼도 젊은 편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100세 한 그러니까 98세 막 이런 분들도 있고 100세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을 분들이 돌봐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70대는 정말 거의 없어 아직 그래서 노령 아니라는 얘기에요. 70대도 젊은 측에 진짜...

김정섭 그 60대까지는 확실히 그렇고 70대 초반까지도 이동에는 불편이 없어, 자동차가 안 다녀도 별 문제 없으실 분들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써주는 게 버스...

장정숙 버스가 이렇게 완주하고 지금 전주시키고 갈라져서 부릉부릉을 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양에 나와서 소양에서 어르신들이 갈아서 타고 전주로 나가야 돼요.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대가 안 맞으면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김정섭 기다리는 것만 그럼 전주까지 가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려요.

장정숙 병원이라도 갔다가 이렇게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저는 부릉부릉버스가 저는 부르면 오는 버스인 줄 알았어요. 장애 이동 차량이 그런 거잖아요.

김정섭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배숙진 그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바빠서 못 나갈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학교에서 들어오면 스쿨버스를 놓치면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시간 전에 예약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수업시간에 전화를 못하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불편해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김정섭 이게 같은 완주 안에서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부릉부릉버스가 마을마다 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디는 지금 4시간 전에 예약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는

1시간 전 예약이고 어디는 “예약 없다.” 그냥 노선 버스 돌듯이 돌아다니고…

배숙진 시간대로 그냥 쪽 여기는 돌더라고요. 지금은 분리가 돼서 29명이 이장님이 계신다고 해요. 저도 이장 관둔 지가 참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동네를 다 돌아야요. 이 하나가. 그러면 그 동네에서 차가 없으면 전화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 기사님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불편해도 이 기사님 입장에서는 4시간이라는 게 이해는 가요. 근데 급한 경우에는 급하게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근데 또 뭐냐면 택시를 부르잖아요. (500원 택시 없어요?) 거기 없어요. 봉고차만 500원. 그러니까 그게 4시간 택시를 부르면 택시비가 어쩔 때 전주 시내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외요금을 받잖아요. 그럼 비싸요. 부르는 대로 줘야 돼요.

성지순 없지. 500원 택시가 없어요.

김정섭 보통 리에 하루에 버스 한 번만이라도 다니면 그거 안 해주는 데가 많습시다. 한 번도 안 와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동네는 안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한 번 온다고 안 해주고 바로 옆 동네 한 번도 안 온다고 해주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아무튼 노인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고.

배숙진 많이 불편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동안은 제가 119도 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하면 나가는 시간이 119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나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몇 번 제가 불렀더니 119에 제 전화번호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119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차 넘버를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가는 시간 119가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교동에서 들어와요. 전주. 그러면 상관면 벗어나서 저기 한옥마을 못 가서 약수터라고 옛날 좁은목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나요. 거기에서 만나면 거기에서 바뀌갖고 태워갖고 가요. 그게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 여기는 이제 절이 있어요. 근데 길이 하나에 이렇게 2차선도 아니고 일차선이에요. 그러면 급한 환자 같은 경우는 차들이 절에 오시는 손님들이 막 계속 오잖아요. 비킬 수가 없어요. 교행지도 별로 없어서. 그러면 지체가 되니까 119가 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119에서 알아요. 그러니 전화를 하면 “어디에서 만남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많이 불편하죠.

김정섭 그다음에 어르신들 말고 또 불편한 계층이 누가 있을까요? 불편한 사람. 버스 때문에 버스가 줄어서 불편할 만한 사람들이…

구희은 본인들이 운전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야 노선이 줄고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주말에는 운행을 안 하는 노선 시간대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막 1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중고등학생 말씀하시는 거죠?) 초등학생...

김정섭 초등학생들은 학교 버스 안 다녀요?

배숙진 안 다녀요. 저희도 있었는데 그거는 완전 시골만 그러고요. 삼례는 안 다녀요. 그게 있었는데 내도 한두 명 갖고는 그거는 학교에서 교육청 시설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 안 해주시는...

이현정 지금은 택시로 데리러 와요. 택시로 저희 동네 아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학교 스텝버스가 없어지고 택시가 들어오더라고요.

이현정 저희 아이는 버스...

김정섭 동상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닙니까?

이현정 초등학교는 버스가 와요. 학교 버스가 근데 중학교는 거기가 없어요. 중고등학교가 동상면에는 없어요. 중학교는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이제 갈라졌죠. 저쪽 저수지 있는 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은 소양중학교로 가고요. 저쪽은 고산중학교로 가거든요. 택시가 와요.

김정섭 택시 타고도 한 30~40분은 걸리게 생겼는데...

이현정 소양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첫 마을이라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배숙진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동상 쪽은 이제 고산도 가깝고 소양도 가깝잖아요. 근데 상관 같은 경우는 전주 시내가 더 가까워요. 그 전주 시내 그러니 완주군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변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 “조금 어떻게 보면 전주시하고 가깝잖아 니네.”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 조금 덜 올 수도 있죠. 많이 불편한 쪽으로 가다 보니...

장정숙 근데 동상면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동상면이 워낙 넓어서요. 저희 동네에서 고산까지 가는 데도 한참 걸려요. 오히려 전주 나가는 게 더 가까워요. 저희는.

김정섭 그다음에 또 누가 목욕탕이 없어서 있었는데 없어진 겁니까?

장정숙 코로나 때문에 부도났어요.

성지순 삼례뿐만 아니라 목욕탕은 거의 좀 대중 목욕탕은... 정부 차원에서 이걸 좀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김정섭 동상에는 목욕탕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조순정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목욕탕, 약국, 이발소... 이런 거 아예 없었어요.

장정숙 노인들은 이동 목욕차를 이용하시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김정섭 이동 목욕차도 노인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줍니다.

장정숙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건 다 어디나...

김정섭 상관에는 목욕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배숙진 한 10년 전에 생겼죠. 리조트에.

김정섭 아직도 있겠네요. 리조트에 있는 거면.

배숙진 아직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편백수. 근데 선생님 하시기가 힘들지. 좀 더 비싸지 그렇죠.

김정섭 아까 목욕탕 저거 써 붙이신 분이 누구시죠?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 저거 써 붙이신 건지...

성지순 목욕탕 일단은 집에 아무리 가정이 목욕탕이 있어도 씻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 같은 때는 어르신들이 물도 아깝고 전기세도 아깝고 엄청 춥고 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젊은 분들은 매일 거의 쉬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목욕탕이 없으니까 경로당에서도 목욕탕 시설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분이 씻으면 다 씻으 시려고 하나까 그건 제한이 돼 있어요. 거기가 다 거기서 씻으실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목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참 저 목욕탕이 저희 삼례뿐만 아니고 다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장정숙 봉동 같은 경우에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혹시 이렇게 지자체에서 차량으로 노인분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가요? 그런 것들이...

김정섭 작은 목욕탕이라고 그래서 한때 몇 년 전에 많이들 지어서 전국에 우리가 농촌 군을 한 열추 한 140개 정도 농촌 시나 군. 시지만 농촌이 있는 곳 그중에 작은 목욕탕 지은 곳이 한 읍면마다 다 짓지는 않았겠죠. 근데 군 안에 2~3개씩이라도 지은 데가 제가 알기로 한 40~50군데 정도는 돼요. 최근 십몇 년 사이에...

장정숙 어르신들을 한번 쪽 픽업해서 모셔다 드리고 끝나면 다시 픽업해드리는 서비스 같은 건...

허주녕 하는 데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성지순 그러니까 삼례가 있으면 할 수가 있지.

장정숙 그러니까 여기 완주는 그런 서비스를 안 하나요?

성지순 해. 봉동은 하잖아요.

장정숙 아니 봉동 말고 이렇게 조금 많이 봉동은 바로 자기네 동네니까...

성지순 언제부터 했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

김정섭 아무튼 목욕탕이 있어야 좀 모시고 태워서 가자. 목욕탕이 없으니... 혹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집에 담요나 이불 빨래 어떻게 하시는지는... (있어요, 빨래방은.)

성지순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각 읍면 단위로...

장정숙 있어요. 화산에도 있어.

김정섭 동상에도 있어요? 세탁소는 없잖아요. 상관에도 없을 것 같은데.

조순정 그걸 이제 면사무소에서 조율을 해서 언제쯤 우리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그 면사무소 앞에 그 세탁차가 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불을 들고 와서 빨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죠. 그 세탁기 그 트럭 안에 몇 대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떠나 모르겠어요.

김정섭 그 어르신들은 들고 면사무소 앞에까지 오기도 힘들 건데

성지순 아니 생활관리사들이 가져다가 빨아다가 집에 갖다가...

조순정 우리 동네는 부녀회장이 이제 들고 와서 빨아주는데 사랑의밥차 오듯이 그렇게 해서...

김정섭 대보름 행사는 누가...

조순정 제가 했는데 이제...

김정섭 많이 불편한 일은 아니죠.

조순정 불편한 건 아니고 좀 있다 이거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없어진 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들어와서 그 행사가 신났거든요. 제가 살던 곳에서 못 보던 곳이니깐 그때 이제 우리가 지역이 산악이다 보니까 이제 불러 넣는 것은 이제 면 단위의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불을 하나 넣고 다른 데는 불을 못 피우게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저녁에 불을 피우죠. 그리고 낮에는 회관에 모여서 종일 먹고 옛날얘기 하고 옷놀이 하고 그런 것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옛날얘기... '라떼는' 얘기를 하면서 저기 저기 산제당에서 내가 제를 지내러 갔는데 누구 박수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더라. 나는 북을 쳐주는 사람인데 나도 저거 신을 받으면 저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나도 신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막 전설의 고향처럼 막 해주셔요. 그럼 하루 종일 거기서 얘기를 들어도 이쪽에 한 무더기 이쪽에 한 무더기 여자는 여자들대로 이게 기우제 지내던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얘기들이잖아요. 우리 구전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유산들인데... 그게 지금 한 없어진 지 15년쯤 됐어요. 아쉬워요.

장정숙 맞아요. 마을로 제가 찾아가는 거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라떼는'을 우리도 했어요. 이제 어르신들 다 그 얘기 보름날 남편들을 다 그날은 풀어줬대요. 하루 그날은 그래서 다 그날 모여서 그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막걸리도 한잔 마시면서 막 이야기하고 했던 그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김정섭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할 건데요. 그 사이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좀 적어 놓고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때는 아까 사실 일부분 벌써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이 다음 시간에는 뭐냐 하면 국가나 군에서 해주는 것 학교, 보건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또는 없어졌다 그래서 누가 불편하다 이런 걸 좀 쉬는 시간 동안 잠깐 생각하셨다가 10분 뒤에 다시 써서 저기다 붙여놓고 또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성지순 행정이 책임지는 이 중에 많이 불편해진 것들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 이장님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엄마는 지금 다 오더라고 웃었는데...

배숙진 준공무원이잖아요.

성지순 그 돈 좀 좀 더 준다고 일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준공무원잖아요.) 이 그게 좀 그게 불편할 것 같네. 저는 이장은 아니지만...

성지순 행정에서 책임지는 거 불편한 건 별로 없어.

장정숙 솔직히 아까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 저는 그거에 되게 많이 공감해요. 우리 다 문화에 대해서도 솔직히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고 노인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키우는 그 복지가 별로 없어요. (정말요?) 응...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성지순 아니 그리고 아기가 있으면 이런 데 살기 힘들잖아. 일단. (그쵸) 애들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 당연한 거. 여기에 사는 대신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정숙 그러니까 뭔가 특색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특이 있어야지 이런 부동산 같은데 고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학교를 관리를 약간 일반 학교보다 조금 더 특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넣고 막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서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지금 1학년 입학생이 없는 학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그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6학년은 열 몇 명 이러면 1학년 2학년은 한두 명 밖에 안 돼.

성지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막 장농 같은 거 냉장고 못 쓰는 거 버릴 때 행정에서 그걸 스티커 사. 딱지, 스티커 받아오잖아요. 그거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쓰레기도 아니고 (폐가전수거?) 그거를 폐가전수거를 요새 잘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읍사무소에서 그 딱지만 갖다가 했어요. 지금은 딱지를 안 줘요.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많이 불편해진 거예요. (다같이 얘기)

김정섭 어르신들 돌봄 이런 건 별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장정숙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섭 오히려 좋아졌다. 예전에 비하면?

장정숙 오히려 그거는 이거는 행정의 문제일까요? 그 어르신들 그 차 차 차 아니 그거 뭐죠? 전동휠체어 그거 너무 개념 없이 타는 거. 그거에 대한 안전 교육. 그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이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일까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느 순간... 그 박스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여기 삼례에 늘었는데 교통을 다 방해해요. 심각할 정도로. 이거는 여기서 얘기를 해. 이 부분이 이제 어떤지, 행정에서...

김정섭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폐가전 제품이든 아니면 비닐하우스 차광막이든 영농 폐비닐... 폐도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조순정 우리 마을이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제 마을로 진입을 하려면 산을 넘어와야 돼요. 그게 옛날에는 버스가 다녔는데 비포장도로 그게 길이 이제 잡히면서 아스팔트가 생기니까 거기를 안 다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이제 차로 싣고 와서 거기다가 버려요. 이제 슬레이트, 냉장고, 소파... 이런 걸 버리고 가는데 이제 면사무소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 4년 전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나가서 우리가 우리가 동상면 들어가는 첫 번째 마을이니까 우리 마을에서 한 번 치웠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제 초도방문이 있을 때 “그 쓰레기를 치워달라, 우리가 나가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일정을 잡아야 되고 행정적으로 어찌고 어찌고...” 이런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화요일에 저기 우리가 저수지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 수변 전개에 환경 정화를 했어요. 환경 정화를 하면서 물가만 할 것이 아니라 동상면 초입인데 거기도 해주라 그랬더니 “거기는 또 인력도 없고 지원도 받아야 되고 차량 요청도 해야 되고...” 또 이유가 또 많더라고요. 이제 그게 우리 마을 초입인데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좀 들어가요. 많지는 않지만 그 들어가면 그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 타이어, 냉장고... 뭐 저기 덩치가 큰 그런 폐기물들이 와요. 거기에 그런 것들을 제때 제때 안 치워주니까 그 때돌 아래 아예 그럼 차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못 들어가게 봉이라도 좀 세우든지 갖다 버리는 사람이 문제겠지만은, 그 원천적으로 버릴 수 없게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김정섭 원래 시골에서는 특히 저수지 있고 그런 동네 마을은 낚시꾼들 와서 뭐 버리고 가고. 그냥 예전에도 행정하기도 전에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그냥 모여가지고 치우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큰 거 갖다 버리거나 또는 저수지 등산객이나 버리는 거를 마을 분들이 치우려고 해도 치울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성지순 들지도 못해요, 이제. 치울 데도 없고…

이주은 동네에서는 요새는 노인 일자리 해가지고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나마 그 이게 집 근처, 그런 데는 조금 깨끗하죠. 왜 이렇게 노인 일자리로 해서 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아까 옛날 도로나 저희는 만경강 발원샘이 있어요. 저희 동네는 거기에도 보면 막 진짜 음료수 팩 같은 거 있잖아요. 휴지를 주우려고 이렇게 보면 그 안에 파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렇게 막 버리고 가요. 우리는 안 좋잖아요. 거기는 또 발원지까지 있는데…

김정섭 하우스 차광막 얘기를…

장정숙 저희는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우스 농사를 해요. 나무지만... 근데 이제 그 검사 하다 보면 폐 자광막이 좀 많이 나와요. 저희 주변분들도 그러고 근데 전에 면에다 그걸 좀 수거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수거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김정섭 재활용이 안 된다.

장정숙 그래가지고 수거를 잘 안 해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소각을 해버리거나 옆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산속이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그 산이, 대부분 다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불이 날 위험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게 수거를 안 해다 주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잘 행정에서…

김정섭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다 늙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그런 건가요?

이주은 그것도 그렇고 마을에서 그렇게 태워버리는 일들이 있으니까 진짜 아무거나 다 태우셔서 검은 연기 엄청나게 태우시는 거는 그래 아직도 번번이 일어나더라고요.

김정섭 그제 어르신들이 태우시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텐데.

구희은 아니 저번에 제가 길을 갔다가 거기 이쪽에 저쪽 왕궁 가는 그쪽 길로 이렇게 가는데 정말 폐가전이면 몸에 엄청나게 쌓아놓은 걸 진짜 많이 쌓아놓은 거를 꺼면 연기가 막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했더니 그거를 어디 있냐 해서 제가 위치를 설명했더니, 그건 또 저쪽 담당이 또 넘어가고 거기서 또 하고 저보고 또 진술서를 그걸 또 써야...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하는 의미가 뭐지 약간 이걸 빨리 꺼서 이거를 해결해달라는 의미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바로 신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까다롭더라고요.

김정섭 그다음에 나온 게 보건소 가고 그런 일인데 이걸 주로 어르신들 얘기죠.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저기 붙이신 분?

이주은 네 저희 삼례는 보건소 차량이 이렇게 운행을 해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보건소가 이제 이제 저쪽 상봉 쪽으로 완전히 저쪽으로 들어가고 지금 차량 운행 또한 예전에는 그래도 보건소 차량만 기다리고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잘 운행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줄인 건지. 어르신들이 이제 그걸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해지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차량 운행이 이제 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보건소 차량이 좋지 않을까...

김정섭 노인 돌봄 분야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써놓은 건 무슨 얘기일까요?

조순정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복지사협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1년에 우리가 이제 군 예산을 170만 원을 받아요. (170만 원을?) 네, 170만 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 회원이 삼례 같은 경우에는 지사회 회원이 한 40명 되는데 우리는 16명이예요. 16명이 이제 연회비 10만 원 내면 160만 원에다가 170만 원 얻어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고 기부를 좀 받아와서 해요. 이제 우리 지역에는 사업체가 없다 보니까 기부받을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가 이제 없어지고 동상초등학교 하나만 남았는데 그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대안학교가 대안유학센터인가요? 대안학교가 아니라 유학센터가 있어서 이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오거나 그리고 가정환경이 돌볼 수 없는 아이들 거기다가 데려다 봐요. 그리고 할머니도 아니고 먼 친척 고모뻘 되는 분들이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면은 그런 게 사각지대가 돼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 2차적인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이제 우리들이 컴퓨터를 하나를 그쪽에서 아이가 컴퓨터를 하고 싶어 하니까 저기 해주고 싶는데 우리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각자 주머니에 또 풀이해서 재는 꼭 사주고 싶다 그러면은 동정심

에서 얼마씩 또 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각지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받는 분들은 또 받는데 너무 아까 익숙해졌다는 분 있었죠. 익숙해진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돌아보니까 그 혜택을 못 받으면서 자녀들이 다 있는데 안 돌보는 분 있잖아요. 허리가 좁혀서 노동력이 없는 분들도 이제 들어와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서류상으로 그랬잖아요. 서류상으로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동상면에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제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민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적 자원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미용실 한번 가려도 힘드니까 우리가 염색도 해드리고 하는데 헤어커트를 해드릴 분이 없어요. 커트를 해드릴 분이 없으니까, 커트는 모래내시장 가서서 하세요. 이제 이런 말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복지사가 있어서 발굽을 많이 하고 힘을 쓰지만 재정적인 거 돈만 있으면 다 많이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김정섭 군청의 예산이라는 건 또 다 서류상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이거 이러이런 것만 준다고 딱딱정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지금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신 거죠.

조순정 네, 그리고 저기 보건소 아까 의사 우리는 이제 보건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의사가 이제 대체복무 군인이죠. 그런데 차출을 많이 당해가요.

김정섭 지금도 올라가 있었어요.

조순정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부릉부릉을 타고 가요. 가면 배가 아파도 뭘 하나 받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헛걸음하고 오시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걸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김정섭 치안센터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조순정 치안센터도 우리 동네인데요. 제가 들어올 때는 파출소였어요. 파출소였는데 지구대로 바뀌면서 이제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분이 있었는데, 있으니까 좀 든든하죠. 마을에서 상주하는 분이 있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는 아예 빈 건물이에요. 이제 아예 치안센터를 폐쇄하겠다고 이제 그런 작년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기 사람이 꼭 와라.” 이러니까 “인력이 없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방문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소양에서 소양에서 이제 막 반짝반짝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오긴 해요.

구희은 평화로운 마을인가 보죠. (웃음)

조순정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CCTV...)

김정섭 119 얘기를 누가 써주셨죠?

배숙진 제가 '민원119'라고요.

김정섭 민원119, 예.

배숙진 전에는 군청에서 '민원119'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녔었어요. 직원분들이 몇 명 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관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 젊은 층이 어도 관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 형광등이 나가거나 스위치가 나가거나 가스 밸브를 교환을 해주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마을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점검을 해 주셨었거든요. 굳이 이 집을 교환을 안 해도 안전 점검차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시면서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김정섭 그거 만들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 제가 알거든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처음에.

배숙진 로컬푸드 생기기 전예요.

김정섭 그러니까 로컬푸드 생기기 전에 그 그룹이 준비하는 그룹이 얘기해서 이제 원래는 꼭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 3명 잡았어요. 3명 1명은 운전해야 되고 한 명은 뭐든지 잘 고치는 사람, 한 명은 이제 침이나 뜬이라든가 놓을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쪽 돌면서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니까 어르신들이 어디 다니기 어려우니까. 여름에 방충망을 고치래. 그 모기장 하나 창문에 갈아달라고 상관에 사는 분이 어디 완주읍이나 어디 거기에 전화해서 “우리 집에 와서 모기장 하나 방충망 달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그 하던 것도 몇 년 하다가 말은 거잖아요.

배숙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전화기 사용을 지금 2G폰이 거의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 뭐를 신청을 해라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어르신들이 할 줄 모르는 거 밀어서 받는 거 하고 문자 보내시는 것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드리면 이제 거기에 개인정보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본인 주민번호도 못 외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행정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인력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젊은 층이라고 해도 60대, 70대, 그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자꾸만 기기가 바뀌니까 쓰기가 어려운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거 해가지고 신청하라고 그러면 어느 분이 하겠어요? 그건 좀 행정 쪽에서도 문제를 좀... 그냥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섭 그런 거 저도 뭐 요새 식당 가면 돈 주고 말로 하면 되는데 뭘 자꾸 누르라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랑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보통은 예전에 지금처럼 스마트폰 안 쓰던 시대에는 특히 보통은 그러면 어르신도 잘 모르니까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가서 설명을 해주고 서류 같은 거 대신 만들어서 면 싸서 갖다주고 뭐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되는가 보죠. 요새는?

배숙진 그렇죠. 왜냐면 이장님도 마을뿐만 아니라 본인 생활이 있으시니까 일을 하시잖아요.

김정섭 어르신들은 많아요.

배숙진 그리고 또 저녁에 가시면 어르신들 대부분 주무시는데 또 이렇게 깨워가지고 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행정에서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경로당이나 사랑방에서 신청할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지면으로 갖고 와서 “이거 신청하세요.” 그래서 옮겨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정섭 아니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거 신청받아 대신 해주는 사람을 무슨 일자리 사업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예전에 민원119 하듯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군청 사이에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장정숙 아니 아직도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 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더 이제 더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정섭 그래서 행정하고 주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군청 업무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다 서류로만 하고 중간에서 도와줄 젊은 사람들은 마을에 별로 없고. 그런 얘가지 않습니까? 저 박스 수거 얘기는 어떤 겁니까?

장정숙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고요. 저는 자진 이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

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공무원들이나 은행원들이나 뭐나 그분이 오시면 그분에 대해서 거의 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 무언가 서류를 필요한 것들을 조금 많이 쉽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서류화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진짜 모든 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뭐 하나 다 이 나라 도우미를 하라 해썬고, 뭐를 하라고... 그거는 의미는 무슨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건 알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 진짜 뭐 이런 현대적인 거에 금방금방 습득하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솔직히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행정의 어려운 행정 서류 하나하나가 다 너무 어려운 절차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아까도 그 사각지대 얘기했지만 그 서류만으로 하다 보니 이걸 잘하는 사람은 재산을 다 이제 깨먹고 다 타 먹고 정말 모르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할 줄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저 주변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막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매달 오는 물품 제공 다 받고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재네가 저걸 받지? 하는 그런데.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걸 또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섭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대체로 고령이신가요?

장정숙 고령도 있고요. 다문화도 있고요. 또 저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까지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젊으신데도 그런 하는 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도 진짜 많고요.

배숙진 맞아 장애가 있으신데 등급이 안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가령 뭐 발가락이 하나 없다면 그런데 그 등급도 어느 부위까지 있어야 몇 등급이 나오고, 그 부위는 있으나 없으나 등급이 안 나와요. 이러시는 분들은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못 타 먹는다는 소리예요. 자기는 일도 못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되는...

장정숙 행정이 지금 행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김정섭 여담이지만 노인 요양 등급은 정부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양로원 가거나 노치원이라는 주간보호센터 가거나 요양보호사 왔다 갔다 하고 정부 일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들어가요. 섞여서...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관계없이 제가 힌트인데, 지방 시군이 돈이 없으면 등급을 잘 안 줘요. 딱딱하게 엄격하게 해요. 근데 그 기준 자체가 돈이 많으면 쉽게 다 등급을 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등급을 시켜주는 동네가 어디냐.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거든요. 그런 시나 구는 돈

이 없어서 안 이사 갈 필요가 없는 게 다른 동네 가서 그 동네 보건소 가서 등급을 받아 줘야...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치매가 심하셔서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등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거동은 하신다고. 그 이 정도면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 보건소 담당 간호사가 제 동창이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서울 가서 받아갖고 와라.

김정섭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제 써 붙이는 건 이제 끝났고 몇 가지 약간 좀 시간이 늦어지는데 계속 계속 가겠습니다. 아무튼 고령화 인구 감소 저출생 이런 게 계속되면서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업, 장사, 또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 있겠죠. 돈벌이 또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구희은 저출생은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심각한 경제에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이들이 폐교도 있지만 1학년 입학생들이 없는 학교들이 되게 많고.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6학년들은 그래도 인원이 10명 정도 열몇 명 있는데 1~2학년들은 한두 명 막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설은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 병설이 옛날에는 5, 6, 7세만 받았는데 지금은 0세부터 받을 정도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당연히 지금 발령 대기 발령자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사 저도 방과 후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이런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다 그것도 경제활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섭 방과 후 교사가 시골에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꽤 큰 뭐랄까 나름대로 꽤 의미 있는 일자리죠. 그게?

구희은 그런데 완주군에 조금 소학교는 그냥 기본 기본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예를 들어서 전주초나... 그래도 조금 크다는 학교들 여기 완주에서. 그리고 이제 완주에 있지만 방과 후를 전주나 익산도 하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아예 인당으로 받아요. 그러면 작년예 예를 들어서 50명을 수강했는데 올해는 절반이 수강되고 이런 정도의 그 타격이 굉장히 커요.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계도 굉장히 많이 타격이 크죠.

김정섭 그럴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 궁금해가지고 예산을 정부 예산 교육부 특별 교부금으로 돈이 다 내려오는 건데 강사비가 1년에 1조 4천억을 쓰더라고요. 전국에 방과 후 강사한테 가는 강사비가 거의 뭐 시군당 몇억 몇십억씩 1년에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줄면, 당연히 줄겠죠. 더군다나 인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농업 쪽에는 아까 뭐 좀 말씀하셨긴 했는데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느 정도로 어렵습니까?

장정숙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하실 분들이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력 사무실 가가지고 그 사람 데려다가 일을 하는 상황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던 것 같던데. 그 인건비 인건비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요.

조순정 아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저기 똑같이 시급을 줘라 해가지고 외국인도 올랐잖아요. 외국인이랑 내국인이랑 똑같아. 옛날에는 외국인은 정말 얼마 안 줬거든요. 한 100만 원, 100만 원도 안 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불과 2~3년 사이로 지금 똑같이 해주잖아요. 똑같이 외국인이어도 15만 원 주잖아요. 그쵸 저 참...

장정숙 근데 이제 농사에서 들어있는 수입은 한정적인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니까...

성지순 들어가는 인구는 많은데 판매조차도 안 되잖아.

김정섭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연령도 그러시고 동네 사시니까 옆집들 마을에 이렇게 쪽 대충 형편 보시면 아실 텐데 그 마을에 가족 구성이나 관계 가족들이 있었죠. 집집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배숙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시집 와가지고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아이들이 셋 그러니까 6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아이들 커서 다 각자 나가버리고 저희 둘만 남은 상황이죠. 집집마다 다 한 분, 아니면 두 분, 이렇게 계시고 그나마 한 분 계시던 분 돌아가시면 빈집에 자녀들이 이제 세컨하우스처럼 왔다 갔다 하고. 동네가 거의 비었다고 봐야죠. 그나마 이제 집을 지어서 다시 들어와서 살아도 직장 때문에 나가서 왔다 갔다 이제 출퇴근을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에서는 부모 모실 일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결혼 전 여성들이 조사를 하니까 제일로 1위가 이제 그 남편들의 성격을 보잖아요. 성격이더라고요. 1위가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부모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농촌에서 거의 다 부모 모시는 집들은 생활이 어려워요. 보면 그래요. 저희도 이제 보셨지만 근데 그런 부모를 모시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어른들을 좀 줄이고. 저는 자꾸 어른들 줄여라 하고서 뭐 나오면 표 못 얻어 지금은 표 받는 세대라 이렇게 작은 동상같은 데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삼례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서로 찍어달라고 많이 주는 게 많잖아

요, 사실. 정말 저는 그래요. 정말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이 이 정도면 (어른들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아니 근데 그 젊은 층이 시골에 들어와서 살 만한 여건이 안 되잖아요. 농사짓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성지순 아니 아니 100% 다르게 지원을 해줘 봐. (을 사람 있을까, 글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시골에 많이 들어와야 근데 너무... 농사는 기계로 거의 다 하니까)

배숙진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삼례나 봉동이나 이런 데는 넓잖아요. 삼례는 거의 논농사 자체가 없어요. 밭농사도 잘 안 돼 왜냐면 일조량이 짧아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밭농사, 조경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경수 이렇게 사람 들여와서 짓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1~2년 묵었다 3~4년 묵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 누가 뭐 이렇게 들여와서 젊은 층들이 고생해가면서 나 이거 이렇게 해 갖고 살아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계속 거기서 터 잡고 사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걸 해왔으니까 계속 앞으로 하겠다’ 이게 될 수는 있는데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외부에서 들여와서 나 이거 하겠다 절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싸 들고 와가지고 내가 까먹어가면서 배우겠다 이러면 또 모르죠.

김정섭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은 사실상 도시하고는 다르게 지역사회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마을마다 부녀회, 노인회, 청년을 최소한 이렇게 3개는 깔아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읍면에 가면 또 뭐 뭐 뭐 있고 옛날부터 그래 왔는데, 지금은 인구 상황이 이러니까 조직이 단체가 줄었거나 아니면 단체가 단체는 그대로 있지만 옛날 같지 않고, 활동하는 게. 또 면에서 이렇게 단체들이 같이 뭐 하는 일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새로 생긴 단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 여러 가지 단체들의 활동 또는 단체들이 같이 뭘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인구 줄고 고령화되면서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다 단체에서 무슨 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지금?

성지순 아까 선생님도 동상에서 복지사협의체 위원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부녀회 졸업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또 “복지사회부처에서 봉사하라”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 삼례 같은 경우는 45명이예요, 복지사회부처 위원어. 근데 이제 다른 데도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삼례같은 경우에 정말 지사 협의체 나눔 봉사 자체가 참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돈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가게마다 다 지원을 해요. 정말 제가 삼례 살면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는가 그런 걸 놀랄 정도로 그 나눔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제 생활보호대상자랑 어려우신 분들 사각지대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 나눔가게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또 갖다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갖다 드리려면 거의 다 안 드려도 돼요. 삼례는 잘 살아서 그런가? 아니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이 이 집은 이 정도는 안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서류상 그 집을 드려야 된다고요? 아니 저희 예를 들어서 96세 어르신이 혼자 살고 계세요. 그 집은 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 제가 올리면 떨어져 서류상... 점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 취약해지시는 분도 있어요. 자식들은 있지만 자식들도 잘 살지만 안 돌봐. 그럼 이제 저희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나씩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드리긴 하는데 정말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김정섭 삼례가 좀 특이한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 단체 활동들은 좀 어떻습니까? 다들... 예전 한 10년 전에 비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단체 활동들이...

배숙진 중간 나이대 분들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아예 이게 딱 나뉘었어요. 연령대가 많거나 아예 젊거나.

김정섭 중간 나이대라고 하면 50대?

배숙진 50대까지. 근데 이제 전에는 이렇게 30~40대분들이 같이 모임에 들어오면 중간에 이제 젊은 층하고 연세 드신 중간층에서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주셨죠, 소통이 되게. 왜냐하면 어르신들 고집이 있고 젊은 층들은 또 젊은 층만의 생각이 있고 색깔이 있으니까 이게 부딪힐 때가 많은데. 젊은 층들이 아니 중간층들이 이게 참 잘 저기를 보완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이분들이 없어지고 그냥 젊은 층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이렇게 딱 나뉘어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정섭 50~60대 중반층들이 없어진 거는 50~60대 인구 자체가 적은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바쁘셔서 단체 활동을 안 하시는...

배숙진 인구가 줄기도 하고 또 바쁘시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 나이 때 '하나둘 낳아서 잘 기르자'였고, 지금은 아예 이제 젊은 층은 하나 이렇게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좀 자녀들 대부분이 넷 다섯 여섯 이 정도였었잖아요. 그러니 중간에 저희같이 50~60대는 형제가 많아도 셋, 넷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의 둘이 많죠. 그리고 맞벌이잖아요. 남편이 벌고 저도 이제 신랑이 벌고 안식구가 벌고 그러니 단체 활동을 해도 잠깐 가서 얼굴 비추고 '나 참석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다시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이렇

계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장정숙 일 가는 것도 그렇고 그때가 손주가 어린 나이 때라고 해서 손주를 아예 그 딸네 집이나 가서 봐주시는 분들도 해서 이 집은 거의 이렇게 주말에만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50~60대가 가장 그분들이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대고. 왜냐하면 이제는 자녀들이 자기네들 뒷바라지 안 하는 우리 나이대들이 딱 그 나이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녀들도 약간 또 챙겨야 되고 약간 그런 나이대 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성지순 저희가 제일로 힘든 세상을 살아요. 부모님 모셨지, 자녀들 돌봐야지, 봉사해야지...

배숙진 이렇게 딱 보시면 저분은 70대 안 넘기게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에 70대가 딱 되면 이제 어떤 단체는 '70대 이상은 모임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봉사활동을 잘 못 하시고,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르신들도 나도 활동하고 이 활동할 수 있는데 나이 먹어서 서럽다 이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장정숙 그러면 이 지역 조직의 이 나이대가 중장년층이 지원을 가장 안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청년 지원, 노인 지원들이 있는데, 중장년층 지원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배숙진 근데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잖아.

장정숙 그러니까 진짜 그냥 봉사인데, 진짜 봉사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그거는.

성지순 어르신들 거 나눠주시라고 그래요. 요즘 저희도 거기야 봉사도 하지 그렇죠.

김정섭 거의 이제 끝마칠 때가 다가오는데 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내일 할 얘기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동네가 인구 변화 때문에 고령화되고 줄면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들었고 내일은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그중에서도 앞으로도 인구는 더 줄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제하에 그래도 이거는 꼭 해나가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인구가 줄었어도 이거는 지역사회가 유지를 해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다. 싶은 것들을 한 두어 가지를 뽑아가시고 그걸 중점적으로 그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를 돌아가셔서 좀 오늘 좀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앞으로 인구가 더 줄어도 지역사회에서 꼭 유지 해야 되거나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필요한 두 가지는 집에 가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도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던지는 질문은 오늘 나온 그 모든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이것이 가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뭘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단든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한 가지씩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순정 우리 지역을 보면은 이제 리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들어올 때 마을을 이끌던 분들하고 지금 현재 지금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있는 분하고는 이렇게 지금 세대교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라떼'가 남아 있어 가지고 쉽게 변화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빨리 변해야 삶이 달라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의 단체 조직도 제가 보니까 전에 마을에서 토착민들이 형성이 되어 왔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다 단합이 잘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귀촌인들이 많고 귀농인들이 많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단체에 들어가니까 이제 리더가 교체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져요. 리더 안에서 10명이 있으면 반반씩 이렇게 물 흐름이 갈라지거든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리더가 어떤 사고를 가지냐에 따라서 따라서 마을이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마을마다 특색이 있고 마을마다 추구하는 주민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걸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익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끊임없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정섭 마을에서 지금 하여간 사람도 줄고 고령화되고, 그 사이에 또 원래 토박이가 아닌 분들도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마을을 쪽 이끌고 나갈 지도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유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이 선생님은?

이주은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언니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저희 마을에도 대부분이거든요. 옛날에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가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을이 변화가 생기고 주도권이 바뀌는 거 그랬고.

김정섭 구 선생님은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인구 변화 앞으로도 계속 더 중요하게 한 번 더 따져봐

야 될 부분이라든지...

구희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이제 여기 완주군의 특색으로 본다면 완주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조금 살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좀 경치가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이주를 하거나 세컨하우스를 하거나 하는 그런 추세가 되게 많아요, 여기가. 그러면 저는 그것을 좀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지금 세컨하우스가 우리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우리 마을에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함으로써 좀 활성화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주민들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또 이주민들이 또 단절 약간 서로의 그런 교류의 장이 조금 많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해보니까 처음 보는 마을 분들끼리도 처음 보는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한 번 그렇게 교류를 하고 나니까 좀 더 오다가다 인사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여기 완주 지역의 특색상 삼례는 조금 예외이긴 한데, 완주 지역 특색 상 약간 그런 부분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좀 있어서 이주민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을 사람 우리 마을에 함께 주말에 와도 마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인정해주고 좀 더 어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섭 이 선생님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 감소가 계속 돼가지고 찌그러들 텐데 앞으로. 그 상황에서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이현정 저는 이제 처음부터 생각한 게 통합 돌봄이거든요, 사실. 이제 말씀 아까 경로당 예를 들었지만 이제 아이들 돌봄, 노인 돌봄을 마을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가 아닌 그런 의료며 주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 또한 적어지는데 그 아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돌봄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면 사실 꼭 다른 데 맡기지 않아도 우리 마을에 마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도시에서 아이들을 이제 그런 위험하게 생각하는 걱정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시골에서 더 효과적이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정섭 돌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숙제일 거다. 성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까?

성지순 저는 아까 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의 리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단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삼례같은 경우도 한 20개 정도는 아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마을 2~3개 있을 때보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소홀한 것들도 있어요, 이 단체가 많음으로 해서. 근데 왜 이렇게 단체는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마을에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되

면서 이장님들도 한계가 있어요, 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아끼 아빠가 이장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뭐 장례식이 생기면 다 모시고 가요. 고령화니까 못 가지잖아요. 예식장 가도 다 모시고 가고. 심지어 여기 행정에서 지금 직불제 같은 거 외상, 출하 다 서류적으로 하잖아요. 어른들 못해요. 이동 수단도 없어요. 다 이장님이 해야 되잖아요. 모시고 가서 해야 되고. 안 하면 옛날에는 이장님이 대신해서 갖다 드렸어요. 지금은 본인이 가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장도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다 모시고 가서 해와야 되고 어려워요. 그 중간에 그 중간에 이장 아닌, 부녀회장 아닌, 중간에 리더를 이런 정부 차원에서 좀 한 사람을, 그 봉급을 주면서라도 다른 데다 조금 아끼고 리더를 한 사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아요. 경로당 운영도 잘 되고. 마을별로 요양원 수준의 공동생활시설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절실하게...

김정섭 장 선생님은요?

장정숙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요양... 그런 걸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을의 지도자, 저희 애 아빠도 입양을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세대교체가 좀 되면서 이렇게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분열이 마을의 분열이 생기고 그래요. 지도자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김정섭 배숙진 선생님, 어떤 대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배숙진 저는 다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도 공동체 생활하고,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어르신들하고 젊은 층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만 혼자 계신 분들 많으니, 한 군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젊은 사람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우러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뭐 어르신이 아프면 모두가 같이 이렇게 거기에 어우러져서 이제 저기 할 수도 있는 거 케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잘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 똑같은 생각... (여러 사람 동조)

김정섭 한 분이 얘기하시니까 다 따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김정섭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꼭 얘기를 해야 된다. 오늘 주제와 이런 게 있을까요? 내일 다시 내일도 오시는데 이제 내일은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말씀드리면 오늘 특히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아까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머릿

속을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인구는 더 줄고 더 고령화될 거다. 그래도 남아 있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살고 계실 텐데 더 힘들지 않게 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분야가 뭐냐. 이거를 각자 2개씩 오시자마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분이 14개 나오는데, 겹치는 것도 있겠죠. 10년 뒤에 인구가 더 줄고 고령화될 텐데 그래도 살아가려면 꼭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두 가지. 그러면 겹치고 할 테니까 제 생각엔 한 7~8개가 나올 거예요. 같은 생각도 있으시니까. 그 7~8개를 가지고 의논을 하셔서 거기서 다시 2개를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2개를 뽑아가시고. 지금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은 뭘 해야 되고, 완주군청은 뭘 해야 되고 국가는 뭘 해야 되고. 이걸 의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좀 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인구가 줄고 고령화돼도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1등과 2등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서 내려오시면 되고요. 단 그 두 가지가 두 가지 했는데 거기서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인구 늘리자, 아기 많이 낳자, 귀농·귀촌 인구 늘리자 많이 데려오자” 이거는 대책이 아닙니다. 전제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전제 하에 줄어드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려면 꼭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두 가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5

F그룹(평창군, 50세 이상 남성)

1. 개요

- 일시: 2024년 3월 20일(수), 13:00~15:30
- 장소: 강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 참석자: 연구진 3명 외 평창군 거주 50세 이상 남성 8명

평창군의 50세 이상 남성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초점집단토론에서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지역 사회의 변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평창군은 교육 서비스와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 특히,

교육 문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유아기부터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평창에 남는 인구 대부분이 고령층이며, 이는 농촌 사회의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1.2.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며, 농업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국인의 농업 노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비용 증가와 여러 법적 제약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1.3. 농촌 생활의 불편

평창군 내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이 축소되어 고령층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 편의성이 떨어져 병원 이용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큰 제약이 있다.

1.4.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의 변화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인구가 감소했다. 그 때문에 관련 상업 시설(예: 완구점, 학원 등)이 문을 닫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취방과 상가도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으며, 동시에 평창군의 다양한 사회단체들도 인원 부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전통적 유대가 약화되고, 단체가 쇠퇴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1.5. 제안된 해결 방안

1.5.1. 관광 및 특화 산업 활성화

평창군의 자연환경과 지역 특색을 활용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젊은 층 유입을 촉진하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1.5.2.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

청년층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특히 지역 내 초·중·고교에 장학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평창 내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인구의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1.5.3. 노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 개선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평창군 내 의료기관을 보강하고, 교통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5.4. 지역 사회 조직의 통합과 효율화

지역 단체들이 인원 부족으로 인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들 사이에 회원들이 과도하게 중복해 가입되는 문제가 있다. 일부 단체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초점집단토론 내용

김정섭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얘기가 틀리니까 친하지 않으셔도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래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제가 모르니까 저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짧게 여기 아직 못 쓰고 계셔서 다 쓰신 분부터 그냥 뭐랄까 지금 성함하고 사는 읍면하고 하시는 일 직업 같은 거 지역에 어떤 일에 관심사가 있는지 그리고 짧게 한 30초 정도씩 쪽 돌아가면서 한번 해주시죠.

이영기 네 저는 이영기이고요. 사는 곳은 평창 종부리 운동장에 살고 있고요. 하는 일은 위탁 영농조합에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도 키우고. 관심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농촌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저가 30년 전에 어디 교육을 갔는데 어느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외국의 유명학자가 “전 세계에서 최고 빨리 없어질 나라로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30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논문이 나왔는데도 여태까지 될 했는지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가끔 외부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해오셨잖아요. 일단 촌에 있는 저도 교육 가서 들었는데 이런 일을 담당하시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인사를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저 정도로 끝내고...

김태기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김태기이고요. 제가 평창 봉평면 덕거리에 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이제 북방선 지역에서 개구리 양식을 하고 있어요. 개구리 양식한 지는 11년 됐고요. 시골에 살면서 주유소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만큼 소득도 좀 창출하고 그럴 수 있는 거 뭔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개구리가 그래도 가장 특색이 있고 하는 만큼 개구리는 배신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시골에서 그리고 연구도 합니다. 개구리에 대한 본성을... [개구리를] 또 길러야 되는데 자라는 과정을 터득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한덕 이름은 조한덕이고요. 저는 평창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창군에 거주한 지는 한 55년... 근대 생활만 빼면 여기서 상주를 하고 살았어요. 제가 살아보는 관점에서는 인원수는 점점 줄을 수밖에 자연 감소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모든 정책이 고령화하는데... (소음) 무모한 사람들은 요 근방 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한 번은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었어요. 어느 군수 선거 후보자가 한 번은 원주 쪽이나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다 인센티브를 준다, 향간에서 또 그런 얘기

가 있더라고요. 주거의 자유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점점 이제 저희가 평창읍에 있는데 한 결혼해서 애들이 한 5살, 6살만 되면 교육 때문에 다 원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니까 뭐 여기는 자꾸만 인구는 줄고 젊은 층은 빠지고 고령화가 되는 그런 입장이 시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해정 저는 이름은 임해정이고요. 진부에 살고 있으며 평창 중에 아마 제일 큰 마을 일 겁니다. 그 동네 이제 그 사시는 분이 한 천여 명 되는 동네니까 상당히 큰 동네죠. 그리고 하는 일은 이제 농업이 이제 주고요. 중소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심사는 저희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 후계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아주 관심사인데 막막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상입니다.

이균찬 예 반갑습니다. 저 이균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특히 우리 평창군이나 농업 현실이 어렵고 또 그야말로 이제 조금 전에도 내가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 평창군이 그래도 살기 좋은 곳으로 해서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이래서 그래도 젊은 층이 많을 줄 알았는데 50대 미만은, 50대 이하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전부 50대 이상이 90% 이상인니까 앞으로 10년 후면은 그 사람들이 60대가 10%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니까 참 앞으로는 우리 농촌이 진짜 비탈밭... 자그마한 밭들은 다 묵어서 방치가 되고 이런 실정으로 아마 농이고 늙다 보면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 먼 곳에서 우리 박사님들이 이 곳곳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이 좀 타개되었으면 하는 많은 좋은 안들이 나와서 또 정부의 정책에 시행이 되어서 이런 우리 평창같이 어렵고 또 그 젊은이들이 없는데 많이 또 찾아오고 저출산 그런 게 좀 해결되어서 이 나라에 이바지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훈상 저는 일어나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역시 이름은 박훈상입니다. 여기 저기 농업회의소, 저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사는 곳은 저는 봉평이고요. 또 하는 일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지원센터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새 관심사는 하여튼 농촌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채정 저는 이름은 김채정입니다. 서울에서 조그마한 목재 수입업을 하다가 14년 전에 귀향을 했습니다. 제 고향이 봉평이라. 귀향을 해서 지금 주는 농업 또 어업, 관광업. 어업이라는 것은 황태 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까지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관심사는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후계농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 저희 자식들이 농사지으러 올 사람도 없고. 그러면 사실 그거 뭐 농업

이 단절되잖아요. 그런 것이 제일 문제고. 점점 더 지역의 고령화만 돼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실제 전체 다 정년퇴직하고 그런 분만 오지. 뭐 일손 부족한데 일 농촌 일할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젊은 청년들이 와야 되는데 제일 관심사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빨리 태도를 바꿔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나 똑같이 우리 강원도 평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농촌지역 다 같은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좋은 토론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병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병입니다. 여기 평창에서 경종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사는 아니고 한 5천여 평 농사짓고 있고요. 현재는 관심 있는 분야는 제가 평창군의 로컬푸드 출하하는 생산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농산물이지만 그래도 제가 먹고살기에 신선한 지역민들한테 제공한다는 푸드 플랜을 이행하는데 좀 관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지금 아마 이제 농촌 소멸이나 지자체들이 이제 워낙 차이가 많고 그러니까 행정 체제도 재편한다고 어젠가 아마 인터넷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멸을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만 했지 올 것이 이제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후를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벌써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대응이나 대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심 있는 분야는 이런 이제 소멸 대응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지역 행정기관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에서 통제하고 있는 기관, 단체, 조직들... 이와 같은 것들도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살아있고, 세금만 먹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업 농업협동조합 조직, 지역 단위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게 지금 조합원들이 저희 이제 평창농협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200여 명 조합원이 있는데 10년 후에 70세 이하 조합원이 400명으로 푹 떨어집니다. 대화농협 같은 경우에 한 1,600여 명 정도 되는데 조합원이. 거기서 한 7년 정도 지나면 거의 500명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조합들 합병이나 하여튼 구조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또 오늘 같은 회의 자리가 마련이 돼 가지고 저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이제 내일 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토론은 안 하고. 그동안은 한 10년 또는 15년 평창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쪽 얘기 좀 해 주시면 되고. 내일은 앞으로 뭘 해야 할 건가. 이걸 좀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소개하고 나면 분위기 싸할까 봐 좀 “저출산 고령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냐”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싸한 것 같지 않고 벌써 후끈 달아올라서 저희도 좀 구체적으로 여쭙보기 전에 벌써 소개

하면서 많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구가 줄고, 노인들 많아지고, 퇴원하는 아이는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변한 것 같다, 대략적으로. 변한 모습을 딱 떠오르는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떠오르는 거 한 가지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순서 없이 그냥 먼저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임해정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제 살면서 조그만 빌라로 이제 이사를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이제 그 24가구 사는 빌라예요. 처음에 이사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출생 이제 가능한 인구 연령들이 한 3분의 2 정도 이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이제 괜찮구나, 애들 웃음소리도 나고 이래서 괜찮구나, 이랬더니까 오늘날 보니까 슬슬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출산 가능한 가구는 한 한두 가구만 남고. 다 강릉 아니면 원주 쪽으로 이제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참 심각하다. 이 지역이 이제 교육 문제도 교육 문제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마땅히 가질 직업이 없거든요. 직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교육도 애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 이제 조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조기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유치원 연령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시내로 이제 이주를 해가고. 직장은 이제 그 진부에 있어도 출퇴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나서도 이제는 때가 늦을 판인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살면서 느낀 걸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섭 교육 문제 때문에 강릉이나 원주, 아예 이제 평창군 밖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해정 아니 지금 조기 교육 때문에 애들 유치원 연령만 되면 떠나버려요. 한 30% 이상은 빠져나가 산다고 봐야 돼요. 심각하죠.

김정섭 초등학교 때부터요?

임해정 초등학교 들어가... 유치원 연령대면 떠난대요.

이주병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과연 거기 교육하고 여기 교육하고 차이가 나나.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는 큰 애는 머리가 나쁘고 원주 가서 고등학교 다니면 머리가 과연 좋아지냐.

김정섭 틀릴까요? 보통 초등학교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이는 나) (차이는

나는데)

김채정 평창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다고 서울 사대문 안에 대학 들어가지, 거기에 적응을 못해. 실력이 뒤처지니까 적응을 못 해. 과학고 나온 애들하고 같이 들어가도, 과학고 애들은 1년 빨리 저기 올라갈 수 있어도 촌에서 1등 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제자리 걸음으로 못 해요. 교육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따라가지 못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겪은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편은 어제도 그 어제도 의용소방대 다녀왔어요. 저도 의용소방대 20년 하다가 그만두고 방범대도 그만뒀는데. 평창읍이 20년 전에는 그런데 단체 가입하려면 기다렸어, 사람이 많아서. 근데 지금은 그때 인원수 반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인력이 없는 거야. 젊은 층이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현실로 지금 느껴지는 거야.

김정섭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김채정 이런 게 인원이 없으니까 순찰을 못 들 정도로...

이주병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에 이런 지금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가 37개 정도 됩니다. 주민이 8천 명 되는데 사회단체가 37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장사하고 또 관계가 되는 인원들은 한 명이, 한 명이 6~7개 단체까지 가입이 돼요. 그런데 단체 그러니까 어떤 단체 줄일 생각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 안 하고. 인원이 없어집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복잡화되고. 교육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지자체 예산에서 일정 %를 교육 예산으로 쓰잖아요. 근데 인원은 없어지고 폐교 위기에 돼 있고 하는데 예산은 넘쳐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원수가 주는 거에 비해서 지자체 예산은 올라가고 거기에 18% 정도는 쓰게 돼 있잖아요. 그걸 그냥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도 없는 학교가 완전히 그냥 공관이 돼 있습니다. 공관이. 조금 얼마 안 가면 그냥 다 없어지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도 신축하는 학교들도 몇 개 돼요, 평창군에. 그래서 정부 예산 사용이나 지자체 예산 사용하고 쓰게 돼 있다고 그래서 쓰지만은 정말 맞지 않는 돈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더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미탄에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에 학생 수는 4명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교직원들이 7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또 불쌍할 수가 있어요. 요 근방 한 10분 거리 되면 여기 이렇게 맞춰서 그거 해야 되는데 기존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교장은 한 명이 있어야 되고. 4명 학생이 올해 신입생이 없다고 하여튼간 그래서 1, 2, 3학년에 총 4명이예요. 그런 문제도 참 너무. 이제 어쨌든 간에 인원이 없으니까 저출산이라는 문제도 저희가 한 삼십몇 년 전 한 정책을 아주 심하게

했었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게 참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정책이 아직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도 그런 모든 정책이 지금 뭐든지 한 30년, 40년. 한 50년, 6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 10년 앞을 못 바라보고서는 모든 정책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 지금 와서 아마 인구 문제고 뭐든지 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정섭 지금 주로 학교 문제하고 의용소방대나 각종 사회단체 이런 변화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밖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이군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평창만 해도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박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이 평창은 해발 한 200에서부터 한 700~800의 고지를 갖고 있다 보니 우리 평창농협이 전국 한국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농업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이 줄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200고지에서부터 700~800고지에 농사를 짓다 보니 전국에서 할 수 있는 농사는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판이라 하는데. 우리 남도권을 조금 더하지마는 북부권에는 그래도 농사는 지을 만합니다. 농사를 지을 만하다는 것이 제가 이제 한 8천 평 농사를 짓습니다. 8천 평 농사를 짓는데 약 매출이 1억 한 5천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1억 좀 제하고 나면 한 1억 농사하는 수익 그 순수익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은 뭐 월급제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특히 신기리 같은 데 화훼를 하고. 화훼하고 파프리카 하는 사람은 매출이 한 50억까지 올라가 있는 농가도 있어요. 물론 이제 혼자 아니고 두 형제하고 아들 셋하고 다섯이 하는데. 집 안에 하는데 한 50억 올라가고 한 20억, 한 10억짜리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농사에 동참을 하고. 아버지 혼자 힘드니 와서 같이 해라 그러면 이거 물려받으면 뭐 밖에서 뭐 나무 밑에서 쪼달리게 월급쟁이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는 신기리 같은 데는 한 70~80%가 자녀분들이 와서 같이 농업을 하고. 또 저희 동네도 상당히 몇 사람이 자녀분들이 와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농사를 짓는 한 70이나 한 80 되신 분들도 농업을 일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 같으면 젊은이들이 와서 옆에 와서 일을 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많고 참 이려는데. 지금 젊은이 몇 사람들이 자기네가 또 농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들어와서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젊은이들이 적다 보니,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좀 한마디로 좀 쳐진다 할까. 아니면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적다 보니 그 사이에서 좀 농사짓는 게 더 어렵다. 또 젊은이 와서 손이 짧으니까 와서 도와주는 비율도 적어지고 자기네들은 뭐 혼자서 7~8만 평 500만

평 하다 보니 이거 이제 농가들도 봐줄 힘은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좀 극히 심하다. 고령화된 농가들이 어렵다. 어린 나이 많은 층끼리 올려 돌아가는 게 젊은 사람 할 일은 따로 있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한 5~6만 평, 10만 평 하다 보니 자기네끼리만 그런 데만 휩쓸리게 되지. 그 노인네들 좀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 농가들 나이 많은 고령층에서는 농사짓는 거라든가 삶이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진다, 이런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정 제가 사는 그 동네는 사실 괜찮은 동네입니다. 인구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줄고 봉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느는 마을하고 인구가 주는 마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나 하면은, 관광지화된 데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자꾸 줄니다. 전 몇 년 전에 저희 아는 분이 돌아가셔갖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농사 같은 것은 농지 팔기가 쉽습니다. 소규모 천 평, 이천 평 되는 거 누가 살라고도 안 해요. 그런 농지가 많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농지 취득 자격하는 건 그 제도부터 바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지금 내일 할 문제도 지금 제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단골 메뉴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 공직에 있다 서는 여유 자금 있어갖고 뭐 2~3천만 원 갖고서는 시골에다 땅 한 몇 평 사놨는데 불법 농지리 뭐 하니 해서는 자꾸 청문회에 나오잖아요. 난 그거 보면 참 왜 저렇게 살까 안쓰럽습니다.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땅도 좀 사고 주말에 와서 농사도 짓고, 지역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서 자꾸 정부에서 규제만 해대. 우리 농지사들 저기 취득하려면 요새 농지위원들이 서명을 해야 돼요. 이거 왜 부활시켰는지 몰라.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우선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지라도 조금이라도 고향에 가서 아, 그래나 저기 나이 더 먹으면 고향에 가서 텃밭 가꾸면서 좀 살고 있다 할 적에 마음대로 좀 취득할 수 해줘야 돼. 지금 시골농... 적은 소농들은 앞으로 자식들 안 오면 그다 누가 대농하는 사람들은 천 평이니 500평짜리는 경작하려고도 안 해요. 이러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빨리 패러다임을 바꿔주지 않으면 농촌 지역 소멸이 점점 더 빨리 가속화 다가온다. 그래서 저는 농지법도 그렇고 또 지역 특성을 살려서 정부 정책도 바뀌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이랑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야 돼. 관광 활성화 솔직히 평창군 같은 경우도 남부 지역이나 관광 활성화시킨 사례들 많습니다. 평창 지역도 비어들어가서 지자체들도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뭐 된다면 대규모로 가서 자꾸 참 언론 플레이만 하지 실제로 하는 게 없다. 우리 봉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자체에서 관광 활성화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로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자꾸 이렇게 지역에서 여론도 좀 하면서 빨리 좀 바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섭 박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하 길게 봐도 좋고요. 인구 줄고 고령화되면서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지역사회...

박훈상 저 어렸을 때하고 지금을 비교해서 이제 일단은 지역에 완구점이 없어졌어요. 문구사 완구점 소매. 어린이를 상대하는 학원들. 이제 인구가 태어나면 저출산이 강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그걸 상대로 하는 소매업자들이나 그런 상인들이 없어졌고요. 또 고령화가 이제 또 지금 현재에서 결혼하는 이제 30대 연령대의 청년들은 결혼을 해도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청년들을 가만히 후배들을 보면은 결혼을 하면 와이프는 원주에 살아요. 강릉이나. 주변에 도시에 가 살고 자기는 그 생업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든가 무슨 가게를 운영하는데 유학이 아닌 기러기 아빠들이 다 돼 있어요. 지금 후배들은 와이프는 도시에 살고 애들하고 도시에 살고. 자기는 지금 저희 나이 때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니까 자기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지역에 머물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부모님들이 나이를 좀 더 드셔갖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자기 자신도 아기들이나 자녀가 있는 도시로 가겠죠.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은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별거 중인 부부들이 많아요. 결혼은 설사 했다 그래도. 와이프는 딱 도시에 살고 자기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옆에 계셔야 되니까 주말 부부들이 많죠. 사실. 네 그렇고 또 하나가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중요한데 출산을 하면 평창군이 작년엔 신생아 수가 100명이 안 됐어요. 한 96명. 강원도에서 밑에서 한 세 번째 속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저희들은 저희가 태어났을 적에는 한 면에 한 100명도 넘게 태어났었거든요. 한 30~40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 군 단위에서도 100명이 안 되게 태어나니까. 이 정주 여건이 암만 저희가 사업비로 활성화시키고 활력화시키고 사업비로 한다 그래도, 그걸 정주 여건이 기본적인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주 여건이 허물어지면은 나라에서도 맨날 돌봄이나 늙으면 요새 이제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예전에는 일반 주민들이 그걸로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런 자리들이 자꾸 나가고 해가지고 정책 사업으로 떨어지고 하면 거기에 먹고 살던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다 떠나고. 무조건 투자가 정책적으로 그 보조금만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지역 사람도 그 지역에 머무는 사람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점점 그게 안 되니까 없어지고 하니까 나라에서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계속 투자를 해서 해주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일단 임금도 문제잖아요. 이 임금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임금이 최저임금 계속 하니까 내가 자식을 낳다고 너 내가 니들 커서 여기서 최저임금 받고 여기서 먹고 살아라 하면 내가 부모로서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 그래갖고 계속 올려 지역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사실은 올려보내. 출산율로 따지면 서울이 더 적잖아요. 사실. 그럼 서울의 인구는 느

는데 출산율이 적은 서울 인구는 느는데 출산율이 많은 지역의 인구는 줄어요. 왜? 지역에서 다 서울로 보내고 또 앞에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교육 질 문제도 그거는 어차피 사교육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애들 내 자식 낳아가지고 그만큼 못 시키는데 그럼 자녀들이 커서 서울대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사실. 사교육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공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일단 지역은 정주 여건이 기본적으로 무너지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정섭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나라에서 해주기 때문에 원래는 주민들이 일자리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국가에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있다 이런 취지로...

박훈상 그렇죠. 유치원 같은 경우애가 대부분 지금까지는 봉평도 한 3개, 땅을 때는 4개까지 있었어요. 유치원이.

김정섭 있었는데 개인이 하는...

이주병 개인이 하는 유치원이죠. 다 닫고 공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학교에서 맡하는 그런 유치원으로 다 흡수돼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유치원을 하다가 다 접고 그 지역에 안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세 분을 접었는데 두 분은 다른 데로 가시고 한 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김정섭 평창은 약간 다르네요. 어느 농촌 군에 가든지 군청 소재지 읍에 살면서 농사나 다른 면으로 젊은 남자들이 그런 경우는 흔한데 여기는 평창읍이 아니라 아예 원주에 산다고요.

이주병 그렇지 여기는 사실 아까 북부권 말씀하셨지만 북부권에서 남부권을 보는 시각은 틀려요. 남부권에서 북부권을 보는 시각하고 사실 북부권에서 남부권을 보는 시각은 달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1년 여기서 지원센터에서 파악한 정도, 일단 북부권 때문에 남부권이 먹고 산다. 평창군은 일단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데가 봉평, 대관령이거든요. 그 사람, 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창은 그 세金的 한 80%가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북부권 사람들은 남부권 쪽을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요. 사실 우리 그 북부권은 활동 반경이 다 원주나 강릉 쪽으로 퍼져 있어요. 그렇지만 남부권에서 북부권 사람들이 남부권으로 오는 북부 지역은 힘들죠.

김정섭 북부 지역은 생활권이 워낙에 원주나 이런 쪽이다. 남부 지역은 생활권이 크

게 잡으면 평창읍까지고.

이주병 행정적인 면만...

김정섭 알겠습니다. 김 전 실장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길래 공부해서 오셨습니까? 숫자도 막 외워 오시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오늘 분위기상 이제 농업 쪽에 관해서 또는 농업이나 상업 같은 경제활동에 관해서 사실 말씀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다음쯤에 질문이 있을 거고요. 이번 질문은 그겁니다. 저희 이거는 이제 이 연구 책임 맡고 있는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질문인데. 농촌에서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하다 보면 아까도 이제 완구점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필요한 거를 가져 돈 주고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거는 내가 돈 주고 구하는 건 아니고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거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농촌에서 일단 인구가 워낙 줄다 보니까 돈 주고 구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못 구하게 되거나 불편한 일들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줄어들어가지고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경험에 비추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돈 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쪽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그 파란색 볼펜으로 큼지막하게 돈 주고 구하는 게 어려워진 그것, 뭐가 어려워졌다 이거를 여러 개 쓰셔도 여기다 붙여 놓으면 좀 알아볼 수 있게 큰 글씨로 써주십시오.

김정섭 그리고 솔직히 이런 얘기를 제가 진행하면서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오늘 열기가 너무 달아올랐기 때문에 말이 제가 엄청나게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어도 정책으로 안 될 가능성이 그리고 이렇게 각각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간단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다 얹혀 있으니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나 농촌에 가면 다 문제야라고 이렇게 써가지고는 또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러거든요. 일단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밝혀놔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하나가 다 각각 대책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니죠. 다 연결돼 있으니깐 오늘은 좀 하나하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혹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본인 입장 말고 주변에 옆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동네 다른 아주머니나 다른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런 거 없어서 참 불편할 것 같다. 이런 게 생각나시면 적어주십시오. 저희가 이거를 다른 지역가서도 했거든요. 지난주에. 거기서는 50세 이상 여성분들만 모셨어요. 나오는 얘기가 확 다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쓰니까 근데 내 입

장 말고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게 없어서 불편할 것 같아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적어주십시오.

임해정 우리 이제 진부 지역은 이 보건지소가 없어졌어요.

김정섭 보건지소가 없어졌어요?

임해정 없어지는 바람에 노인들이 아주 상당히 불편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이게 뭐냐 하나까 농촌에 있는 의사들이 없으니까 군에 의료인만 나오고. 의사도 부족하니까 면이 있든지 거의 다 없애는 거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김정섭 지소에는 의사가 있어야죠. 진료소에는 없어도 되지만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가지고 이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조언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게 일꾼들,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이 아닌 쪽도 있는 것 같아요. 노동감 구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의료시설 이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맨 왼쪽에 뭘니까? 옛날...

이균찬 농쟁기.

김정섭 농재기가 뭐예요?

이균찬 농사짓는 작업 도구 옛날 거 그게 뭐 대장간이나 뭐 이런 거 만들 게 없어졌으니 싹 없어지니 그런 게 필요할 때도 노인네들...

김정섭 쟁기나 호미나..

이균찬 그런 게 옛날 게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만드는 게 없어져서

김정섭 대장간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김정섭 요새 낫도 안 쓰죠?

이균찬 쓰는데 뭐...

김정섭 연세가 있으시니까 쓰시죠. 젊은 친구들 낫이 뭔지도 모르던데. 예초기는 알아도 그 농기구, 옛날 농기구. 그러면 의료 문제부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아니 어르신들이 보건지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불편해 예를 들면...

임해정 예를 들면 보건지소에 가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진부에 있었던 보건지소에 가면 치과 의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생활...

김정섭 가정의학과.

임해정 가정의학과 이런 선생님 있어가지고 충분히 진료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병원에만 이제 댕겨야 되거든요. 의원급. 때문에 의원급들만 댕기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한정이 돼 있어. 아침에 우리가 이제 9시부터 병원 문을 여는데 그 병원에 가서 뭐 약을 한 번씩 이제 달라고 그러면 가면 보통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 먹고 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그러니까 병원부터 먼저 출근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보건지소가 있음으로 해서 약값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 전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도 이제 전문으로 받을 수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렇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불편해졌어요.

김정섭 진부면의 의원이 있네요, 그래요.

이균찬 의원은 많이 있어요.

김정섭 근데 치과는 없다.

임해정 치과도 있어요. 치과도 있는데 보통 이제 보편은 가면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치료받기가 상당히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농촌에서는 그 뭐 1시간 2시간이 바쁘는데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정섭 또 병원 의료 얘기를 적어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또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좀 어렵고 불편할까요?

김채정 평창터미널의 원주, 춘천 가는 버스가 그래도 하루에 몇 대씩 있었어요. 아까도 남부권 얘기를 하지만 평창 사람들은 주로 원주 병원을 가요. 기독교 병원이라든가 주로 많이 가죠. 그런데 원주 가는 버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버스가 없다고요. 이제 한 대가 두 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주 가는 게요.

김정섭 하루에요?

김채정 예예, 뭐 강릉 가면 춘천 가는 건 아예 없어졌다 소리도 있고, 영월 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차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김정섭 자가용으로.

김채정 예, 노인들은 차가 없고 하니까 아예 가지 못하고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가거나. 멀리 있는 자식들을 불러야만 병원에 갈 수 있는 이게 진짜 심각해. 그래서 차라리 군에서 그러면 병원 가는 버스를 하루 한 번씩 임대를 해서 단체로 뭉치 않으면 나이 많으신 분들 병원 못 하고. 그 지역의료원이 있는데 평창의료원이 보건소에 있다가 저 시내로 가면서도 축소가 돼가지고 의사들도 변변치 못하고. 대신 보건소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예 어디 병원 가세요?” 여 박에 써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대부분의 의료원이. 이 가까운 영월 의료원이 좀 커요. 영월 가는 버스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조금 먹었는데 저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70 먹으면 버스 저기 뭐야 면허증 반납해야 되잖아. 70 먹으면은 그죠? 의미는 아는데 위험하니깐. 그럼 버스를 타야 돼 내 자신이, 근데 서울에 있는 애들 불러갖고 야나 내일 병원 갈 건데 내일 태우러 와. 이걸 가능 안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 같은 거는 하루에 한 대더라도 가까운 지역예를 운행하는 쪽으로 이 나라의 정책을 펴내는 게 그나마 그래도 농촌 소멸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섭 또 의료기관 병원이나 의원 다니는, 가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불편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이주병 국민 건강 검진을 격년제로 하잖아요. 여성분들이야 어차피 부인과 검진이 필수 건강 검진 항목에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불가능 겁니다.

김정섭 산부인과가 없어서?

이주병 네, 부인과 검진이 없어 어쩌다가 이제 공보의가 한 번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15년 이상 그 사이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검진 항목 하나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진의 낭비가 되는 거고 다른 곳에 가서 일부러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국가 건강검진 못 받거나 대부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인과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많이 있죠. 여성들이.

김정섭 지금 의료 쪽 얘기를 했는데 저희 쓰지는 않지만 하나 있구나. 사실 보면 그거는 의료시설이 없어진 탓도 있지만 교통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다니는 거 말고도 교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 주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김채정 그게 그 얘기 비슷한 게 춘천을 가려면은 바로바로 차가 없어요. 옛날에 있었

는데 지금 원주를 거쳐서 가야 돼요. 젊은 학생들이.

임해정 이제 대중교통이 자가용이 이제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탑승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 회사 차원에서는 적자 노선이다 보니까 자꾸 없애는 거라.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부터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야 될 사람들은 불편하죠. 아주 차가 이제 횡수가 그 정도면 반 이상 줄었어요. 그래도 이제 평창군에서는 교통이 제일 요충지가 이제 그 용 평면하고 진부면인데. 거기만 봐도 진부에서도 이제 어디 이동하려면 장평에 가서 타야 될 경우가 있고, 버스를. 그런 이제 경우가 있으니까 남의 회사 이제 수지타산 때문에 차를 줄이는 거니까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그만큼 주지 않기 때문에 차편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불편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주 불편하죠. 그게 차 한 번씩 타자면 힘들고...

이균찬 그게 말하자면 5분지 4는 줄였다고 봐요. 5분째 1만 딱 배치를 하니까. 다섯 편이 있었다면 한 편만 배치를 아침 저녁에만 하는 식이니까 왕복 8회 하던 게 한 2회 한다든가 전역. 이래 놓으니까 아주 불편해졌죠.

임해정 이제 기차가 2개 역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차로 이동해가지고 역 앞에 세워놓고 가서 강릉이나 원주나 볼일 보고 오면 되는데 노인들은 또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김정섭 리에서 면사무소 앞에 자주 나올 일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장날이나...

임해정 이제 그러면 시내버스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도 간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 멀리 좀 중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해요. 이제 그 시골의 이의 면 단위는 아마 그 버스터미널이 다 없어지리라고 봐요. 앞으로.

이균찬 진부도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시내버스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편수가 많이 줄어서 어려움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죠.

김정섭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와서 저 휘닉스파크 근처에서 잤는데 여기까지 오려니까 승용차 없이 좀 갑갑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균찬 제가 어차피 이게 인구 감소가 상당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전국에서 오시는 멘토를 제가 하다 보니까 시골에 내려와서 귀농하고 귀어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

니까 상당히 소중한 게 뭐냐 하면은 귀농이라는 제도가 좀 많이 변화를 줘야 해요. 지금 귀농 정책가지고 하면 뭘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소농이기 때문에 대농을 할 수도 없고. 중농도 아니고 소농이기 때문에 그 자금 가지고 가 땅 한 평 미만 사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빚만 지고 다시 떠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럴 때는 귀농이라는 정책을 바꿔가지고 곤충사업 산업 쪽으로 한다면 그분들은 곤충을 기르기는 시내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리고 시골로 와서 기르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조건이 좋아. 그래서 도마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곤충이. 근데 그게 사업이 굉장히 조금 좁은 면적에서도 매출은 상당한 매출이에요. 도마뱀 한 마리에 700만 원씩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시내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려면 이 귀농이라는 거를 그 틀에서 곤충사업 같은 거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하면 그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학교도 초등학교 같은 데도 배움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시골의 인구를 늘리려면 학교에서 이제 곤충을 기른다면. 이런 걸 하면은 학생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모들도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교육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교육시스템은 이미 다 기반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특색 있는 걸 시골에서 특색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인구를 늘리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마을이 3가구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4가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버스가 이렇게 노란 통학버스가 그럼 한 집에서 2명, 3명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길 거리에 모여서 가지고 한 14명씩 다 학교를 가고 오고 내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는 tv가 없어, tv를 아예 다 버려버렸어요. 애들을 보고 간다고. 그래서 tv를 아예 부모들도 tv 안 봐 그 집에 tv가 아예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한 집에 가니까 애들을 애들이 좋아하는 닭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주고 토끼장 이런 걸 만들어줘 가지고 애들이 그걸 학교 갔다 와서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야 이제 어린애들이 자기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정섭 알겠습니다. 병원이랑 교통 얘기를 했고요. 이 돈 주고도 사람 구하기 힘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농업 얘기를 많이 하실 테니까 농업 아닌 쪽에 설비 포함, 예를 들면 저기 누가 써주셨죠? 노동 인력, 설비 포함... 무슨 얘기입니까?

이주병 농업 쪽에는 노동 인력은 이제 다 현실이니까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지역에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그 인원들이 기술자들이 다 연령이 이제 높으셔가지고 그만두고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실제로 사실은 예전 처럼 연탄 예를 들면은 그런 걸 놓을 수 있는 구들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새롭게 이제 한옥학교랑 구들학교를 나와서 하는 사람들 외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사업 형태를

만드려고 하면 예전에는 지역마다 소목도 있고 대목도 있고 했는데 목수도 없고, 구들 넣는 사람도 없고, 미장도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은 다 그냥 콘크리트 칠하고 황토색 그냥 페인트 발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옛날 시골 정취대로 어떤 가업 구조를 만들거나 이러려고 그러면 예전에 했던 그런 설비 인력들은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아주 다른 곳에 인력들이 넓은 곳에 가가지고 드문드문 있다는 거예요.

김정섭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고치려고 해도 예전에는 동네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맡기면 됐는데 이게 좀 어려워졌다는...

임해정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려 하지를 않으니까 이 후계자들이 없는 거죠.

이균찬 몇십 년 후에는 이발사가 없어진다고...

임해정 그럼 이발사도 없어지고 직종이 없어질 게 많아요. 지금 이발사들도 우리 진부 같은 경우에는 이발소가 한 4~5개가 있는데 거기는 70대, 80대 사람들이 이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발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김정섭 면에 이발소가 너다섯 개면 많은데요.

임해정 우리 동네가 크잖아요. 진부가. 지금 평창군에서 우리 진부면이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인데.

김정섭 만 명 가까이 됩니까?

임해정 만 명은 아직 안 돼요.

김정섭 농업 인력 노동력 구하기 힘든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거는 다 아는 얘기긴 한데 본인 경험에 비춰서 예를 들면 10년 전하고 비교할 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얼마나 어떻게 힘들어졌는지.

김채정 요즘 현실로 느껴지는 게 설비를 말씀하셨는데, 시설 농업이 많잖아요.

김정섭 하우스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김채정 하우스 비닐을 씌우는데 100평당 지금 280이야. 지금 현시가가요.

김정섭 100평당 인건비가...

김채정 지금 이제 거래되는 게 전에는 한 150 뭐 이래 되던 게, 요 몇 년 사이 왜 그러냐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자재값은 올랐다 쳐도 그러니까 농촌 현실에서는 이제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우스가 높아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못 돌려요. 돈을 300을 줘도 안 온다 그러니 점점 목돈이 올라가는 거 자꾸.

김정섭 그럼 어디서 구해옵니까?

김채정 못 구하니까 이제 업자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업자 저기..

이주병 시공업자들도 단가가 이렇게 150에서 280까지 올라간 이유는 이제는 어차피 고용관계에서 4대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근래에 이제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 때문에 데리고 있는 4대보험 들어주는 고용 인력이 열몇 명씩 되잖아요. 그런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 부담감 이런 것들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커짐으로써 실제로는 농촌에는 설비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임해정 농촌 인력난에 대해 얘기해보면 우리가 이제 한 50대 정도만 해도 이용주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일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동네에서요?) 네, 동네에서 일을 좀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차점차 없어진 게 공공근로 일자리가 생기면서부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쪽으로 가도 이제 뭐 어차피 똑같은 인건비를 주니까 첫째 원인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 하는 게 공공근로 일자리 때문에 이제 1차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2차는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 다니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은 전부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여자는 13만 원, 남자는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국내 사람들도 그 정도 준다 이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농촌이 이제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용역업체에서 이제 돈을 더 쓰면 되는데 우리처럼 이제 중소농을 하는 사람들은 일할 사람 사 올 처지도 아니고 내 손으로 하자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죠. 아주.

이균찬 농업의 정책이 참 중요한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문 정권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일자리 창출만 밤낮 일체 되다가 나중에 내놓은 게 이제 일자리 창출에 쓰레기 줘는 노인네들 이걸 하면서 그전에는 사실은 인건비의 그런 인력난에 그렇게 심화를 못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서부터는 멀쩡히 한 60대, 그렇지 70대 아주머니들 남

자들도 할 만한 사람들이 전부 하던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거 뭐 좀 맛을 들이고는 그쪽에 쓰레기 좀 주고 몇십만 원씩 받고 하다가는 농촌에 일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문을 닫고 아주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낮에는 그냥 뭐 커피 타 먹어 가며 고스톱 치고 앉아 놀면서도 모여 놀면서도 농촌에 일하는 사람은 싹 없었어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가 오면서 또 외국인이 못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아주 농업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죠. 한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서부터 약간씩 좀 더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또 그것도 인건비가 일본이나 또 외국에서는 그 나라의 인건비를 최저임금을 추진하지 않고 또 따로 들어오는 분들을 외국인들이 접해서 뭐 이렇게 딱 주는데. 우리 한국은 또 국내 인건비에 맞춰서 주다 보니 상당히 고가로 써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는데다가 지난해 같은 데 제가 이제 무를 좀 이제 심었는데, 이 태국 애들 인가가 들어와서 썼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 이것만 끝나고 갈 줄 알았는데 오전에 오후에 또 좀 영업을 한다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이 정도 보여줬으면 몇 고랑씩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3분의 1도 못 쓰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그리고 희한하다 하고서는... 그다음에 수을 때 이 밭을 댕겨 보니까 한움큼씩 콧콕 넣은 거요. 그래서 내가 그 인력 대준 사람 친구한테 가서 이걸 얘기를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 나중에 전화할 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전화해봤지 이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심각하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떡할 거냐, 뭐 못 해. 그래서 내가 이걸 경찰을 불러다가 내가 조사를 해서 이거 누구누구 했다는 걸 다 나왔으니까 인건비를 내가 안 주도록 한다니까 “야, 그거 뭐 불법 체류자들 해서 또 다 붙들려 가면 야 내가 곤란한데.” 그렇게 나와서 그 친구 집은 참 그러지도 못하고, 이래 가서는 품값을 한 반은 내가 가서 또 불러다가 그놈이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 그랬다는 게 나오니까 인건비 그 사람들은 한 몇 개 빼고서 내가 넣어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놈들이 또 참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 피해도 또 보지 않는 피해도 보는 이런 현상도 많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채정 농촌 인력 문제는 사실은 한 6~7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하나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심각해 졌는데 그래도 7~8년 전만 해도 여성 인건비가 4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남자 5만 원. 그래서 시급이 올라갔어. 외국인 근로자 그때 7~8년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지역에서 할머니들 있는 대로 썼어. 이거 참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급작스레 변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이런 거 대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지. 아까 대책을 세운다든지 뭐 공공근로... 공공근로니까 가서 열심히 안 해도 일당 받다. 그래서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할 시기에 빠져버리고 지금은 그나마도 일할 연령대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저는 늘 이런 얘기를 주장해요. 8년 전에 감자 한 박스에 3만 원 했어. 아니면 2만 원도 하고 모든 농자

재값은 다 두 배 정도까지 다 바뀌어버렸어. 인건비만도 3배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농사의 농산물 값은 정해져 있잖아. 물론 공산품은 아니니까 비쌀 때는 뭐 감자 박스도 5~6만 원도 하고 쌀 때에는 제철에 나가면 2만 5천 원 3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러한 실정인데 우리 10년 전에 옥수수 3개 묶어서 길거리에서 5천 원씩 팔았어. 지금도 3개 묶어서 5천 원 그때 팔아. 그러면은 옥수수가 이렇게 더 많이 생산된 것도 아닌데 물가가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게 첫째 인력 문제, 또 유통 과정 문제. 이런 게 다 문제인데 이걸 뭐 여기서 암만 얘기해도 바꾸기 바꾸려면 한참 더 걸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 거는 길에 대리운전 얘기하고 끝냅니다. 사실은 저거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뭐 저 술 안 먹으면 되죠. 이거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소주 한 잔 맘 먹고 앞서 시내는 차 놓고 대리운전하고 그렇게 하면 편해. 부르면 그것도 뭐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농촌에서 저도 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봉수에 계시면 저 밖에 나가면 봉수 시에 와서 차를 누가 운전해도 같이 안 하면 술 안 먹어요. 한 잔 먹어도 안 되니까. 사실은 이걸 철칙이 돼야 돼. 근데 소주 한 두세 잔 먹고서 운전대 잡고서 걸리면 이제 요새는 신세 조져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 그냥 대리운전도 쉽게 불러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마음껏 먹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나도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도시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던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도 우리 진짜 그냥 뭐 그런 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돼요. 지역 경제 술 많이 먹어줘야 경제 활성화돼. 우리 봉평 같은 데는 저 내면 쪽에서 이거 저기 거기는 뭐 식당 같은 게 별로 그렇게 봉평이 더 많으니까. 내면 사람들이 비만 오면 버스로 가고 넘어옵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음주운전에 다 걸려버렸어 단속에서. 봉평으로 대면 오줌도 안 놀라고 그래. 그게 한 2년 지나갔는데 그 양반들이 사실 봉평 경제를 많이 살려줬거든요. 근데 그거 단속 한 번 걸리고서는 아무도 안 오잖아. 근데 이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스운 것에도 한번 다뤄볼 만하다는 얘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김정섭 지금 ‘냉이, 달래’라고 붙여놓은 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주병 저거 이게 이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날은 나물장이라 그러합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냉이, 달래 쌓여 있고 그렇게 팔았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없어요. 냉이 캐고 달래 캐는 사람들이 도로에 가서 콩초 줍고 빗자루 들고 놓고 있어요. 그 인원들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문제이기도 하고 농촌이 망가지고 농업이 망가지는 이유도 실제로 노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업 노동력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노동 현장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냉이 달래 얼마나 큰 소득은 아니겠지만 그 인

원들한테는 분명히 함께 해가지고서는 8만 원 소득 한... 그런 일들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밭에 가면은 냉이 다 꽃피고 달래 버글버글해도 안 캐요. 또 그리고 다른 일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노동이나 농사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으려서 그거 돈 된다고 쫓 수 없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냉이, 달래는 시장에 가면 사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나오겠죠. 밭에서 캐거나 이렇게 소규모로 재래시장에 나오는 거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균찬 하여튼 그 공공근로 때문에 우리 농촌에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데 아주 정신력 촉을 싹 뽑아 치웠다. 그게 그렇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좀 일을 할 만하고 뭐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먹고, 일하고 사는 국민인데 그런 정신력을 싹 아주 팽개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채정 나라 정책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요. 3년 전에 저거 걸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 강원도에 들어올 인력이 10%도 못 들어왔어. 강원도청에서 대책 회의를 했어요. 이제 농업 단체장들하고 도지사까지 와서. 거기에 모인 농업단체장들은 ‘공공 인력을 한시적으로 풀어서 농촌 인력을 쓰자.’ 안 된대. 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시 또 농촌 인력 대체할 수 있는 공공근로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또 거기에 들어가서 공공근로를 해. 계약서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한시적인 어떤 조항에 의해서 해주면은 나라에서 그만큼 돈을 주고 나머지 인건비는 농사가 주면은 그만큼 일이 되잖아요. 그게 아마 저기 태백 쪽에 배추하고 무를 많이 못 했을 거예요. 작업장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배정하는 외국인 근로자 작년엔 7명을 썼어요. 올해도 7명을 신청했는데 6명밖에 배정이 안 됐어. 저는 우리 중앙정부 정책이나 많이 바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이나 우리 한국 생활 수준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들 너무 많이 줘, 인건비를. 우리 노동단체에서 그걸 늘 주장을 하는데 “최저 임금 다 보장해줘라” 좋은 얘기입니다. 워낙 소통 안 되는 사람들 또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를 데려 놓고서는 한 두 달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일 가르키려면은 그러고서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는 5개월 하고서 보내야 돼. 작년에 그래도 3개월 연기해줘 갖고서는 좀 썼는데. 그럼 두 달 교육시켜서 3개월 더 시키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농가에 큰 이득이 없어. 근데 인력만 그나마도 없으면 내가 필요할 때 사람을 못 구하니까 쓸 수밖에 없어. 그럼 정부에서 노동단체가 암만 강하게 하더라도 정책은 좀 바뀌야 된다고 봐야 돼. 외국인 근로자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거 최저임금 우리 지금 9,620원 뭐 그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고집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부에

서 물론 뭐 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하겠지.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야 된다. 농촌 인력 다른 데는 몰라도 산업 현장 물가 농촌 인력만큼은 현실에 맞게 뭐 시간당 5천 원 6천 원 준다든가 바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거 암만 우리가 떠들어도 됩니까? 국회에서 넘어오니까 정부에서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긍정적으로 보면 한도 없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없고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라면 좀 정부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바뀌줘야 합니다.

김정섭 2시간 내에 못 끝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많으셔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아까보다는. 오늘 이 모임의 목적은 이제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농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없어서 불편한 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한 장씩 써주십시오. 돈 주고 사는 거 말고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인구가 줄어서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불편해진 것들. 여기 오신 선생님들 본인 얘기가 아니어도 주변에 다른 가족이나 동네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쓸 종이가 없으시죠? 이거 좀 뜯어서 나눠주세요.

김정섭 아까 뭐 학교 얘기도 하셨고 이미 하신 얘기긴 하지만 생각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인구가 적어졌다는 이유로 없어진, 행정에서 해주던 것 중에 없어진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안 나왔던 얘기 중에 일단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주병 예전에는 곡물이고 농산물들은 마을 단위에서 수집을 해갔습니다. 현장에서 품위를 확인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그런 게 없으니까 교통 발달되고 또 인원도 적고 하다는 핑계로 집하장을 정해놓고 전체 다 같이 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회 수집에...

김정섭 그걸 군청에 직접 했었습니까? 예전에 농협에서 하던 일이죠?

이주병 어쨌든 농협이 대행은 했지만 농림부에서 했죠. 정부 양곡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많이 정부에서 한 건데 농협이 대행했던 거죠.

김정섭 그게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양곡을 말하자면 수매하기 위해서 걷어가던 일들이 줄어든 게 인구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이주병 인구도 그렇고. 다만 이제 운반 수단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줄였을 수도 있고.

김채정 생산량 저하하지. 생산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인력도 많으니까 옥수수 노란 거 하고. 그거를 마을별로 이제 수매를 해요, 그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원 차를 싣고 갔는데 이제는 옥수수를 따가지고서 생산하는 단체를 찾다 보니까 별로 필요성을 안 느끼고 이제 없애는 거예요.

이균찬 농업의 변화라고 봐야지.

임해정 그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농업 자체가 이제 없어.

이균찬 농업의 변화가 있어.

김정섭 예. 그래서 농업인구가 줄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 자체가 어떤 품목들은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수집해가던 시스템을 없애버렸는데, 아직 남아서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매우 불편해진 거죠.

임해정 지금 아마 논농사하는 분들은 할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

김채정 벼는 수매합니다.

이주병 순회 수집이 아니라 예전에는 다 순회하면서 마을 단위로.

김채정 그렇지 지금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김채정 왜냐하면 그것도 면적 지급해야 하니까.

김정섭 사업 신청이라고 쓰신 거는 어떤 겁니까.

김채정 올해 정부 예산안이 한 40% 늘어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해보면 예산은 줄었다고, 그 사업이 용도가 맞지 안 맞지를 따지지도 않고 전에 사업을 많이 했다는 이유 하나로 배제시키는 거죠. 요즘은 기후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하우스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통풍 장치를 하는데 그 앞으로의 농업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전에 그 상황을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건을 다루는 게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요인이 되죠.

김정섭 그게 인구가 줄거나 고령화된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게 된 게?

김채정 인구가 줄었다. 인구가 줄면 농촌에 돈이 적어지니까 농촌의 사업비가 줄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김정섭 인구가 줄어서 농촌 지역의 정치적 힘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예산을 많이 당겨오지 못한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그게 전체 농업 예산이 줄지 않았죠, 올해. 정부 예산도 40%씩 주고 오히려 늘었죠. 사실은 근데 분야별로 보면 농림부 예산도 줄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분야별로 보면 어떤 분야가 확 줄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시골이 정치적 힘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아까 나온 얘기... 화장장이라고 쓰셨는데 그냥 보통은 이렇게 고령화되고 그러면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같은 거를 먼저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김채정 그러니까 여기 평창 같은 데는 화장장이 없어요. 그래서 원주, 춘천, 정선, 심하면 수원까지 가고 그래요. 근데 군에서 이제 뭐 30인가 뭐 화장비 일부를 대해준다는 조건으로 가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지. 그 지역의 화장장은 그 지역 인구 우선권이 주어지니까 없는 시군은 떠돌이에 알아봐야 돼.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일장 지은 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김정섭 화장 시간을 못 맞춰서.

이균찬 제일 많이 주는 걸 국회의원이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인구가 줄어서. 국회의원이 평창, 영월에 1명. 농촌 지역은 아주 노다지 줄었어.

임해정 전체 숫자는 늘었는데 농촌 지역 인구는 이제 국회의원은 줄었지, 그건 400%로 줄었어.

김정섭 그렇죠. 400%가 아니라 800%입니다. 마을 버스 얘기 아까 버스 얘기는 하셨는데 마을버스 적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균찬 아까도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진부에 보편은 한 8대까지 그전에는 평창운수라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한 3대 정도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는 노선이 하루에 8번을 왕복을 했는데 요새는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차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차가 없는 데는 아침에 한 번 왔다 가고 11시에 한 번 왔다 가는 게 끝이니 한 번 나가면 종일 기다린다고가 아니 농치면 막차를 기다린다고가 택시를 타야 된다고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왕복 8회에 있던 게 지금 세 번으로 줄어놓으니 아주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김정섭 마을버스라고 하는 거는 리에서 먼까지 나가는 것.

이균찬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강릉에서 서울을 많이 다니는 진부는 이제 그 사이에서 운행을 많이 승차를 하고 다녔는데 그것도 그전에는 10분 내려가는 차가 10분 강릉으로 또 강릉에서 서울 가는 쪽으로 10분마다 있었어요. 그러게 지금은 2시간마다 있고, 4시간마다 있는 편이에요. 그것도 서울을 다니고 강릉을 가자면 많이 불편한 시기죠. 이제 시버스도.

김정섭 이제 아마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인구 줄고 고령화되면서 경제활동 아까 사실 얘기 많이 해 주셨어요. 농업 쪽은 주로 일손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비농업 쪽까지 농업이 아닌 분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경제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변화는 인구가 줄은 거하고 관계없는 변화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인구가 줄거나 고령화됐거나 젊은 사람이 없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평창군에 경제활동 측면에서 농업이든 상업이든 뭐든 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해정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 이제 조금만 이제 미장업이라든가 뭐 벽돌을 쌓는다든가 아까 방구들을 놓는다든가, 그런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지만 자꾸 이제 이어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단절이 다 되는 거죠. 어떤 이발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그 단절 되는 이제 이런 게 우리 진부 지역 같은 경우는 30년대 중반 넘어가면 거의가 이제 뭐 그런 건 폐업될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없어서도 아닌데 배우려 하지 않거든 그런 직종은 그 힘들고 이런 직종은 배우려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직종은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죠.

이균찬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선 초중학교가 노다지 읍면 단위는 사라졌다는 점 앞으로 사라지기 거의 읍면지역 하나 해놓고는 다 시골 지역은 한 동네에 하나씩 거의 초등학교에 다니기 뭐 거의 99%가 사라진다는 점. 거기에 또 중고등학교도 그저 천여 명씩 되던 게 지금은 뭐 몇십 명 단위 그래 많아야 그 일이 100명에 4명이 이제 한 반씩 이루어지니까 그 근방에 문구점이라든가 학생들 위주의 그런 관련된 산업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점. 그 동네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참 학교 근방에 그 학생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하숙집이라든가 이런 식당들이 그 빠글빠글하고 꼭 찻던 데가 지금은 형명하게 없어졌다든가. 뭐 이런 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섭 하숙하면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균찬 하숙 아니고 자취. 옛날에 많았죠. 진부 다음으로는 집들이 딱 차가지고 전부 그걸로 해 먹고...

임해정 30년 더 됐죠.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50년대 말 60년대 초에는 초등학교 한 학년이 6반, 7반이 있었어요. 근데 한 반에 거의 한 70명 정도 됐었다고 그러던 게 지금은 이제 요새는 확실히 모르는데 한 반이 24명으로 편성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개 반 아닌 두 개 반. 그것도 조금 지역으로 이제 리 단위 있는 초등학교 같은 거는 한 개 반도 이제 못 꾸리는 그런 이제 실정이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공문을 받고 내가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우리 진부면의 인구가 8천 600명 가까이 돼요. 그중에서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노인 이제 들어간 인구가 한 3천 명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대 이하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0대 이하가 남자 여자 합해서 한 200명 정도 그리고 금년도 3월 어제까지 출생자가 10명입니다, 진부에. 그러니까 1년 통틀어서 출생아를 이제 따져보면 한 10여 명에서 20명 그 미만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진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가 3개인데, 앞으로 이제 10년 내로 이제는 학교가 하나로 이제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시내에서 수도권에서 유학 학생들이 이제 유입을 해가지고 이제 농촌 체험하는 걸 해가지고 해서 좀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봉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학생 수가 이제 많이 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인구 대책을 이제 그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귀농 귀촌 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은퇴한 사람만 오게 돼 있거든요. 가임 가능성이 있는 인구는 들어오질 않아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후계농이라든가 이런 건 자식들이 이제 들어와서 대를 받아줘야지만 아들 딸 낳아가지고 이제 그 인구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줄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지금 65세가 지금 보면 이제 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한 4년, 5년 내는 거의 반 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인구가. 그게 이제 큰일이죠. 이제.

이주병 저는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질적인 노동 인구의 저하 또 농업인구의 저하 파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마을 예를 들면은 주민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업 종사자들은 이제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인원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실제 실농하는 인원은 20명 내외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어용 농업인들이 딱 차 있습니다. 어용농업인이 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혜택 받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혜택 받죠. 이런 혜택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고령화가 돼서 하는 부

분도 있고. 또 농업 소득이 작다 보니까 겸업으로 전향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하면 지역 단위 협동조합이 있는데 저희가 조합원 가입자 심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1,500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농업 활동을 하겠다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300평짜리입니다. 그것도 자기 농지도 아니고 임대로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와이프 데리고. 같은 경영체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용 농업인이 됨으로써 지역 단위 협동조합 그래도 이제 지역에서는 큰 단체고 농업인 단체인데 협동조합이 부실해지고 이런 요인이 되지 않냐 이런...

김정섭 농협에서 300평이라도 받아야죠. 조합원으로.

이주병 그래서 저는 농협 이야기만 했지만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후에는 조만간 이제 부실화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섭 제가 아까 붙여주셨는데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라서 지금 여쭙보려고 그래도 계속 곤충 얘기하셨는데 인허가 조건 차 얘기를 좀...

이균찬 제가 이제 아까 내가 전사에 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곤충이라는 거는 농업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어업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어업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 어정쩡하거든요. 곤충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하고 농지전용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한지 곤충사업하는데 저기 농지전용은 받을 이유가 없고, 또 개발행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규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할래도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개발행위 허가를 내려면 그거 적어도 3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농지전용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또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그거를 잘못된 거니까 그건 지금 시군에서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그건 법규에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해당이 되겠지만 또 비가림하우스 짓는다 그러면 사실 지금 비가림하우스는 이 집집마다 짓는데 그거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받습니까? 전혀 안 받잖아요. 근데 거기는 곤충사에는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된다고 또 한단 말이죠. 그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규제를 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완화를 좀 시켜줘야지만 시골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와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인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다 60대 이상은 관심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한 30~40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무리를 많이 해요. 그게 우리 평창군에도 참 상당히 좀 이렇게 잘못된...

김정섭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하고 간접적으로 관계있으신 얘기인데 그냥 여담으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곤충 중에 농업으로 분류되는 곤충이 있긴 있어요. 그 법에 농업농촌기본법의 시행령에 곤충사육업이라는 항목이 있고 근데 아마 그 해당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곤충 농업은 안 될 것이고, 근데 농업이 아니어도 농지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 시설물을 얹힐 때 그게 이제 건축 대장에 올라가는 구조물이나 아니냐인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치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농지에다 콘크리트를 못 치니까 비가림 하우스도 그냥 하우스 꽂아놓는 건 상관없는데 뭐라 안 하는데, 바닥에다 콘크리트를 치면 건축 대장에 올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규제하고 걸리죠. 그런 관계에서 아마 좀 살펴볼 것들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엇그저께 완주에 가서 지난주에 얘기할 때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던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시골에 다 가족 관계들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변했는지.

임해정 우리 어릴 때는 사촌, 6촌, 8촌... 가면 상당히 가까운 집안이었던거거든요. 이제 개념이 사촌도 이제는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남과 똑같아요. 그런 이제 그 씨족 사회가 이제 했거든. 옛날에는 집성촌이라 해가지고 동네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인가 같은 경우는 인구들이 모여 살고 이랬었는데 이제 다 불이 다 해주고 그런 개념이 이제는 아주 없어졌죠.

김정섭 그 마을에 노인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해정 많죠 어떻습니까? 홀몸 가족들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 옛날에 이제 60년도 70년대 초 이제 울진, 삼척, 간척들이 이제 많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산속에서 이제 화전민들 살던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가지고 독가촌이라고 이제 많이 지어났던 게 있어요. 우리 동네도 이제 그 집단부락이 있어요. 그 독가촌이라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농촌 아주 산골에서 살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 젊은 아들 딸들은 다 시내에 나가 살고 또 남편 죽고 부인 죽고 하니까 홀로 사는 집들 아주 집성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살게 됐어요. 그런 그런 게 내가 이제 그 동네 이제 노인회장을 맡으면서 밤으로 어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근심스러워요. 혼자 살다 80 이상 넘은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고독사하는 수가 많거든요. 농촌이라고 이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떻게 좀 정부 차원에서 지금 돌봄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낮에만 오지, 밤에는 안 오거든요.

김정섭 요양보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임해정 요양보호사도 좀 증증으로 인지면 요양보호사도 들고. 좀 조금 덜한 집들은 돌봄이라 해가지고 이제 하루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제 오더라고요.

김정섭 말만 하고 사시는 분들 살림은 안 도와주고.

임해정 농촌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김정섭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그렇지 그런 문제가 생겨나...

임해정 나이가 그래도 한 70대 미만 정도면 70대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80대 90대 되면 거동도 아주 불편해지고 이러거든요.

이균찬 가족이 이제 씨족 사회보다 이제 여성 쪽을 따라가지고 외가집들하고는 좀 관계가 가깝게 아직까지는 친척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남자 쪽에 해서는 형제도 없고 또 뭐 삼촌도 거의 없는 시대다 보니까 남자 쪽에 그 씨족 사회에서는 그야 가족이라는 아니 집안이라는 그런 의미가 멀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뭐 여자들 쪽으로는 좀 닳아서 그래도 이모라든가 아니면 뭐 이종사촌 간에도 그래도 좀 어울리는 기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남자 씨족 사회는 거의 맥이 둔해졌다 할까, 아니면 끊어지다시피 가는 것 같고요. 차라리 이웃 간만 못하고 여자관계에 대해서 그 집안 관계라서는 그래도 그 여자들끼리는 그래도 이종사촌 간이라도 상당히 좀 어울리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주병 저출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보통 자녀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지 않으면 또 아들, 또 딸 하나 이렇게 이제 다 생활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10년이면 더 지나가면 사촌이란 자체도 없어질 거고. 형제가 의지할 자리도 없고 이제는 다 그냥 각자도생으로 살아야 될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모라는 자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는 자체가 이제는 이제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질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가장 또 그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가족의 구성이 이제는 안 될 거 같고.

김정섭 친척이, 일가 친척이다 이런 개념이 거의 거의 없어진다고.

이균찬 지금 있어도 그게 의미가 그렇게 퇴색해가지고서는 뭐 그렇게 찾는 기분도 없어요. 사실 가깝게 다니는 기분도 없고.

김채정 그래도 나라에서는 사촌까지 결혼을 허용하려고 지금 법 만들잖아요. 그 사촌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사촌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균찬 글썽 그걸 없애는데 굳이 그걸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슈화를 시켜서 할 일도 없어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해도 사촌하고 결혼하래도 눈에 눈을 닦고 찾아도 없을 몇 가족이 안 될 판인데 그걸 뭐하러 굳이 만들려고 애를 써. 사람들 참.

김정섭 지역사회 단체 활동 얘기 좀 여쭙보겠습니다. 아마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원래 시골에 가면 어디 면에만 가도 회장님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리에도 기본 회장 서너 명은 깔고 가지 않습니까?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그다음에 그런 무슨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이런 거 아니어도 이러저러한 단체들이 원래 시골에서는 되게 많았고, 도시하고는 다르게 그 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인구 줄고 고령화되니까 그런 지역사회 단체 활동이나 그런 단체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다?

김채정 많이 바뀌었죠. 저쪽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예전에는 단체에 들어가려면 정원이 초과되니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들어가는데도 정원을 못 채우는 단체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자리, 모임을 갖거나 무슨 회의를 하면은 요즘 MZ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강하잖아요. 쉽게 회사에서도 회장이 오늘 저기 회식 있어 이러면 저는 오늘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안 가잖아요. 그렇죠?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이라고 하는 끈끈하게 뭉쳐서 저녁에 2시까지 술 먹고 해도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지는 추세죠.

김정섭 그제 단체 안에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는 얘기는 젊은 회원이 있다는 소리인데.

김채정 그러니까 그 많으면은 같이 하겠지. 근데 자꾸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동창 단체들도 보면 여러 단체가 아마 고민이 비슷해요. 저기 한두 개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지금 어제저녁에도 이제 가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한 40명 된다 그랬지, 지금 소방대가. 근데 한 12명 정도밖에 안 온 거지, 이제. 어제가 소방의 날이라 해서 그 행사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위주의 생각과 생활을 하는 이제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단체의 조직이라는 문화가 깨지고 있는 거죠.

김정섭 옛날처럼 뭉치지 못한다.

김채정 그러니까 쉽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화재 나면 가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직이 안 이루어지고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 보면 사고가 난단 말이

야. 근데 그중에서 대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지휘하에 같이 움직이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서 안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안 모이다 보니까 저 사람 머릿속에 생각을 모르는 거지 그런 게 엄청 크지 않나 생각해요.

이균찬 이 단체가 예전에는 아무 단체가 그저 들락날락 많이 해가지고 그저 벽적벽적하게 끌고 가는 게 통했어요. 이러면 지금은 시시한 건 다 저 붙이고 몇 개 있는 것도 그나마 나가 보면 그렇죠. 한 반 참석하면 잘하고 아니면 3분의 1 정도 참석해가지고 서너 사람이 거기서 소주 한잔 저녁 먹고 헤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섭 남아 있는 덜 시시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이균찬 하여튼 뭐 농사꾼 단체, 예 그렇죠. 그것도 그게 그전에는 참 한창 우리가 다니면서는 농권 보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럴 때는 제가 평창을 회장을 할 때는 차로 버스를 장평서 10대가 출발했었어요. 여의도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난리를 칠 때인데 지금은 뭐 한 번도 하지도 않을뿐더러 가자면 또 가지도 않는 게 그 농민 단체가 또 제일 또 맥사가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김정섭 농민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 한농연?

김채정 네네, 단체라는 것이 지역마다 뭐 67개 되는데 맨날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죠. 그럼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없다니까 “아 좀 같이 합시다.” 회장을 맡기고 그래. 그렇게 같이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첫째 인구 감소 그거 문제다. 인원이 많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하고 있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지역에 그래도 그나마도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모임 단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임해정 자원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김채정 우리 봉평만 가도 단체 그러면은 거의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3개, 4개 단체에 다 가입돼 있어.

김정섭 그래서 그렇게 단체들이 이렇게 어쨌든 좀 쇠퇴하면서 그래서 지역사회에 뭔가 분위기가 바뀌거나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줄어도 간판은 다 달고 있겠죠. 이제 같은 데는 근데 아무튼 활동은 예전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이든 군이든 지역사회에 뭐가 좀 분위기나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단체들이 예전만큼 활

동안 하나까.

이주병 그거는 이제 활동하고 안 하고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인원이 적어지면서 복수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단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사랑주부가 있으면 농가주부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균찬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주병 전농이 있으면 한농연이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실은 수혜자들은 한 명이에요. 한 명, 단수인데. 여기에 다들 본인이 단체 조직의 설립 목적대로 안 움직이고 다 봉사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수혜자들 입장에서 어제 채도 왔었는데 어제 오늘 누구 누가 오지? 이런 실상이요. 그러니까 아주 소모적인 봉사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목적은 뒷전이에요. 이제 용왕소방대나 이렇게 이제 특이하고 특징적인 이렇게 활동을 하는 조직 외에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단체가 비슷한 유형이 통상 2개씩 이렇게 있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들 정당 공천제를 하다 보니까 단체 성격이 이번에는 분할 단체가 애네들이야 또 그다음에 바뀌면 분할 단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또 그 자치단체장들도 그거를 내 자산이라고, 정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체는 아니지마는 생산성 있는 단체 간 단체 활동하는 게 많이 피해를져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김정섭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일 할 얘기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내일 할 얘기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외람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은 더한데요.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의 99.9%로 장담을 합니다. 특별히 늘어난 데가 한두 군데 있을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거기 관광 개발이 된다든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학자들 정설입니다. 출산율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민을 받아서 절대로 해결 못 한다고, 그다음에 농촌에서는 귀농귀촌이 나 이거 많이 노력을 해야죠. 귀농귀촌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고. 귀농을 받아서 지금보다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외지에서 도시민을 받아서 평창군이 귀농을 많이 받으면 옆에 영월군은 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적극적으로 보면 뻥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국으로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거든요. 귀농귀촌 받고 하는 게. 이걸 전제로 그래서 인구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더 고령화된단.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이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럼 10년 뒤에 그래도 여기에는 사람들이 남아 살 건데, 이거는 꼭 지켜야 돼.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 애

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그럼 지금부터 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 많이 낳자거나 귀농 귀촌 많이 받아야 되고 애 낳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 연구에서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거 말고 오히려 안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귀농귀촌이나 애 더 많이 낳고 인구 늘려서 해결하는 거 말고, 줄어든 상태에서 어찌 보면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줄었어도 이러이런 건 해가면서 최소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내일 할 건데, 따지고 보면 인구가 그렇게 줄어도 꼭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 2시간 동안에 그 얘기를 다 못 할 거니까 돌아가면서 한 2~3분 생각하셨다가 이 부분은 꼭 인구가 줄어도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분야 또는 대상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모여서 그중에 아마 두세 가지만 골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를지는 투표를 하든가 의논해서 골라서 대책에 관한 얘기를 내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1~2분 정도 한 가지씩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어도 여기 평창에서는 이거는 꼭 지금부터 준비하고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싶은 대목들 그런 분야들을 잠깐 생각해 주십시오.

김채정 제가 생각한 거 여기서 더 줄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 여성분 계시지만은 나라에서 애 하나 낳는다고 1억을 준다. 난 여자라면 나는 싫어할 것 같아 여자들 무슨 뭐 저기 뭐 공장이야 뭐 저기 뭐야 옛날에 그 애 대신 내주는 걸 대리모가 아니잖아요. 돈 받고 낳아주는 거. 그런 인식을 아직까지 갖더라고요 저는 이 생각이 남들보다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서 욕을 많이 먹어요. 아마 지금 여성분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야. 그것도. 근데 좀 지나면 아마 그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다고 자꾸 “애 낳아라. 돈 줄게, 애 낳아라”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원인을 찾아보자 이거죠. 왜 여성들이 애를 안 낳을까 첫째 교육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애가 커서 대학을 대학 때문에 교육이잖아. 결국은 임금 문제라고요. 생각에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 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기술을 했는데 공장 가면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봉급을 더 줘. 경력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4년 많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4년 더 했어. 기술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대학 나왔다고 돈을 더 타 가져가. 그러니 부모로서 너도 돈 많이 벌고 살아라고 대학을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 첫째는 이 임금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고등학교 나왔든, 대학교 나왔든, 경력을 우선적으로 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연봉을 책정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대학은 안 갈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건 하나 교육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 모순된 문제인데 지금 사교육이 이제 대학 문제로 발전되는데,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는 이 학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

을 못 가는 게 많은데 학교에서 공동 학원을 나라에서 운영을 해서 방과 후 수업을 진짜 일타 강사를 모셔다가 농촌의 학습 능력을 좀 높여서 그러면은 도시로 안 갈 거 아니야. 여기서도 편안하게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가는데 굳이 도시 가갖고 밤낮으로 차 타고 다니면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하나의 숙제인 거야. 이렇게 바꿈으로써 농촌을 살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의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김정섭 임금 격차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농촌의 교육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김채정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활성화 이것이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지역의 문화, 아니면 뭐 환경.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내가 가서 이걸 좋아하니까 해야겠다’라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일자리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고.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을 못 마치고서는 도시로 갔는데 그 학교가 10년 전에 폐교 위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봉평 면온초등학교 그때 그 동문들이 “야, 이거 폐교하면 안 돼 그래서 학교 인구수를 늘리자.” 하고서는 외부에서 사람도 불러들이고 또 특화된 교육을 시켰어. 저는 앞으로도 초등학교나 학교가 없어진다는 건 지역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시킨다면 서울도 인구 유입이 된다고 봅니다. 굳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리 뭐야 출산율이 몇 프로 됩니까? 1%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교육.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해서 뭐 옛날에는 우리 휘닉스파크에서 스키부나 뭐 보드부가 있어가지고 그 애들이 서울서 유입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걸 활성화를 안 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 왔던 인구들로 가버려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지금 여기서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정책적이 됐든 군에서 됐든 교육부가 됐든 간에 젊은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러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균찬 네, 지금 두 분 앞에서 좋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이게 이런 저런 논의해도 이게 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희 동네에도 이제 진부에 초등학교 3개 쪽에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이장 볼 때도 그야말로 학교를 유지를 시키겠다고 탄 동네에 가서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내다가 이래 가서는 유지를 하다가 지금도 수원 쪽에서 여러 가정이 진부 아파트에 와서 부모가 거

주를 하면서 우리 동네를 와요. 그래서 뭐 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끌고 와가지고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타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울릉도를 갔다 왔다 제주도도 갔다 왔다 그런 지원이 교육부에 예산이 많다 보니 지원이 돼가지고 그런 데를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 자기 자연적으로 부모 애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학생 수는 늘어나가지고 교장, 교감에다 학교 일하는 아저씨 2명에다가 상당히 활성화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내가 한 20~30년 이장 볼 때 학교 폐기되고 어느 때 우리보다 먼저 생긴 데도 폐교가 됐는데 그 학교는 우리는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 여러분들이 낸 세금만 갖다가 축을 몇십억씩 1년에 내고 있지 아무 필요 없다. 차라리 버스 한 대면 진부 초등학교 갔다가 여럿이 아껴 말마 따라 여럿이 공부하는 데 갖다 놓고 경쟁력을 키우는 게 낫지. 거기서 물론 부모네들이나 애들이 그저 선생 한 명이 두세 명 들고 노는 재미는 있지만 애들이. 그 이상에는 국가 예산만 우리 세금 낸 아까운 돈만 소비하고 낭비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하나 만나서 만나서 어저께 얘기를 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올해 84인데 화훼 농사를 지금까지 쪽 지어왔는데 이분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는 참 너무 지금 살아본 게 여지껏 지금도 화훼 농사를 지으면 혼자 밥을 끓여 먹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너무 허탈하게 살았다. 그 원인이 뭐였냐. 그 앞에 집이 마당하고 붙어서 살던 그 친구는 젊어서부터 재산도 없으면서 술이나 슬슬 먹고 진부 나가 놀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술이나 먹고 재산이 없으면서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각종 지원하는 혜택으로 누리고 잘 살고 있던 말이에요. 깨끗하게. 이 사람은 혼자서 지금까지는 그 땅떼기가 있으니까 묵히지도 못하고 농사를 지어서 생활비를 하고 사는 게 이게 나로서는 잘못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앞으로 우리는 여지껏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정책이 잘못돼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 많고 그거 갖다가 끓는 냄비 안에서 물고기 마냥 그저 이제 주는 거 먹고 만날 들어 앉아 잠이나 자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 없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가가 참 위험하고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거기에 아주 100% 동의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난리 밑에서는 이런 안을 내고 저 내도 위에 머리에서 하나 잘못 나와가지고 헛소리 픽 해가지고 탄 데로 끌고 간다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는데 이걸 먹고 노는 사람이 지금 대우를 받고 뭐 조금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뭐 이거는 어떻게 뺏아서 훔쳐서 강도질을 한 것 모양으로 몰아세워서 세금을 물리고 하는 세대로서는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이나 청년들이 발전이 없다. 이것을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 보고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우리가 청년들 자체가 정신을 어떻게 주입해 주느냐 이게 문제지, 인구가 좀 적어도 정

신만 몇 사람이 바로 박혔으면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냈습니다. 이제.

이주병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규모를 줄여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조직. 이거는 축소해야 되는 거죠. 쉽게 줄어들었으니까. 더붙어서 농협을 포함한 사회단체 비생산적인 단체들 이런 것들 정리를 해야지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00년 대계라고 그러는 게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 교과 과정에 농업이나 농촌에 대해서 교과하는 게 교육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한 개 단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육 받은 인員들이 대학 가고 행시 패스해서 농식품부에서 정책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농업 관련 교육 파트를 좀 보강하는 안을 좀 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섭 인구 줄고 경영이 행정기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직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다. 이거 좀 큰 스타일의 얘기지만 농촌하고 도시나 일반 사회하고 서로 몰라가지고 원체 모르는 게 많고 거리가 멀어졌으니 초등교육부터 좀 그럼 교육적인 저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한 가지씩만 말씀해주세요.

임해정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성세대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하나 있는데 매년 미달이었었어요. 학생 수가 모자라다든지 뭐 해도 자원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정원을 채울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었었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 떨어졌어요.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정원이 초과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냐 하면은 진부에서 이제 진부의 인재 육성을 하자 이래가지고 십시일반 이제 장학기금을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원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미달되던 정원이 올해는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에서 기성세대들이 조금 변화를 시켜서 투자를 좀 하면은 그다음 세대들도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정섭 교육 쪽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선생님...

이균찬 저는 이제 시골에 살면서 가장 어렵고 뭐 이런 부분들이 농사일을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을 잘못 쳐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줬다던가 그런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어려운 숙원 사업인데 그래서 마을의 변호사를 마을에 법무사... 마을 일을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법무사를 마을마다 좀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그러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현안적인 문제가 아무 마을이든 간에 좀 있습니다. 농업을 하다 보면은 지식도 부족하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실질

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게 도움을 주면은 또 특히나 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마을 현재 주민들하고 갈등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마을 법무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김정섭 고령화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네는 고령화되고, 세상은 복잡해지는데 법적이거나 행정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 줄 사람도 없고.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박훈상 선생님.

박훈상 가장 현실적인 의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인구 소멸이나 초고령화 저출산 얘기를 모여서 들어보고 했지마는 저도 자식이 있고, 여기 앞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도 자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자식들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내 집에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지에 나가 있습니까? 내 자식은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들어오길 바라는 거는 내가 여기 살면서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내 자식은 너네 이 힘든 일 하면 안 되니까 나가서 두 다리 뺏고 더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남의 자식들은 왜 들어오라 합니까? 청년들을 동네로. 우리 내 자식마저도 떠나보낸 곳에 다른 자식들 들어오라 해가지고 여기 평창군에 와가지고 뭘 하라 뭘 하라고 자꾸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렇게 하는 의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보내고 다른 자식들은 그러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나 하는 왜 나는 내보내고 나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현실?

김정섭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이균찬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창에 앞으로 10년이나 이후에 필요한 것은 아마 우리 평창, 기존에 사는 국민도 그렇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평창에 필요한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작물 뭐 이런 발걸을 하고 소득 증대에 힘써서 우리 국내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관광을 하든 농사를 짓든 소득이 우선 올라가서 증대가 돼야 된다. 첫 번째 그래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0세 이하가 10%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노인 문제가 큰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양 보호시설이라든가 병원 이쪽으로 힘을 써서 중점 재정을 투입을 해서 전국에 돈 많은 노인들이 와서 공기 좋은 데 와서 살면서 노년을 즐길 수 있어서 거기서도 수입을 창출하고 뭐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섭 다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김채정 저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저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

신 데서 제도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귀농자 귀농·귀촌자는 나라나 시군에서 정착하는 돈을 많이 줘요. 그런데 후계자 농사를 짓겠다고 내놓은 자식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문제 되잖아요. 귀농자는 와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은 후계자는 아버지가 했던 게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업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몰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아무런 제도적 장치에 보탬이 안 되니까 그 후계자들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후계자가 들어오는 것도 귀농자처럼 주택 자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처우 개선을 하면 앞으로의 귀농자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자식은 외지에 가 있고 남의 자식 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정책도 문제가 허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요. (지금 후계농업 경영 사업이 그건데요)

김정섭 네, 후계농업 사업이 있습니다. 실무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군마다 굉장히 하는 게 달라서 한마디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 놓고 보면 50대 빼고요. 50세 이하로 놓고 보면 후계자 쪽의 지원이 귀농자들보다는 훨씬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시군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버지 농사 후계자인데 저기 주민등록은 집 따로따로 하시라고 그래요. (웃음)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후계자 쪽이 훨씬 지원은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시군에 날아가면 동네마다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 얘기고요. 내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하나씩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한 두 가지 분야만 정해가지고 평창군에서 전국 수준 얘기를 합니다. 평창군에서 인구가 줄고 더 고령화된다는 전제하에 요거 요거는 꼭 노력을 해야 될 분야다라는 거 두 개 정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내일 하지 않을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 늘리자, 귀농귀촌 많이 받자,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계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토론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싶어서 제가 그냥 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 정신머리가 바뀌어야 된다,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정신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그런 거를 정직하게 그거는 상당히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해 봐야 헛돌 겁니다. ‘정신 교육 해야 된다’ 이 소리만 나오지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그래서 그런 얘기 정신적이고 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거는 내일 토론에 붙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학교가 중요하다 노인 돌봄이 중요하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소득 기반 농업이든 비농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것들을 한 두 가지만 넣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나라는 아이디어를 내일 여쭙겠습니다. 내일 해서 결론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토론하다 보면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저희 연구진이 가져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균찬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낫겠다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김정섭 그러니까 애 많이 낳자 이 얘기는 빼고 적응, 애 줄어든 상황에서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만 그게 얘기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연구하는 내용을…

이균찬 그것도 살짝 한 번을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섭 그러면 내일 빨리 진행하고 마무리 시간 나면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균찬 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내일 마지막에 제가 한 마디…

김정섭 해보시고 오늘 몇 가지 이 자리에 한 가지씩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제가 고를 건 아니고요. 내일 오시자마자 한 단어로 일자리, 아니면 노인 돌봄, 아니면 뭐 교통, 학교. 이런 식으로 한 단어씩만 딱 쓰시거나 얘기하셔서 그중에 투표가 제일 많은 거 1, 2등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김채정 카멜레온이 되자!

김정섭 그래서 어떻게 적응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쓸 그 한 단어를 오늘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자마자 써주시면 되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6

E그룹(평창군, 50세 미만 남성)

1. 개요

- 일시: 2024년 3월 20일(수), 16:00~18:30
- 장소: 강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 참석자: 연구진 3명 외 평창군 거주 50세 미만 남성 8명

평창군에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남성 주민들이 초점집단토론에 참가하였다.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등이 평창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탐색해 보았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청년 유출과 정주 여건 미흡

참여자들은 교육 및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젊은 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

제를 지적했다. 평창군 안에는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젊은 세대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꺼린다. 일자리 및 문화시설 부족은 청년 유출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1.2.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농업이 주요 산업인 평창군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노동 인구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외국인 관리 문제도 제기되었다.

1.3. 지역 경제의 축소와 상업 감소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평창군 내 상업 시설의 축소로 이어졌다. 상점, 학원, 서점 등 자녀를 위한 인프라가 줄어들면서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내수는 더욱 줄어들고, 관광 및 외부 방문객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심화되었다.

1.4. 제안된 해결 방안

1.4.1. 지역 특화 관광 산업 개발

평창군은 자연환경과 전통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지 인구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업과 체험 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체험형 관광을 도입하는 방안이 초점집단토론 과정에서 제시되었다.

1.4.2.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

참여자들은 평창군 내 문화와 체육시설이 제한적이며, 이러한 환경이 젊은 층의 정착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문화 공간이 부족하여 여가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층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4.3.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평창군 내 병원 인프라와 의료 장비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도 외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

1.4.4. 청년과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젊은 세대가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단체를 활성화해 지역사회와 청년층 간의 유대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초점집단토론 내용

김정섭 다 적으셨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농담이라도 한마디 하고 재밌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 오늘은 무슨 이게 토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내일 모임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일도 깊게 들어가거나 격렬한 토론을 할 건 아닙니다. 약간 의견 교환 정도.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평소에 경험하신 거나 생각하시는 거를 제가 묻는 거에 맞춰서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오신 분들 중에는 서로 아시는 사이도 있으시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 분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부터 돌아가면서 한 30초씩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성함하고 사는 곳, 하는 일.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런저런 거에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 짧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원구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이원구이고 저는 여기 평창읍 천동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현재 26이고요. 저희 평창군 농업회의소에서 뒤에 000 사무국장님이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라기보다는 일단은 평창이 되게 시골인데 시골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강이나 산 있는 곳을 좋아하고. 부모님도 여기서 오래 사셨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 자리 잡고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장현세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장현세이고 사는 곳은 진부면에 거주하고 있고 하는 일은 이제 조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상수 재배나 대파 농사 노지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는 이제 일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제 수목 쪽이나 돌, 정원석 이런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수 안녕하세요. 봉평에 사는 조현수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지금 건설업하고 농업인을 같이 경업하고 있고요. 관심사 관심사로 보면은 그냥 농업의 이제 주... 요새 지금 이제 스마트팜 이쪽 농법이 많이 바뀌고 있다든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젊은 분들이 와서 인력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농업 쪽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기계화되는 것도 많이 연구 중이고요. 그런 거 하고 있고. 건설업 쪽은 평상시 어서 이쪽에 농업 쪽에 요새 관심을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진천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천이고요. 나이는 38살이고. 봉평에서 왔고요. 하는 일은 지금 마트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농사도 짓고 여동생이 이제 딸기 농사 지어서 이제 유통하는 것도 제가 담당해서 하는데 요즘 관심 가는 분야는 제가 또 올해 평창군 연합청년회장을 맡아서 이제 저희 청년단체가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있고요. 앞으로 또 여기 평창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없는 가운데서도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임훈영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임훈영이고요. 사는 곳은 방림면 쪽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25살이죠. 김대현 사무국장님 밑에서 같이 이원구 팀장님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에서. 관심사는 저도 시골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 살다가 원래는 여기 거주를 계속했었고. 인천에 한 1~2년 정도 살다가 다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농촌에 관해서 어떤 게 좀 더 발전되면 좋겠다 이런 걸 평소애 좀 생각을 하고 사는 편입니다.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수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0대고 이제 평창읍 하리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고요. 요즘에 관심사는 뭐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할 게 없어서. 그 운동밖에 할 게 없어서 운동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박웅진 안녕하세요. 저는 박웅진이라고 하고요. 봉평의 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귀농해가지고 산양삼하고 산마늘 눈개승마 이런 작목들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귀농한 지는 지금 10년 차 됐습니다. 관심사는 지역에 젊은 분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거 좋아하는데. 지역에 어떤 성공한 사례나 이런 것보다는 실패한 케이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고. 항상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부면에 살고 있고 이름은 김영재이고 나이는 38살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농업 쪽으로 하고 있고요. 관심사는 이제 뭐 농업과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살아남냐 이제 그런 쪽도 조금 저도 관심이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섭 분위기 안 산다 큰일 났다. 이제 그냥 몸풀기 삼아서 그냥 간단한 소감을 하나 여쭙볼게요. 요새 이제 언론도 그렇고 또 김대훈 국장을 통해서 이런 모임이 있다 좀 와 달라 얘기 들을 때 고령화, 저출산 또는 인구 감소, 농촌 소멸, 지방 소멸... 이런 단어들을 은근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몸풀기용 질문이니까 그런 단어들 들을 때 딱 드는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진 순서 없이 그냥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분, 느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박웅진 유쾌하지 않죠. 유쾌하지는 않은 거는 뭐 그냥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고. 이게 지금 정책 관련된 어떤 얘기들을 또 연구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과연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제대로 설정돼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 정책들이 실제로 실효적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워딩으로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지역에 실제로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걸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나? 하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적극도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정섭 어떠세요?

정진천 저의 의견은 최근에 저도 뉴스를 보니까 23년도 함께 출산율이 0.65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입니다. 전국으로 4분기 한 0.65 정도 된다고 했는데 1년으로 따질 때 0.7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숫자는 되게 막연하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아이를 안 갖는 사람은 많이 없는 데 늦게 하거나, 이제 출산을 늦게 하다 보니까 둘째를 가지지 않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자녀가 3명인데, 저는 31살 때 결혼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가족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잡고 3명을 출산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결혼 자체를 35, 36...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되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20대에 결혼을 해서 20대에 출산을 하고,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이제 2명까지 자녀를 출산하기에 딱 알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결혼을 늦게 시작하고 늦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한 명만 키우기도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어느 누구나 이제 결혼했을 때 덩크족도 있겠지만 덩크족이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 보면은 이게 한 명을 시작하기에 너무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소멸이라는 게 인구 감소돼서 지방이 소멸이 된다는 게 이게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이슈 되는 게, 의사 정원이 늘린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은데 사실 제가 만약에 자녀를 키워서 저희 자녀가 의사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연봉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나 지위가 높아서 의사가 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의사가 연봉이 많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일반 자녀를 키워서 농업인으로 키웠을 때 만약에 자녀가 의사의 연봉만큼만 벌면 누구든 농사를 했을 때 그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의사나 대기업 가지 않아도 지방에 내려와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지방 소멸이라는 게 사실 농업인들의 수당, 기본적인 소득. 이런 게 다른 직종에 비해 좀 떨어지니까 이런 연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갭이 너무 크니까 그 갭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섭 다른 분들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아직 심각한 질문 나가지도 않았습시다.

이원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키워드를 좀 들었을 때는 이제 막 여기에서 이제 성인으로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막막하죠. 여기는 갈수록 더 줄어들 테니까요. 내가 나도 이제 한 20년 뒤면은 그래서 저는 아직 40대거든요.

김정섭 금방 갑니다.

이원구 근데 뭐 자녀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당장 내 동네에 중학교는 있을까? 그때 여기 읍이 그나마 많았는데 뭐 학원이나 하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많죠. 딱 그냥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았을 때 그냥 ‘어. 평창을 떠나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키워드들이 젊은이들에게 이 농촌이라는 사회는 젊은이들이 살기에는 너무 척박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임훈영 저도 이원구 팀장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이번 저는 어쨌든 여기서 뭐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23년을 살다가 인천에 갔다가 다시 내려온 케이스잖아요. 근데 일단은 성인이 되면 무조건 큰 도시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젊을 때. 왜냐면 여기서 사실상 저가 있어봤자 아버님의 농사를 물려받지 않는 한, 자영업을 물려받지 않는 한 할 게 없어요. 사실. 땅 없고 도시에서 내려와서 만약에 이사 와서 살다가 올라가는 아이들은 사실상 여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위에서 만약에 성공을 못 했어요. 내려오려고 해도 여기에 집이 없어요. 집을 내려오려면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또 자가를 지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가를 지으려면 적어도 이삼억 원 들잖아요. 최소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힘들 힘들어도 죽을 거 같아서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생각은 절대 못 하는 거고. 어쨌든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척박한 생활이죠. 도시에서는. 그 사람들을 끌어오려는 방법은, 끌어오려고 한다. 이거의 최고 좋은 방법은 정주여건이라고 생각해 지금 보면 여기 많은 집들도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게 뭐 일본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상 5년 정도 이렇게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내려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섭 다른 분들도 한마디씩 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 저는 사실 뭐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저런 단어 나오면 별로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저런 말보다는 주변에서 저희 옆 동네에 23년도 출생아 수가 0명이라거나, 초등학교 졸업 인구가 50명이다. 이런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인구 감소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제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일 때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것도 뭐 같은 말이겠지만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지방 소멸이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중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더 좀 놀랍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뉴스나 그런 데서는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은 없습니다.

조현수 저 같은 경우는 고령화 인구 저출생 지방 소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뭐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시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예전에 저희가 이제 80년대 90년대를 살 때는 대가족 현상이었잖아요. 대가족이 살다 보면 그때 이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핵가족이 원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결혼해서 시댁살이를 하네, 어찌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드라마도 많이 그런 걸 하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뭐 먹고 살길이 힘들었다, 그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지금 보면 그때적인 장점이라는 게 이제 어르신들,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당연히 고령화고. 평균 수명이 그때는 60대 초중반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으니까 힘들게 하고 의료기 수준이나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돌아가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고령화가 될 수가 없죠. 60대 중반에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고령화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구 감소 문제도 그렇고 저출생도 그렇고 지방 소멸 이런 얘기 자체가 보면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애가 있고 하고 있지만 생활하다 보면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 50대, 이때까지 가는 그 과도기 자체가 저희가 뭔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월급쟁이, 봉급쟁이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해가지고 이때 수입을 해가지고 자녀를 기르고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40대 때 돈을 벌어서 내가 자가 주택을 구입을 하든 뭐 전세를 들어가든 집이 있어야 돼. 마련이 되고. 그래야 아이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한 달에 월세살이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집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야, 여기서 나가 벌어가지고 생활비랑 애들 키워라 이걸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달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봉급이 오르니까. 연금도 오르고 다 좋은데. 그만큼 저희가 소비하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대가족일 때는 아이를 한 명 낳아도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이 애를 조금이라도 케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핵가족이 되다 보니 어르신들은 한마디로 지금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이제 신식 고려장이잖아요. 그렇죠? 갖다가 버리는 식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젊은 사람 자기 주장에 맞게끔 어른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예전에는 뭐 부모님들한테 두드려 맞고 욕을 먹어도 예이씨 이려고서 그냥 말았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보면 뭐가 저부터도 잘 안 듣긴 하는데 그런 문제가 점점 지나다 보니 이 문제가 온 거고. 그리고 아까 직장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선택해야 잘 살게 된다 그쪽으로 이제 위주로 공부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직장의 선택 순위 의사

가 최하위예요. 저희 조카도 이제 의대 지금 가서 뭐 하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인구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수료하고 10년이 지났을 경우에 사람이 없는데 치료를 할 의미가 없다 이거죠. 사람이 의사들이 하는 일이 생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업적인 부분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시대적인 변화나 이제 문화의 차이가 계속 있다 보니까. 따지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화가 업체 많이 받아들 있으니 그런 문제가 가장 심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바꾸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시대적인 변화가 한 번 있지 않아야 싶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정섭 한두 분 정도 더 많이 보태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김영재 근데 어차피 모든 시작이 저출생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우스갯소리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많이 감소가 됐다. 이제 다른 미디어나 전기만 딱 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많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뭐 당장 어차피 다 발달된 거를 이제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은 맞고. 그리고 나머지 어차피 저출생에서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만큼 의술도 발달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의학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더 장수를 하시는 거지. 그리고 저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더 이렇게 좀 약간 더 이렇게 떠시는 거지. 근데 저도 뭐 당장에는 되게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당장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정책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거기에 또 다른 또 오점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다...

장현세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제 저 단어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느끼는 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 사이 쪽 지켜보면 아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출생 가장 문제에 처음은 이제 저출생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출생에 가장 큰 그게 이제 보통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한 편인데, 친구들이 먼저 하는 애들을 들어보면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행복하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무서워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지방 소멸이 되고 이제 초등학교만 봐도 저희 학교 다녔을 때랑 지금 다녔을 때랑은 차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 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빈 가게들이 많아요. 지역 동네에 빈 가게들이 많고 없어지는 곳들이 많고.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학원이에요. 저희 동네 분들 보면 학원들이 학원 하시는데 분들은 다 바깥으로 이제 도시로 다 이사를 가고 있어요. 가장 큰 눈에 보이게 보이

는 게 그거라고 보고. 애들과 관련된 게 다 없어지고 자연스레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쪽은 이제 원주나 강릉으로 가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제 눈에 보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정섭 **장현세** 선생님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셨는데요. 제가 기분을 물어본 거고,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 이제 어쨌든 외지에 나갔다 잠깐 나갔다 들어온 분도 계시긴 하지만 다 이제 평창에서 시골에서는 다 젊은 축이지만 젊지만, 그래도 사실 따지고 보면 평창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그러니까 농촌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 인구 줄고 이러면서 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또는 읍·면 또는 군 수준, 읍·면이나 마을 수준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 가족이나 동네 분들 다른 사람들의 간접 경험도 좋습니다. 대략 인구 줄고 고령화되고, 애들은 적게 태어나고,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동네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을 겁니다. 지역사회가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바뀌었다, 그동안. 인구 변화 때문에 바뀐 게 있다면?

김영재 일단 뛰어노는 애들이 없습니다. 저희 때는 삼삼오오 모여서 이제 뭐 여자들은 고무줄 하고, 남자들은 구슬치기도 하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지금 밖에 뛰어노는 애들이 없어요. 삼박질하는 애들만 있어요. “니네 집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제 말을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의 싸움만 해.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니네 아빠 차 뭐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빠 차 이건데 니네 아빠 차는 뭐야? 니네 아빠 차 왜 저래?” 그런 얘기를 이제 또 드문드문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애들이. 점점 부모들은 더 힘들어지죠. 시내를 나가면 더 심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작은 동네보다. 왜냐하면 더 이 빈부 격차가 심하잖아요. 시골보다.

김정섭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뛰어노는 모습은 보기도 어려운데 지역 안에서 격차도 좀 예전보다 드러나는 것 같다.

김영재 저희 때는 뭐 뿔 타고 다니든 소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친구면 친구.

김정섭 소 타고 다녔어요?

김영재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성격 차이로 인한 친구들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이런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은 진짜 저도 좀 아이를 키우면서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섭 소 타고 다니냐고 물어보면 난 어렸을 때 소 타고 다닌 세대여가지고. 소를 직

접 타지 않지만 마차라고 그러죠. 달구지, 그거 동네에서 있는 집 한 두어 집 있었거든요. 모든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타고 다닌 기억이 나서.

김영재 저는 소로 밭은 가는 거 따라다니곤 했었죠.

김정섭 어떤 것 같아요? 동네가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지역이.

조현수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평 같은 경우에 10년 전쯤 생각을 하면 우선 늘어난 건, 요양병원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고령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다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를 어떻게 돌볼 수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군이나 이런 정책 사업에서 또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도시락 반찬 같은 것도 나누신 이런 사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해서 가고 바뀐 거는 우선 유치원이 없어진다든가, 봉평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3개였다가 하나가 지금 없어지고. 올해 하나가 또 없어졌어요. 근데 올해 이제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는데 봉평면에 신입생이 2명입니다. 올해. 저희 딸도 이제 거기 이제 가가지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출생 때문에 바뀌는 변화라는 건 이제 그런 게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창 쪽에 인구가 좀 덜 줄어서 이쪽이 좀 선택이 돼서 이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군에서 나오거나 하면 여러모로 얘기는 해요. 이제 평창군 같은 경우의 정책 사업 중 하나는 이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쪽 사업이 원래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귀농·귀촌하셨다고 그랬지만. 귀농·귀촌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확연히 쫓겨있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젊은 이제 청년들 중장년들 요즘 장년층까지 50대까지만 해도 40대, 30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귀농 출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환영한다고 봐요.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뭔가 기술을 배워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사업들은 좋은데, 예산이 점점 해마다 늘고 있어요. 공모 사업도 하고 무슨 사업도 하고 무슨 사업도 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 원주민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녀들이 여기에서 외지를 안 나가고 버틸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혜택은 없어요. 저도 그런 혜택을 물어보면 “영농을 시작한 지 오래되셔서 지원을 못 합니다.”, “부모님이 영농을 하고 있는데 같이 경험을 지금까지 해오신 게 있어도 지원을 못 해드려요.” 귀농·귀촌을 하신 분 하면 지원을 해드려요. 근데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최고 나이가 몇이신지 아시죠? 65세 미만이에요. 65세 되시는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영농 생활을 해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과연 지역의 발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없다고 봐요. 그분들이 요양하러 오시는 거지, 여기

에 자기 재산이나 뭔가 벌여놓은 거 다 벌어들여 자기 자식들한테 사업체 다 물려주고. 여기 내려와서 자금 받아서 집 짓고 땅 사가지고 그냥 놀다가 적은 집을 좀 쓰다가 “있는 재산 좀 내가 갖고 와.” 이래가지고 빚 갚으면 그만이에요. 그거 살다가 이거 팔고 가면 그만이고 그분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65세에 애를 낳고 여기서 키워가지고 뭘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정책은 많은데, 정작 여기에서 자녀를 낳아서 대학교는 외지에 나가서 이제 시내에서 다니다가 자기가 배우고 싶은 이제 기술을 배우던가 공부를 하든가 미디어 쪽이나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주소지 이전을 다 안 시키고 여기 부모 밑에 돼 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기 없어요. 무조건 주소지가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후계농으로 스마트팜이나 요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스마트팜이나 이런 농업을 만약에 해보겠다 시작을 해도 시작이 어차피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뭐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조금 떼어내서 경영체 등록을 해놓고 만들어 놔어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금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감점을 매겨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공식 연구에 민원을 제가 올려놨는데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자리를 잡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차원이면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고 영농의 경영이 많고 그 연령대를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정작 자리를 잡으려고 연봉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부모가 농업을 하고 있었고 후계농으로 이제 부모한테 배워서 같이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다 끊어버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야 너 여기 있지 말아라 나가라.” 근데 정작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광고 쪽이나 이쪽에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여기 와가지고 뭘 좀 해볼까?” 그분들이 온다 그러면 창업 자금을 쓰세요. 3억, 5억, 10억 막 넣어줘요.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와서 그냥 잘 됐다야 작은 저리 대출 한 1%짜리 해가지고서는 한 5억 받아가지고 사업 좀 해보지 뭐 술술술술 하다가 지자체가 좁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체육회나 무슨 관공서 후원들이 이제 보조금 카드라는 걸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 안에서 쓰는 거 그럼 뭔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안에서 결제를 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여기 세금으로 거쳐서 여기서 쓰다가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체를 하면은 돈이 다 그분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그 안에서 소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돌려받기식으로 되는 거죠. 서로 나눠먹기로 서로 여기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사업자 참여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시간 남아서 그만큼 벌고 나중에 여기 와서 노후에 일이 있어도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그냥 천천히 벌어도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분들은 손해 볼 게 없어요. 근데 정작 여기에서 부모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은 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고 들어오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그 지원도 없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부모님이 진짜 재산이 좀 있어서 “야, 가게 하나 차려서 좀 해보자 장사 안 돼도 돼.” 이런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생활비를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김정섭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 지난 10년 사이에 그렇게 인구가 변하면서 동네가 변한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이원구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읍에서 쪽 자라왔다 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딱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평창읍에 초등학교가 크게 평창초등학교가 있고 저기 옆에 약수초등학교가 있는데 약수초등학교가 한 6~7년 정도 됐나요? 한 7~8년 정도 전에 폐교를 했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전교생이 그때 당시가 한 30~40명 됐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폐교를 하고. 그 아이들은 여기 평창초등학교까지 먼 거리를 차를 타고 부모님이 데리고 오고 이런 학교생활이 되었고. 중학교도 저 다닐 때까지만 해도 10년도 채 안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중학교 평창은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초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다 같은 동네에서 자고 나가고 졸업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같은 읍이 아니라 다른 주변 면 단위에서 고등학교를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히려 읍내의 친구들이 성적이 안 되면 다른 면으로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김정섭 면에 있는 고등학교로요?

이원구 근데 지금은 다른 면도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여기로 다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읍에 있는 친구들이 나갈 일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없어서. 물론 저기 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반수도 줄었다고 많이 들리고. 일단은 학교에 아이들이, 이 읍내 다니는 아이들이 확연하게 눈에 줄었죠. 정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읍내가 한산해요. 아이들이 축제 기간이 되면 더 막 늦은 시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뭘 이런 걸 안 하나?’ 코로나 영향도 물론 길었지만 진짜 한 근 10년 동안 차이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김정섭 축제라고 하는 건 지역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원구 학교 축제들.

김정섭 하기는 해요?

이원구 하긴 하는데 정말 많이 작아졌죠. 정말 많이 작아졌고. 그리고 이제 또 노인분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관련 돌봄 서비스가 정말 읍내에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여가 시설로 게이트볼장도 근래 읍내에 생겼고 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폐교 나면서 이제 노인 주간 요양보호시설로 바뀌었고요.

김정섭 주간보호센터.

이원구 네,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라서 약간 어른들로 포커스가 복지가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장현세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학원이 제일 많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서점과 문방구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서점은 약간 택배 서비스가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버스 노선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이 하루에 6개가 있었다면 지금은 3개, 2개밖에 안 되니까. 결국 인구 감소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겼다고 보고 그 외에 반면에 잘 되는 거는 장례식장이 제일 잘 됩니다. 그거에 따른 또 회원들이 잘 돼요.

김정섭 꽃집이요?

장현세 꽃집이. 그런 것만 잘 되지 학생과 유아들에 관한 거에 대한 거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박웅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10년 동안 여기 평창군을 돌이켜봤을 때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 지역에서는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교통이 가장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가장 좋아짐으로써 장단점이 있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도 KTX나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으니깐 외지 갈 때 편하다 보니까 인구가 사실 원주나 강릉 쪽으로 쏠림도 있었어요. 그게 단지 교통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직장 상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리로 가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인프라가 좋아짐으로써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계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주변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린이집 유치원이 가장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일단 출생아 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

제가 봤을 때 치과는 또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소득 수준이 그래도 좋아진 건지 이제 임플란트가 좋아진 건지 (의료보험이 돼서 그래요) 잘 돼있어서 치과는 되게 잘 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만 해도 치과 새로 생긴 데가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인근 동네에서도 하러 오고 하나까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진료 받으려고 해도 2~3주 전에 예약을 해야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 학생 많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는 게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경제가 옛날보다 다르게 되게 조금 소비가 되게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애들이 많고 뭐 그러면 진짜 예를 들면 면에서 하는 체육대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먹고 즐기고 다 했는데 애들도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체육대회 면 체육대회도 예전에는 좌판 이렇게 나와서 막 사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게 몸으로 와닿는 거죠. 이제. 애들이 없고 어른들도 나와도 이제 거의 진짜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젊은 층들도 거의 사실 지역에 저도 이제 모임을 하면 지역에 활동하는 친구들만 나오고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 위주로만 돌아가니까 이게 그런 점이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이제 젊고 같이 하다 보면 우르르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조현수 아까 학교 쪽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문방구 그런 거 얘기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문방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부모들이 준비물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적어서 주는 부모들이 사가지고 그런 거를 애들 가방에 넣어가지고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그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서 그냥.

김정섭 선생님이 알아서.

조현수 선생님들이 알아서 나와서 그냥 하고 계속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보면 지역에서 문방구 하는 의무가 좀 없어지긴 많이 없어졌죠. 사업 자체가 줄으니까, 사업 소득이. 그래서 전에는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문방구랑 지역에 있는. 만약에 봉평이면 봉평, 진부면 진부. 이런 문방구랑 이제 초등학교랑 중고등학교 이렇게 준비물 같은 거를 대부분 보니까 이제 거의 계약을 하셨었다고요. 전에는 움직이는 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러이러한 뭔가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공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게 뭐 뭐 뭐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좀 가져다주세요.” 이러면 그 문방구 하시는 분이 준비를 해서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소규모로 구매해서 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자체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변화되는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뭐 이렇게 여러 두루뭉실하게 여러 명. 제가 뭔가를 하면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학교는 학교 안에서 다 테두리 안에서 다 정리가 되고, 학원에 가면 학원 안에서 다 정리가 되고, 또 어디 가면 어디 안에서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외부 아이들이 나와서 움직이거나 학부모들도 그만큼 신경 쓸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변화가 가장 그게 많이 크죠. 학교들 학생들을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아이들도 방과 후 수업이나 뭐 이런 활동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체육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태권도 학원을 보낸다든가 무슨 어디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시내 쪽은 원래 뭐 학원 버스랑 학원 차량을 많이 운행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여기서 친구들끼리 손 붙잡고 쪼르르 가가지고 어디 학원 갔다가 거기 끝나면 또 쪼르르 와가지고 움직이고, 이제 마지막에 집에 갈 때만 이제 마지막 학원에서 집에 데려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학교 안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학교를 못 나가게 해요. 저희가 이제 방과 후 수업 하려고서는 등록을 해가지고서는 학교에 가서 이제 문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우선 안전 때문에 가장 교통량 때문에 차량이 있고 이러니까 안전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서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나 모든 분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밖에 노는 모습을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청 책임이나 아니면 저희같이 이제 따로 나와서 학원이나 이쪽에서 가르치는 그쪽 책임이, 여기 책임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져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장현세 저는 농업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라 이렇게 일을 해보면 농업 단위가 이렇게 조그마했을 때는 괜찮은데, 커지면 일할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작업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촌에 실제로 일을 하는 작업 인력들이 엄청나게 줄었고. 줄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로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마트 같은 데도 풍경들이 전반적으로 좀 바뀌었죠. 이제 상설로 하나로 마트라든지 이런 데 베트남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될 정도로.

김정섭 하나로 마트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들이 따로 따로...

장현세 향신료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엔 전체적으로 이것도 경제 인구라고 봐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경제활동을 지지하고 있는 사업장 말고 노동 인력이 줄었어요. 노동 인력이 감소했고, 그래서 농사 같은 거 지으려고 그래도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이제 교통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KTX 같은 거는 이게 커다란 어떤 행사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개설이 되면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부분을 그 꺾이기만 피상적인 부분만 보고 교통이 좋아졌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생기는 했는데, 고속도로도 뚫리기는 했는데 고속도로 같은 게 뚫려서 그냥 다 밖으로 새버리는 부분도 있고. KTX 같은 경우에 이용률 자체는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쪽에 뭔가 어떤 목적지 관광 같은 형태로 여기를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부에 콘텐츠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허상이 크고. 또 의료원 같은 기능들도 강화를 시키겠다고 정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평창군의 여기 이제 보건의료원이라고 그래서 원으로 승격이 된 데가 있는데 전문의는 실제로 1명, 2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네 보건소예요. 보건소가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교통이 돌아가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주유소는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주유소도 폐업을 하고 있어요?

장현세 네, 그러니까 교통량 자체도 줄어들고 내부에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인구들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이겠죠.

조현수 교통 얘기 나오면 이제 가장 저희 같은 강원도 하면서 춘천이 가장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서울 지하철 때문에. 거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바뀐 게 이제 어떤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숙박업 쪽이나 뭔가 장기 투숙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많고, 왜냐하면 당일치기로 움직이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와서 자기 볼 거 싹 보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가평 쪽부터 시작해서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숙박을 하실 의미 자체가 없으니까 그 옛날부터 문제가 가장 됐던 분인데 아까 교통 얘기하신 것처럼 KTX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틀려서 자기 본 거 살짝 보고 그냥 빠져나가면 끝이거든요. 여기에서 어쨌든 그 지역 경제가 뭐가 된다 그러면 사람을 붙들고 자리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하루를 자든 이틀을 자든 여기 있으면 여기서 먹고 뭔가를 경제활동을 하고 할 텐데 교통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안 좋은 점은 이제 그거. 근데 이제 좋아졌다 그

려면 좀 빠른 시간에 편히 그냥 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이제 그런 거 하나예요. 어디 움직일 때 저희 같은 경우에 어디 서울을 간다 이러면 예전에 차를 몰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KTX 타고 그냥 편하게 갔다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점 정도.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저는 동네가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김민수 변화가 없었고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김정섭 그래요 어디 사시길래?

김민수 여기 평창에서는 그냥 그대로고 사실 시대가 변했는데 여기는 계속 그냥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슈퍼 하시던 분이 아직도 슈퍼하시고, 배달시켜 먹을 때 ‘배달의민족’도 안 되고요. 매장도 없고, 버거킹 먹고 싶은데 버거킹도 없고.

정진천 봉평은 그래도 ‘요기요’는 되는데.

김민수 10년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다른 데 서울 가면 변화된 건 많은데, 여기서 변화된 거는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김정섭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박웅진 한 가지만 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걸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인데 이 내부의 어떤 중위 연령 자체가 계속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일을 활발하게 하시고 돈이 많고 뭐 이런 경제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힘을 쥐고 있는 분들 전체적인 연령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일종의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었지만 4H라든지 이런 청년 조직들이 일종의 사회 집단 내부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가 위상이나 위치가 그래도 명확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여농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전체 연령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 힘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사회단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카르텔들이 많은 연령층에서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평창군을 움직이지 이 청년들한테 사실은 좀 힘이 실리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섭 그래서 이렇게 힘쓰는 연령대가 지금은 나이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60세 정도?

조현수 60대 초중반 정도가...

김정섭 30~40대 사회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뭐...

박용진 관변단체적 성격이 강한 데들은 살아남고...

정진천 그러니까 사회단체 인원이랑 힘이랑 맞먹습니다. 왜냐하면 표기 때문에 지자체의 표기 때문에 결국은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힘이 있는 거고 인원이 없으면 저희 청년은 이제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힘이 없는 거고.

김영재 근데 어차피 그 청년들이 그 60대 실세분들의 자녀들이 어차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또 그 단체의 힘이 또 달라지죠. 지역에서 좋게 봐주면 점점 이제 아무리 청년들이라도 올라갈 거고. “저 새끼들 맨날 모여서 술만 먹는다” 이러면 이제 또 잘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함을 많이 보여주는 게..

김정섭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연구 책임자로 연구진인데 이 연구의 관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출생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아니면 농촌의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런 거를 연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보태봤자 그게 그거고. 오히려 이제 그러면 뭐 ‘저출생’, ‘고령화’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슨 연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잡은 건 뭐냐면 정설은 뭐냐면 향후 15년 아마 20년 지나도 마찬가지로 일 건데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농촌도 무슨 짓을 해도 지금보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늘어나는 지역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관광지가 아주 흥한다든가 이러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늘지 않는다. 출생률이 그렇게 안 올라갈 거고, 고령화는 더 심해질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민을 활성화시킨다. 도대체 이민을 몇백만 명을 받을 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귀농 귀촌 늘리는 거는 평창에서 귀농 귀촌을 많이 받으면 영월에서는 적게 받는 거죠. 올 사람들 전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건 한국 농촌 전체로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식이어서 별 의미가 없고. 그럼 뭘 연구할 거냐 저희들은 결국은 지금보다 더 인구 줄고 더 고령화될 거다.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그래도 지역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인구 늘려서 해결을 못 한다면 인구 줄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응할 거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지금보다 더 줄어든 상태에서 남아 있는 삶이 될 하고 살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구 늘리자 애 많이 낳자 이런 얘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인구가 줄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 이것을 지금부터 쪽 정리를 해놔야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이미 인구가 줄

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뭔지를 확인하면 힌트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진행을 할 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살아가려면 필요한 거를, 현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필요한 거를 필요한 모든 거를 우리 집에서 내가 알아서 다 자급자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거의 없어요. 거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합니다. 크게는 하나는 돈 주고 사는 방식이죠. 그렇죠 뭐가 됐든지 돈 주고 삽니다. 돈을 줘야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이런 거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죠. 근데 우선 지금 질문은 돈 주고 사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줄어가지고 돈 주고 사기도 어려워졌다. 예를 들면 난 돈은 있는데 돈 주고 사려도 그게 없어져가지고 평창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없어진 건 아닌데 양이 줄어가지고 힘들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생각나는 대로 여기다가 큰 글씨로 적어주세요. 파란색 펜으로, 한 두세 개씩 적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적은 다음에 모아 놓고 그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다시 좀 자세한 얘기를 여쭙보겠습니다.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걸 돈 주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구 줄고 고령화되면서 그게 어려워진 것이 무엇인가. 아까 나온 얘기 중에도 꽤 있어요, 사실은.

박웅진 저는 사실 아까 해주신 말씀이 되게 반가운 게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저출생하고 초고령화를 딱 묶어가지고 여기 대담 면접의 주제로 삼으셨길래 또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의 문제다 이런 되게 뻘한 얘기를 떠들고 가고 피부양자 수 대비 부양자수가 부족하니까 어떤 종류의 결과물들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애 낳고 늘려야 된 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가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자연 발생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견된... 그걸 전쟁하고 그다음의 어떤 것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좀 반가운 부분이 있어요.

김정섭 그런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일본의 어느 학자 표현을 빌자면 그런 얘기는 “여름에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이 소리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 뭐냐 여름에 아이고 더워서 어떡하냐 얘기한다고 날씨가 시원해지지는 않거든요.

박웅진 자꾸 인구 소멸 막자고 그러는데 정주 인구에 자꾸 집중을 하면 결국엔 뭐 영월 군민 빼다가 평창에다 집어넣자는 얘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정섭 일단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것부터 자세한 얘기를 제가 여쭙게요. 가장 많이 붙은 게 인력, 일자리, 노동력... 이 얘기네요. 이거 붙여 주신 분들 이 얘기를 좀 상세하게 얘기를 좀 조금 자세하게. 누가 좀 해 주십시오. 인력이나 노동력이라고 써주신 분 누가 써주셨죠?

박웅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게 인력이 예전에는 넘쳐난다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노동력을 기반으로 이 사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공동체 문화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인력을 충당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을 실제로 하고 싶어도 이제 산양삼 같은 것들은 뭐 대단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일머리들이 있어요. 작업 단도리를 쳐나가야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파밭도 똑같겠죠. 파도 따는 사람들은 파라솔 치고 따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산양삼도 산에서 일하시는 분은 산 일만 해요. 저는 이제 산에서 키우는 인삼을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산만 타시든 표준화가 딱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벌써 한 한 그룹 정도는 따져보면 한 세 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그룹 정도는 숫자로 따졌을 때 다 돌아가셨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제가 이제 81년생인데 저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70대 중후반까지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니깐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굉장히 농사가 덩어리가 커집니다. 농사가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짓는 몇백 평씩 짓던 농사들을 더 이상 감당을 못하시니까 다 도지를 받는 걸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빌려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규모의 경제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농사 자체도.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내부에서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 크게 유통 같은 걸 하고 이러는 분들은 아예 자기 인력을 데려다가 전국에다 땅을 빌려가지고 쪽 돌아가면서 기후 따라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외국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보니까 뭐 점점 농사 쪽에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레, 향약 이런 걸로 어떤 대표되는 지역 공동체, 지방 정부. 지역의 농촌의 어떤 특성이었겠지만 예전에는 노동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사회적 변화겠지만 개인주의 같은 것 생기고. 또 이게 혼자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개인화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무색해졌어요. 그래서 인력을 이집 인력을 돌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쓰고 싶어도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지금은.

김정섭 품앗이 같은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박웅진 그렇죠. 품앗이 같은 것들도 없어졌죠.

장현세 그건 뭐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김정섭 농림어업 노동력 부족 문제가 뭐 원체 심각한데 농림업 분야 외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장현세 그럼요. 편의점이고 어디고 다 알바생을 못 구해서 요새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못 잡고 귀농했는데 망가진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편의점 가가지고 서울에 가면 20살 애들이 하는 알바들을 그런 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삼십 대 이런 분들이 아니요.

김정섭 50대?

장현세 아니요. 한 60대, 70대.

조현수 건설 근로자들도 나오셔가지고서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귀농 귀촌 하셔가지고서는 펜션 영업하신다고 하시다가 펜션업이 안 되니까 노가다라도 뛰겠다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김영재 이 부분은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루에 5시간 아르바이트 하고 하지, 누가 땡벌에 나와가지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에어컨 나오고 이런 데 앉아서 한 5시간 때우면 돈 10만 원 받아가고 이러니까 그런 일을 선호하게 되지, 점점 뭐 땡벌에 나가서 제가 주인인데 저도 하기 싫은데. 누가 와서 그거를 그렇게 망가지면서 하려고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농사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영주 빼고는 앞으로는 점점 더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 못 볼 것 같아요.

조현수 이게 청년 일자리 보편은 좀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이나 이쪽 평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데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인 구하기 전에 월 한 60만 원, 50만 원씩 6개월씩 지원해가지고서는 이제 일자리 구하러 다니는 비용을 좀 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받아 쓰고 노리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봐요. 자꾸 돈을 주니까. 먹을 것만 자꾸 작용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일을 안 하잖아요. 청년들 젊은 애들 저희 시골 다 그렇겠지만 친구들이 평창동 관내에 좀 있으니까 물어보면 젊은 애들은 많아요. 청년들 젊은 애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기도 한데 많은데 일을 하지 않아요. 뭐, “하루에 20만 원 주게 와서 일 좀 할래요?”, “에이 날도 더운데 쉬죠.”

김정섭 20만 원을 줘도 안 해요? 엄청 센 거 아니에요?

조현수 안 해요. 하루에 일당 20만 원 주고 그냥 앉아 놀다가 어디 가가지고 엄청 센

일 아니야 뭐 하나 이랬더니 차라리 편의점 가가지고나 이런 데 마트 가서 알바를 한 3개월, 몇 개월 딱 하고 그 돈을 모아서 그냥 골프 치러 가든가 외국 여행 갈래요. 그러니까 일을 장기적으로 개발 자체를 하지 않아요. 계획을 잡고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정책들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없어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인력 문제 아까 농업 인력 쪽에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평창으로 제가 평창에 살고 있어 평창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농업 인력 중에 가장 문제가 생긴 점은 저는 하나를 보면은 계절 근로자가 가장 크다고 봐요. 아시는 분 인력 하나 사무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한 5개월 정도 써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올해는 하노이인가 그쪽에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신청을 하면 1인 농가에서 이제 그 건물 집을 지어가지고 숙식 그러니까 숙박할 수 있는 자리만 제공하면 한 달에 25일 정도 기준 잡아가지고서는 220 정도 저희가 지출이 나가요. 한 200만 원에서 180 정도 그러니까. 숙박비는 저희가 별도로 받으라고 돼 있어요. 명시가. 그래서 한 180만 원 정도 남았다고요. 1인당.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 7분, 10분. 이렇게 계절 근로자를 쓰시고 평균 집에서 이제 농업을 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짝집이라 그러죠. 이제 포장해서 조금 더 소규모로 판매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명, 5명, 그걸 고정으로 쓰던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인력 사무실에 하는 입장에서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력 사무실에 전화해서 농업 인력을 봄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 야채 이런 걸 심는데 사람 한 10명만 해주세요. 그러면 “15명 있는데 쓸려면 다 쓰고, 쓰지 마 그런 식이에요.” 왜냐면 5명이 남아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여름에 한창 바쁘거나 이럴 때는 또 “야 나 오늘 뭐 저기 뭐야 방제작업 약을 좀 쳐야 되는데 한 3명만 어떻게 해줘.” 그러면은 “에이 세 명을 누가 보내줘요? 20명 들어갔는데 거 다 보내지. 아니 저기 관리하기 귀찮아서 안 보내요.” 그렇게 인력 사무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계기가 그 업주들을 만나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해요. “계절 불러서 신청해 쓰세요.” 자기네들 텅어리 크게 20명 20명 계속 이렇게 크게 움직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업체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인력 사무실도. 그러면 계절 근로자 신청해서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사람을 못 써요. 구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 인력을 인력 사무실에서 저희한테 사람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산에서 장뇌삼이든 밭에 작물이든 뭔가 심어서 5개월 동안 만약에 5명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한 달에 천만 원이에요, 월급이. 그렇죠? 1천만 원 정도를 지급할 정도의 저희가 농업인들의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농업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데까지 기본 세 달, 네 달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5명을 가지고 일은 하되 한 달에 천만 원씩 고정으

로 계속 날 정도로 내가 주머니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항상. 근데 한 번 심고 목돈 나가 는 거 한 번 나가고 기다렸다가 계약금이나 잔금이나 계약 재배 같은 경우에 아니면 전 에 벌었던 거 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금액을 나가는 거는 평균인데 나가는 건 어차피 나 가는 돈이에요. 나가는 돈인데 사람을 조금 쓸 수도 있는 일인데 계절 근로자를 5명을 데리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럼 5명 월급을 줘야 되고 뭔가 일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1년 농사를 짓고 하다 보면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결국 그분들 벌어주려고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게 좀 뭐 평창군 자체에서는 “농업 인력이 없다 없다 하니 이런 방도를 찾아서 이제 국가적 인 차원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사업을 핀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소작농들. 아까 대농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작 농 하시는 분들은 2명, 3명씩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없어요. 기본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불러 쓰는 건 가능한데 몇 명 이렇게 쓴다는 거는 아예 입력 사무처에서 받지도 않고.

김정섭 인력사무소는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그랬고 계절 노동자는 그래서 좀 작은 농가들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제도가 안 받쳐줄 거예요. 아직 근데 나 평창 농업은 모르 겠지만 5명을 데리고 5개월 쓸 정도면 저의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굉장히 큰 농사짓는 집입니다. 애지간해서 못합니다.

조현수 저희는 모르겠어요. 크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평창군만 해도. 농업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2만 평에서 한 7만 평 정도는 하는데 (그 정도는 크죠) 그게 크다고 보나요?

김정섭 크죠. 그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인력 옆에 일자리라고 괄호 쳐놓고 써 놓은 건 무슨 얘기일까요? (저건 제가 썼는데 저도 조현수 선생님이랑 같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활동 문화시설 이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매우 불편하다고 쓰신 분 문화활동.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변에 본인이나.

박웅진 제가 오리지널 외지놈이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화적으로 너무 소외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헌을 하니까 보조금을 받는 거겠지만 그런 어떤 대안적인 형태가 아닌 영화관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제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서 영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뭐 문화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범위를 제가 잡아 놓은 것 같긴 한데요. 뭐 대단한 문화까지 안 가도요. 뭐 여기서 운동하려고 그러

면 체육회 계시니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그냥 그런 아주 축구. 뭐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운동인 거지 뭐 하다못해 클라이밍을 하든 아니면 주짓수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충족도 안 되고 또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이탈하는 부분하고 저는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고 보는데. 이제 산업 사회 같은 것들이 효율이나 산업혁명 이후에 효율이나 효과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이제 경제연구원 쪽에 계시니까 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4차 산업혁명이네 뭐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되고 나면서 사실은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들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병폐단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가치들을 좀 바꿔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소위 MZ 세대라고 대변되는 분들의 특징을 좀 보면, 저만 해도 사실 일하기 위해서 쉬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일하기 위해서 노는 건데 그 친구들은 놀기 위해 일을 해요. 이게 뭐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단편적인 예로 이제 대화 쪽에서 포크레인 같은 거도 포크레인 쓸 일이 많으니까 하는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페이도 좋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만만치 않은 페이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기사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멀쩡하게 잘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제가 어느 날 부탁을 하려고 봤더니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도 잘 버는 놈이 왜 그걸 그만두냐?” 그랬더니 자기는 스키 타고 보드 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선 여기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사장이 일이 바빠지니까 페이는 좋은데 겨울에 스키장 뭐 이런 데 가고 보드 타고 그러니까 자기가 놀고 취미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시간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관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그 MZ 세대들이라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문화의 표상 같은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든 하드웨어적으로든 지역사회가 제공을 못 해주니까 전부 여기서 저는 이탈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 작년에 제가 자꾸 그 ‘지방 인구 소멸’ 얘기가 지역에서 대두가 되길래 지방 인구 소멸 좋은데 이젠 뭐 거기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가정을 자꾸 하지 말고 근데 누가 지방 인구 소멸 막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은 하는데 왜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아야 돼라는 걸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럼 뭐 지역 없어지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설정해야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오니까 도대체 왜 지방 인구 소멸을 막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자, 혹은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자 이래갖고 포럼을 그냥 지역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연구 같은 걸 하시니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기초 조사가 돼야 거기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의식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종류의 자료가 하나도 없길래 제가 학교를 돌면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 니네 도대체 평창에서 왜 나가니?”라고 질문을 했는데 온갖 무슨 통계청이고 어디고 자료 조사를 해놓은 것들이 얼마나 그게 허울이라는 걸 제가 그때 굉장히 깨달은 게 뭐냐면 평창 지역에 있는 애들이 왜 나가냐면 상위 포지션은 5위 안에 있던 게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거예요. “스타벅스가 없어서 혹은 다이소가 없어서” 이런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거를 이 스타벅스라든지 다이소라고 판단할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고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문제의식의 설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고 자꾸 삽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보조 사업 같은 것들이 사실 정책이 생기고 나면 스트러처가 생기면 일종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인데 전혀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처음에 산업혁명 같은 그런 뭔가 효율이나 효과가 증시되던, 그런 종류의 가치가 증시되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에서 자꾸 이렇게 “나 부품 아닌데?” 뭐 이렇게 “나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친구들이 시대적으로 점점 이렇게 포진을 해나가는 그런 시기가 됐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대변하지 못하니까 뭐 밥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밥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나무 꺾데기 벗겨 먹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부품처럼 살아야 돼, 난 놀기 위해 일하고 싶어 이런 일종의 자기 표현의 욕구가 일종의 저런 문화인데. 저런 문화적 표상들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를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김정섭 왼쪽에 조금 불편하다고 문화시설.

김영재 그것도 제가 적은 건데요.

김정섭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경험을...

임훈영 **박웅진** 선생님이라 비슷합니다. 제가 거의 뭐 헬스에 미쳐서 사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살았었는데. 당장 그러니까 여기 평창읍을 보면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는 여기 농촌에서도 도시인 거고 어떻게 보면 평창읍은 시골적인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차를 타고 30~40분을 나와야지 그래도 운동기구를 만질 수 있는 데가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쳐도. 천천히 개선이 된다고는 쳐도. 이런 거나 아니면 다른 거 뭐 구기종목이나 이런 거는 잘 갖춰져 있어도 다른 면에서는 스포츠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이제 수요일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무슨 헬스장 쪽에도 그래서 저는 또 원주로 헬스장을 다니려고 생각 중인데 이런 것도 보면 지금 하나가 문을 닫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농구장도 이번에 보게 되면 저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게 되면 농구를 아예 못 합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설이. 이런 게 조금 한두 개라도 더 발전이 되면 조금 더 젊은 층이 살아가기에는 정착하기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반대로 보면 저런 걸 못 늘리는 이유가 인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아까 비유를 하셨지만 뭐든지 인구수를 보고 가뭇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되게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도 다 본사에서 컷 당하고 거기 인구 안 된다 다 제지당하고 이러시는...

김정섭 스타벅스같이 전적으로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거야 굉장히 농촌에서 확보하기 어렵겠죠. 근데 공연 예술이나 체육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시설 투자가 필요할 테니까. 아무튼 이런 거는 어찌면 이제 내일 어찌면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는데 상업을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은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쪽 얘기해 주신 부분은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문화적 욕구가 어르신들하고 다르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욕구나 생활 방식이 놀기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영재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MZ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배때지가 부른 겁니다. 아버님도 농사를 하시지만 저가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게 하얀 거지, 여름 되면 진짜 시곗등이가 되거든요. 저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김정섭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다른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중심을 잡아나갈 텐데 농촌에서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신 이후로 인구가 줄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더 줄어들었고, 한쪽에서는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 젊은 세대들은 그런 욕구가 강하고. 이 부분이 지금 어긋나 있고, 이게 문화·여가여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똑같은 걸 완주에서 했어요. 거기는 나이 많은 여성분들, 젊은 여성 이 그룹 했는데 문화 얘기는 별로 안 나왔었는데 평창에 오니까...

이원구 혹시 조금 덧붙이자면 평창 다 읍에 계시니까 아시다시피 평창이 좀 위아래로 길잡아요, 지형이. 8개 읍면이. 사실 평창이 북부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크게 나뉘져 있고. 전국에서도 시군 다 합쳐서 이제 거의 네 번째 손에 꼽힐 정도로 면적이 넓은 게 평창인데. 그러다 보니까 뭘 지어도 북부에 지으면 남부에 지어야 되고요. 남부에 지으면 북부에 지어야 되는 그런 지역 주민 간의 이런 갈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만약에 이쪽에 예술 관련 시설을 뭐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그럼 북부에서는 “남부권에서는 이번에 이런 거 짓는다고 확정을 하는데 왜 북부권에는 안 지어주냐.” 하면은

이쪽 지역이랑 이쪽 지역에서 서로 계속 대립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평창의 문화시설이 대체적으로 다 구분돼 있어요.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성을 되게 중시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다 하나로 충분히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다른 지자체 보편은 복합 문화 공간을 되게 조성을 잘하잖아요. 단순히 도서관이면 도서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안에도 예술 공연 할 수 있는 공간 같이 배치하고 하는데 평창은 다 떨어져 있어요. 영화관은 영화관, 도서관은 도서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이런 게 좀 한 곳에 어우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더라도 볼 수 있는 시각도 다양화되고 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붐비는 거죠. 그런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김정섭 주유소 폐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김민수 계속 질문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이 질문에 매몰돼가지고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얘기가 이렇게 어디로 번져도 괜찮나요? 좀 시간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시간은 없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섭 이따가 이따가 상황 봐서 내일 예 지금도 살짝 늘어졌는데. 여기에 '사회적 염치'라고 썼습니다.

박웅진 그래도 좀 너무 개념적이라 죄송하긴 한데. 이게 아까 그 공동체 문화에 대한 부분하고, 고령화 인구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염두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결론이 결론? 워딩이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동체적인 어떤 사회의 틀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열심히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이미 고령화된 인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태도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변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개인화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마을 발전기금이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요새 이슈가 되는데, 마을에 공금이 있어요. 어떤 마을이 됐든지 간에 공금이 있는데. 저희 진소리 같은 경우에는 해태 샘물 공장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이래서 되게 부자 마을이었어요. 돈이 한 10억 정도 이제 마을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 단위로 쪼개가지고, 나눠 갖자' 이런 논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 '이제 나 죽으려고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한 10년 살면 나 간다.

김정섭 누려야지 얼른.

박웅진 네, ‘누려야지’ 이게 그렇다고 이걸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도덕적인 부분,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질 법률적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다음 있는 이런 청년들이 살아나가고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이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기회마저도 돈이랑 같이 그런 기회마저도 내가 누릴 걸 다 누리고, 이제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그다음 남은 사람들한테는 본인들이 누려왔던 거를 보상할 것인가 이런 빛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염치’라고 쓴 게 꼭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의식 개선 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내 새끼 내 자식 혹은 여기에 들어와서 정주를 하고 있는 사람 정주를 안 하더라도 관계 인구. 모든 사람한테 줄 기회를 이런 방식으로 뺏는 거예요, 일종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단순하게 경제연구원에서 오셨으니까 더 맥락을 제가 그쪽으로 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한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지금도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착시들을 일으키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된 것만양.

김정섭 지금 말씀하신 거 할 만한 질문 맨 끝에 있는 질문인데 아직 못 보셨으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지. 지역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이걸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이따가 아무튼 제가 일하는 곳이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해서 제가 경제학 박사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연구진 3명 중에 경제학 전공 자격이 한 분밖에 없어요. 저기는 뭘까요? 저는 사회학 공부했습니다. 저기는 교육학이십니다. 뻔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짧게 이 얘기 예를 들어 본인 경험이나 이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웅진 저도 경험이 있고 일단 다 공감하시고 다 당연히 모든 지금 소멸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고 지금도 많이 대두되는 얘기도 하죠. 평창은 아무래도 아까 일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료원으로 승격은 했는데 말 그대로 평창에 지방 그냥 의원 수준이에요. 전문의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아시다시피 워낙에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다 외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의 대 지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지방에 진짜 의사가 없습니다.

김정섭 백산의료원에서 CT 찍을 수 있어요. 없어?

박웅진 없습니다. 영월로 가야 돼요. 못해도.

김정섭 결국은 이제 이게 그거더라고의 차이점이 CT를 찍을 수 있냐 없냐.

박웅진 그 엄청 크죠.

조현수 제가 당장 어제 겪고 왔습니다.

박웅진 엑스레이도 못 찍어도 잘못 나올 때가 허다한 걸요. 여기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갔더니 이거 당장 김스해야 된다고 하고.

김정섭 보건소에서 엑스레이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보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의사를 붙여서 보건소보다는 좀 더 병원스럽게 의원스럽게 만들자고 한 게 의료원인데, 이제 CT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거기가. 엑스레이 정도 겨우 좀.

박웅진 응급으로 가도 탈구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김정섭 교육이라고 누가 했었는데 맨 오른쪽 위에 교육 문제라고. 예 본인 경험이 있으세요?

박웅진 네 경험이 많이 있죠.

김정섭 그 얘기를 짧게.

박웅진 일단 제 얘기가 있고 저희 이제 아이들 얘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럴 기회들이 많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서울대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여기 농생대가 들어와 있으니 거기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서울 쪽에서도 기획 비슷한 일을 했었다 보니까 배우는 단계를 조금 넘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서울 같은 데만 가도 동사무소나 일종의 공기관이죠. 이런 데서 민간 쪽으로 위탁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웃소싱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예산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통하지도 않고 굉장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이 맨 끝단에서 이제 보조 사업 같은 형태로 진행이 돼버리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 이렇게 딱 타겟팅이 안 돼 있는 세그멘테이션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지자체의 예산 같은 것들을 따오기도 굉장히 힘들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받고 싶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받고 싶은 교육을 내가 만들어보고 싶으니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더 나가 한참 나가고, 사용자 참여까지 가버린 건데 뭐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하여튼 저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너무 취약합니다, 여기가.

김정섭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학교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학교 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

박웅진 평생교육이라든지 민간 쪽에 있는 교육들도 그렇고. 또 학교 교육 관련해서는 애들... 이걸 아까도 계속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학원 없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랑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지만 일반 가정에서 애 셋을 키운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요새는 거의. 이게 핵가족으로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근데 애를 자꾸 많이 낳으라고는 하는데 그런 종류의 것들이 일종의 막 멩에나 허울처럼 그냥 느껴질 뿐이지. 이 생태계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무슨 옴이 트고 싹이 트겠어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가지고 애들을 맡겨놓고 부모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수 불가결한 건데 학원이 다 없어져버리니,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치원 보냈다가 어디 맡겨놨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돌아와서 한 7~8시까지만 7~8시도 넘어가고, 한 6시까지만 애를 맡아줘도 괜찮은데 그게 안 되고 또 이 정책 방향성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중앙정부 쪽에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시행하는 척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 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걸 까보면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내부에. 아이돌봄 서비스는 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대기 걸리고 이러다 보면...

김정섭 대기 걸리는 게 경쟁이 있어서 대키 걸리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좀 기다려봐야지...

김민수 저쪽 경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오고 싶은 여기에 경쟁이 있는 거죠.

조현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변에도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신 아이 낳아가지고 아이 해가지고서는 보육하는 걸 했었습니다 보면 어쨌든 정부에서 정해진 거는 이제 직제 가족이나 뭐 이제 그 가족 안의 범위 안에서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돌보는 걸 가져가라 해서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내 손주니까 봐도 더 하나 더 챙기고 더 잘 볼 것이다. 근데 그거를 왜 막아놨냐 그러면 니네가 여기에 대한 교육 교사를 선정을 해주라고 했는데 못 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더니, 결국은 안 돼서 어떻게 해준 처리를 해줬냐면 집에다가 처갓집한테 처가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고 아는 분 성함만 써서 그냥 올려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흔히 말해서 '가라'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명목상,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정부 비판을 해야 되는 그게 생기는데 관계없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투표권에 있잖아요. 청년들도 투표권은 있는데 청년들이 힘이 없어진 이유가 투표권이 적어요. 만약에 비율로 따진다면 50대 이상의 투표권이 90장에 있다면 청년은 10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창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모든 저희들 체육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무시를 못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이 났든 민주당이 났든 그쪽 당에 이제 주권을 잡으면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그쪽이 원하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권이 나와야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노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청년이 원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음에 당선이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투표권이 나와야 나한테 한 표라도 더 나와야 되는데 청년들은 찍어봐야 한정돼 있다는 거지. 근데 어르신들은 투표권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으니까 그분들이 초점이 잡혀져 있어요. 흔히 말해 저희가 체육회 회의를 가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어르신 운동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파크골프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전국대회를 같이 나가면 40대, 30대 분들이 엄청 많아요. 평창은 맨날 꼴찌예요. 할 수가 없지 여기 6~70대 분들이 파크골프를 치는데 그분들은 30대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파크골프 대회에 나와요. 그럼 그분들이 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이제 운동장 자체가 틀리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시설을 오래 이제 군수님하고 상담을 좀 했었는데 대관령에 하나 해줘라, 진무에 하나 해줘라, 봉평에 하나 해줘라, 평창 해줘라, 방림 해줘라 8개 면인데 면마다 노인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하는데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로 지금 해서 올해 어디 대관령이랑 어디 간다 그러던가 두 군데 지금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초점들이 모든 부분이 교육이고 문화 체육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고령화에 잡혀 있는데 그게 따지면 고령화가 아니라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띠다 보니까 투표권에 몰게 돼 있다 보니까 득표수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지 않는 한 청년들의 설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시죠. 저 믹스 커피라도 한잔 해야지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45분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 근데 굉장히 상징적이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뭐 이렇게 빠지고 뭐 하고 하나까 국민의힘 쪽이 여기는 사실 득세거든요. 근데 그 쪽이 빠지니까 유상범 의원실에서 청년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강한 뭔가 이렇게 욕구들도 있었고 또 지역 같은 데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청년은 누구다 하면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젊은 분들이 이장이 되고 마을에서 뭔가 이렇게 집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뿐이지. 그게 절대로 어떤 힘을 제대로 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조현수 조금 이제 변화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장님들 나이도 좀 내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부평도 이장님들을 좀 나이를 연령을 좀 줄이자고 이장협의회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보면 얘기는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김정섭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좀 늦어졌는데 2시간 내에 못 마칠 것 같네요. 약간 약간 오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할게요. 아까하고 똑같은 요령인데 이건 어찌면 좀 뻥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야 내가 항상 넘겨놨어 미리 똑같은 요령으로 이번에는 돈 주고 사는 거 말고 공공부문이,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은 인구가 줄면 흔히 얘기하는 시장이라고 그러죠. 돈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줄어드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공부문이 하는 거는 인구가 줄어도 다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구가 줄면 행정이나 해야 하던 일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평창에서 사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이 줄어들었다. 또는 뭐 그래서 불편해졌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씩 써보십시오. 파란색 매직으로 큰 글씨로 써주십시오. ‘외국인 고용’ 관련 뭘니까? 저게 서류가 어려움, 무슨...

장현세 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시골에 인구가 부족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게 외국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겨울 제외하고는 이제 봄 여름 가을에 이제 양배추 농사, 배추 농사, 이렇게 짓고 겨울에 딸기 농사 지어서 이제 1년 365일 외국인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그 서류를 하다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아버님 옆에 붙어서 이제 그런 서류라든지 그런 거를 신청하기에 저조차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어려운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쉽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비단 다른 지역에 이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하질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보험이라든지 여기서는 또 관할이 영월 노동청인데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또 신청하고 이런 게 되게 자주 가야 하고, 서류도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다른 경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지역에 어려운 나 이대가 많으신 분들이 쉽게 접하려면 행정 부분이 조금 간소화되고 서로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좀 어렵다는 생각을 느꼈고요.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농사짓고 뭐 다 농사지으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농사 안 짓거든요. 외국인들이 다 짓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외국인 이런 노동자 관리뿐만 아니라 사실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관리도 정부에서는 사실 데려올 뿐이지 데려와서 애네들이 다른 지역 가고 뭐 불법으로 다른 데 가고 이런 게 입국만 이제 허락해서 들어올 뿐이지. 애네들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정부는 애네들 데리고 와서 계절 근로자 몇 개월 쓰고 다시 보내고 나머지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그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다 이제 풀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사실 농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 하면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계속 들어오는 입국되는 외국인들이 많고 수요는 계속 있거든요. 왜냐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끌어 끌어다 쓰는데 결국에는 그 애들이 어떻게 자꾸 관리가 안 되면 뭐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내국인들과 이제 뭐 마찰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적인 업무가 국가에서 이제 통제가 안 되면 되게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김정섭 사실은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살 때 그런 얘기가 안 나는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하고 주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전엔 좀 덜 고령화 됐고, 그래도 마을 이장님들이 좀 젊고 이럴 때는 그리고 예전에 행정 업무 자체가 덜 복잡했으니까 “이장님 통해서 뭐 신청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군청에서 뭐 한다고 해도 그럼 다 어르신들은 뭐 종이떼기에 쓴 거 봐도 될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누가 “젊은 사람이 전문적으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거 설명해 주는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봤어요. 아마 고령화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참여의 기회라고.

박웅진 예 제가 ‘참여의 기회’라고 썼는데요. 아까 첫 단에 제가 저걸 쓰기 전에 공공이 해야 되는 일은 뭐 어쨌든지 간에 뭐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말하기가 불편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공공이 하는 일도 이게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복지 사회복지적 관점, 그러니까 사회주의

적 관점에서 보면 이 보편적 복지 같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두루 이렇게 줘야 되는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이게 시장경제주의다 보니까 개인이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 종류의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 일부 참여 같은 것들이 행정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참여할 기회들이 있는데, 시민단체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서울 쪽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해보면 근데 이게 노인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누군가가 참여를 해서 기획을 한다든지 뭘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종류의 새로운 일들보다는 굉장히 보편적 복지 쪽에 가까운 행정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은 단편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저 같은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걸 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필요하다기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우리 그룹, 아니면 어떤 집단, 마을, 필요한 거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랑도 조금 연계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문화원 같은 걸 여기저기다 짓는다, 뭐 이런 게 굉장히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있는 종류의 사업들이잖아요. 물론 이 공무원 집단의 특성상 어떤 딱 정해져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정량적인 성과가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정책을 자꾸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로 어떤 후학들을 양성해 주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어놔 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발 벗고 나서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남겨지는 거니까, 남겨진 건 우리에게 남겨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굉장히 어떤 뺏기고 있어서 한쪽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시장 개인의 리스크를 중시하는 부분하고, 이 보편적 복지에 관한 정책하고 이 배분을, 비율을 좀 잘 섞어놓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저런 참여의 기회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뺏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단기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 같은 부분들이 용역 사업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진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평창군에서 중장기 계획 같은 거를 세우면 용역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맨날 해오던 업체가 지역성이라든지 이 지역의 특수성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하나도 안 하고 중장기 계획을 그냥 수립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보면 완전히 단어만 바뀌었지, 원주시의 중장기 계획하고 평창군의 중장기 계획하고 이런 게 다 똑같은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까보면.

김정섭 가끔 카피 앤 페이스트 잘못해가지고...

박웅진 예 단어 틀리죠.

김정섭 평창 건데 원주라고 써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웅진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수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근거가 되는 것들이 이 정책연구원이란든지 이런 데서 계시는 분들이 하는 그 근거를 다는 일이 그런 거기 때문에 연구도 이게 너무 자꾸 그런 어떤 피상적인 어떤 사례들만 들어가지고 마치 이 답정너처럼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게 근거를 달기 위한 조사 같은 형태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멀리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참여의 기회를 좀 뺏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배분이 똑바로 안 돼 있는 거죠.

김정섭 아무튼 공공부문도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일하는 방식이 혁신이 돼야 되는데 좀 안 되는 문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지역사회 전체가 고령화된 현실하고 무관하지 않다.

김민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걸 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섭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것도 아까 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경제활동 측면에서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농업 얘기 빼고. 농업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부문의 경제활동에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조현수 인구 감소가 돼가지고 경제 활동하는 데에서 얘기를 하자면 글썽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을 쓰잖아요. 인건비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돈을 많이 주고 가서 써야 되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원주나 강릉 이쪽에서 사람들을 데려가야 돼요. 저도 조경업도 같이 하고 있고 토목공사하고 건축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리에 비례해서 출퇴근하는 비용 별도 별도 이러니까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공사를 예를 들어서 전에 100만 원 가지고 공사했던 공사다 그럼 지금은 한 120, 130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20~30%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쪽에는 사람을 구하고 올 수 없으니까. 제가 흔히 최고 멀리서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서 불러서 제가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오면 숙식 제공 다 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벌써 견적에 벌써 몇백만 원 추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분들도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해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김정섭 상업 쪽은 어떻습니까? 상업하시는...

박웅진 방금 얘기하셨던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관광업 쪽에서는 관광 쪽에 관심이 많아요. 관광 쪽에 관심이 많은데 지자체나 이런 데가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 목멜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창군도 재정자립도가 아마 1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보조금 끊으면 여기는 시장 경제 내부에서 경쟁을 시키면 죽어 마땅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앙정부 쪽에 있는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휘둘러가지고 보조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내수 경제 자체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밖에서 오는 관광자원 관광, 그러니까 정부 인구보다는 관계 인구 쪽에 많이 치중을 하게 돼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항상 그 이슈에 아까 중심에도 서 있는 게 이 외지놈이거든요. 이게 근데 굉장히 사실 이것도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 경제 단위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 기웃기웃거리면서 이게 제대로 섞여야 되는데 이 갈등 관리가 안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건데 어쨌거나 뭐 이걸 결론이고요. 중간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장 쪽에서 접점을 갖다 보니까 관계 인구를 위한 일종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점점 더 활발해져 가는 거죠. 이게 인구 감소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런 걸 지역에서 고민하는 사람인데, 저출생의 어떤 단초 같은 것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섭 아무튼 긍정적인 변화다 부정적인 변화다의 평가를 떠나서, 인구가 줄면서 지역의 내수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외수,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방향으로 지역 경제 구조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

박웅진 근데 이제 어쨌든 녹음을 하고 계시니까 그 단어 자체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일종의 반작용이라든지 반사이익이라는 단어보다 굉장히 자연 발생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건물 세우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한계까지 다달아가지고 책 읽는 사람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도서관 지으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 착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전국의 지자체에서 관광업 한다고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가 백몇십 개 되는데 흔들다리가 백몇십 개 짝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어도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적절한 하드웨어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종류의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떠밀리는 거

겠지만 사실은 그런 변화가 좀 눈에 보이긴 있는 것 같아요.

장현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활동이라는 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평창 관내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돌고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돈이 말씀했 다시피 내수가 많이 적으니까 이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돈을 써야지 그 돈이 늘어나는데 그런 돈 자체가 늘어나려고 하면 여기는 평창이고, 원주 춘천에 끼어있습니다. 사실 센터에 끼어 있는 바람에 이렇게 간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내부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조금 뺏기는 영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무조건 들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은 이제 들려서 돈을 쓰고 소비를 하면 돈이 돌 텐데. 아직 그런 인프라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KTX가 없을 때는 영동고속도로가 이제 제2도 없고 이제 일반 제1밖에 없을 때는 무조건 강릉 동해안 가려면 지나갈 때는 차가 막히고 돌아가고 우회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려서 소비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경제 활동을 지역 경제를 잘 살리려면 이제 관광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또 보시다시피 산도 많고 강도 있고 한데.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 이게 6차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체험도 하고. 이게 사실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평창군만 해도 6차 산업으로 좀 잘 되는 케이스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앞으로 이제 평창군이 그렇게 조금 인구가 늘고 경제가 좋아지려면 이런 산업 자체를 이제 조금 확장시켜서 이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고요.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지 뭐 여기는 사실 수도권이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춘천만 가봐도 춘천에 이제 관광지라고 해서 가면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요, 생각보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카페랑 레스토랑이란 소 몇 마리 풀어놓고 목장식인데 산속에 있는데 관광객들이 택시 타고 오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산속에 있고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이게 결국에는 이제 홍보도 되게 필요하고, 그런 기획부터 이런 게 잘 이제 콘텐츠가 잘 돼 있어야지 그런 게 잘 성공한다고 보는데. 이런 경제 발전을 하려면 조금 지자체에서 조금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말씀 안 하신 분들한테 제가 지명을 할게요. 다음 질문은 본인 집 말고 주변의 이웃집이나 일가 친척이나 좀 살펴보십시오. 가족 관계가 좀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한 집에 몇 명이 사는지, 그런 것들이 하여간 인구 변동이 오면서 제일 사실은 제일 먼저 반영되는 변화가 가족들의 변화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저 임훈영 씨부터.

임훈영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살았어요. 3대인데 저희 집이 대가족이었죠. 요즘 보면 제 친구들도 보면 거의 혼자 아니면 많은 집은 둘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희 집도 지금 다 나가고 저랑 부모님 두 분. 이렇게 동생이랑 동생이 고등학생이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대가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대가족이라 하면 3명. 삼형제가 삼남매 이런 친구들이 저거 대가족이다 생각하고. 그게 다 고령화나 저출생으로 인해서...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섭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변했는데 너무 뻘하죠? 그거는 그냥 뭐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게 가족 관계가 대가족 시스템은 다 없어졌고, 이제 다 심지어는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고. 그렇게 돼서 생활에 뭐가 좀 중대하게 뭔가 바뀐 것 같다. 이런 걸 느끼시는 게 있습니까? 본인 아니면 주변에서? 아까 누구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가족일 때는 할머니들이 애를 봐주게 되는데.

조현수 그건 맞죠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저출생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핵가족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개인주의가 너무 개인주의 사상이 너무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동네 마을로 보면은 어르신 혼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일주일 있다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80년대 이제 막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흔히 말해 옆집에 계신 분이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선물 조그만 거 하나 해가지고 가서 밥도 한 끼 같이 먹고 오라 그러고 마을 사람들끼리 얼굴도 보고 이려고 살았던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저야 이제 마을에서 좀 이제 움직이고 하니까 누가 어디 사는지 누가 이사를 왔는지 그거는 알고는 있긴 한데 관심들이 없어요. 누가 뭘 사는지 누가 아파서 병원에 119에 실려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너희 집 자식이 결혼했다더라. 그럼 청첩장 하나 문자 하나 그리고 뭐 누가 죽으면 이제 뭐 조문 해가지고 문상 나오고 그런 게 다잖아요. 근데 옆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게 좀 바뀐 점, 제가 느꼈을 때 바뀐 점이 참 이번에 저희가 둘째 낳았을 때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둘째가 태어나서 저희 동네에 이제 저희가 한 18가구 정도 살아요. 저희 마을 조그마한 마을에. 18 정도 가고 사는데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못 나오니까 한 첫 돌 좀 가까이 됐을 때 이제 애를 데리고 밖에 마당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밭에도 텃밭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동네 어르신이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사신 지 한 50년 정도. 그분은 이제 저희 부모님 때부터 그냥 사셨어요. 이사 와서 사신 지가 한 50년 됐는데. 그분이 봉투에다 10만 원 넣어서 갖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동네에서 애 울음 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애 뭐 먹을 거나 맛있는 옷이라도 하나 사주라”고 봉투를

찾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시대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 “야, 너 언제 애가 낳아서 애가 있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불과 거리가 저희 집하고 거리가 한 20~30m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들 그렇겠지만 전에는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서 걸어서 좀 이제 큰 대로변에 가서 걸어다니고 뭔가 운동도 하고 밭에 일을 하면 얼굴을 마주 보고 인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다수분들이 집 마당 앞에 나와서 차 타고 문 딱 닫고 출발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차 문 닫고 집에 들어오면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 애들이 있으니까 저 집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누가 이리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다만 이제 마을에서 뭔가 이제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 이제 이사를 들어왔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아니까 이제 가서 어떻게 됐다 상황을 아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줄었죠. 그게 뭐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 많이 바뀌었죠. 주변이 그런 문제로 많이 바뀌었죠.

김정섭 근본적으로 관계가 있죠.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 관계들이 다 희미해지는데 아까 그 노인 고독사가 사시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조현수 네 한두 분 정도 저희 뒷집에...

김정섭 그리고 나서 마을 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같은 거 안 했어요?

조현수 근데 그게 원래 사시던 분들이니까, 원래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주변에 이제 같이 사신 지가 벌써 한 40~50년씩 막 이래가지고 오래되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연락을 해서 누가 그랬다더라 얘기를 하면 자녀분들이 이제 주말에 가끔 한번씩 찾아오고 이런 분들이 좀 변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생기는데. 원래 이제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귀농하신다고 들어와가지고 계시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면 그분하고 저희가 그 연고 자체가 없으니까 죽은지도 몰라요. 저희가 그 집안 요샌 더군다나 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시골집 같은 게 저희 집안에도 그런 건 없어요. 대문을 치거나 문을 잠그지 않아요 그냥 뭐 마당에 누가 들어왔다 하면은 누가 훑쳐 없어지고 이럴까 봐 좀 그런 건 있는데 거기 CCTV 달아놓지만 문을 잠그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의 저희 동네 같은 비교를 하자면 한 70% 이상은 다 문을 걸어 잠궈요. 대문을 만들어서 다 잠그고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런 식이니까 그 집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한 300~400m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혼자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올라가서 보고서 발견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자라면서 이제 보던 어르신이고 한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장날이 봉평 같은 경우는 2일 7일 장날이거든요. 그 장날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러서 말도 한마디씩 하고 가셨는데. 장날이 한 번 치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바쁘니까 안 들렀는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장날이 됐는데 그럼 벌써 한 10일 정도 지났잖아요. 5일장이니까. 안 오시길래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방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좀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변 분들이 아무래도 자녀들한테 전화를 해서 ‘누구네 집은 이렇게 됐다더라.’ 하니까 자식분들이 조금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한 1년에 명절 때 휴가 때 와서 잠깐 들리고 가고 그냥 한마디로 공치사하듯이 그냥 와가지고 인사하고, 선물 갖다주고, 봉투 하나 갖다주고 용돈 쓰세요. 이리고 가는 게 다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식 된 도리로서 의무라고 하면 의무나, 뭐 이런 식으로 주말에 시간 되면 어지간하면 잠깐 들러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고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병원이라도 가자고 하고. 이런 게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게 좀 미흡하죠. 그리고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좀 덜한데…

박웅진 저도 얘기는 했지만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 방금 얘기랑 똑같은 맥락인데 마을마다 사실은 독거촌이 있어요. 이게 무연고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제 어쩌다 무연고가 됐는지의 사연들이 각각 있으시겠지만 그 독거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공공의 기능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야말로 아주 복지의 위에 복지를 꼭 필요로 하고. 복지가 꼭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한 분들인데, 아까 ‘그래서 뭐가 있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대응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나 대응이 그래서 제가 저희 마을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4분 정도 계신데 마을에 들어와서 살다가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도 항상 이렇게 물건을 배급하고 뭐 하고 하면 남아요. 물건들이, 물건들이 남고 이러면. 지역에서 어쨌든지 간에 혼자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장님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조금 더 그쪽에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더 갖다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연고가 없고 별이가 없으니까 겨울에 집안을 언젠가 한번 마을에 제가 이렇게 뭘 받을 게 있어서 돌아보니까 한겨울에 그냥 냉골방에 이렇게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5년 전부터 제가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해가지고 그냥 마을에 한 100만 원씩 그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쪼개가지고 기금을 한 30만 원씩 넣어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공의 틀이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미흡한 상태로 지금 뭔가가 제공이 되고 있

고 이런 것들을 기존의 어떤 마을의 구조나 공동체의 상황이었다면 서로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보태고 나누고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했을 텐데. 가족 관계 같은 것들이 변하고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개개인의 어떤 주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변하다 보니까, 그냥 홀로 남겨져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런 기부라도 별거 아니지만 기부라도 하면 일종의 어떤 무슨 촉발제, 트리거 같은 게 될까 하고 그런 걸 해봤는데 이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참여가 일어나서 이런 분들한테 뭔가가 조금 더 간다든지, 신경을 쓴다든지. 마을 내부에서라도 뭐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좀 확인을 한 번씩 하는 시스템이 생긴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도. 누굴 탓하자는 게 아니고 뭔가가 좀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힘든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1위로 들어와서 결혼을 하는 케이스는 사실 적어요. 하지만 농촌의 특성상 외국인 이랑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있고 또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이버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 더 그래요. 서울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들이 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서 넘어와서 평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결혼을 시키잖아요. 통일교 같은 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면 가족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속사정을 모르니까 사실은 그쪽에는 크게 관심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일종의 어떤 문화 갈등이 생기고 있을 거고. 그 반증으로 어디 가면은 다문화센터 같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어느 지자체를 가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또 이제 어떤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정섭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지역사회에 무슨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역사회 단체 활동이나 그런 쪽 단체 아니더라도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읍·면이나 마을 분위기, 아까 이런 것들이.

김민수 청년이 뭔가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 뺏긴다, 없다.

조현수 변화라기보다는 어쨌든 인구 감소가 되니까 시골이잖아요. 돌려막기식이죠. 보조금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회 체육회, 등등등등 방법대니, 소방대니 이래가지고서는 단체는 평창군에 단체가 한 180개 정도 됩니다. 이래저래 해서 근데 그 단체들의 인원들을 보면 각 지역에 아마 저도 청년단체 같은 경우에 원체 있다가 이제 지금

은 다 나왔는데 1명이 최소 못해도 4~5개 이상은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은 방법대 옷을 입고 있다가 내일은 청년회 옷을 입고 있어요. 저쪽 가면 또 체육회 있습니다. 체육회 활동해요. 저쪽 가면 또 소방대 활동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따먹기거든요, 그냥. 어차피 그 단체는 제정해 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체들이 다 지정해 있으니깐. 그거는 하긴 해야 되겠고 방역에 하든 뭐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은 해야 되니까 인원은 없고 머릿수는 채워야 되겠고. 그리고 좀 변화가 된 게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방법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방법대 처음 들어갈 때 31살 때인가 이때 들어갔었어요. 한 9년 정도 있다가 제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그때 31살 2살 들어갈 때가 위에 형님들이 한 50대 초반까지 계셨어요. 그래도 인원이 한 40명, 50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 나이 기수에 근데 지금은 보면 40대로 떨어지고 지금 처음 가입하는 회원들이 한 20대 초중반까지 가입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지역에 들어와서 “야, 집에 있으면 뭐 하나 어디라도 들어오지 뭐” 이런 식으로 권유해서 가입돼 있는 단체가 여러 개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쪽 가면 이 사람들에요. 저쪽 가면 저 사람들이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한 군데 모아놓으면 딱 그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실릴 수도 없을뿐더러 뭘 할 수 있을 수도 없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중 가면 점점 더 내려갈 것처럼 되고. 그리고 흔히 말해 이제 봉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문체육대회 이런 체육대를 하죠. 학교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봉평 같은 경우는 낚시도 하고 있는데. 다른 대화나 평창도 하겠지만 처음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저희 위에 선배들 같은 경우에 ‘3개 반이 있었는데 한 번에 70명씩 졸업을 해가지고 200명이 된다, 180명이 된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나이에 저희 친구들이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49명인가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때는 80 몇 명이었는데. 졸업을 했는데 지금 저희 한 3년인가 4년 밑에 애들이 졸업할 때 18명인가 졸업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모임에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무슨 동체육대회를 주최를 하고 개최를 하고 말이 되냐.’ 그 문화도 좀 바꾸자고 했는데 잘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술 먹고 노는 거잖아요. 그냥 체육대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소비가 크죠.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행사를 해요. 진부 같은 경우에 예전에 크게 한 한 2억 정도 모아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연예인들 좀 불러서. 그런 것도 좀 하셨었는데, 과시하는 조금 했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너무 부담을 주는 거죠. 뭐 한 청년이 결혼하고 자리 잡아야 돈을 막 벌어야 되는데 40대 초반에 “야 1인당 한 100만 원씩 내 체육대회 할 거야.”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 보면 작을 수가 있는데 크다 보면은 남자들이야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 내가 좀, 뭐”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더군다나 직장생활을 안 하고 집에서 아이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낸다면 신랑이 벌어오는 월급에서 100만 원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인구가 많을 때는 그런 신경을 안 써요. 1인당 한 10만 원씩만 내던 게 지금은 없으니까 100만 원 내야 되고 좀 지나면 한 200~300씩 내야 되고 이런 문화가 자꾸 바뀌는 거고.

김정섭 제 고향은 동창회를 합쳐서 합니다. 덕산초등학교하고 시랑초등학교 합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합쳐서 합니다.

임훈영 따뜻하시겠는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김정섭 이제 다들 저도 그렇고 힘드신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웅진 저 이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단기적인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는 게 아까 일종의 어떤 착시 현상을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은 좀 전에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인원이 없고 인구가 감소한 거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 돈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는 거는 반드시 반대쪽에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 관변적 조직을 만들고자 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착시 현상이 문제인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모순들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돈이 많고 뭐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관변단체도 만들고 뭐도 하고 다 해요. 했는데 하고 나서도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일종의 이 주민들 내부에서도 반골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세력화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우리 옆에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까발리고 뭘 하고 시민단체 운동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이 좀 모여야 스스로 어떤 문제의식 숨어있지만 문제의식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집단화 돼가지고서 힘을 쓰는데 사람이 줄어들니까 여기서 돌려먹고, 저기서 돌려먹고, 해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있고. 또 이 단체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 받아야 되니까 일종의 어떤 정치 눈치 봐야 되고 관변화도 되고 이런 과정을 자꾸 거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시민의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인구 소멸하고, 그 단체 활동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현수 마지막 한마디만 아까 제가 저기 붙일 때 ‘공무원 업무태만’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하고서 쓰다가 말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불편한 게 솔직히 많아요. 그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평창군만 해도 공무원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업무하는 거 보면은 특근에 수당이 한 달에 7개 이상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수당이 붙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쓰게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자기들이 업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나이가 고령화는 왜가고 업무는 점점 이제 원래 흔히 말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죠. 면사무소 가면 면서기들이라고. 원래 면서기들이라는 얘기를 붙이게 된 게 예전에 흔히 말해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 까막눈일 때 행정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행정 업무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면사무소고 면서기들이란 말이죠. 그 양반들이 업무를 대신해줘야 되는데. 지금 면사무소로 가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저희를 시켜요. “저기 가서 저것도 해가지고 와요. 저기 가서 저거 해가지고 저기 가서 저거 해야 이장한테 해가지고 도장 받아와요.”, “토지주한테 가서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와.” 다 해가지고 오면 만들어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 포함해서 사업 계획서서 만들어와요. 뭘 할 건지 만들어 가지고 와요. 자기네가 검토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순간. 저희들을 도와서 업무를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여기 뭐 국민들이죠. 따지고 보면 국민들 머리 위에서 자기들 지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저희가 젊었을 때는 뭐 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분명히 알긴 하겠지만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눈도 침침해서 글씨도 잘 안 올리고 요즘 세대에 또 쓰는 글씨 문구들이 좀 표준화라고 보기 좀 뭐한 언어 비슷한 것도 막 쓰고 이러니까 “이게 뭘 소리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게 뭘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더군다나 영어까지 섞어서 막 나와 있잖아요. 요새 보조금 신청하고 이런 거 하다가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정작 저희 같은 경우에도 봉평에 저희가 보조사업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막상 가보면 공무원은 자리에 딱 앉아서 “신분증이요. 이거 이거 이거 쪽 적은 거 표 딱 복사해 놓은 거 주고 이거 떼다 주세요. 이거 해가지고 오세요.” 이래요. 그러면 모르니까 앉아서 계속 써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보조하시는 분들 한 분을 뽑아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들도 업무를 잘 몰라. 그냥 누가 물어보면 궁금한 거 얘기만 해주는 건데 뭐가 보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뭘 단어를 특별하게 뭘 하나 딱 짚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그분도 몰라. 그럼 담당 공무원 통하면 담당 공무원도 그걸 몰라요. 그러면 기술센터 전화를 해요. 그럼 기술센터 전화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계속 돌아와요. 그리고 서류를 하나 떼도 자기들끼리 전산으로 다 정리가 되는 문제인데 꼭 저희 보고 “품질관리원에서

뭐 떼어와라 뭐 떼어와라 뭐 떼어와라.”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서까지 저희가 다 뽑아서 갖다주잖아요. 그럼 검토해서 “이거 잘못됐네요. 다시 해와요. 다시 해와.” 이런 식이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사업 계획서를 하나 제출을 하고 뭘 하면 면장님이든 담당 계장님들이든 과장님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저희 직원을 한 명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업무를 해서 만들어서 좀 짜가지고선 이걸 좀 해보시죠.” 이런 업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업무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래요. 학교 평창교육청도 제가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대부분이 뭘 하고 그러니까 실적주의잖아요. 실적이 날 것 같으면 하는데, 실적이 나서 표면이 표면에 뭐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사업들은 다 다르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김정섭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부문은 나쁜 의미에서 갈수록 공무원스럽게 변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고령화는 또 농촌에서 진행돼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고령화 아니어도 행정이 좀 점점 피곤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국적으로 그렇고요.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조금 토론스럽게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구를 늘려서 해결하자’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아이들 많이 낳자거나 외지인을 많이 받자.’ 이런 건 그게 잘못됐다거나 나쁘다는 게 아닌데 저희가 올해 하는 연구에서는 그건 논외입니다. 논외고 인구가 어쨌든 계속 고령화되고 줄어들었을 때,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평창군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적응을 하려면 그래도 여전히 꽤 많은 사람들이 평창에 살고 있을 건데 적응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분야가 뭔가, 이거를 하나씩만 생각을 하셔서 오늘 밤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일 오시자마자 제가 종이 하나씩 나눠드리고 한 단어로 한 단어를 쓰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할 겁니다. 붙여놓고 보면 제일 쪽수가 많은 거 2개를 골라가지고 2개를 놓고 나는 그거 안 썼어도 내가 쓴 거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그 두 개에 대해서 그러면 10년 동안 이 분야를 잘 준비해가지고 인구 줄고 고령화된 상태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려면, 이제 간단하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토론을 내일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그래서 하나씩만 한 단어씩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응을 하고 살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분야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오자마자 하나씩 쓰고 투표해서 두 개를 놓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아이디어를 내는 토론을 할 거고 이거 하는 이유는 그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가져다 훑쳐다 쓰려고 합니다. 보고서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물론 여기 이렇게 앉아가고 한다고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뀌겠습니까? 제가 연구 보고서를 아무리 잘 써도 정책에 반영되는 확률

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 있는 박사들은 1년에 몇 회씩 연구 보고서 쓰고 모든 보고서마다 그 분야의 정책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타올로 따지면 마 박사님은 타올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보고서 10개 쓰면 몇 개가 반영이 돼요? 분야에 따라 이렇게 부침은 있는데 마 선수 타올을 연구해서 꽤 높으신 분이고 마 박사 전국 영역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니까 그것만 놓고 따지면 5할 타올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영역은 없고 좀 두루두루 건드리는 편인데 통상 한 3할이 안 돼요. 근데 한 2할대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낮은 편 아닐걸요. 2할 타올이면.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렇게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하면 뭐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반영되든 안 되든 우리는 성의를 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이해할 때 타올이지만 일추 20년째 하고 있어요, 이 짓을. 그래서 한 거니까 주제를 잘 정해오셔서 내일 좀 아이디어를 내는 토론을 하면 저희 연구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웅진 이 자리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간담회 같은 데 수도 없이 지치지만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쪽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실은 알고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어쨌든지 간에 나름의 역할을 가져보고 싶고 조그마한 돌멩이라도 하나 던져서 물방울이라도 튀길 바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너무 꽤 넘치 마시고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RISS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도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떠들어도 보고요. 정책 관련 보고서나 연구 논문도 최대한 떠들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세요. 필요하니까. 필요한 일이니까.

김정섭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1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7

B그룹(거창군, 50세 이상 남성)

1. 개요

-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13:00~15:30
- 장소: 경남 거창군 농업인회관
- 참석자: 연구진 3명 외 거창군 거주 50세 이상 남성 6명

거창군의 50세 이상 남성 주민들로 초점집단을 구성하였다. 저출생 및 초고령화로 인해 거창군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논의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교육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이 외지로 유출되면서 거창군의 인구 감소가 가

속화되고 있다. 특히 마을에서 태어나는 아동 수가 극히 적어져 지역 내 학교가 사라지는 등, 지역사회 내 젊은 세대가 급감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농촌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고령자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비용 문제와 행정적 제약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1.2. 농업과 경제적 어려움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이 대규모 운영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했지만 인프라와 수리 서비스가 부족해 불편이 크다. 지역 경제가 축소되며 상업 및 서비스업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 내 소매점이나 편의시설 부족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1.3.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변화

고령화된 지역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단체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단체들의 회원 연령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어렵다.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4. 제안된 해결 방안

1.4.1. 지역 특화 산업과 관광 활성화

거창군의 자연경관과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외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농업과 연계된 체험 관광 및 특

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제적 활력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4.2. 의료 및 교통 서비스 개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의료시설과 의료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이 읍내나 주요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특정 요일에 운영되는 버스 체계를 보다 자주 운행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4.3. 노인 복지와 청년 유입 정책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운영되는 주간보호센터 등을 마련하여 고령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청년층 유입을 위해 1년 살기 프로그램과 같은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제안했다.

2. 초점집단토론 내용

김정섭 그러면 일단은 거의 대부분 쓰셨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테니까 이화천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짧게 한 30초씩 하겠습니다. 성함하고 사시는 곳, 그다음에 하시는 일,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쪽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천 저는 이화천이고요. 웅양면 동호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사과 농사 한 2천 평하고, 그리고 제가 전공이 역사 전공이라서 관련 책도 쓰고 매달 인문학 강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전 선생님도 자기소개를 해서 짧게.

전완덕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리면에 사는 전완덕이고요. 가창에 온 지는 한 13년 됐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유기농 마늘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공도 하고 유

통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진 저는 웅양에서는 이우진입니다. 송산마을에 살고 있고 치유농장하고 건축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사는 소멸된 농촌을 살려야겠다...

김정섭 잘 오셨습니다.

안인화 안녕하세요. 저는 가북에서 온 안인화입니다. 거창에 온 지는 6년 됐고요. 처음에 와갖고는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돌봄, 이런 노인복지, 그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에서도 한 3개월 있었고요. 그다음에 누리보드 협동조합에서 한 1년 일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어서 했었습니다. 이제 그만둔 다음에는 지금은 농사 조금 하고 있고요. 집사람이 저 이제 직장 그만두니까 이제 먹고 살 게 그러니까 갑자기 분식집 한다 해서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농업인데 실은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상입니다.

송권홍 반갑습니다. 위천에 사는 송권홍입니다. 저는 하는 일은 과수가 한 4천 평 되고 사과, 논농사 한 3천 평 짓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지금 현재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만 지나가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구천인 너무 닮으셨고 이름도 비슷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는 13대째 거창 신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400년 되었겠죠. 지금 딸기 농사를 짓고 있고 복합으로 벼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자제는 2남 1녀가 있고요. 참고로 우리 집사람이 마을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장 보조... 이번에 농어업회의소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김정섭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잘 못 해서 좀 편안하게 웃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딱합니다. 뭘 물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임도 그랬지만 그냥 짧게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고령화, 저출산,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걸 순서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느낌이나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화천 무서운 좀 싸한 느낌이 드는데요. 싸한 느낌 찬바람이 싹 지나가는 느낌인데 저희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한 3년 있다가 여기 들어온 지가 한 15년, 14년 됐는데 저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호마을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또래가 한 20명씩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기 울음소리 듣는 것이 거의 희귀할 정도로 거의 인구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무너졌는데, 그래도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처럼 도시에 살다가 계속 들어오니까 빈집도 계속 채워주고 하는데, 근데 새로운 세대들이 안

태어나니까 좀 뭐랄까 어떤 좀 쫓기는 느낌, 막막함. 이러다가 인구 단절이 되지 않나, 그 마을에 살고 있지만 계속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러다 이 마을에 누가 와서 살까. 그런 아주 막막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김정섭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천인 저희 동네는 제가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았었는데 한 몇 개월 전에 집사람하고 잠이 안 와서 얘기했는데 집사람이 시집온 지가 31년 됐거든요. 31년 사이에 주민들이 돌아가신 분이 한 105분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기억이 나시는 분이 105명인데 현재 우리 동네 주민이 94명이 계세요. 30년 후에는 다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제일 젊은 부부인데 저희 신원면에서 저희 마을이 먼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제일 큰 마을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막내고 제 이후로 제 자식들 이후로 울음소리가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게 이제 소멸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제일 큰 마을이고. 제 이름이 구가 아닙니까? 거창에 사는 구가들이 대부분 저희 마을에서 나가는 집성촌인데, 조금 귀한 성이지만 집성촌인데. 30년 후에는 저 혼자 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바로 위애가 한 7살, 그리고 12살, 이런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그분들이 다 90이 넘어버리니까. 그런 마을도 있는데 스위스 좋게 말하면 스위스처럼 독가촌에서 살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처럼 조금 뭉쳐서 사는 그런 정서가 있으면 불안해서 혼자 못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덧붙인다면 그 주된 이유가 우리 기성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에서 시골로 일단 시집을 안 보내려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딸만큼은 시골로 시집을 안 보내겠다. 그리고 과거 어르신들이 지금 80대 어르신들이 살았던 게 시골이 너무 어려웠던 것만 기억나고 어려운 점만 기억나고 좋았던 걸 기억을 못 하는 게 많아요. 보릿고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도 좀 한 몫하지 않았을까. ‘전원일기’, ‘6시 내고향’ 시골 프로그램 보면 요즘 보면 다 80대 할머니 나와가지고 진짜 장애자처럼 다 그런 분들만 찍어가지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전원일기도 그랬었고. 70대 90대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진 분들은 조금 좋게 보지만 젊은 아가씨라든지 결혼 정년이 있는 부모들이 봤을 때는 그 어려운 환경에 시집을 보내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겠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시골을 좀 살리고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방송국에서도 좀 좋은 점, 지금 시골에서도 한 20대 30대 아버지들이 하던 걸 물려받은 청년 세대들은 진짜 대기업 임원 못지 않은 소득을 올리면서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읍에서 살면서 출퇴근 농사짓고. 소득도 올리고 문화생활도 다 누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1년에 서너 번씩 갔다 오는 그런 장점도 많이 있

는데 다 힘든 걸로만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마스크에서 방영되는 게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김정섭 그런 영향 분명히 있죠. 요새 도시에서 나고 자란 20대 초반 애들은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농사짓고 싶다는 말을 해요. 어떤 애들은 그래 물어보면 60 넘어서. 왜 그냥 은퇴하고 나서 이런 게 아니고 TV를 보니까 농사는 노인이 돼야 하는 건가 보더라도 알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담이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송권홍 저는 우리 지금 우리 또래가 우리가 50년도 말생인게 우리 또래가 참 제일 한게 가족 우리나라 가족 계획이 제일 잘 된 면도 있지만 제일 실패한 게 이 가족계획입니다. 우리 때 결혼해가지고 아기 둘만 낳으면 하나만 낳으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 봉알 까라고 정관수술하라고. 예비군 훈련을 가도 하면은 일주일 훈련을 빼주고. 그게 그 당시에는 참 잘 됐다고 봤는데 10년을 앞으로 못 내다본 기라. 아주 잘 된 면도 있지만 제일 잘못된 게 그거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애를 안 낳아요. 그럼 또 우리 세대가 못 먹고 그때 우리는 하루에 2끼도 어릴 때 못 먹었는데 자식들은 안 굶긴다고 아 높은 무조건 대학까지 보내는 게 하다못해 전문학교까지 우리 때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반쯤 빠지고 중학교 졸업하면 반쯤 빠지고 고등학교 반쯤 빠지고 대학 갈 놈 몇 놈 없었어요. 진짜 먹고살 만한 아들 막 대가리가 트이든가 말든 간에 무조건 대학교를 보내는 기라 보내보면 뭐 합니까? 대학 졸업한 놈을 누가 들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는 기라. 그것부터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래 된 것 같은데 우리 면에는 얘기가 1년에 한 명도 안 나오는데 몇 년째 지금 한 명이 안 나와요. 우리 거창군에서 2천 명이면 두 번째 크다 하는 면인데. 학교가 학생을 한 명 내지 두 명씩 얻어갖고 와갖고 이 차를 보내갖고 출퇴근시켜요.

구천인 출퇴근하는 선생님이 애를 같이?

송권홍 그게 얼마나 가겠습시다.

구천인 등학교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읍에 있는 선생님이 그 이유가 뭐가 하면 다섯 클라스가 되면은, 6 클라스 되면 교감 선생님이 상주할 수 있고요. 다섯 클라스가 되면 교감 선생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감 선생님이 진급해가지고 3월달에 부임을 해버렸어요. 근데 학생 한 명이 있다가 한 학년이 한 명 있다가 전학을 가버린 거 읍으로. 가복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15년 전쯤에 교감 선생님이 갈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을 완전

히 보물처럼 대우하지만 그것은 일시방편밖에...

송권홍 수입을 해올 수도 없는 기고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부모 돼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어른이 장년이 되면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안 좋겠나? 그래 싶었는데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우리 어릴 때 어른들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국민성 자체가 국민성이 그러니까 나만 안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리 싸잡혀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하다못해 한 명이나 두 명 우리 저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기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나이에 연령에 있는 아들이 없어요. 전부 나이가 많고 우리 만 65세가 넘었는데도 우리가 제일 막내니 진짜 참 앞서 걱정어...

김정섭 이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런 애

이우진 비극적이죠. 앞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 저는 부산에 살다가 읍에 한 3년 3~4년 살다가 이제 면으로 해서 이제 송산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나이가 저희보다 나이 작은 사람이 한 팀이 있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마지막에 어떤 그 시기가 오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남아서 이제 이 마을에 진짜 누구든지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너무 비극적인 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을에 어떤 사람을 유입을 하고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 이렇게 교류가 돼서 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쨌든 마을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집에 집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하고 그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갈급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는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똑같은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보면 제가 이제 올해 이제 70년생이 55이거든요. 근데 이 밑에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애들도 있긴 있는데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대 40대 20대 이런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늘 봤던 그 붕괴층 아닙니까? 근데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우울감도 있어요. 읍에 나와야지 이제 그 젊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이제 목전까지 지금 왔다는 그런 절박한 그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김정섭 안 선생님도.

안인화 저는 서울 생활이 싫어가지고 직장에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지치고 힘들어서 시골 가서 애들도 키우고 좀 여유로운 생활을 좀해보자 그래서 연고가 전혀 없는

거창으로 왔거든요. 산 좋고 물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처형이 먼저 거창으로 왔는데 부산에서 사시다가 왔는데 계속 서울에서 이제 애들 데리고 오다 보니까 거창 같이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물도 깨끗하고 공기 좋고 오염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와서 질문했던 게 아까 그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에 아까 관심 가졌다는 이유가 실은 그래서 관심 갖게 됐고. 저를 그렇게 반겨주던 할머니가 한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 대구 병원에 가서갖고 그다음에 못 오세요. 지금 거의 돌아가시기 일 보 직전이시거든요. 연명만 하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옳은 건가. 그렇게 고생하고 산업화 때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말년은 병원에서 간헐 갖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맞나 저희 부모님도 실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8남매 중에 막내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싫은지도 몰라요.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노인 복지니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놀았는데 이거는 개인의 노력이나 일부의 군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판단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자녀들이 다 내보냈잖아요. 농사지을 때는 일꾼이 필요하니까 데리고 있다가 산업화되니까 다 도시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장시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한 거고 노인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절대로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안 온다는 거죠. 물론 직장에서 잘리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진짜 살기 힘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절대로 올 일이 없다는 거죠. 왜? 도시보다 못하니까. 서울 반지하에 살아도 안 오잖아요. 반지하에서 월세 내면서 살아도 폐지 줍고 살면서도 자기 고향을 안 가고 시골을 안 가잖아요. 시골이 싫다는 거죠. 그만큼 그럼 시골이 좋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인정이라든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우리 걸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분이 오시면 반길 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반길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크게 보면 저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농사지으려면 이제는 힘없어서 못 짓잖아요. 도시 사람들 와서 도전해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지어도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와갖고 갑자기 농사 못 짓는다. 젊고 힘 있는 친구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 네 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섭 전 선생님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이화천 저는 짧게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박한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숨이 덜 나고요. 큰일 났습니다.

김정섭 저희 연구진도 올해 내년 2년 동안 이 주제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울합니다. 되게 사실 사실은 이렇게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고 이제부터 이제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소감을 좀 얘기해달라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인구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살고 계신 마을이나 또는 읍면, 지역사회. 이런 쪽에서 이렇게 고령화되고 인구 줄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변했을 겁니다. 한두 가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변했을 텐데 그중에 딱 지금 생각나는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변했겠지만 그 얘기를 다 하기로 하면 여기서 밤을 새도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씩만 중요한 변화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화천 저희 마을 동호 숲이 전국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숲이고 여기 들어가면 그 마을회관 앞에 큰 바위가 있거든요. 제가 마을의 변화를 그러면 그 바위가 먼저 생각나는 게 제가 2009년 6월달에 이제 귀향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내렸을 때 그 바위에 한 족히 40분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저희한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동안 15년 지나면서 쭉쭉 다 떠나시고 한 10분 정도, 10분도 안 되게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런 텅 비어가는 바위, 그리고 아이 울음소리 끊긴 그 적막함 이런 게 가장 생각납니다.

이우진 우리는 방금 이야기를 하셨듯이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현지인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80%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애들을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보면 애들의 변화가 이제 현지 우리 아이들과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를 가고. 이제 지금 이 현존해 있는 다문화 가정 정책에 있어서 유입된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여기 현지인이든 어디든 와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한 앞으로 그러니까 한 6년만 지나버리면 이제 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쨌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줘가지고 지금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읍에서 사람 애들 아까 데리고 오고. 이런 문제들은 일시적인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향후 한 6년 뒤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6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3년 뒤도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섭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순서는 없습니다.

전원덕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어르신들의 수가 다 피부에 와닿았겠지만 한 분 돌아가시면 이제 그 마을에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50가구였는데 부부끼리 사신 분이 많은데 지금은 혼자라든지. 4인 가족에 사는 사람이 지금 저희 마을이 큰 마을에 속하는 데도 한 저를 포함해서 한 3가구, 두 번째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주는데 축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자리를 또 거창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질병들이 좀 안 생기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 그리고 마을이 이렇게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 옆에 축사들이 많이 들어서 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정섭 송 선생님 보시기에는 지역이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송권흥 우리 동네는 원래 소재지 동네라서 동네가 100가구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구 수는 한 100가구 되는데 인구는 한 12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회관에 나오면 남자 노인은 우리는 아직 젊은 청년이니까 잘 안 가고. 남자들은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없어요 회관에 가면. 어느 동네 거의 다 그럴 거라 남자들은 술 좋아하죠 담배 피죠, 그러니까 일찍 다 가시고. 할머니들만 소독하는데 할머니들도 80, 90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래 뭐 사람이 환경에 최고 잘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뭐 그냥 또 나름대로 어울려서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약간 농사 그거 하는 것도 농사는 지금 기계화가 되니까 한 옛날에 노인들이 다 일일이 신고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다 하니까 농사짓는 데도 크게 사람 필요 없어요. 몇 사람 하면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쁘게 생각 안 하고 시골에 있으니께.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래요. 노인들이 인지 그 걱정한다고 해서 애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사실 내 생각 같아서는 소득도 시골이 젊은 사람들 와서 열심히 하면 훨씬 낫지 싶어요. 연봉 1억 할 사람 썩어요. 시골에도 그래 할 수 있는데 뭐 생활 그계 안 좋아서 그런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부모들이 첫째는 못 오고 그래요. 자식들이 오라 카면 지금 이거 다 우리 시골에 살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축사하는 사람들 소먹이는 사람들은 자식들 불러내라요. 내려갖고 결혼시켜고 해갖고 떼주고. 그거는 또 정부에서도 후계자금을 주니까 몇억 주니까 그거 받아갖고 대규모로 해가지고 또 소 먹이고 그래 그러면 되는데. 나머지 기는 외국 인력이 와야 되는 기 농사 이거는 무조건 와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할 사람이 없고 또 한 일할 수 있는 50대 60대 젊은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로 다 가버려요. 힘든 일을 아무도 안 할라 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안인화 우리 군수님이 필리핀에서 해갖고 몇백 명씩 1년에 한 번씩 와갖고 이 해주니

까 근무해도 인건비는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딱 끊어졌어요 인건비는. 그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지.

김정섭 말씀 안 하세요 선생님들도.

구천인 저희 마을이 이제 거창군에서 귀농이 제일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마을인데 한 10여 년 사이에 한 18호, 19호 정도 귀촌 내지 개항을 하신 분들인데. 농사짓기 위해 들어오신 분은 한 두세 분밖에 안 되고, 그냥 시골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은퇴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시다. 그동안에 이제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빈자리를 그분들이 메워주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 주민들하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마찰이 조금 생기기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귀농민들하고 우리 정주민하고. 실제 귀촌하신 분들은 부부가 왔기 때문에 19가구라도 한 40분 가까이 되고. 원래 살던 분은 54가구가 있는데도 거의 혼자 사는 할머니들밖에 없어가지고 실제 인구가 한 70명이 다 안 된다고요. 기존의 인구들은. 근데 귀촌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일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의사 의결권도 더 세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습시다. 그래서 과거에는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오히려 집에 모셨거나 아니 도시 자녀들한테 가서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당연히 3년 동안은 요양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는 게 한 10년 사이에 확 바뀐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섭 안 선생님 보시기에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안인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학생이나 어린이집 이런 게 많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 그런 직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도 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복지사로 다 일하고. 아니면 뭐 저기 뭐라고 그러더라 생활지원사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더 힘든 그렇게 들어간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김정섭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절도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딱 맞을 것 같은데 진행하기는 편한데 뭐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제를 누가 내주셨나 저희 연구에서 좀 신경 쓰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뭐 도시든 시골이든 살아가려면 자기 집에서 다 자급자족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가 됐든지 필요한 거를 밖에서 사와야 되는데 제가 필요한 뭐든지 집 안에서 해결을 못 하니 밖에서 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돈 주고 사는 거죠. 물건이 됐든 어떤 서비스가 됐건. 흔히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돈 주고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행정에서 해주게 돼 있는 것

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학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드릴 질문은 국가나 행정에서 해 주는 거 말고 돈 주고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농촌에서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서 못 구한다든지 아니면 구하기가 되게 불편해 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기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고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 인구가 줄어든 탓에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저희 연구에서 조금 약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쪽지를 하나씩 드렸는데 그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개를 두세 개를 적어주셔도 좋고요. 물건 말입니까? 물건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하여간 돈 주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인구가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거 이제 구하기 어렵다 싶은 건 뭐가 됐는지 1개에서 3개 정도 저 파란 매직으로 큰 글씨로 그 단어를 적어주십시오. 좀 붙여놓고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김정섭 적어주셨는데 일단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계라고 적으신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우진 이게 공동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노인들만 계시다 보면 이제 편향된 어떤 그런 주류로 관계도, 모이시는 분들만 모이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젊은 사람이나 40대, 30대 이게 전체적인 어떤 빠진 거 세대가 빠진 어떤 그런 관계를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관계들의 어떤 공동체 관계가 형성이 좀 불안정하게 계속되는 것 같아요.

김정섭 일단은 지금은 이제 돈 주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건데 비슷한 한번 모아보죠. 여기는 주로 농사나 일에 관련된 노동력이나 또는 농기계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졌다는 얘기고 병원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 목욕탕이나, 마트, 편의시설은 예를 들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우진 그것도 아까 마트나 이런 거죠.

김정섭 가계죠, 옛날 점빵이라고 했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 놀이시설, 영화관. 사실은 편의시설 마트라고 하셨으니까 편의시설 마트는 같은 걸로 보고.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편의시설과 같은 거 하지만 이거는 그 필요성이 이거는 굉장히 긴급한 거고. 그렇죠? 사실 아주 없으면 아주 불편해지는 것이고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없으면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교육 학습은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인화 학교 말고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 말고 그다음에 사교육을 받아야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정섭 여기가 오늘 이 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팀이 저희 팀 다섯 번째 팀인데 가장 다양한 의견이 나온 그룹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깐 표를 제일 많이 얻은 것들 두세 개 정도 이 거창에서 그 구체적으로 왜 구체적으로 뭐가 없어서 뭐가 얼마나 어떻게 힘들어졌는지 그 얘기를 좀 여쭙볼게요. 먼저 농업과 관련돼서 농기계 고장 나도 고치기가 어려워지고 노동력 구하기도 힘들다. 이거 사실은 이 얘기는 농업 연구하거나 농촌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거든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다 아는 얘기를 저희가 보고서에다가 인구가 줄어서 일손 구하기 어려워졌고 트랙터 고칠 때도 되게 불편해졌다. 이렇게 딸랑 두 줄 써놓고 나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서 쓰는 스타일 그 얘기 쓰더라도 이제 보고서가 너무 길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거창에 갔더니 이렇게 됐다더라 이렇게 상세하게 좀 실제 얘기를 좀 담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일손 구하기가 어떻게 어려워졌고 농기계 고치는 게 어려워져서 지금 어떤 형편인지 이런 얘기를 여기 붙여주신 분은 세 분이신데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맨 위에 농기계 수리 공구 등.

안인화 제가 저는 이제 가북인데 가조하고 붙어 있어가지고요. 가조면에 이제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젊은 분이어서 가면 되게 잘 고쳐요. 저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갖고 와서 무조건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 2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가게가. 그래서 이제 읍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급한 거를 갖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문 닫고 있으면 그러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해결을 초등학교 때 이제 같은 학부모였던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잘 다루니까. 이제 그분한테 부탁해서 고치기도 하고 이제 옆에 계신 어른한테 부탁드려서 이제 간단한 건 고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끝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적었습니다. (가게가 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적죠.

구천인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뭐가 하면은 과거에는 한 면에 2개 내지 3개 아니면 5개 까지 어느 정도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었는데 그때는 농업인구가 실제로 현존하는 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가 많아가지고 소형 농기계가 엄청 많았습니다. 가구 집집이 다 나는 바인더, 탈곡기, 경운기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농사를 못 짓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농기계 숫자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는 한 마을에 경운기가 20대가 움직였던 것 같으면, 봄 되면 지금쯤 마을이 시끌시끌벽적해야 되거든요. 경운기 엔진 소리 때문에. 지금은 경운기로 농작업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가도 이동 수단으로 이 트럭처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르신이 있었지. 순수하게 경운기로 농작업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농기계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용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농기계센터가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인화 그것도 그렇고 군에서 운영하는 임대 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질 필요가 별로 없거든 기계가. 가서 화물 쓸 때 빌려갖고 쓰고 갖다 주면 되고. 그럼 내가 수리할 필요도 없고 부서지면 거기서 다 고쳐갖고 하니깐 그것 때문에도 각 현장에 경비 센터가 농기계 수리 센터가 다 많이 없어졌지. 사지도 안 하잖아 기계를 팔아 먹어야 그 사람들도 돈이 드는데.

김정섭 임대사업소 그게 차례가 빨리 돌아옵니까? 많이 기다려야 되고...

구천인 거창에는 그만큼 많아요. 지금 거창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점별로 해가지고 한 5군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김정섭 제 동생이 시골에서 농사지은 지 한 15년 됐는데 요샌 그런 소리 안 하는데 기계를 사서. 10년 전에 전화 와서 임대사업소 가가지고 충남 예산이거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기술센터에. “차례도 안 돌아오고 빌리기 힘들다고 뺄 좀 써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저기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진 얘기를 누가 해주십시오.

구천인 제가 했는데 과거에는 제가 농사를 짓다 보면 하루 전에 30년 전에는 하루 전에 밭농사를 한 2만 평 했었는데. 30년 전에 하루 전에 전화해가지고 한두 동네 전화해가지고 호칭을 반장님이란 호칭을 줬죠. “반장 아지매, 일꾼 한 15명만 해주세요. 20명만 해주세요.” 하면 바로바로 해결됐어요. 그다음 날 아침에 차를 가지고 실로만 가면 됐는데 한 10년 전쯤에는 거의 없어요. 사정 한 일주일 전쯤 사정하면 한 명, 두 명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나이도 많아지고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노령연금이라든지 또 개인연금이나 이런 데서 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복지사 쪽 일을 다 하고. 또 주변에 농공단지 이런 게 좀 소규모 농공 단지가 들어오니까 월급제로 들어가기도 하고. 노인 일자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행정기관에 1시간씩 2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해가지고 받는 이쪽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일해주는 데 한 번도 안 계세요. 꼭

하려면 이제 용역을 구해야 되는데 용역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읍에서 너무 멀다 보니까, 1시간 전에 실으러 나와야 되고 왕복 1시간이 걸리니까 일 마치면 또 실어다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실제 용역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을 마치면 읍이 가까이 있어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산골짜기에서는 하지를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렵죠.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김정섭 꼭 일손이 부족해서만은 아니겠지마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돼서 작목을 바꾸거나 농사를 크게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구천인 그래서 이제 딸기 같은 경우 토경에서 지금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설로 바꾸고 밤 농사가 저희 저도 많이 했지만 저희 면이 전국에서 밤이 제일 주산지였었던데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손으로... 그다음에 전국에서 면 단위에서는 저희 면이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휴경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밤을 주을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는 거죠. 한 1,400ha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실제 직후 있는 거는 30년 전에 한 20억 하던 게 작년에 6억 나오더라고. 밤 매출이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력도 '노령화되고 밤나무도 노령화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단 일손 자체가 없습니다. 저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쪽으로 투입이 다 되고. 그리고 남자들은 아예 없고 옛날부터.

김정섭 저기 수리라고 노란색으로 써주신 분.

이우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일상적인 보일러, 물. 도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리가 도시는 터지면 부르면 바로 오잖아요. 예 반나절이면 딱 와서 고쳐주고 가야죠. 왜냐하면 밤을 지새면 커다란 그거니까 근데 여기는 터지면 밤을 지새야 돼요. 보일러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위에 오신 분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것을 감내하고 시골에 들어와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와서 또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농기계도 이제 농사짓는 분은 그렇지만 어쨌든 일상적으로 이제 시골이 앞으로는 시골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여간 오셔가지고 그러한 어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골은 어디 전화번호도 없고 그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찾아야 되고 전화하면 또 며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불편한 어떤 그런 것 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그렇게 기술자들도 많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김정섭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도 당하는 사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인데 제

가 작년 6월에 진도에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옆집에 옆 마을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는 아저씨한테 화장실 문이 안에서 잠겨가지고 내가 화장실을 써야 되겠는데 자기 집 화장실 못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해달라고 젊은 사람은 동네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 열쇠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열쇠쟁이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진도군 전체에 열쇠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짝을 부술 수는 없으니 오늘만 옆집 가서 어떻게 하고 내일까지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분이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진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천인 시골에 살면 우리 때 외국 영화 보면은 아버지가 다 고치잖아요. 차도 고치고 막 트렉터라고 다 고치는 것처럼 사실 맥가이버가 돼 있어야 용접은 기본이고 모든 공구가 다 있어야 월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리할 수 있어야 그 시골에서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골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 그 정도 돼야 시골에서 살 수 있어. 맥가이버화가 돼야 되니까.

김정섭 그다음에 이제 목욕탕이나 마트 이제 소매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편의시설도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이것도 경험이나 주변에 보신 사례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목욕탕 얘기.

이우진 편의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추세 중에 하나가 주유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국도변에 있던 주유소가 동네에도 지금 농협 주유소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잘 그래도 좀 이렇게 농협에서 한 군데 운영을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던 주유소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사라지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나마 지금 있는 농협 어떤 그런 주유소도 면 단위에서 인구가 소멸되면 아마 그것도 문을 닫고 주유소도 문을 닫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름을 넣으러 끝까지 가야 되는 또 이제 불상사가 생기게 되죠.

구천인 주유소가 지금도 면 단위 하나 정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52시간이 그것 때문에 토요일은 오전에 열고 일요일은 문을 닫고. 주유소 하나 있는 것마저도 그런 실태입니다.

김정섭 아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근무시간을 챙겨야...

구천인 52시간을 맞춰서 특근을 시키면 이 경영비가 도저히 안 나오니까 토요일은

아예 일요일 문을 완전히 닫고 토요일만 한시적으로 오전에만 문을 열어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정섭 농협 주유소다 보니까 근로시간 문제가 있네요. 개인이 하는 거면 가족이 하는 거면.

구천인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도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농협 주유소 하나하고. 저희 면에도 일요일 날은 기름 떨어지면 옆에 집에 빌리러 가고 여기 시골 사람들이끼리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객지에서 온 고급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휘발유 잘못 넣으면 우리 바다 나가서 잘못 넣으면 물이 있어가지고 차 고장 나거든요. 바로 주유에서 바로 대야 되지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정섭 목욕탕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좀...

안인화 우리 면에 대중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면예요?) 예 면 단위에 나무 때갓고 하는 목욕탕이라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 노인들이 주로 많이 가거든요. 노인들은 한 면에 있으니까 버스도 우리는 우리 위천 같은 경우는 버스도 100원만 주면 딱 한 바퀴 돌아요. 거창읍에 내려오는 데는 버스 천 원이고 100원만 주면 되는데 그 목욕탕에 노인들이 와서 하는데 목욕탕을 뭐 하다가 임대 내고 하는 놈이 채도 안 주고 나가라 나가지도 않고 하객로 폐업 신고를 해서 폐업을 해버린 거라 그래 목욕탕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으니까 이동 수단이 있으니까 거창읍으로 나오면 되는데 노인들은 그거 한 번 버스 타고 또 걸어서 또 목욕탕까지 걸어가야 되고 하니까 불편하게 못 나오는 거라. 그래 하나 있었으면 싶어갓고 목욕... 노인들은 그 하는데 가정 집에 가면은 시골에 어느 집 없이 옛날처럼 푸세식으로 돼 있는데 전부 입식으로 좌변기를 다 갖다 났을 거야. 목욕탕 샤워 시설도 해놨고. 해놨는데 겨울에는 못 쓰는 기보 일러 시설이 안 되게 추워서 못 쓰는 기라. 추워서 그래 뭐 자식들이 좀 푹푹한 것들은 열등을 막 두 개씩 갖다 캐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좀 떠시키고 그래 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보면 노인들은 목욕탕을 못 쓰는 기라. 그래 그걸 이제 군수한테 군수님한테 얘기하니까. 그거는 뭐 못 한다 이기라 해주면 운영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이기라 그 군에서 좀 보조도 해주면 되지 돈 세는데.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될 거 아니라 안 된다 카니까. 그 노인들은 겨울에 몸 쉬면 꼼짝없이 자식들 오면 한번 오면 씻고 그래 옛날처럼 그래 나무로 떼야 하든 간에 그런 계라도 있으면 훈훈하게 씻을 수가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면에서 노인들한테 대중탕 저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

구천인 인구가 좀 많은 편인데.

안인화 많은데도 그 개인이 해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오니까.

전완덕 북성서도 목욕탕이 몇 년 된 목욕탕입니까?

안인화 한 40년 됐지.

전완덕 그 면 단위에 목욕탕이 있다는 게 대단한데.

김정섭 언제 문 닫았습니까? 한 2년 전에?

안인화 임대를 목욕탕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체분은 서울 살고 임대를 줘야 할 거 아니라 임대 들어올 사람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도 한 60 다 되는, 60 넘어서 목욕탕 운영이 그래도 하루에 한 열댓 명 한 20명씩 오니까 6천 원 씩 괜찮지 밥벌이는 돼 되는데. 이놈이 임대료를 생전 안 주는 기라 주라 해도 안 주고 그 그럼 나가라 캐도 나가도 안 하고. 2층에 살림집까지 하고 밑에 목욕탕을 하고 했는데 임대료도 안 줘 나가라 해도 안 나가. 그러니까 주인이 썩이 나갔고 폐업 신고를 해 버니까 목욕탕을 그 폐업 신고를 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못 하고 말았니 그래 없어져버려.

김정섭 전국의 목욕탕 문제는 사실 심각해가지고요. 군청에서 보조해서 목욕탕 만든 데가 수십 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0군데가 넘어요. 작년에 한번 세봤는데 그걸 다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다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엄청 줄었으니까. 그래도 더러는 맨날 더러는 군에서 약간 보조하고 그러저러 꽤 많은 어르신들이 쓰는 조그만 목욕탕 하는 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천인 저희 면에는 남탕 여탕 구별돼 있다가 과거에 도저히 안 돼서 하루는 그러니까 홀숫날에는 여자만 하고 탕 하나만 운영하려고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짝숫날은 남자분이 하고 이렇게도 해봐도 안 되고. 그다음에 5일장이 있어가지고 2일, 7일이 저희 면의 장날인데 2일날 7일날만 해봐도 안 되고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엄청 어려울 겁니다. 인건비는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김정섭 그 면에 남탕 여탕 바뀌어도 해봤다는 건 개인이 하는... (아니예요) 군에서 하는... 아.

구천인 마을 면 소재지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그래 했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오래전

에 문 닫았거든요. 운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나이 드신 분 불편한 분은 목욕 차량이 다니고 해서 오히려 등급 받으신 분들은 목욕 차량으로 와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김정섭 이 등급을 못 받으신 어르신들이 더 많은데 그쪽이 문제죠. 마트 얘기...

구천인 이상하게 또 제가 전화한 게 오늘 정답이 많았는 모양이네요. 저희 면이 됩니까? 마트가 농협 하나로 마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주유소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6시 되면 문을 닫아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면 전체에 마트가 없는 거예요. 라면 하나 살 데도 없고, 부탄가스 하나 살 데가 없는 거죠. 항상 그래서 사놓고 재놓고 써야 되는데 그 과거에는 그 됩니까? 일요일도 주민이 너무 불편하니까 좀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52시간 이것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 어떠한 경우 열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진짜 다 파는 것보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복지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그 조합원 복지 차원에서 사실 운영을 하면 되긴 되는데, 또 그걸 이용을 많이 안 하는 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경영을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반문도 들어오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월요일 오전까지는 아예 신원면 담배 하나 살 데도 없고. 그런 사람 편의점도 하나 없어요 우리 신원면에는. 그러니까 제일 불편하죠. 아이스크림 하나 조카가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다 캐도 읍에까지 실으러 와야 되고 택배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아마 많을걸요. 이제 점점.

이회천 웅양면에는 제가 웅양국민학교 다닐 때 1970년대 그때 있던 조그만 구멍가게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지금도 살아 계시고 계속 운영하고.

구천인 그때 쬐으셨다. 새댁에 있었는데 그 당시.

전완덕 신흠이죠. 신흠 그렇구나. 웅양은 하나로 마트도 있지만 그런 구멍 가게 있고. 또 마트 2개 더 있고.

구천인 작년까지는 3개였었는데 신원도 농협 지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평일에 운영 하는 지점이 있었고. 양지삼거리 쪽에 또 양지삼거리 인풍전 거기에 술도 팔면서 조그마한 마트가 있었는데 엄청 비싸게 팔죠. 그냥 소비자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마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주인이 바뀌면서 문을 닫았고.

전완덕 면 단위 가게는 아예 없어요. 밤늦게 술 마시다가 안주거리 이사를 가고 그런 가게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로 마트는 딱 공무원처럼 출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가게다운 맛이 없는.

구천인 그러니까 친척이 와가지고 갑자기 고기 부르스타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더라도 가스 떨어지면 다행히 옆집에 빌릴 데가 있으면 다행인데 옆집에도 떨어져 버리면 아예 고기를 못 굽죠. 요새는 마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로 생활하는 데는.

김정섭 긴급한 건 아니지만 영화관 놀이시설 거창에 영화관이 있었나요? 옛날에.

이화천 저희 매달 인문학 강의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데 그때 고흥에서 오신 분이 한 번 이제 뒤풀이하면서 술 마시다가 인구가 4만에서. 고흥은 거창보다 더 작다고 하더라고요. 4만에서 3만으로 줄어드니까 레코드 가게 없어지고. 3만 원에서 2만 원 줄어드니까 책방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꾸 가장 없어지는 게 문화시설. 영화관, 레코드 가게, 책방 이런 것들. 그래서 거창도 저희 어릴 때는 영화관 큰 대형 영화관이 한 2개인가 3개 있었거든요. (3개 있었어.) 지금은 이제 조그마한 거 하나 그나마 그것도 간당간당하다가 위기를 겪다가, 이제 지금 있기는 한데 이제 이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층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시설부터 없어지기는 한데. 없어지면서 또 특히 이제 문화시설에 대해서 이제 갈증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또 이 지역을 이탈하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되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데 그나마 거창은 아까 말씀드린 함양, 합천, 산청. 아까 좀 전에 예로 드린 고흥보다도 조금 상태는 조금 상황은 조금 좋긴 합니다마는 지금도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적으니까 그쪽에 미래도 좀 암담하긴 하죠.

구천인 거창에 초등학교 입학 인구가 200명이었죠. 원래 거창군 전체.

김정섭 전체가요. 놀이시설이라고 적어주신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전원덕 이 자리에서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막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이제 계속 노인 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면 금방 이야기했지만 목욕탕도 아쉽고 그런데. 애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시골에 참 놀 데가 없습니다. 일단 놀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학교인데, 학교에서 애들이 몇 명은 또 축구 한 팀을 못 만들어. 왜 그러냐면 남녀가 이렇게 섞어야 되는데 특히 뭐 요즘은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축구를 싫어하는 애도 있고 그러면 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울 때 애들을 키울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남자애가 둘이다 보니까 축구를 하고 싶는데 축구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쪽수가 안 맞는 거예요. 적어도 뭐 한 5명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이래서 그때 제일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읍에는 있지만 이 면 단위에 지금 아

까 유치원이라든지 저기 붙어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면을 묶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그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 같은 것도 필요한 놀이터가 아닌 놀이시설 같은 것도 없으면 좋겠고. 또 외지에서 주말이라든지 방학 때 이제 할머니라든지 이렇게 할아버지 보러 오면 애들이 이제 요즘 다 폰을 만지겠지만, 그런 놀이시설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답이 없지만. 그래도 저처럼 제가 키우는 애들 그때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축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롤러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아니면 허물면 그 밑에 이렇게 간단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시골이 모든 포인트가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애들이 내 환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가서 붙잡았습니다.

김정섭 다 얘기 들으면 오늘 시간 오버돼서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제가 병원 얘기하고 대중교통 얘기까지만 들겠습니다. 이 병원은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 말고도 병원 면에 지금 약국들은 있습니까?

안인화 거의 없어.

김정섭 예전에는 있었죠?

안인화 약포지 약포.

김정섭 약방.

구천인 자격증 없이 구매부처럼 해가지고 파는 할머니들.

이우진 지금 거창 같은 경우는 읍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상 만약에 명단 위에서 누가 쓰러졌다 이러면 구급차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급차가 사람을 싣고 가야 되고 근데 사람을 만약에 이제 이동하는데 읍까지 한 10분에서 20분. 혹은 30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동하는 그게 이제 조금 문제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면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읍 단위에 의사분들이 조금 우리는 속된 말로 돌팔이를 하거든요. 그냥 돌팔이요. 그냥 가면 조금 어렵다 싶은 거는 다 그냥 저 대구로 나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대구로 나가라 이러면 이제 그 위급한 상황에 또 대구까지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지금 안 그래도 뉴스에 의료 문제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급 그런 어떤 서비스나 어떤 의사 선생님들 어떤 그런 어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낫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건강 검진이나 그냥 어디 아픈 데가 있더라면 미리 대구나 안 그러면 서울로. 여기 이제 시골 분들 다 가지거든

요. 가시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 저도 이제 우리 지인 중에 오셨다가 갑자기 굴러떨어져 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크게 났었는데 가면 바로 또 대구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게 굳이어서 그런 건지 인구가 작아지고 좋은 선생님을 못 모셔와서 그런 건지 지금 현재 하여간 한국의 어떤 그런 문제 요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섭 의료 문제도 더 덧붙여서 해주신 말씀...

전완덕 거창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거점병원을 거창에 세운다고 하죠.

구천인 유일하게 적십자병원이 전국에 19개가 있는 데서 흑자 나는 병원이고. 신외도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아서 적십자병원이.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가 의사의 수준도 있겠지만 기계 자체가 판독하는 기계가 좀 선명하지 않으니깐 이용자가 적어서 판단을 못 하니까. 웬간하면 진주나 대구로 가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팔팔 고속도로가 이제 4차선으로 돼서 그렇지 2차선으로 있을 때는 저희들은 '죽음의 도로'라고 그랬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중앙분리대가 없으니깐 사고로 인해서도 많이 죽었지만 환자가 이송될 때 추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모친을 갖다가 확정되기 전에 고통까지 확정돼 있을 때 그때 당시인데 뇌출혈이 있어서 제가 직접 모시고 갔는데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빵빵거리고 비상 라이트를 켜도 안 비켜주더라고요.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을 갖길로 가야 되는데 조그만 버스 이런 것들이 중앙선을 물어준다든지 자꾸 그게 좀 피해 갈 수도 있는데 안에 앞에 큰 버스트럭 하나 있으면 그냥 40으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음의 도로라고 그랬었거든.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그나마 도로가 형성돼서 급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실제로 맨날 인생 아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에서 제가 구급차 역할도 하고 소방차 역할도 하는데 긴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고 직접 기도 유지해가지고 신고 나와야 돼 그래 중간에서 만나든지 이래야 되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최대한 기도만 유지하고 신고 나오면서 중간쯤 만나면은 벌써 시간이 한 10분, 15분 절약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1인 3역 다 하죠. 그 지역에 사는 젊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소방차 올 때까지라든지 구급차 올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통화하면서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소방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떤 상태를 물어보고 어떤 상태라 그러면 상체를 약간 높이러든지 기도를 유지하라든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출혈 환자가 있으면 다리가 출혈이 있으면 약간 들으라든지 매라든지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의료 역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급대원 역할.

김정섭 이 선생님도 아까 얘기 꺼내시다 말았는데 의료와 관련해서.

이화천 지금 구청하고 자꾸 다른 직역을 비교를 하는데 그래도 병원이 그런 데로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더 열악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0년대, 저희 큰 누나가 아기를 낳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거창에 있는 병원에 왔다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구로 가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 보면 뭐 거창에 병원이 없어서 그 환자가 위급하게 다른 데로 돌린다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구천인 병원급이 3개가 있습니다. 병원급이.

이화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역거점병원이라는 게 거의 대학병원과 병원이 전국의 몇 군데 이제 들어서는데 거창에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창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군 지역보다는 좀 이렇게 좀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섭 군 전체로 보면 인구 규모에 비해서 병원급 이상이 3개씩이나 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편인데 이제 문제는 면 지역에, 그렇지?

이화천 예전에도 뭐 그렇게 없었으니까 없지 않았습시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아프면 그 마을에 있는 마을에 있는 무당 할머니가...

구천인 소금 뿌리고 그럼 낫지. (웃음)

이화천 눅혀놓고.

구천인 소금 뿌리면 나아.

전완덕 초가지붕 있지 않습니까? 초가지붕 짙을 태운 것을 태운 물을 한 끝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간요법으로 많이 나왔지 뭐, 지금 의료기관이 면 단위까지 와 있지 않았었는데. 이걸 인구 소멸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통이 좋아지니까 또 다만 119 구급대가 좀 더...

김정섭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잠깐 쉬겠습니다. 대중교통 다른 지역에 비하면 거창은 대중교통이 괜찮은 모양이죠.

구천인 그것도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과거에는 서울 가는 버스가 남서울 기준으로

한 14개에서 16개, 동서울도 11~12개 있었는데 지금 반 정도로 줄었고요. 부산 대구 가는 거는 거의 10분 20분 간격으로 있었는데 지금 한 40~5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에 와보면 서울 가는 첫 차든 대구 가는 첫 차든 다 환자들, 병원 가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한 40분 간격으로 한 대만 더 있어도 좀 많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덜 느낄 텐데.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로 가는 그 버스 간격이 옛날에 비해서 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희 젊은 사람들이 물론 자가용 세대가 늘어서 그렇지만 사실 혼자 갈 때는 요즘 좀 많이 풍습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혼자 가더라도 차량을 가지고 갔지만 서로 요즘은 혼자 움직일 때는 거의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김정섭 여기 대중교통 누가 적어주신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 거창에서 외부로 나가는 건 상황이 그런데 이제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면사무소나 농협으로 나와야 되고 마을에서 읍내로 나오는 거창읍 말고 면이나.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 비하면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안인화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동네마다 다 버스가 들어가요. 버스가 근데 공짜로는 안 되고 100원. (작년부터 바뀌었어. 시스템이) 이제 그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100원 받고 소재지 가지.

김정섭 그 버스는 자주 다닙니까?

안인화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 땡기는데.

구천인 저희는 1시간 간격으로 과거에는 저희 면에 가면 세 골짜기 있었는데 그래서 면 소재지 제외한 골짜기 세 군데는 하루에 두 번밖에 차가 안 들어왔었는데. 버스 한 대가 계속 면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3개 코스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가 면 소재지에서 거창까지 시간당 움직이니까 이제 엄청 좋아진 거죠. 그분들 하루에 두 번 가던 게 한 10번 이상 가게 됐으니까 골짜기 골짜기.

김정섭 좋아진 거네요.

구천인 2년 전에 이제 그게 버스 운영 체계를 거창군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이제 마을 단위까지 거의 들어가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버스를 좀 작은 버스로 바꾸면서.

김정섭 그 작은 버스는 빈 차든 어쨌든지 간에 그냥 계속 돈다.

구천인 버스가 올 때 맞춰서 코스 받아서 마을버스 도시 마을버스처럼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전완덕 기존의 업자들이 많이.

구천인 내랑 같은 회사니까. 군에서 한 30억 원 이상 지원을 해주니까 1년에.

김정섭 군에서 보조를 해줄 거예요.

구천인 한 명도 안 탈 때도 있으니까.

김정섭 거창군 같으면 아마 농식품부 보조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대중교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구천인 1년에 3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섭 2018년부터 했는데, 도농복합시 우리 나주 같은 데는 국토부 돈이고 군 지역은 농림부 돈인데 아마 1년에 한 500~600억 쓸 거예요. 농식품부에서.

구천인 30억 정도. 우리 거창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

김정섭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원래부터 군비로 버스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적자노선 결손 보증금이라고 해주고 30억이면 다른 군하고 비교할 때 좀 적은 편이고요. 상주시 같은 데는 85억, 충남 홍성군이 40억 이건데. 그거 말고 그래도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노선은 자꾸 줄으니까, 2018년부터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버스회사 하던 버스회사에 돈을 더 주고 그렇게 돌려라, 그러면 40인승 그 차가 아니라 작은 버스 한 열댓 명이나 탈 만한 그 차로 계속 도는 데도 있고 어디는 마을회관에 앉아서 전화 걸면 옵니다. 콜택시처럼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느 군은 버스에서 안 시키고 버스회사 안 시키고 택시로 하는 데도 있고 버스를 돌리는데 농협이 하는 데도 있어요. 버스 회사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포천 서울만 가면 서울은 서울 농협이 조합장이 그 버스를 돌려요. 조그만 버스를. 그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요즘에 좋아졌다는 말씀이지요? 그거 해서 좋아졌다는 얘기 처음 듣네.

이우진 아니 여기 교통이라는 게 어떤 데는 아까 말한 2시간마다 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안인화 아니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거창서 오늘 버스가 한 번 오면 오는 시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리면.

구천인 지선으로 왔다 갔다 한다.

안인화 신고 와갖고 버스 거창 내려가는 시간에 따따따 대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계속 도는 거지 우리처럼 두 대를.

이우진 우리는 이제 김천, 이제 경상북도 경계 지점이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이화 선생님이 웅양이고. 근데 이제 매일 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1시간마다 한 번씩 꼭 오더라고요. 차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희망이 뭐라고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합천이나 뒤에 함양이나 이 두 개보다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대책이나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나 조례나 뭔가를 바꿔서라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버스 어떤 이런 거라든가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는 다른 데 들어보면 그 버스 안 다니는 곳도 많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병원도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질이 낮아서 그런 거지 병원 자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치과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우리 거창군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시간이.

김정섭 아니 제가 대중교통 쪽에 무슨 뚫어지게 연구를 한 건 아닌데 2018년에 처음에 그 농식품부하고 국토부가 돈 쓴다고 할 때 1년에 최소 700억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써준 적 있거든. 농식품부 국장한테. 그 이후로 유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버스 작은 버스 잘 돌리는가. 근데 많이들 하고는 있는데, 1시간 간격으로 돌리는 데가 드물어요. 그리고 모든 리를 돌지도 않고 버스 안 다니는 동네 돌리라고 했더니 안 다니는 동네는 계속 안 가고. 그래서 그런데 거창 오니까 잘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 희한하다.

전완덕 저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할머니 어르신들 이야기인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서 한 200~300m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택시가 더 좋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는 놓쳐버리면 또 몇 시간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더 한 번 오기 위해서 그 구르마를 끌고 오가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택시를 만약에 그 비용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비용에 택시비를 이렇게 100원짜리 택시라든지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저는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한 예로 제가 저 합천이 제 고향인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진짜 아까 우리 여기는

거창에는 지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데고 합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에 버스가 와요.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왔는데 그 버스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서는데 없으면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몇 분 늦으면 놓치더라고. 그러면 또 2시간인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택시가 부르면 오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목지까지 데려다 주지.’ 또 병원에서 또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렸다가 다시 답하면 뭐 오지.

구천인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거창군에도 마을이 많은 마을이 특히 웅양 같은 데는 전 마을이 해당이 될 건데 버스 승강장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500m가 넘으면 인구수 비례해가지고 택시 표를 줍니다. 택시 한 장 한 장에 이제 1천 원 주면 돼요. 한 명 타면 천 원 주고, 4명 타면 4천 원만 주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차액은 지역별로 좀 차이는 저희 마을에는 버스 승강장에서 뺏니까? 한 500m 넘어가지고 한 달에 한 52장인가 50 몇 장이 나오더라고 차량이 없는 어르신들 위주로 주는데 한 1인당 한 2명씩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분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18장이 되는 거죠. 사실은, 사업비를 잘 쓰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또 고정 택시 기사가 2명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2명이 지정된 분들이 전화만 하면 어느 분인지 딱 알고 안전하게 모시러 왔다가 모셔야 되고 그런 제도를 하는데, 웅양 같은 데는 거의 마을에 해당이 다 돼 길이 새로 남으로 해가지고 버스 승강장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그다음에 저희 신원 같은 데는 몇몇 마을에 해당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기존 노선버스는 작년 한 번 들어오고, 평상시에 안 들어오고.

김정섭 벌써 열추 1시간 반 가까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오늘 이제 시간 관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10분 쉬었다가요. 저 시계를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구천인 마리는 그런 말 없던가요? 내가 보니까 공장이 제일 많더라고요.

전완덕 저희 마을은 승강장에서 한 애매하네요. 300m 있는데 하신 이야기가 택시기계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몇 장 안 주나 봐요.

구천인 그 숫자는 좀 적어 그런데 마을마다 조금 논의를 이장님들이 의논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도 차량이 있는 사람도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양심불량으로, 어르신들 위주로 주면 될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 나가서 술 먹고 한번 운전을 타고 오려고 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 진짜로.

김정섭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2시간 안에는 못 끝내고 약간 오버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적어주시는데 이번에는 관에서 해주는 일, 원래 관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줄어도 계속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실은 정부나 지자체고 관도 사람이 줄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줄어버리거나 없애버려서 실제로 불편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관에서 해주는 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죠. 그다음에 의료 쪽에서는 보건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소방대 등등등등. 보시고 거창에서 그동안 인구가 줄어서 관에서 원래 하는 일인데 인구 줄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아니면 줄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래서 좀 불편해진 게 있다 싶은 게 있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큰 글씨로 적어주십시오. 포스트잇에 안 적으시면 거창군청은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걸로 저희가...

김정섭 일단 그러면 두 분이 적어주셨는데요. 학교 문제하고 기반시설 상수도나 도로 같은 얘기 좀 하시는데 학교, 옆 동네는 학교가 생겼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천인 저희 지역에 이제 오지다 보니까 골짜기 나눠져 있고 해서 학교가 초등학교가 5군데 과거에는. 5군데 중학교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중학교는 한 5년 전에 폐교가 돼가지고 치매 전담 국립요양병원을 짓고 있고, 그거 참 좋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치매 어르신들이 타 지역에 가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데서 가면 훨씬 심리적 안정도 될 거고. 보호자들도 자주 면회하는 것도 좋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되는데 지금도 아직 폐교된 학교가 좋은 위치에서 네 군데나 있는데 하나는 개인한테 팔았고, 4개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공시지가보다 좀 낮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각을 안 하니깐 흙물로 진짜 초등학교는 보면 거의 대부분 맹지에 그 마을의 가장 좋은 위치에 초등학교 다 있습니다. 양지바르고 터도 좋고 평지고 이런 데 있는데 그 네 군데가 지금 계속 한 20년째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빨리 처분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공장을 유치할 하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농장을 하계끔 싸게 좀 매각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약간 거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그 당시에 학교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기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 서류상에는 이 교육청 땅이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심리적으로는 우리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도 사실 마음대로 그걸 매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 학부 범위 내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각을 한다면 그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우리 중학교에서 요양병원 짓듯이 요양원을 한다면

지 아니면 복지시설을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자꾸 우리 거창에는 데리고 오는데 기숙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맹지 땅에 놓고 있어서 한 20년 이상.

김정섭 기반시설이라고 적어주신 선생님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전완덕 일단 사람이 줄으니까 일단 옛날에는 마을 상수도가 있었지만 요즘 대부분 이제 이 됩니까?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겨울에 동파가 생기면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겨울에 물통 들고 이렇게 물두를 하는 게, 그런 일이 간혹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로가 이렇게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공중에 봉 뜬 다리 효과처럼 이렇게 공중에 뜬 그런 도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면사무소라든지 이장님도 이야기하면 핑계 대는 게 다 이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요즘 뭐 이 정부는 추경도 없으니까 내년엔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를 계속 넘기면서 그 담당자는 또 다른 데 가버리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구요.

김정섭 도로가 공중에 봉 뜬 것처럼 났다는 얘기는?

구천인 밑에 가 떠서, 그러니까 지면하고 또 있으니까 이제 그 말이죠.

김정섭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전완덕 예 근데 그게 마을 이제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 당연히 그게 되겠지만 이제 수가 줄어들고.

구천인 독가촌이고 이런 데는.

전완덕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에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옛날 도로 같은 경우는 옆에 흙이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침식이 돼가지고 뜨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런 게 되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한... 이 만약에 이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요즘은 뭐 신문고라든지 그런 데 올릴 수 있지만 신문고에 올리면.

구천인 면장님 얼굴을 봐서 못 하고 이장님 얼굴을 봐서 못하고.

전완덕 제가 지금 한 3년째 그런 이야기를 이장님 얘기, 이장님이 직접 가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계장님이 봄 때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있고 또 어른들이 그게 요즘 사료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처럼 생긴 거. 그거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도로가 옛날 논길이라든지, 좁아요. 그러면 거기서 간혹 이렇게 운전을 잘못하거나 미숙하면 이렇게 좀 위험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확장시켜주거나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군에서는 금방 이게 또 예산이죠. 예산 문제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섭 그 예산이라는 게 항상 사람 적은 데는 예산이 잘 안 들어가니까... 도농 학교 교류?

전완덕 사실 행정이 책임지는 일 중에서 뭐 불편해진 건 아닌데요. 그러면 좀 빛나가긴 한데 불편해진 것보다는 마음이 편해지게 하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옹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옹양초등학교하고 좀 교류를 해보자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도시에 사는 애들이건 어른이건 특히 서울이면 서울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을 상당히 좀 큰일로 생각하는데, 직접 시골 와서 거창에 와서 옹양에 와서 살아보면 재발견하게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호마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울음소리 들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1년 살기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하고 와서 동호마을에서 살면서 그 옹양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나왔다고 들어왔다 할 때 보면 또 그 마을 입구에서 버스 기다리고 막 아이들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이 그런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런 식으로 우선 도시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을 거창에 와서 1년 살기 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건 귀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젊은 가족들을 직접 와서 시골을 한번 겪어보게 겪어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시골은 힘들어, 시골은 불편해.'가 아니고 '시골에 이런 매력어.'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행정이 하면 참 마음이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구천인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행정은 교육청하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청 일이니까.

김정섭 교통편의 문제를 적어주시긴 했는데 이건 아까 좀 하시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죠? 보고서에 어쨌든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연구진 잠깐 얘기했는데 교통 문제만 대중교통 문제만 많이 보완이 되면 사실은 면에 뭐가 없어도 교통이 되면 읍에 나가서 이용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농촌 정책에서 좀 해

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교통 문제가 농림부가 100%로 관할하는 영역도 아니고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농업 외 초 농업 외 지원 사업.

이우진 그러니까 아주 불편해진 것 있는 것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와서 많이 느낀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인구를 유입시키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실제 이제 마을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마을에 이제 살아나야 되는 우리가 도시에든 읍에 가면 점빵이 있고 큰 어떤 마트가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듯이 마을 안에서도 어떤 무언가 작은 숙박소에 있을 수도 있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받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뭔가 이게 돌아갈 것 같은데 계속 인구가 줄어도 계속 농업이거든요. 계속 농업, 농업. 그런 관점으로 본다 이러면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올 때 '나는 그럼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래.' 이런 사람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언가 내가 시골에 가서도 그러면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어. 다른 걸 통해서 어떤 그군 단위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냥 도시에 살면 뭐 어떤 뭘 뭘 장사를 해도 지원 사업이 있고. 뭘 해도 지원 사업이고. 이런데 시골에는 농업 외에는 어떤 마땅히 할 만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적인 어떤 그런 제도가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정섭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특히 이제 이 연구 책임지고 있는 제가 중시 여기는 부분인데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뭐 안 되는 게 많으니까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농사 말고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냥 뒤편은 해결 안 되거든요. 장사가 안 돼서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해야죠 그 일거리들. 농사 말고도 그 일을 하면 그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면 그렇죠? 그 인건비 보조받고 먹고 사는 사람 한 명 생기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생겨나고 뭐 이런 그림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아직 정책들이 좀 별로 없습니다. 약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일에 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마치고요. 이제 뭐 써서 붙이는 건 끝났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오신 분들이 이제 그 다수가 농사짓는 분이시기는 한데 농업 외에도 농업 플러스 아까 했던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농업 외에도 경제활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 얘기도 좋고 주변에 보더라도 좋고 인구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경제활동 측면에서 일어난 어떤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

가 이런 얘기를 좀 생각나는 대로 좀 해 주십시오.

안인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귀농을 결정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애가 한 3~4학년 되면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시골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잡아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랑 가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가북초등학교를 다니게 하고 저는 서울에서 계속 직장을 다니고요. 5년을 다니면서 뭘 할까. 그래서 이제 했던 게 그 당시에 가북이 오미자가 되게 유행이었습시다. 그래서 오미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 준비를 하고 막상 내려오려고 하니깐 오미자가 한 2~3년 하더니 꺾이더라고요. 바로 사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또 교육 쪽에 있었으니까 교육 관련 뭘 해보자 했는데 아까 **이우진** 선생님 말씀처럼 농업만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농업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전혀 모르는 도시인이 귀농을 했을 때나 귀촌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직업들은 농사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생활과 관련된 교육 사업을 했던 사람은 교육 쪽에 시골에서 어떤 공부방을 한다든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데 준비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봉사 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생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갖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리고 그게 풀리면은 예를 들어서 가북에 원래 이번에 뭐라고 하죠? 그 학교에 그걸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 거주하게 하고. 자녀들 학교 다니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복상이랑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되면은 시골이 생동감 있고 아까 여기 어르신 그랬잖아요. 막내라고. 근데 틀림없이 저희처럼 50대도 있고 40대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가북에 들어왔어요. 실은 근데 2~3년 있다 나가더라고요. 복상으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을 집을 지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복상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가북 이러다가 제일 밀리잖아요. (지금 면 중에 현재 전국에서 가북하고 신원이 1등 2등 다투고 있죠. 소멸지구.) 근데 신원은 소멸 나왔는데 잘못하면 가북하고 합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섭 그러니까 농업 외에도 그러니까 필요한 일은 많은데 그게 사실은 경제활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런 경제활동으로 굴러가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떤 식인지 굴리든지 해야 되는데 좀 아이디어도 많이 필요하고 ‘경제활동이니까 군청은 지원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지원해야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오늘 듣는 자리인데 이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잘 해 오셔가지고 혹시 아이디어를 내서 군청에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지금 34 정도 되

는 여성인데, 건축 설계사예요. 2019년에 충남 홍성에 귀촌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장곡면이라고 인구 3천 명이 안 되는 곳에 사는데 할 줄 아는 건 건축 설계. 근데 시골에서 건축 설계로 그냥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은 요새 올해부터는 일감이 생겨서 한 몇 년 지역에서 구르니까 일거리가 들어왔다는데. 처음에 뭘 했냐면 군청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동네 분들이 같이 얘기해주고. 뭐냐하면 장곡면에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쪽 있는데 다 형편없이 그냥 할머니들이 여름철 되면 짝 벌에 앉아 있고 버스 노선 이렇게 써 붙였는데 이거 알아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차피 군청에서 다 새로 정비를 할 거 아니냐. 정비를 할 거면 의뢰하듯이 하지 말고 예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정비를 하자. 그 설계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군청에 얘기해서 자기가 얘기해서 자기 일거리를 벌어들여서 만들고. 그런 식의 일들을 좀 한 몇 년 했어요. 하니까 이제 지금은 알아서 일감이 생겨가지고 군청이든 민간인이든 그 누가 건축 설계 잘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온 친구가 자기 밥벌이를 차렸고. 하는 일이 상당수가 그냥 자기 장사가 아닌 거죠. 지역에 도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잘 꾸미면 그게 기본은 학교 밖에서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게 부업도 되는 거잖아요.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아무튼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송권홍 제가 이 동네 위천면인데. 이 위천면에는 귀농·귀촌인이 많아요. 많은데 반면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가 그게 금원산이라든지, 수승대. 근데 일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부가 들어오면 2명이 취직을 하면 한 달에 월 한 500만 원씩 가져가요. 도시 생활보다 낫다니까. 위천에는 귀농 귀촌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 두 군데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귀농·귀촌인이 이장한 동네가 많아요. 그 사람들 갖고 한 5년 살다 보니까 이제 원래 토착민들은 연세가 많아 갖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온 사람 젊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장을 맡아 갖고 하는 거라. 그래 농업을 농사를 지으려고 귀촌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준비를 많이 해 갖고 와야 되고. 그냥 와갖고 거창군에서도 그 귀촌을 하면 500만 원인가 얼마 주고 또 용자를 얼마 해주고 하거든요. 그냥 보조해주는 500만 원 주고. 근데 농기계 한 개면 1억 하는 지금 어지간히 좀 해갖고는 안 되는 게 아주 치밀하게 아까 우리 안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미자, 오미자 한 때거든요. 그이 한 2~3년 붕 뜨다가 모종 장사들 전부 이 광고해갖고 심고 나면 어디 팔 데가 있습니까?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 그리고 그것도 망했잖아. 또 한때 펜션이 막 꿈이어갖고 우리 지역에 펜션도 다 망했어요. (땅값만 더 올려놨지) 땅값만 도랑까지 막 1백만 원 이백만 원씩 올려놓고 다 망했잖아. 그래 시골에도 들어와갖고 준비를 딱 해갖고 오면 되는데 지금 우리 나이에 이래 돼갖고 도시에서

취직도 못 하는데 시골에 오면 일자리가 그래도 많고. 우리 위촌면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치열하지. 원래 토착민들은 우선순위에 빠져 취직을 하는데 귀농·귀촌인은 1번, 가산점이 몇 시쯤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가는 기고.

구천인 산불 감시원.

송권홍 산불 감시원도 마찬가지로 산불 감시원도 250 한 달에 250이 넘는데 그 사람들도 귀농·귀촌인이 우선이고 그렇게 일자리가 한 40~50개는 위천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귀농·귀촌하면서 그 사람들 우선으로 다 들어가버리잖아. 살만한 동네나 시골도.

김정섭 바로 옆에 다른 면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구천인 대부분 그래 합니다. 하려고 약간 3D 업종의 일을 현장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거리는 사실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쪽인데, 그 나라에서 할 일인데 이거는 제가 계속 느끼면서 한 게 뭔가 하면 저희 신원면이 인구가 1,400 한 50명에서 계속 10년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명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65세 인구가 천 명이 넘거든요. 그 천 명이 1년에 받는 노령연금이 월 3억씩입니다. 그러면 한 1년이면 36억 되거든요. 자기가 불입해서 받는 국민연금 말고 약 36억 원이 되는데. 신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다 팔아줘야 36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럼 36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매년 날짜도 안 어기고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이 어르신들이 10원짜리 하나 안 쓰는 거예요. 몇 년씩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한 번은 큰아들, 한 번은 큰딸, 한 번은 작은딸, 다 보내준다는 거죠. 돈이 이 지역에서 돌아야 되는데 외지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걸 도시도 마찬가지로 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면 코로나 지원금처럼 카드로 줘가지고 이거는 일정 기간 이내에 안 쓰면 없어지게끔. 노령연금만큼만이라도 가능하면 지역에 쓰면 더 좋고 아니면 전국 단위 어디에 쓰든 간에 소비를 하게끔 하면은 이게 우리 면의 당장이 36억이 그럼 반토막을 신원에 쓴다 그러면은 18억이면 식당이 몇 개가 더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 마트가 2개가 들어갈 거고,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그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 들고 들고 할 건데 이번에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주자 카는데 이거 내놓으면 몇 년 안 줘도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 가지고 할 건데 국가 차원에서 물론 도시에 계시는 서민층에는 이걸로 월세를 내고 하겠지마는 시골에는 주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농촌 지역은 그래서 의무적으로 꼭 소비성으로 지출하지 하는 걸로 한정 안 하고 카드식으로 줘가지고 도시에서 월세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쓸 수 있게끔 하면서 이걸 저축은 하지 말고

다 쓰게끔 하자. 이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잘 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농촌이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시골이 상대적으로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을 것 같고.

김정섭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정부가 이래저래 돈을 많이 주는데 여러 가지 돈 쓰는데 가급적이면 그게 지역에서 소비가 돼서 이제 돈이 돌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주변에 보시면 고령화되고 인구 줄면서 가족 관계가 아까도 언뜻 몇 분은 얘기를 짧게 해 주셨는데 가족 관계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시면...

전완덕 저는 고령화되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분들이 특히 저희 제 주변에 마을에서도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그 연세에 혼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병원을 가고 싶어도 병원을 평일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이분들이 치매가 약간 있는데 그러면 보통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런 거 되게 꺼리시거든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도 되게 꺼리시고요. 이미지가 '나는 그 정도 갈 나이가 아니다. 정신이 멀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평일에 병원을 가고 싶는데 자식을 불러내려야 되는데 자식은 바쁘다고 못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식이 한 명이라고 하면 그 자식이 내 책임은 하지만 여러 명이면 이 자식 저 자식 다 이야기하면 매일 오는 자식이 있어요. 5명 중에 효도하는 자식이 한두 명 있듯이. 그 자식만 부르다 보니까 그 자식들 입이 막 튀어놓더라고요. 저희 집 저희 집에도 그런 예니까 반복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제지간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하여튼 곧 이제 부모님께 요양원 가시라고 그러니까 요양원은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라 생각해가지고 안 가시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가족 간에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 못하는... 또 병원에 계시면 병원비나 요양비 때문에 또 이렇게 형제지간에 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김정섭 또 덧붙이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주변에 보면...

안인화 나는 우리 모친이 올해 93세인데 아직 건강하셔가지고 물론 큰 대수술을 많이 해서 암 폐암 수술도 했고 인공관절도 다 했고 다 했는데. 건강하시고 그게 이제 생활하시니까 우리 복이지. 우리는 6남매라 6남매인데 내가 네 번째인데 밑에 둘이 있고. 우리 사 형제가 시골에 사는데 뭐 노인 자기 마음대로 한 집에는 안 살아요. 따로따로 사는데 뭐 자식들이 있고 든든한 울타리가 있으니까 노인이 마음대로 하고 제일 부자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 부자라 매월 들어오니까 매월 들어오니까 적금 설에 안 쓴다는

거 설에 용돈 100만 원씩 좀 줘라 하면 내 동생 줘라 카는 줄 알고 우리 다 줘. 그 겠는데 동생한테만 100만 원 이래 주는 게 다 줘라 카게. 그래 참 건강한 게 그것만큼 복되는 게 없는 게 우리 모친이 연세 그리 많아도 혼자서 다 하고 마음대로 당기고 어디 가서 밥 파먹는다고 그래 (참 좋은 얘기네.) 병원이 병원이 많으니까 안 죽어 오래 사 노인들 아이고 죽어야지 캐도 오전에 어제 다리가 아파 갔다 왔지 또 이 허리가 오후에 아프면 오후에 또 병원에 가요. 하루에 두 번씩 땀긴다.

김정섭 내일 고추 고추 모종 심으려면 오늘 미리 가서 물리치료 받고 알겠습니다.

전완덕 저희 어머니는 88세로 5년 전에 떠나셨는데 함양에 계셨고 어머니는, 저는 거창에 있고. 정월대보름 지나고서 한 3일쯤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저녁에 목소리가 조금 감기 기운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어머니는 전화로 나는 괜찮다 그러시더니 그다음 날 주무시고 그다음 날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요양원 안 가고 사시던 집에서 그걸 편안하게 떠나신 게... 물론 뭐 한 90세 넘게 좀 계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떠나고 싶다, 시골에서. 살던 집에서 그런 생각을...

김정섭 지금 마을에 남아계신 어르신들 중에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노년에 말년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는 건 다 뭐 거기 갔다가 돌아 온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면 끝났다고 그러고 통계로는 우리나라에서 6년 있는다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6년 동안 그 안에. 전 세계에서든 굉장히 길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6년 몇 달 있는 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다 아는 거죠, 사실은. 아니까 싫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에 남아서 살면 좋은데 가족은 없고. 동네 옆집을 봐도 나하고 똑같은 노인이고. 이러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돌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일은 늘상 지역에서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60대 젊은 이장님들은 허구한 날 병원 실어 나르고...

구천인 치매 오시는 할머니들이 전조 증세가 잘 있습니다. 그리고 전조 증세가 있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요양병원에 꼭 가십니다.

이우진 가족에게 보면 저는 이제 가족들이 이 시골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족이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창 지역에 있는 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녀분들이 혹시 공무원이나 어떤 그런 행정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은 발령을 다 경남이나 거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살고 싶은 거예요. 도시의 어떤 삶의 시스템보다는 시골 시스템이 좀 여유가 있고 먹고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오고 싶은 건데. 근데 이제 소멸이 계속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갈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애들이 많으면 학원이라도 한 개 더 차리고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없으면 애들이 다 행정에 합격하고 해가지고 하면 좋지마는 자리도 다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떠한 일자리가 있어서 “야 들어와서 여기 살아.”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면 결국은 아이들도 불러올 수도 없고 이게 연속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의. 오신 분들이 아마 농어업회의소 회장님이라고 하셨죠 어쨌든지 간에 지역사회에 이러저러한 조직이나 단체 활동을 하셨거나, 또는 아니더라도 난 그런 거 들은 적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골에서는 도시하고 다르게 보면 그 지역사회 단체가 하는 일이 원래 옛날부터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하고 농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회장님이 많다는 겁니다. 시골에. 리마다 최소 기본 3명 깔고 가잖아요.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식의 지역사회 조직은 없거든요. 시민단체는 대도시엔 많이 있어도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는데. 농촌은 그렇게 지역사회 조직이 옛날부터 많았고 그리고 많은 이유가 또 그렇게 많이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말고도 면으로 나와도 뭐가 있고 군 차원에서도 뭐가 있고. 그 조직들이 어쨌든지 간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지역사회 단체나 단체들의 활동, 조직의 활동. 또는 꼭 단체 아니더라도 아까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관계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생각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진 그 관계가 그 활동들을 해보면 우리 읍에 있는 그 조직들은 이 좀 돈 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많이 잘 움직여요.

김정섭 지금 읍이라고 하신 거는 군청 소재지 거창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진 거창 소재지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면 단위는 좀 많이 다운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저도 이제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에 첫 질문할 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조금 나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이거지 대안은 없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건 없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그냥 팽배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가면 분위기가 ‘그냥 여기서 끝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있다가 그냥 각자 살다가 그냥 가면 되고.’ 그냥 이런 어떤 그냥 분위기에요. 거기 가보면 그러면 뭘 희망적인 걸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사과 이야기나 닭 이야기나 하여튼 그런 거 농작물 얘기 빼고는 어떻

계 농작물에서 좀 돈 더 벌고. 이런 거 빼고는 크게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좀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나. 행정에서 뭔가를 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노인이라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지 조직적으로는 그냥 뭔가가 모르게 다운되면서 그냥 가만 가만히 그냥 뭐 해야 될 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거지 않나. 이게 좀 이렇게 활기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는...

안인화 그건 나하고는 생각이 정반대인데. 지금 우리 시골에 생활체육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전부 다 노인들 제일 노인들이라 하면 게이트볼,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그쪽 파크 골프. 근데 그 노인들끼리끼리 모여서 결속률이 대단해요. 그게 생활체육을 함으로 해서 병원에 싸다 주는 돈도 많이 줄어요. 모여서 사람이 모여갖고 웃는 거 그것만 해도 좋은데 오후 내내 웃지, 오후 내내 웃고 마침 막걸리 한잔 쪽 기분 좋게 마시고 헤어지고.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봐요. 그 그 도시에서는 그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우리 단체 모든 단체가 이거는 인구가 적당하게 딱 되니까 그만큼 단체가 고래고래 해갖고 뭉치는 기라. 도시에서는 한 동만 해도 우리 거창군 인구 몇 배가 되는데 그리 모일 데도 없고 그것도 거기서도 모이는 사람이 있겠지. 물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물론 나는 지금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래서 나는 생활 내 목표가 75까지는 내가 일을 할거라.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돈 벌면 자식들한테 내가 줄 수도 있고 얻어지는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내가 그 노인들 80 형님 동생 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도 얼마나 재미나는가 몰라요. 목포 영감들하고 갔다 왔는데 말 다리 절뚝절뚝 그러는 사람들이 출발할 때부터 올 때까지 앉지를 않해. 그래 살면 전에 시골에 올려 살면서 나이 먹으면 이 80 몇 살 먹으면서 그래 울리고 살면 되지 더 먹은 재미로 살기라. 물론 그 사람들은 젊어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걸로 따져갖고는 부자라. 이걸로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나는 이게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면서 여기 얘기 그 사람들하고 형님 동생하고 재미나게 놓고 내가 안 가면 그 노인들이 안 좋다 해 내가 가야 차...

김정섭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사회 조직 활동도 인구 변화에 확실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좀 그 노인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떤 면에서 노인들의 여가 활동 조직은 활성화되고. 노인들보다는 조금 그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원래는 동네에 '내가 봉사하고 또는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야지 할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조직들은 좀 힘이 빠져 있고.

이우진 공모 사업들이 다 공동체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진짜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각자 이제 너무 바빠 먹고 사는 문제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문제는 개인 문제고. 공동체적인 어떤 관점들이 이렇게 보여져야지만 뭔가 어떤 실타래를 풀고 뭔가 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막상 어떤 공모 사업이든 뭐든 하나를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뭔가 가져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10명 모으기가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은 보면 이제 우리 거창군은 한 5명까지 소그룹을 인정해 주거든요, 5명. 근데 그전에는 5명이 아니라 좀 더 있습니다. 근데 계속 숫자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그러니까 노인분들 빼고 그 밑으로 이제 인구가 결국 이제 없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들을 모으기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완덕 저는 농민단체에 있는데 제가 이제 50 초반인데 한 10년 전부터 막내인데, 지금도 막내예요.

구천인 제가 50년 막내라 해도 그렇지...

전완덕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암울한데. 그게 이제 시골에 있는 이 농민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개인 수입이나 이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차피 농업 관련된 걸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지도 않고. 또 연세 있는 분들은 더 관심이 없으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골에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귀농을 했지만 지금 단위는 지금은 혼자 오시더라고요. 집도 또 안 짓고 농막이나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보니까 노인연금 받으시고 노인 일자리 하시고 어떻게 보면 삶이 되게 저에 비하면 예 이 젊은 입장에서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매일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고 농사 안 되니까 뭐 다른 걸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삶이 많이 팍팍한데. 지역 분위기는 이렇게 그만큼 이제 삶이 팍팍해지니까 아까 막걸리 이야기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어제 와가지고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나이 동갑 친구들과 막걸리 했는데, 요즘 몇 년 동안은 막걸리 같이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삶이 이렇게 팍팍해졌단 말이죠.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연금을 받거나 이들이 만약에 이제 출가를 하거나 그런데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든지 이렇게 삶이 팍팍해지니까 뭐 단체가 있지만 큰 일이 아닌 이상은 자주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왕래가 이렇게 많이 정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안인화 나는 농촌지도자 우리 면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제일 나이 적은 아가 이제

한 38, 39 그래 갖고 한 75, 76까지 그래 했는데 다 재미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뭐 사실 위에하고 밑에하고는 아들 풀이 되거든. 그래도 아들이 오면 저 아버지 풀 되면 저 아버지하고 친구도 있는데 그럼 잘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각 면 단위 전부 다 면 단위에 계시니까 알겠지만 면 단위 우리 그래 잘 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그것도 잘 되지만 그거는 실제로 총괄적으로 운영하느라고 모인 기고. 그냥 자생단체 우리 농업 쪽에 같은 분야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 후계자 단체도 있고. 다 그것들 옛날만큼 젊은 사람 신규로 안 들어와서 그렇지 지금도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구천인 그래 하여튼 과거에는 청년회 그러면 20대였었고요, 30년 전에는. 근데 그 인원이 지금도 똑같이 청년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5까지 청년회가 되죠. 과거에는 30대까지가 청년회였는데. 근데 그 인원이 그대로 딱 밑에서 안 올라오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30대 40대가 면에서 보통 모든 사회단체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모든 바르게 살기라든지 모든 사회단체의 주축을 40대가 이루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그대로 7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안 바뀌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3살부터 80살까지 간다고 생각이 절대로 사람들이 잘 안 바뀝니다. 어떤 큰 전환점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회 하면서 느꼈던 우리 면에 대한 정서라든지 발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시골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잘 바뀌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시골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거 보면 어떻게 노인 비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시골이 조금 단점이 뭐가 하면은 저게 느낀 게 사실 80대 이상들은 지금, 남자분 기준으로 80대 이상 분들은 시골에 사는 이유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많이 살았습니다. 대를 이어야 된다, 장남이라서. 그런데 사실 70대 정도는 그때부터 70대 때는 대부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반 정도 됩니다. 이 시골 기준으로 도시 아니고.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사회활동, 도시 생활을 좀 못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표현을 하자면 낙오자들이 사실 시골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날에 가보면 사실은 70대보다 80대들이 더 어리고, 더 큰소리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십니다. 80대 초반 어르신들이, 근데 이제 60대 이하부터는 이제 뭐니까? 객지생활 하다가 귀향 내지 귀촌하신 분들이고 그 밑에는 섞여 있습니다. 진짜 사회활동을 못 해서 섞여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시골이 좋아서 섞여 있는 사람, 가족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시골에 사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한 80대 하고 70대 그 겹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전이 연결도 좀 안 되고 80년대 말이나 90년대

확 발전하던 게 주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우리 면을 보면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껌이 탁 생겼다 층이.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회관에서 가끔씩 저는 가서 이야기해보면 80대 어르신들은 TV를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라든지 경제 상황 국제적인 상황까지 훤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70대들은 사실 그리 관심이 없어. 새로 귀촌 귀농하신 분들은 이제 먼 소재지 가가지고 파크 골프도 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계속 농사만 순진하게 짓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이 쪽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주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과거에는 도시 소득하고 농촌 소득하고 오히려 농촌 소득이 70년대는 더 높았거든요. 80년대부터 좀 차이가 나다가 2천년대 이후와 급격히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껌이 생겼는데 그게 그런 정서가 있지 않았나.

김정섭 세대들 간의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지역사회가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세대들마다 다르니까 윗세대들이 하던 일들이 아랫세대들 자연스럽게 받아서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여러 조직들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단절이 되니까...

구천인 그렇지 단절이 되니까. 70대에서 이제 나이를 따진다면 지금 70대에서 단절. 80대, 70대, 60대 내려왔어야 되는데 70대에서 단절됐고. 60대는 좀 있지만 70대 공백기가 있어 놓으니까 80대에서 60대로 바로 뛰어 내려와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단체 활동의 회장이라든지 단체장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80대 아니면은 아마 60대가 할 겁니다.

전완덕 시간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저는 지역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마을 분위기가 느끼는 게 금방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마을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금방 이때 80대는 지금도 노인회장이 강력하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시는데 설득력도 있고. 제가 제가 들어온 지 한 13년 됐으니까 저도 이제 마을 회의 때 한마디 하면 “완전히 젊은 것이 어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라고 욱박지르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귀농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니면 기가 조금 약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또 전에 같은 경우는 회의를 했을 때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는 여자분들이 못 들어오셨어요. 연세가 적건 많건. 지금은 인구수가 줄어서 그런지 좋은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마을 회의를 할 때 같이 이제 한 방에 인원이 이제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방에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민주적인 분위기가 좀 됐다.

김정섭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적일 것 같은 어르신들도 서서히 세상이 변하면 아이고 이거 받아들여야지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구천인 오히려 80대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마을은 봐서는 저희 말은 오래전부터 마을 부녀회장 마을 노인회장님 여성분인데...

김정섭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면 한 번 요약을 해야 되는데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약하기를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내일 오전이죠? 제가 알기로. 내일 오늘은 그러니까 그냥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 감소 때문에 일어난 일들 거창군의 변화를 저희들이 좀 듣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내일은 아주 격렬한 토론은 아니고 약간의 토론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건데요. 숙제를 미리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솔직히 밝히자면 저희 연구의 전제는 그러니까 농촌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원인 중에 1번을 꼽아라 그러면 인구 문제거든요. 사람 없어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 농촌에 있는 문제의 절반 이상은 사람 줄어들고 늙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사람을 늘려야죠. 그게 답이죠. 그게 답인데 많은 인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동의하는데 100% 동의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인구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애 낳으면 1억씩 준다고 해도 애를 그렇게 많이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을 많이 받아도 그러니까 인구가 더 빨리 주는 걸 조금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늘릴 수 없다. 이건 이미 앞으로 20년 동안 불가능하다 판명이 난 거고 또 농촌으로 오면 아예 귀농·귀촌을 많이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별 시군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귀농·귀촌 인구를 받는 거는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거예요. 거창군에서 많이 받으면 함양군은 적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희 연구의 전제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인구를 늘리는 방식에 관해서 이 연구에서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늘린다는지 아이를 많이 낳자 이런 식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는 안 하겠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연구에서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박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관점은 뭐냐 하면 어쨌거나 귀농·귀촌도 늘려야 되고 아이도 많이 낳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농촌은 결국은 지금보다 더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살 텐데 앞으로 10년 뒤에 또는 15년 뒤에 그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줄고 고령화되면 더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생길 텐데 그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판 데 갈 데도 없잖아요. 적응하고 살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

야 되는가 이게 저희 연구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줄어든다고 귀농·귀촌 많이 받으시다. 이거는 저희 연구 보고서는 결론을 안 쓸 겁니다. 저희가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거니까 다만 인구가 줄면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그때 가서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저럭 잘 살아가려면 그 상황에서 적응하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저희들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내일은 그런데 적응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까 나온 게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버스도 안 다니고 지역사회 단체는 그렇고 노인 문제도 있고 이거를 내일 2시간 만에 다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각자 오늘 저녁에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인구가 더 줄고 고령화돼도 그때 가서도 남아있는 분들이 살아가려면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분야 대비해야 될 거 뭐가 이걸 하나씩만 생각해 오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분야 예를 들면 앞으로 노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데 노인 돌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애들 어떻게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걸 내일 오시자마자 하나씩 이렇게 써 붙인 다음에 거기서 표수가 제일 많은 거 두 개만 놓고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면 정부는 뭘 해야 되고 군청은 뭘 해야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 단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내일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생각해 오시는데 대비해야 될 분야 하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게 인구 늘리겠다. 귀농 귀촌하자 애 많이 낳자 아니면 우리가 정신을 단단히 차리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 얘기를 안 다룬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적응해야 될 분야 하나씩만 생각을 해서 내려오시면 그중에 2개를 뽑아서 약간 의견 교환하고 좀 정리하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다음 다시 뵙겠습니다..



8

D그룹(거창군, 50세 이상 여성)

1. 개요

-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16:00~18:30
- 장소: 경남 거창군 농업인회관
- 참석자: 연구진 3명 외 거창군 거주 50세 이상 여성 7명

거창군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여성 주민들이 참가하여, 저출생이나 초고령화 등 인구 변동에 따른 여러 어려움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거창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마을에는 고령층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농촌 지역에서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마을마다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마을 공동체는 약화되고 있다. 고령 인구만 남아 있어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1.2. 사회적 유대 약화

고령화로 인해 마을 내 전통적·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농업 및 지역사회 관련 행사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마을의 소통과 협력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초점집단 참가자들은 예전보다 이웃과의 교류가 줄고, 각자의 삶에 몰두하면서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3. 농업 및 경제적 어려움

농업의 수익성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 경제는 위축되고 있다. 청년층의 유입이 부족해 농업 후계자 양성이 어려우며, 기존 인구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농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작은 상업 시설 및 서비스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나 서비스에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1.4. 제안된 해결 방안

1.4.1. 교육 및 복지 서비스 강화

고령화된 지역 주민들이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젊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와 유아 교육 시설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1.4.2. 지역 특화 산업 및 관광 활성화

자연환경과 농업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체험형 관광 및 전통문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의 귀농을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1.4.3. 노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 개선

고령 인구가 증가하므로 노인 돌봄 체계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소 기능 강화 및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4.4. 지역 공동체 강화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마을 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지역 단체들과 귀농·귀촌 인구가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2. 초점집단토론 내용

김정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서툴러가지고요. 명패 있다고 이렇게 딱 각 잡고 폼 잡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드려야 분위기를 풀 것 같아서 여담을 잠깐 하자면 목소리를 다 녹음하고 듣잖아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푸는 사람은. 더군다나 이거 녹음한 거 글로 옮기

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잖아요. 듣기만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 있었던 저도 다시 들어보면 되게 힘듭니다. 나중에 이게 누가 한 말인지 그래서 명패를 적은 이유가 처음 자기소개할 때 순서대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글로 옮기는 친구한테 이걸 줍니다. 1번은 누구고 2번은 누구 요거 순서대로 그 목소리를 기억을 해서 연극 대본처럼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다 써라 그래가지고 명패를 만든 거니까 오늘 격식을 차려서 딱딱한 얘기하자고 만든 거 아닙니다.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아시는 사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 서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성함하고 사시는 곳 그다음에 하고 있는 일 혹시 지역사회에 이러 저러한 문제 중에 관심 있는 주제 관심사 이런 것들을 짧게 한 사람당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겸. 여기 항상 고스톱 순이니까 조 선생님부터 돌아가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미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미현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웅양면에 운평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웅양면에 있는 체험마을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이 마을에서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지금 고민이기도 합니다.

김정섭 박 선생님도...

박숙정 네 저는 박숙정이라고 하고 사는 곳은 고제면 용초마을에 살고 있고요. 하는 일은 거창여성농업인센터라고 센터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고. 지금 관심사는 이제 여성 농업인들과 이제 거기 농촌 어떻게 발전할까 저도 항상 그런 관심을 두고. 제가 하는 역할을 어디까지 할까라는 관심을 두고 항상 머리를 써가며 살고 있습니다.

김정미 저는 이제 거창에서도 제일 골짜기인 가북에 살고 있는 김정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이들 문예 강사하고, 예술, 연극, 예술 강사 하고 있고 지금 마을 활동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한 3~4년 전부터 마을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담아내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관심사는 이제 마을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삶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유 선생님도...

유영숙 안녕하세요. 남하면에 살고 있는 유영숙입니다. 저는 하는 일은 농사를 짓고 또 남편 사업을 도와주면서 봉사활동 사회단체 일을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맡은 게 마을 이장이, 올해부터 마을 이장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관심사가

제가 마을을 하루에 두세 번씩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할머니 저희 동네는 할아버지는 거의 없고 할머니만 계신데. 이게 몇 년 안에 이 어르신들이 다 가시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최근에 저의 관심사는 그것입니다. 마을의 변화입니다.

우자경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원의 청연마을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올해 처음 이장을 맡았어요. 제가 하는 일은 축산업.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노후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평생학습, 이미용하고 웃음 치료사, 이런 거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노래 강사, 그래서 이제 봉사.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데 이제 아직 너무 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거 지금 찾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이나희 제가 개명을 해서. 그래서 민증에도 바뀌어가지고 통장도 다 바뀌었고 그래서 이름은 이나희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고제면 수내마을이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과 농사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지금 관심사는 제가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사니까 이 많은 애들을 키우고 학원도 안 보내고 그렇게 키우고 있지만은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에 농사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애순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위천면에 살고 위천면에 금원산 올라가는 상천마을에서 하는 일은 된장, 간장 만드는 일 하고 있고요. 농사는 그냥 텃밭 조금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뭐 관심사는 제가 사는 골짜기가 오나골이라고 마리 위천 북상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엄마들 만나면 “올해 1학년 몇 명 입학했어?” 뭐 그런 게 그거고 우리 위천면에는 이번에 3명 입학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북상에서 위천면 위천초가 좋아서 오네. 그다음에 우리 순수하게 위천면에 2명 해가지고 3명 입학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 예쁜 학교가 사라질까 봐 자꾸 1학년 몇 명 왔지 그런 게 관심이 있습니다.

김정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아직도 제가 몸이 안 풀려서 분위기 만드는 본 게 임 아닙니다.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이제 다 관련 있는 얘기들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이건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는가...

우자경 슬퍼요. 그냥 한숨이 먼저 나요.

윤애순 답이 없다. 한 15년 전만 해도 저희 마을에도 그러니까 노총각이 계셔가지고 저기 베트남에서 이렇게 이주여성이 와서 그 해에 지금 고3 애들이 되게 위천초에 많았거든요. 그 베트남 새댁들이 같이 애를 낳으니까 그 연도에는 되게 학생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농촌 총각도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러니까 진짜 답이 없고 그다음에 또 옛날에 사과 농사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젊은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사과도 안 되고. 다른 농사도 돈이 안 된다 하니까 진짜 귀농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답이 없다.

이나희 저는 지금 있는 애들 지금 이제 저도 막내가 이제 아직 5학년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애들이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저 많은 고령화, 인구 감소, 저출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이 애들이 짊어지고 다 가야 될 텐데 이 애들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는 게 이 어른들이 될 잘못해서 이런 애들한테 이런 것까지 힘들게 해줘야 되나. 지금 뭐 공부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자기 직장,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 앞길이라든지 될 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애네들도 이제 이렇게 되면 군대 갈 애들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애들이 좀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좀 어른들이 많이 좀 많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에 높은 사람들이나 이제 뭐 그런 행정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시골에서도 돈을 많이 안 가져도 애들을 낳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자경 저도 우리 딸이 이제 애가 셋째를 가졌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진짜. 셋째 어떻게 키워 나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까 굉장히 고민이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앞으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으면 좋은데, 그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자꾸 고령화 시대잖아요. 자꾸 노인들만 자꾸 늘어나는데 애들은 적고. 그래서 고민스럽네요.

김정미 근데 저는 귀농 귀농을 했는데요. 이미 농촌에 들어왔을 때 다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저 딸 자체가 저는 이미 들어온 지 16년 됐거든요. 저희 마을에 우리 애들이 와서 태어나고, 그 이후에 한 명도 태어난 적이 없어요. 작은 마을은 아니었는데 70가구가 있는 마을인데, 다 어른들이예요. 그래서 저거 자체가 이미 그때부터도 그냥 마을은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도시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크게 부각된 거지. 농촌은 예전부터도 계속 늙어가고 있었고. 마을에 살고 계신 어른들조차도 자식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요. 왜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들어왔을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김정섭 박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박숙정 좀 막막하고 막막한데 이제 다 똑같지마는 이제 제가 시집을 그때만 해도 저는 계속 거기 고제에서 태어나서 고제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막연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가 떠나면 이 거제는 누가 지키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떠나지 않는 그런 일부분에 아주 적지만은 그런 일부분에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왔던 것 같은데. 이 마을 저희들 마을도 고제면에서는 제일 큰 마을이었거든요. 옛날에 백몇십 가구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한 50여 가구 마을인데 진짜 고령화가 돼서 하는데 그나마 저희 동네는 젊은 저희 또래 새댁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고제쪽에서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늙어 우리가 70이면 우리 밑에는 누가 이 마을을 지키지 않는 그런 막막함이 좀 있어요. 있어서 그렇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소를 키우겠다고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아들이 이 마을을 우리를 다 책임져야 되나?’ 이런 막연한 막막함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김정섭 원래 이렇게 모이면 기분 감정 이런 것부터 분위기 살리느라고 물어보는데 이 주제면 이제 분위기가 우울해지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울한 주제로 2년 동안 저희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쪽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제가 10년이라고 했지만 더 길게 보셔도 되고요. 대략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 사이에 어쨌든 고령화되고 인구 줄면서 그 마을이나 또는 읍면, 우리가 보통 지역사회라고 하죠. 또는 이 지역의 여러 가지가 변했을 텐데 그중에 이제 인구가 그렇게 변하면서 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좀 큰 변화 내지는 딱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인 것 같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미현 빈집이 굉장히 그 제가 저기 귀농·귀촌한 지 13년째인데, 계속 주변에 한집 한집씩 굉장히 비어가서 저희 동네 어떤 할아버지 집에는 돼지가 와서 자고 간다 멧돼지가 와서 집에서 자고 가고. 고양이 소리가 더 많은, 고양이 소리를 진짜 아기 울음소리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외로움. 그리고 어르신들이 거의 연세가 80세 이상이다 보니까 저 제가 들어온 지 저게 처음 지금까지 저 아래로 들어온 제가 항상 새댁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일단은 마을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들이 진짜 많이 무너진... 다 각자 이렇게 고립되고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안 계시고, 점점 줄어들고. 마을회관 이렇게 다 다녀보면 제가 마을 이렇게 생활관리사도 했었는데 1년 뒤에 가보면 또 몇 분 줄어들고 줄어들고 이렇게 그래서 좀 쓸쓸하고 조금, 너무 활기가 없다. 그리고 막 풀이나 이렇게 빈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근데 이제 마을 분들은 또 저기 빈집이 있어도 외지 사람들에게 그걸 내주지 않고. 팔지 않는 게 또 문제...

박숙정 이제 저희들 여성도 센터에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저희 세대들 나이죠. 저희 나이 또래 애들이 아이들 보낼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여성농업인 센터를 하면 이제 여성농업인, 이제 그 취미 문화나. 이제 어른들 그때만 해도 한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센터를 모토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 사업을 많이 했던 말이죠. 그래 하고 어린이집은 그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여성농업인센터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국에 여성농업인센터가 한 40개소 중에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어린이집을 다 폐원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서 저희들 거창 여성농업인센터에도 옛날에는 우리 여성농업인센터밖에 없었는데 어린이집은 폐원을 하고. 그 옆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추상면만 해도 한두 군데가 생기고. 면은 2개씩 면 무조건 면에 2개씩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생기는 현상들이 좀 진짜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더라는.

조미현 유치원이 주간보호센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박숙정 그게 좀 눈으로 보이는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이나희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도시에 살다가 이제 지금 거창에 내려온 지가 한 14년, 15년 이 정도 됐는데. 처음에 저희 집에 애들이 4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애들 소리가 엄청나게 많고, 동네에서 또 어쨌든 저희 고제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작은 골이고 지금 사시는 분대가 큰 골이고 이렇게 나뉘는데 작은 골에서는 그래도 우리 동네가 애들 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동네였는데.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빈집들이 다 무너져도 그 집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에도 저희 제가 내려와서 애들 학교 보낼 때만 해도 이제 전교생이 3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16명? 유치원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막 이제 빈집을 구해가지고 외부에서 사람들 이제 이사 오게 하려고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빈집 세를 좀 내주십사. 고쳐서 군에서 또 고쳐준다고 그때 사업으로 내려오고 해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집을 안 내놔요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김정섭 안 내놓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미현 저도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때문에 저희 웅양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수년간을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마을에 도시는 내가 이 집에서 이사를 가면 그 동네에 살거나 아파트에 살면 되는 건데. 어르신들한테 마을에서 집이 없어진다는 건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 고향 이 집에서 고창에서 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 그 마을에 있던 아버지 집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고치고 살거나 새집을 지으면 되는데 내가 빠지고 나면 팔고 나면 그 땅이 없어지고 나는 그러니까 실랑민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건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멀쩡한 집이어서 “야, 저 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의 집으로 내면 좋겠다.” 막 그 생각을 했는데 제사를 지내러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남의 집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어른의 집에 가서 각각의 식구들 형제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파이파이 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이지 않고 그냥 어머니 집에서. 그리고 1년에 몇 번 묘사 철에만 지내고 가는 식으로 지내느라고 이 집을 절대 팔지 않고 누구도 세를 주지 않는. 그리고 또 시골의 집은 새로 준다 한들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아예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나희 그렇게 되면은 저런 게 계속되면 나중에 되면 아예 소멸되고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해를 시키고 그 집을 이제 세 내주시면 예쁘게 고쳐서 다른 애들 들어와서 좀 살다가 애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그 집 그대로 놔두고 나갈 텐데 그런데. 그렇게 굳이 너무 그걸 부여잡고 욕심을 부리시고 아무 그것도 아닌데. 근데 처음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개인적인 그런 게 옛날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옆에 앞에 뒤에 다 안 보는 것 같은 어르신들도 연세가 들면서. 예전에는 뭐 누가 우리 집에 지나가다 “배고파요.” 하면 “밥 좀 먹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가 됐는데 지금은 누구 누가 “배고파요.” 하면은 “그런가 보네.” 그러면 끝인 것 같은 그런 슬픈 지금 현실이 지금 이 시골에 애들이 더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욕심이 많아진 거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어르신들도 때가 많이 묻어서 예전보다는 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그거 하면서 집 때문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어요. 시골에서 케어를 해주고 싶은 집이 없어, 동동거리고 다녀. 빈집은 많이 있어. 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야. 그래서 마을이 너무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도 좀 많이 받고.

조미현 상처 좀 일단은 어쨌든 10년 동안 인구 감소하면서 저도 마을 부녀회 저희가

회원이 제가 들어갈 때 15명이었다가 지금 11명이에요. 공교롭게도 다 젊은 분들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장 한창 많이 일할 때 여성분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한 7년간 계속 총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70가구 되는 가구에 마을 행사 때 11명의 여자들이 밥을 다 해요. 그러니까 70이 넘어도 이제 이 회원들은 이제 노인회로 못 올라가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요.”라고 제가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80대 어른들이,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에 11명의 며느리들이 밥을 해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마을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걸어 다니시던 분들이. 그런 게 안타깝죠.

유영숙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이제 남하의 면 소재지 무릉이라는 곳에 제가 이장을 하게 됐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나 하면 동래 정씨 집성촌이에요. 지금도 가구 수는 100가구가 넘는데 예전에는 이 동네에 감히 동래 정씨가 아닌 다른 사람 이장은 상상도 못 한 곳이고, 특히 여자는 더 상상도 못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타생인 제가 그래도 여자인 제가 이장을 지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마을 만들기 한다고 교육을 했는데 제가 확 좀 거짓말도 좀 하고 포도 넣고 해갓고 이제 전체 주민을 한번 다 모아봤어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 전에는. 예전에 이장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없다가. 제가 한번 일단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다 모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할머니들한테 “아니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동래 정가들 다 오데가고 싹 다 타생이네.” 내가 막. 할머니들만 오래 있고 할아버지는 저쪽 방에 어쨌든지 동네 분들이 사실 명이 좀 짧아서 물론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남자분들이. 다 할머니들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이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보니까는 집성촌이다 보니까 전통과 역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 서당과 강당, 이렇게 서원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명절날 설날 서당에는 강당에는 55세 이상의 어른들의 세배를 받고 55세 이하는 강당에서 서당에 가서 세배를 받았어.” 이런 전통 얘기를 누군가 그 남자분이 한 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정말 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진짜 할머니들이 고령화 그러니까 제가 이장을 해도 예전에는 뭐 “오늘 뭐 나왔어요, 가져가세요.” 이러시면 다 와서 가져갔다면 지금은 제가 마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다 갖다 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고령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지금 저는 이제 계속 그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조미현 마을 안에서도 이렇게 고립이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이렇게 잘 못 움직이시고 안 나오시고. 또 뭔가 같이 일하고가 아니라 진짜 자기 그거 저기밖에 안 되니까 전혀 이렇게 부딪침이. 진짜 마을에서 식사라도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안 하면 그 좁은 마을에서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김정섭 윤 선생님도 한마디 보태주세요. 한 어떻게 변했는가 그동안 인구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윤애순 저는 이제 된장 공장 한다고 2002년에 시집왔는데 그때는 우리 동네에서 할머니들 그때 다섯 분 여섯 분 뉘해가지고 이렇게 매주 밭로 디더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진짜 허리가 구부러졌는데도 이렇게 와서 디디면 되게 잘 디뎠는데 점점 이제 한 5년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씩 이제 떨어져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그러다가 몇 년 한 10년 7~8년은 우리 동네 분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20년 전이니까, 60세 60~65세일 때는 일을 했어요. 서로 서로 오려고 그 겨울에 다 노니까 그래도 며칠 일하면 돈 되잖아요. 일 오려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땡 이래 했는데 한 7~8년 하다가 이제 체력이 하고 싶어도 못 했어요. 그러가지고 저기 북상에서 모셔오다가 그 할머니들도 이제 또 하나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귀농한 이제 조금 젊은 새댁이라도 거의 다 50세 55세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할머니들이 지금 85~86 돼가지고 이제 텃밭도 안 하고 진짜 회관에 서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남는 게 시간인가 봐요. 그러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바쁘는데 꼭 제가 지나가는 길목에 꼭 앉아 있어요. 앞집. 그래서 꼭 저한테 말을 붙이고 싶어서 그러면 저는 바쁘지만 그래도 30분은 들어주고 전에 들었던 말 또 테이프 돌리듯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바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일하러 오고 싶어서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그러니까 좀 안 됐어 그런 게 있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일하러 오고 싶은 분은 없고. 이제 각자 자기 소 키우거나 사과 농사하거나 그런 언니들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텃밭도 안 되는 할머니들이 이제 대부분이더라고요. 텃밭이라도 하면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80 넘고 85 되면 진짜 상추도 안 심어 먹어. 근데 상추도 맛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으니까 먹을 일도 없고, 그냥 다 뽑아서 주거나 그냥 버리거나 그렇게 되니까. 텃밭도 안 되더라고 85세 아무튼.

김정섭 우 선생님도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우자경 결혼한 지가 올해 이제 34년 차인데 제가 결혼해서 들어올 때만 해도 35가구가 됐었는데 지금 14가구에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제가 결혼할 때 오신 분들 다 돌

아가시고 딱 한 분 계세요. 90세, 92세 할아버지. 그분도 이제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결국 이제 아드님이 왔다 읍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시다가 결국은 안 돼서 요양원에 모셨어요. 저희 동네는 많이 80 넘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없고 한 분 할머니 한 분 계시고. 60대 70대. 이제 제가 올해 57인데 제가 최고 젊어요. 새댁입니다. 전부 다 이제 저 농사 이런 거는 이제 한 집, 여러 집 하다가 지금 한 집 남았고요. 사과 농사, 그리고 이제 축사. 사과 농사 두 집, 축산 농가 그리고 나머지 거의 축산 농가 하시고, 타지에서 들어와서도 축산 농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타지에서 오셨다는 축산농가는 그 마을에 사시는 게 아니고.

우자경 사시지는 않고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고 농가만 이제 그것도 그리고. 아기를 본 지가 20년 됐습니다. 지금 막내 이제 동네에서 아기 태어난 애가 20살 그 이후로는 아기가 없었어요.

김정섭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요한 변화를 여쭙봤더니 이제 주로 가까운 곳에서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려면 완전히 혼자 자급 자족하는 사람 없잖아요. 혼자서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든지 필요한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봐서 필요한 걸 구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방식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근데 이제 우리나라 농촌에서 인구 줄고 고령화되면 예전 같으면 이게 돈 주고 이런 걸 다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필요한 거를 구하지 못하게 된 그러니까 시골에 없는 게 많아졌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돈 주고 구하는 건 아니고 나라에서 또는 군청에서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원래 해주게 된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줄죠. 근데 그건 다음 질문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돈 주고 구하는 것 중에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서 굉장히 좀 불편해지거나 곤란해진 것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있을 겁니다. 없어지고 줄어드는 건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그 포스트잇 쪽지에다가 큰 글씨로 파란 매직으로 써주십시오. 저기다 붙여서 다 같이 볼 수 있게요. 1개 이상씩 몇 개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장에 한 개씩만. 한번 잠깐 한 몇 분 2~3분 생각을 해보시고 인구가 줄어서 이런 게 없어져서 내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나는 뭐 운전도 잘하고 없으면 저기 대구 갔다 오면 돼.’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주변에 이런 게 없어져서 좀 불편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큰 글씨로 한 장에 하나씩 적어서 주십시오. 그럼 붙여놓고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파란색 매직으로 크게 좀 적어주십시오.

김정섭 제가 얘기하기 편하게 좀 비슷한 것끼리 모아볼게요. 이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이 ‘놀이문화’라고 적으신 거는 무슨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가 없어진 걸까요?

김정미 어쨌든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몸 추스리기도 힘드시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이렇게 이웃하고도 주고받고 겨울에 나오는 배추 전도 같이 해먹고 그랬는데 이웃 간의 소통도 없고 마을회관 안에서도 서로 이제 밥때를 그러니까 모이지를 이렇게 모이려고 앉고 “누가 밥하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옛날에 같이 함께하면서 뭐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마을에 버스 타서 뭐 꽃 피는 날 마을에 이렇게 놀러 간다는데 우리 마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 마을은 못 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정섭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돈 주고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제 상업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공동체 이런 거하고 관계된 거니까 이쪽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마을 공동체에서의 문제인 거니까 이쪽에 따로 빼고요. 주로 이제 상업이나 돈과 관련된 얘기 있는데 이게 제일 숫자가 많네요. 자원봉사자가 꼭 이거 농사 일뿐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쪽수 많은 것부터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여쭙는 이유는 이렇게 갖고 가서 저희들이 보고서 쓸 때 이 상태에서 보고서 쓰면 ‘고령화돼서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한 줄 쓰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고서를 쓰면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음, 그렇지.’ 하고 끝나요. 그래서 보고서 지면이 허락하는 한 종이 많이 나오면 ‘일손이 부족해졌다.’ 해놓고 거기서 그래서 예를 들면 ‘거창 어디 가서 또는 평창 어디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리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더라.’ 이렇게 좀 약간 자세히 써줘야 사람들이 읽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에서 보거나 경험하신 그런 일손이 부족해진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없고요. 써 붙여주신 분이 먼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우자경 저희 형님이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요.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제 포도 봉지를 싸게 되면 거의 하루 만에 다 같이 싸야 일이 끝나는데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틀씩 삼일씩 하는 경우가 많습시다. 그래서 이제 오면 거의 동네에는 사람이 없고 밑에 동네 아랫동네 이제 다 그걸 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까지는 뭐라 그래야지 외국인 그분까지는 이제 안 오세요. 안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 동네도 보통 보면 70 어르신들까지 오셔서 이제 봉지를 싸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진짜 더 많이 쓸 것 같아서 포도 농사짓기가 좀

애로증이 많을 것 같아요. 따고 싸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매달려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좋은 거 먹고 해야 되는데...

김정미 그러니까 마을 자체 안에 일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처음에는 아주 낭만적이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이나희 안 왔으면 좋겠어. 제발.

유영숙 무릉에도 눈이 엄청 와요.

김정미 위에 사는 사람 아래에 사는 사람 아래 사람을 안 치워버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기 할아버지 댁인데 치워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치우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자체 안에서도 무슨 마을 만들기 뭐 하면 “우리 마을이 정말 예쁜 마을인데 여기에 꽃 가꾸기랑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데 마을분들은 “우리 동네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있는 사람조차도 같이 함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식 개념으로 “우리 동네는 사람이 없고 뭔가 함께 배울 게 없고.” 이렇게 다 모으면 전화 일일이 해서 한 분 한 분 다 해서 같이 하면 그래도 10명 이상은 모이는데 각자의 생각 속에서 그냥 “우리 마을은 그냥 이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다 어르신들조차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무언가를 해내지를 앓아, 점점 더 낙후되고 뭔가.

우자경 그런 의욕이 좀 없어지는.

이나희 이 일꾼들을 보니까 제가 내려올 때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면 안에서 일꾼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 어쨌든 조달이 돼서 일꾼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한 1~2년 지나니까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이 이제 거주할 곳을 만들어서 사과밭 큰 데 이런 데 몇 명씩 있고 일하고. 또 그 일을 끝나면 다른 데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그게 차츰차츰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관광차로 대구나 어디 외지에서 일꾼을 용역에서 신고 와서 이제 풀어놓는 그런 걸로 바뀌어서. ‘아, 이제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서 저런 데서 이제 도시에서도 돈 벌러 용역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서 일하러 와서 또 2시간을 달려서 집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조미현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왔잖아요.

이나희 그것도 쓰기가 힘들잖아.

조미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예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요. 네 맞아요. 인건비만 엄청 높아지는 거.

우자경 우리나라 사람은 인건비가 너무 높고 높아서 외국인을 많이 쓰는데.

조미현 최저시급 오르면서 일꾼들의 인건비도 올라가고. 근데 또 이제 정작 쓰는 농가에서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 많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겠다.

우자경 우리나라 사람 안 써요.

조미현 예 맞아요. 이제 이게 지금.

우자경 근로자를 쓰는 이유도 하나가 이제 우리가 나라가 일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70대거든요. 70대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 30대 20대 애들이 일 능력이 훨씬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말만 많고 옛날에 했듯이 품앗이하던 그런 어르신들은 품앗이를 하면 사실 먹는 간식이라든지 새참이나 이런 것들 참 잘해줬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를 그것도 세시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화도 차츰차츰 없어지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능률도 오르고. 돈만 주면 되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 자본주의 이래가지고 도시락 다 싸가지고 하니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박숙정 저는 집에서 다 밥을 해서 천까지 내줘가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도시락을 싸갖고 오면 돈을 더 주고 5천 원인가 만 원을 더 주더라고. 도시락을 싸가면. 집주인이 자기도 일하고 일하는 사람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제 일단 밥을 안 해줘.

조미현 그러니까 고령화로 달라진 문화가 딱 그거였어요.

우자경 맞아요.

조미현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일을 하러 가면 그전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국수라도 해줬거든요. 아침 새참을. 근데 지금은 돈으로 간식비 5천 원을 주거나. 이제 또 그전에 품앗이로 해왔던 분은 5천 원을 주자니 조금 또 마음이 또 쓰여서 또 빵과 우유를 준비하고, 혹은 컵라면 준비하고, 5천 원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하러 갔다 오신 분은 이거 집집마다 갈 때마다 그걸 주니 그거 자체가 싫으면서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 나눠줘버리고. 그리고 또 이게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있지만 일손이 없으니 농장주가 가장 능력자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해야지, 밥 만드느라고 일을 못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런 식으로 빵과 우유가 나가는 식이죠.

우자경 또 조그만 접대가 잘못돼도 일하러 안 오거든.

김정섭 여기 자원봉사자라고 적으신 분은?

우자경 제가 똑같이 두 개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일할 사람인데, 제가 잠깐의 식당을 했었어요. 면에서 이제 식당을 하니까 손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읍에서는 면까지 안 오죠 절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서 거의 단체 4~50명은 제가 혼자서 했었어요. 그래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접은 상태인데,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어요. 잠깐의 파트타임도 촌에선 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식당 같은 데는 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라고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한 3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시작해서 했던 자원봉사의 모습과 직업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게 정말 많고.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봉사 자체도 그냥 유고. 돈을 받고 하는 봉사자들이 워낙 많고. 그런 직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면 “똑같은 일 하고 나 돈 받고 하면 되는데 뭐 마음 내서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돼?” 이제 물론 저희 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성 단체 봉사자들이 많아요. 그게 여성단체에 가입된 게 많죠. 한 면에 기본 6개 단체는 있거든요. 새마을, 적십자, 자원봉사, 여성농민회, 민방위, 생활개선회. 이렇게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돌아가면서 지금도 잘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반찬을 해서 어르신들께 나눔을 한 60가구, 70가구 나눔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우리 이렇게 시간 내서 나오니까 우리도 조금의 수당을 줘.”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감사해서 1만 원이라도 줬는데 지금은 올해는 “우리 2만 원은 줘야 되지 않나? 봉사하는데.” 잠깐 나와서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2만 원을 주되 대신 이제 조건을 저희들도 걸었죠. “대신 그러면 좋다. 2만 원 줄 테니까 우리가 시간을 1시부터 3시 반까지면은 그 시간은 꼭 와라. 잠깐 얼굴만 보이는 거는 옛날에 그냥 시간 나다가 와서 좀 도와주고 가고 또 빠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서로서로 했다면 지금 그럼 돈을 주니까 너네도 시간 안에 와서 해.” 이렇게 해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좀 오랫동안 제가 봉사를 해온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조미현 특히 일손 중에 이제 마을회관 그러니까 마을 경로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게 그나마 그 밥을 잘해 먹는 그 마을은 그나마 행복한 마을이거든요. 그나마 그 회관 안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또 외로운 분들도 이렇게 뵈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회관에서 제대로 부식비가 다달이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어도 운영비와 부식비가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활용해서 밥을 해먹지 않은 이유들이

서로 이제 70대, 80대 너무 나이 드신 분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혼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또 밥 해주려니까 힘겨워서 투덜거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거기 가면 일밖에 뒤퉼 다 하고 일만 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밥을 먹지 말자.” 이렇게 된 굉장히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이제 굉장히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경로당 안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같이 밥 먹고 행복해야 되는데 일손의 그런 어떤 부조화 문제로 인해서 조금...

김정섭 여기 허 선생 어머니 생각나네.

허주녕 저희 모친이 75인데 저보고 하는 말은 내가 요즘 좋은 직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뭘니까?” 그러니까 ‘셔터걸’이래요. 경로당에 가서 문을 열어야 되고 제일 내려요. 근데 “가서 하시는 일이 뭘니까?” 그 숟가락 수저 소독부터 한다니까 그런 거 하는데 그래도 젊으시니까 내 혼자 밥 먹는 것보다도 여럿이 먹기 좋으니 집에 된장이나 간장 갈랑끼고 나눠 먹는다. 그러면서 여름에 가끔씩 전화 옵니다. “그 옆집 앞집에 그 아가수 박 2리를 갖고 왔더라. 너도 갖고 빨리 오라고.” (맞아요) 저희 마을은 그나마 어른들이 모여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집집마다 반찬도 있으면 갖고 와서 같이 먹는...

조미현 그런 마을이 진짜 지금 행복한 마을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우자경 제가 저기 인심이라고 쓴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게 했던 말이에요. 서로 가져와서 집에 있는 된장도 하고 양파, 지금은 어떠냐 집에 양파가 썩어나가도 감자가 썩어나가도 “회관 돈 나오잖아 왜 내 거 갖고 와?”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 썩혀 내버리느니 마을회관 가져와 갈라 먹으면 되겠네” 할때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가서는 갈라 잡숫지, 뭐 이렇게 하면 “아야야 돈 나온다. 함부로 그런 소리하지 마라 네가 도리어 욕 얻어 먹는다. 저번에 또 뭐가 왔는가 왜 먹도 못하는 거 저런 거 하고...”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안 가간다. 그럴 정도로 지금은 인심이 정말 너무나 삭막해졌어요.

김정섭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모아놓은 건데 이거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매입니다. 소매 그죠? 소매상점, 소매 서비스인데 이 써주신 분이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소매 가게, 뭐 이런 것들이 줄거나 없어져서 좀 불편해지거나 또는 나는 불편한 거 없어도 주변에 보면 이럴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으면 조금 자세히 해 주십시오. 아동복 가게...

윤애순 제가 썼는데요. 방금 제가 아동복 가게 가서 우리 막내 옷을 사주고 감이 이상

해서 시계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왔는데. 저희 막내가 12살 이제 5학년이 되면서 이제 자꾸 옷이나 그런 게 관심이 있어서 옷을 사기로 했는데 며칠이 됐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학교에 갔거든요.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가지고 “우리 옷 사주는데 어디 가야 돼요?” 하니까 누가 보세 있다고 거기 가면 좋다고 가니까 우리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에폴리엔인가 아무튼 아동복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하나 남아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우리 5학년 애가 입을...

이나희 텅치가 있어서 못 입어.

윤애순 그래가지고 거기를 쪽 이렇게 한 바퀴 하니까 우리 애가 또 하얀색 옷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색이 잘 없고 하니까 따라하는 마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마음은 저는 이제 대구까지 갈 형편도 안 되고 저는 온라인으로 사는 걸 뭐 싫어한다고 익숙하지도 않고 어찌다 사도 저는 안 맞아 다 실패했어요. 장미칼도 실패하고, 추리닝도 실패해서. 이제 온라인은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비싸도 가서 사는 거인데, 애가 쪽 하더라도 없다고 다른 데 가자는 거야. 그렇지만 “선민아 이거는 어때?” 하면서 거기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겨울 옷은 안 입고 진짜 여름 잠바를 입고 다녀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감기 걸릴까 봐 저는 거기에서 지금 쪽...

김정섭 아동복 가게 하나 남았던 게 워천면에 하나 있어요?

윤애순 아니 아니 여기 읍에 읍에 읍이죠.

김정섭 저는 속으로 면에 아동복 가게가 있나? 근데 읍에 하나 있다는 건 좀.

이나희 전에는 읍에도 꽤 있었는데 읍에도 애들 옷 파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예쁜 옷, 좀 어린 애들 입을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입을 수 있는 옷 파는 데는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주니어 옷이라고 해야죠. 이제 한 15~16세 이제 그 정도까지 입을 수 있는 옷 파는 데가 두 군데 있었어요. 두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윤애순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기에서 오늘 사야 되는 거야. 내일은 저도 바쁘고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막 돌다가 돌다가 이제 겨우 감장하고 흰색하고 섞여 있는 잠바하고 또 흰색 피하고 다시 올 수 없으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우자경 정말 너무 죄송해요. 갑자기 지금 그 아동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둘이서 지금 우리 아동복 있는 거 생각이나 한번 해봤나 지금 이려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다 컸으니까 거창에 아동복이 있나 없나조차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어.

조미현 그게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이 ‘아주 많이 불편해진 것’이 아주 많이라는 그 방점에 사실은 아주 많이가 아니라 불편해진 거죠 전체가 다. 농촌에는 불편한 것 투성인데 특히 먼 단위는. 그래서 ‘늘 다 불편했는데 뭐가 더 불편한 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하고 저도 옷은 우리 애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저는 애들이 한 15년, 16년 클 동안 거의 오프라인에서 옷을 산 게 다섯 손가락 이내예요. 다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사고 실패하든 뭘 하든 크면 나중에 입고, 작으면 다른 사람이 줘야 되고 이런 식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내 수준, 내 저기 처지에서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걸 (몰라) 마을이 전부 다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센터장님도 이제 마을 만들기를 해도 그 어른들 수준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어른들 수준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이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 불현듯 생각이 마을 만들기를 몇 안 남은 청년들 모아서, 혹은 아이 있는 미래 세대를 모아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거점지구 사업을 하고 권역을 사업하고 하면 어떨까. 진짜 좋은 이분들은 갈 사람이고 10년 후에 이곳에 있을 사람은 지금 현재 10년 전 사람들 우리 이전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저 사람들의 수준에서 ‘찜질방을 만들어달라,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거. 하지만 어떤 청년이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나 편의점 생각도 안 했는데 야 요즘 편의점은 백화점 같잖아요. 저게 먼 단위의 슈퍼가 아니라 편의점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들 불편한 거 투성이라서.

김정섭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지난주에 평창에서 했는데요. 연세 많으신 아저씨들 그룹에서는 전혀 안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50세 이하 남자분들 얘기인데 그 얘기하잖아 “문방구가 없어졌다고.” 학생 수가 줄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 수 줄으니까 문방구 없어지고 이제 웬만한 학용품은 학교에서 다 맞춰가지고 다 나눠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애순 우리 거창에서도 중앙로에 있던 알파 있잖아요. 알파 그거 작년엔가 없어졌잖아 없어. 거기가 문방구도 되고, 이렇게 애들 머리띠 팔고 여러 가지 팔고, 팬시 팔던 가게 없어. 중앙로 제일 우리 애들 중고등학생들 친구끼리 가면 알파 가고 두끼 떡볶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우리 애도 크니까 이제 올리브영 가고 다이소 가고.

알파가 없어졌어요.

조미현 다이소가 백화점이에요.

김정미 아이들까지 다 대구로 진출을 하던데.

이나희 대구 나가요. 우리 애들도 대구에 놀러 가요 (몇 살인데?) 중학교.

김정섭 소매 쪽이 학생 굉장히 힘들 부실해진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식당, 배달..

조미현 식당이 없죠 아예 안 되는 거죠. 아예 없지 배달이...

김정섭 예전에 되던 때는 있었습니까?

우자경 예 예전에는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식당.

윤애순 수요가 있으니까.

박숙정 짜장면도 배달해줬는데 어제에 지금은 안 해줘. 치킨집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고제면은 없어 마트라는 곳은 하나로마트 하나 그거 식당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

김정미 하나로마트라고 하면 헛갈려 하세요. 그냥 농협이라고.

김정섭 안 헛갈립니다.

김정미 마트가 있어? 막 이러니까.

우자경 신원에는 통닭 배달을 해줘요. 피자랑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한 3년 됐나, 진짜 좋아요. 피자까지 읍에서는 배달을 못 해 먹고, 옛날에는 이제 택시 동네에서 회관에서 놀다가 택시 기사님한테 통장 찍어달라고 하고 배달비 주고. 택시 기사한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원에는 생겼어요. 제가 친정이 이 신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명절이면 일부러 이제 배는 다 부르고 막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에서 온 조카들이 진짜 “이 촌에 통닭이 있다고? 그럼 촌의 통닭 우리 한번 시켜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설 명절이랑 추석에 꼭 시켜 먹는 게 이제 관례가 돼버렸어. 진짜 우리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우리 먹고 싶어도 배달이 안 되니까. (좋겠다...)

김정섭 이게 이제 대중교통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게 제 생각에는 같은 동네라도 보고 듣는 바에 따라서 설명들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대중교통이나 어떤 분들은 “요새 많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거창은 아까 낮에 들은 얘기는 있는데 일단 그 얘기는 제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버스, 이걸 이제 통합 문제도 있고 걸려 있는데. 교통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나희 고제는 비슷하죠. 저희도 차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6대가 왔다 갔다 했으면 지금은 세대? 그러니까 아침에 첫 차가 첫차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김정섭 그게 리에서 먼 소재지로 나가는 버스 얘기하시는 거죠?

이나희 그렇죠. 면을 거쳐서 읍에까지 우리 동네 위에 꼭대기에서 출발하는 그 종착지에서 읍에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애들이 방학을 하면 첫차가 운행을 안 합니다. 애들이 방학을 하면 학생이 있을 때는 이제 그것도 큰 골에서 내려오는 저희 동네 저희는 작은 골이라서 저는 고제까지 태워주려 갑니다. 그 첫차를 태워서 보내려고 고등학생을. 그러면은 이제 큰골에서 내려오는 그 차는 7시 20분 차인데, 그게 이제 방학 되면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진짜 타고 싶은 사람은 못 타요. 출근하고 싶어도 그 시간에 못 타서 못 하는 거야. 방학 때는 한 달 넘게 이제 비어 있는 거야 그 시간에. 그리고 또 틈이 너무 많아. 4시간은 기본이고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저희 동네도 아침에 일찍 올라오는 게 또 11시예요. 우리 동네 오는 거는 그러면 오후에 4시쯤 있고 중간에 이제 없었는데 장날 되면 이제 동네 한 바퀴 순회하는 버스.

우자경 건의 한번 해보셨어요?

이나희 못 늘리죠. 기사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우자경 다른 방법은 전혀 없이 버스만 갖고 해요?

이나희 근데 노인들 위해서 ‘부르미 택시’나. 뭐 이런 걸로 아프거나 목욕을 가거나 부르미 택시 삼삼오오 모으면 이제 그거는 어르신들 각자가 이래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그건 어른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중간한 우리 젊은 사람 저는 50대니까 애들 하고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윤애순 중고생들이 놀거나 이렇게 가고 싶을 때 엄마 그게 없이 알아서 그러니까요.

이나희 어쨌든 거창까지는 태워줘야 대구를 갈 수 있고. 거창에까지 태워줘야 시간

이 안 맞으니까 다이소 쇼핑을 갈 수도 있고 카페 가서 놀고 먹고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더 안 사는 거지 못 사는 거지.

김정미 그니까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그러니까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모님들이 농사일 막 하다가 애들 데려오고 또 수업 끝나면 또 저기하고 학원 보낸다고 또 왔다가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더라고.

이나희 제가 그래서 일을 보험 일을 하는 게 애들을 픽업하기가 좋아요. 이게 매어 있지 않잖아요. 출근만 하고 퇴근은 뭐 이제 양해 구하면 되니까 좀 기다리고 있다 학원 또 태워주고. 야자 할 때는 이제 야자 통학하면 되는 거고. 중간에 또 애들도 픽업해줘야 되고 그런 참 많이 불편해요. 그런 것들이.

김정섭 그래서 아니 보통은 다른 지역에 가면 대중교통이 다 많이 줄어서 누가 불편하냐 그러면 보통 노인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면에 있는 농협도 가기도 힘들고, 면사무소 떼러 가기도 힘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창 그 문제는 조금 조금 해소된 것 같아요 군에서 사업을 해서. 그래놓고 낫더니 오히려 이제 뜻밖에도 10대, 중고등학생들 이런 계층들이 이제 같은 문제가...

이나희 그런 아이들은 수가 적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주는 거죠. 그렇죠.

우자경 오게는 만들죠. 어쨌든 인구 정책으로 해서 오게 만들기 위해서 집을 수리해 주고 인허가까지는 해주지. 근데 그 뒤에 개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아.

김정섭 어린이집 얘기 누가 써주셨습니까?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조미현 여기 센터장님 계시는데 예전에 여기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주상면에 저희는 웅양면에 살고 주상, 웅양, 고제가 이렇게 있으면, 고제와 주상과 웅양을 아우르는 어린이집이 ‘숲속생골어린이집’이라고 하나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이 한 2019년에 없어졌나요? 2019년에 아이가 4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없으면 안 되는데 없었어요 군에서. 이제 없어지면서 아직은 각 면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없어지니까 이분들이 읍으로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고제고 웅양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이 사라져서 아이가 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학교랑 교육청하고 행정 쪽하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는 병설 유치원이 있는데, 이 유치원은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가 좀 더 높아야 되고. 그리

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쪽인가 그렇고요. 유치원은 교육청 쪽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많이 싸우고 했었는데. 결국은 어린이집부터 받아주지 않으면 유치원을 갈 수 있는 연령이 없어지고 면으로 중심 보면 학교 들어갈 연령이 없어져요. 저희가 웅양초등학교 거기도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인 큰애가 1학년 들어갈 때는 16명이 들어갔어요.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들어갈 때는 7명이 들어갔어요. 올해 3명이 들어갔는데 이 3명도 면의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읍에서 광역학부로 돼서 읍에서 읍에서나 외곽에서 들어왔거나, 이런 친구들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 초등학교 자체에 들어올 아이가 없어지면 마을은 급속도로 사라질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 학부모들과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초등학교를 살려놔야지만 그나마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는데, 마을의 어른들 면의 어른들은 저 초등학교 없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뭐 만들어서 우리 놀 거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없어져도 상관없어. 100년이 넘는 학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저 어린이집은 사실 상징적인 어린이집이 없어진 거에 대한 얘기인 거지. 사실 그 아이들을 위한 이제 최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병합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데. 학교 안에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단계가 면에 만들어져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마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섭 학생 수 몇 명 안 남고 초등학교나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몇 명 없으니까 그거 없애는 거 그 자체로는 이렇게 높은 분들이 보면 별거 아닌, “그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서는 이게 제가 허 선생님한테 계속 몇 번 했는데 우리가 좀 검증해 보자고. 없어져서 당장의 큰 변화는 안 생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지면 이사 올 만한 사람이 안 오게 돼. 이사 올 젊은 사람은 아예 못 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박숙정 어린이집 폐원하기 전까지 이제 조금 좀 그것도 군의원도 사실은 권력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약간의 그 당시에 이제 군의원 되신 분하고 이제 우리 어린이집을 폐원하려고 눈독을 들이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우리 센터를 한 1년 동안 이 표적수사처럼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한 건 한 건 건수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해 자료 제출 1년 내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집을 폐원을 시킬까에 그 표적을 딱 두고 여기 표적 수사를 들어갔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데. 그 의원님하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아이들이 4명밖에 없지만, 10년 뒤를 봐라 지금 인구정책과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인구정책과는 사실 아이들을 어렸든 간에 유입해 오고 아이들 낳게 해야 되는 게 인구정책과의 목표인데 그건 온데간데없이 그걸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도 자기 그 권력을 이용해

서 어린이집을 폐원하려고 그러니까 슬프면서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만두신 의원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새로운 어린이집을 이제 개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먼 단위의 거창군에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이제 주상, 고제, 웅양 해가지고 거점 하나 있었고. 가조, 가북해가지고 거점 하나 있었고. 마리 유치원 북상에 거점 하나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자꾸 주니 그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집 재정도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 온데간데없이 그냥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 공무원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합시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 한 명 두 명씩 문의가 오는 거예요. 이제 아직 우리 폐원하는지 모르고 어린이집 주소 전화번호 있어 물어 오는데 너무 마음이... 슬픈 현실이 돼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생동감, 살아있는 그게 느껴지는데. 사실 어른들만 있으면 왠지 죽은 느낌 마을이.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워가지고 좀 씩씩합니다.

김정섭 세시풍속, 이 얘기만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하셨으니까 죄송한데 줄여야 됩니다. 예를 얘기를 이거 누가 써주셨죠? 어떤 세시풍속이 많이 없어졌습니까?

김정미 아까 하고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너무 “삶이 서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사람들 많고, 마을에 주막이 몇 개가 되고, 그 시절에 대한 굉장한 추억이나 회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름날에 같이 줄다리기 했던 행사들 이런 것들이 진짜 아예 이웃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굉장히 이렇게 되살리고 싶은데 그런 이제 고령화가 되고. 또 그것들을 또 이렇게 함께하려고 하는 어떤 마을의 어떤 주체적인 분들도 안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외롭고, 삶이 너무 적막하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외로움과 적막함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을이 고령화되고...

김정섭 세시풍속 같은 것도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농촌 다 없어져서 예를 들면 대보름날 달집태우기 하고 어찌고 하는 거는 시골 애들은 그런 거 구경도 못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려면 아버지 엄마가 생협 조합원인 서울 사는 아이들이 맞아 그 산지 농촌 마을에 부탁을 해서 우리 우르르 차 타고 가니까 “달집태우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애들이 경험하는 거지 시골 애들은 모릅니다.

김정미 굉장히 재미있는 풍습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산골 자체에. 유두날에 송편을 꽃아서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훔쳐먹고 가기도 하고. 저희가 몰랐던 그런 아주 소소한 세시풍속들이 많은데 그걸 좀 어떻게 좀 살려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아쉬워요.

김정섭 저희가 이게 1시간 조금 넘게 진행했는데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제가 피곤합니다. 한 7분 쉬었다가 5시 반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정섭 이제 다음 이어지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인데요. 물론 어린이집 얘기가 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뒀든 공공기관이 원래 공공기관의 업무라는 건 사실은 사람 수 적다고 해서 없애거나 줄이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공공기관이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사람 수가 줄면 예산도 사람 수에 비례하는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공공행정 국가 이렇게 떠올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 보건소, 소방대, 경찰, 등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좀 부실해지거나 사라지거나 부족해진 것이 있는가 인구가 줄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처럼 하나씩 좀 1개 이상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좀 적어봐 주십시오. 한 2~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애순 저는 이제 불편해지는 것보다 얼른 생각해서 이제 그 하나로 농협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ATM기가 없었잖아요. 요새는 이제 면마다 다 있어요. 북상면에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0시까지 그걸 해요. 그러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낮에 이렇게 막 하다가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만 또 통장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송금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저녁 먹고 맛다 맛다 하면서 막 8시 9시에 가가지고 깜깜한데 저 혼자 가서 ATM으로 이렇게 송금한 그 면 단위에서 좋아진 거 10시까지 그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북상 골짜기까지 그걸 볼 켜져 있고 그래 좋아.

이나희 고제도 있지 고제는 사과 농사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김정섭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뭐 내가 불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면 이거 지역사회에 좀 문제가 되겠다. 또 이미 문제다.

이나희 제가 내려올 때부터 느낀 거지만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다가 여기 내려왔어요. 경기도 성남이 애들 키우기는 정말 좋은 데예요. 놀이터도 그렇고 놀이터를 수영장 애들 수영장처럼 무릎 조금 밑에까지 물이 찰랑거리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 동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아서 ‘시골에 내려오면 뭐 개울가나 이런 데서 수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이 더러워서 예전 같지가 않아서 못 놀아요. 오페수 다 집에 물 이런 거 다 오잖아요. 거기 애들 수영하게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집에 받아서 이래 하지만 근데 보면 면에 보면 제가 전에도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모이고 하면 항상 얘기를 한 게 그 뭐지 건물 하나 새로 또 짓잖아. 이번에 생활 뭐 하여튼 그 무슨 어울림센터 그러니까 그런 거 짓잖아 난 그런 거 왜 짓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런 거 왜 있잖아, 어른들 거기 모여서 카페도 한 개씩 만드는데 난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나 운동할 수 있는 거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거 그런 것 좀 만들어 주라고.

우자경 아니 그게 그 고제처럼 아이가 있으면...

이나희 지금 애들이 줄어서 없죠.

우자경 그렇게 아니 그래도 아직이라도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미현 그제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권역 사업이나 한때는 권역 사업을 막 하더니, 지금은 거점지구라는 걸 생겨서 고제면에도 있고 웅양면에도 아직 준공은 안 됐지 저희 마무리 짓고 있고. 저기 주상에도 거점지구가 있었고 각 면마다 만들어 놨는데. 말 씀하신 것처럼 이거의 대상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장들 불러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회장들 불러서 하다 보니까 정작 이거를 써야 될 미래 세대들에 대한 의견은 없이...

이나희 그러니까 데크 같은 거 만들어서 운동하게 길을 이렇게 길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잖아요. 운동 어르신들 하라고.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동네도 그래.)

유영숙 지금 거점 얘기 나오니까요. 제가 지금 우리 남하면에 추진위원장이라고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뭘 다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아직 재착공 단계인데 저는 이제 착공해요. 그래서 저희 면에는 아이가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귀농에서 들어온 아이들 집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 이제 몇 명만 이제 거기도 빈집을 수리해서 인구 정책으로 이제 개 외에는 아이가 없어요. 저희가 그냥 아이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대구에 이제 의뢰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면을 제가 이제 강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촌에는 이런 게 있어서 예전에는 이런 걸 했어. 아까 전래놀이는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체험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같이.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제 사비로 이제 이런 작은 선물이라 주면

서 “니네 나중에 퀴즈 마치면 이거 줄 거야. 우리 동네에 대해서 잘 듣고 잘 얘기해 주면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해서까지 해봤는데 관심이 없어.

우자경 없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거점이 지금 최고 문제예요.

김정섭 기초생활 거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현 네 맞아요. 그런 저기 행정의 사업들, 갑자기 뜬금없이 수십억의 사업비가 내려오면 추진 쪽에서는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김정섭 그 돈이 대부분은 건물 짓는 용도 또는 도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 사업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거창에서 한 세 군데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차 타신 겁니다. 맞아요. 전국적으로 1,200개 읍면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다 돌았는데 ‘또 한 바퀴 돌면서 그런 걸 또 짓자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연구를 곧 시작할 겁니다.

조미현 근데 문제는 이름만 달리해서 그런 게 생긴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을 만들기 권역 사업이라고 하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거점지구라는 걸 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권역 사업을 한 그 체험 마을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양에는 관광지가 없어요. 체험하러 그곳을 와서 머무르고 할 사람들이 이유가 없어요. 거기 올 이유가 근데 거창에만 체험마을이 한 13~14군데가 되거든요. 근데 거점지구로 해서 건물이 지어 올라가면 그다음은 “가만히 놔둬도 전기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아주 불편한 문제 중에 하나죠.

김정섭 이게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권역 사업은 법 정리 2~3개 행정리 서너 개 묶어서 한 바퀴 다 돌고 그때도 읍면 소재지에 짓는 게 조금 있었는데 권역 사업이 되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리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면에 하나 하는 것도 아니고 리 두세 개 묶어서 하라고 하면 그 리 두세 개는 단합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차라리 면 사무소 앞에 하거나 리에 하나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억지로 권역이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금액이 컸었어요. 처음 시작한 게 2004년인데 그땐 70억이었어요. 나중에 45억, 55억 줄었지만 저희도 이거를 얼추 수백 개 짓고 나니까 비판이 생겨서 그 걸 접고 이제 돈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면에다가 하자. 그래서 작은 면에 하는 거는 기초 거점 생활 거점 지원 사업이고 이제 조금 큰 읍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마다 다 한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그것도 한 바퀴 다 돌아서

앞으로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조미현 막차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걸 반복하는 건 뭘까.

김정섭 이제 보겠습니다.

김정섭 파출소는 있는데 불은 꺼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윤애순 제가 적었는데요. 제가 그 한 골짜기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에서 오나골에 사는데 제가 있는 위천면은 좀 이렇게 인구가 있고 해서 파출소에 불은 켜져 있는데, 마리 파출소하고 북상면 파출소는 있는데 밤에 불은 꺼져 있어요. 그리고 북상면은 오히려 또 좀 전에 말한 면 뭐 이렇게 무슨 개발 사업으로 헐고 새로 멋지게 또 새로 지어졌지만 불은 꺼져 있어요. 그 얘기는 근데 저는 지금 불편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 불 꺼져 있으면 좀 그러지도 않을까.

김정섭 불이 꺼져 있다는 얘기는 낮에도 사람이 없습니까?

윤애순 낮에도 사람이 없어.

김정섭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침에 거기 출근해서 계속 앉아 있는 경찰은 없다는 얘기죠.

윤애순 없지 아무도 없어.

김정섭 그러니까 옆에 면에서 중간에 한 번 와서 2시간 앉아 있다 가고 그런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애순 2시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우자경 퇴직하시는 분들 잠깐 와서 근무하거나 뭐 이렇게.

김정섭 그러면 이제 당장 뭐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늘어나고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래도 뭔가 짚짚하신 거죠?

윤애순 밤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파출소인데 불이 꺼져 있는 느낌 보면 조금. 저 시집 올 때는 말이면 파출소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꺼져 있고, 근데 사람이 없으면 북상면에도 파출소를 없애거나 그래야 되는데 파출소는 이제 그 면 개발 사업으로 또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한 20명 넘을 것 같은데 근데 불은 꺼져 있죠. 좋은 건물로.

김정섭 그게 이제 파출소 건물 짓는 돈을 대는 건 농림축산식품부고요. 거기 앉아 있어도 경찰 월급 주는 건 경찰청이라서 농림부 돈으로 건물을 지었으나 경찰청은 경찰 월급을 못 준다 뭐 이런 얘기고 학교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학교도 없어졌나요?

이나희 아니, 이제 폐교 수준을 지금 밟고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다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개가 읍에 이사를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중학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고제중학교를 보내고 나서 졸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애들 수가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4명, 6명이거든요. 6명이라도 학교를 지금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집 애들이 지금 한 몫하지.) 중요한 건 교육청에서도 이제 작은 학교 폐교 이제 그걸 한 번씩 해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이제 면담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없애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뭔가 애네들이 제스처를 해야 되고 또 면이나 이런 그런 데서 없애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학교 하나 있으면 선생님도 더 많은데 애들보다, 왜 학교를 놔두냐? 저 학교 놔두면 돈이 얼마가 나가는데,” 하면서 어른들 어른들이 그런 말 쉽게 어른들이 쉽게 그런 얘기를 해요.

김정섭 교육청은 오히려 그 학교가 없어지면 그 장학사 선생님이나 자기들 일자리 없어지는...

이나희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저희도 어쩔 수 없고.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저희 학교에 공사를 지금 새로 짰했어요. 우리도 새로 짰 같고. 그것도 분교인데. 심지어 거창중 고제분교인데 우리 다 같고 바닥 공사 다 하고 전자칠판 놓고 이랬는데 폐교한다 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뭐 하려고 고치는데요. 뭐 하려고 이런 걸 했는데요?”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래 학교는 좋게 만들어 놓고 학교를 없애자 그러고. 이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 한 번씩 이제 어른들을 이런 얘기를 하면 “저 학교 없애야 뭐 하려고 저 선생님보다 애들이 더 작은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학교 없어지면 어른들은 이제 나중에 여기 사람 아예 없어요. 이제 그때는 어떡하실 건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어하죠 어른들은.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제가 쓴 건데 끝까지 이제 지켜야지 몇 년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조미현 저게 이제 실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는 요 살리기 위한 운동이 어떻게 학부모나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그나마 한 60이 넘고 제 또래 얘기를 늦게까지 쪽 낳으니까 이제 아직까지 아이가 어린데 조금 일찍 키우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학교에 대한. 거기 또 이렇게 고령화, 고령화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작은 몇 명의 운동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왜냐하면 금방 이야기하듯이 제 딸애가 6학년 때, 지금 25살이거든요. 6학년 때 중학교를 고제중... 같은 학교인데 학교를 없애려고 이제 덕유중학교 이제 공립형 기숙사 거기 학교 통합하려고요. 이제 막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동의를 구하고 학부모들 개인 집으로 다 전화해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딸 애가 6학년 올라갈 때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는데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입학은 5명이 했는데 음으로 나오고 한 해는 장애인이 있어서 집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였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갑자기 5학년 때가 또 하나 나오고 6학년 혼자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있어라 아니면 너를 위해서 진짜 학교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만 해도요. 그때 제가 교육청 가가지고 교육청 앞에서 저희들이 학부모들하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운동하고 이런 운동을 하면서 지금 12년이라는 세월이 또 근근이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운동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게 시골이 지금 근근이 근근이 막 이렇게 학교 하나 살리기 위해서 버티는 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언제까지 이런 운동을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또 좋은 세상이 오긴 오겠지만. 좀 아이들이 좀 태어나고 우리 후대가 좀 젊은 세대가 또 시집 장가를 와가지고 농촌에 살면 이 학교가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막 들어왔어요. 농촌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아이는 아예 없는데 이 학교로 또 보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또 고민이 이렇게 근근이 버티는 이 농촌 현실이 너무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아프고 좀 그랬습니다.

김정미 저도 저기 작은 학교 관련해서 정서 공감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가북초등학교 문예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9남매의 어머니가 10남매 그래서 근데 이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택을 제공하고자 해서 제주도에서도 오고 했었는데. 마을 주민이 이렇게 반대해서 주택이 지어지지... 그게 이렇게 좀 무효화되어 버린 바람에 일본에서도 이렇게 어머님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다시 또 나가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작은 학교 살리기 하다 보니까 너무 뭔가를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그 작은 학교의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예술 교육을 강화...' 이런 어머님들이 뭔가 좋아할 만한 현실의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작은 학교가 가진 어떤 아름다움이나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학교 선생님들도 한 반 아이가 서너 명밖에 안 되고 너무 행복하고 저기 해야 되는데 혹시나 9명의 어머님의 뭔가 심기를 건드리면 이 학교 없어질까 봐 오히려 그 아이와 새로 들어온 아이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을 때 굉장히 막 선생님들끼리도 초긴장

을 하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학교가 너무 아름다울 수 있는 학교인데 애들도 막 흑사, 그러니까 이렇게 방과 후까지 다 해주니까 4시 반까지 아침부터 4시 반까지 거의 수 이렇게 수업에 이렇게 연연해야 되고. 그런 이제 행정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을 이렇게 해주지만, 너무 그런 이득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그것도 소통도 안 됐고. 어쨌든 정서나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을 잃어버리지 않나 본질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김정섭 지금 농산물 직판장...

우자경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술센터에서 이제 저희 동네가 이제 골프장도 있어요. 풍력발전소도 있고 천문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골프장에서 내세운 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8개 항목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 해주는 이제 그런 그거였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게 통과가 됐어요. 됐는데 만약에 농산물 직판장을 저희 동네에 지었을 때 동네 주민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장을 맡고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도저히 농산물 누가 밤을 가지고 와서, 고추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으로 흑시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많이 가을에 이제 ‘꽃별 여행’ 이래가지고 이제 행사도 해요. 한 달간 딱 열흘 동안 행사를 했는데 꽃 보려는 한 석 달을 와요. TV를 해서 보고도 막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박업 전화 문의가 많이 와요. 어디 잘 데 없나 이제 그 펜션 같은 거 아니면 숙박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직판장 아니면 안 된다.” 그거 말고는 안 된다. “근데 이거를 군에서 군이 돈을 몇억 들여서 지어놨잖아 이거 몇 년 안에서 없어진다.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갔는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제 아직 진행 중이긴 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진짜 다른 데 그러면 우리가 꼭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군 땅을 일단 사놨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 써라 좋은 데.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했는데 이제 행정에서 면해서 한번 계장님 말하자면 그 뭐라지 풀어주는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묶여 있는 땅, 그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식당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걸 풀어주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풀어주는 보전 지역 그제 이제 풀어주는 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좀 몇 년을 기다려줄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군이 농산물 직판장 꼭 그거 아니라도 그거는 우리는 진짜 도저히 못 하겠다. 몇 년 기다려서도 다른 게 된다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래서 지금 진행 중 행정에서 꼭 그렇잖아요. 꼭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땅을 사놨는데 그걸 지어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꼭 군이 하라고 그러냐고요.

김정섭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이제 그 경향이 있는데 아까 기초생활 거점 사업도 그렇고 파출소 얘기도 그렇고 지금 거의 농산물 직판장 얘기도 그렇고 뭐냐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꼭 저출산 고령화 문제 아니더라도 그것과 관계 있는 게 많은데 이제 관에서 할 일이 많은데 관이 이제 뒷북을 치거나 유연하지가 못한 거죠. 생각을 못 바꾸는 거지. 우리 이거 필요 없는데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고.

조미현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면 단위나 이런 데 마을에다가 문화센터 같은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맞지 않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니까. 다 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자경 그 뒤는 이제 모르고 그러면 운영비를 군에서 대주겠냐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네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숙박업은 되겠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김정섭 마지막으로 누가 보건소를. 변화가 있습니까? 보건소는 거의 그대로 아납니까?

유영숙 하고자 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건소가 저희 같은 소재지에서 있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예전에 매일 의사가 상주를 했고 했다면 지금은 의사도 물론 없고 간호사 혼자 있는데 보건직 한 분 계시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김정섭 그러니까 면 소재지에 있는 거면 보건지소죠?

유영숙 이제 그걸 저는 말하고자 해서 저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게 행정이 책임지는 일 중에서 아주 많이 불편해진 거 저걸 보고 제가 언젠가 계속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70년대 중반쯤부터 우리 정부에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그게 우리 인구가 줄어진 최고 저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걸 그렇게 노력하면 그게 누가 했냐 보건직 요원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어머니들을 다 복강수술을 해라 안 했으면 데리고 가서 병원에 보건소에 강제로 모시고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못 낳게 했어요. 그러면서 70년대는 3명이던 아이들이 이제 그 뒤에 2명이 되고. 2명이 지금은 하나 현실이 되어버린 건데 이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 행정이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해놓고 지금 와서 인구 대책 세운다, 인구가 없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계속 의문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게 우리 자산이라는 걸 왜 그들은 그 당시에 몰랐을까? 지난 일 갖고 뭐 이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은 없어...

김정섭 이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대답할 공무원이 있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공무

원이 아니어서요. 이제 지역사회 경제활동 측면에서 변화가 좀 있죠.

조미현 네 있어요. 확실한 건 저 같은 경우는 정년이 없어요. 저는 체험마을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 있다 보니까 일단 저기 어떤 마을에는 70대도 사무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서류를 만질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한편으로는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문이 닫힐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좋을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이걸 다 꾸려갈 수는 없는 그런 또 한계도 있는 거고. 아마 저기 군 단위가 거기가 보면은 읍면 편에서는 몰라도 기간제 근로도 엄청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도시보다는 좀 더 많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진 좀 씹쓸한 부분이긴 하죠. 그게 저기 좀 유익하다라고 하기에는.

우자경 그게 사람이 없어서.

김정미 저도 저기 처음에 여기 귀촌할 때는 완전 자연인처럼 자연에 파묻혀서 살고 싶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가 어떻게 젊은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험마을 사무장이 편한데 좀 몇 시간만 하면 된다 좀 해달라.” 주변에서 자꾸 일을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그 직업들을 굉장히 또 생활지도사 저희가 너무 골짜기거든요. 가북에서도 700고지, 완전 읍에서 거의 그때는 1시간 거리 정도였는데 거기까지 읍에서 누군가 젊은 사람이 그 어르신 이렇게 없다. 제발 좀 시간 되면 좀 그쪽 지역 좀 담당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다양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김정섭 생활지원사 활동을 가옥에서 하시면서 거창읍의 가구를 방문하시는 겁니까?

김정미 아니요. 아니 가가 저기 안에 마을 주변에 그러니까 읍에서 오실 분이 너무 멀어서 다 못 오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입소문 듣고 또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생각하지 못한 경제활동을 하고 소소하게 창의적인 아주 삶을 살 수 있는...

김정섭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김정미 없으니까 이제 한 사람한테 타이틀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자가 마을에 저기 좀 해 글 쓴다고 하니까 마을 좀 책 만들기 좀 참여해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면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김정섭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물론 복잡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변화가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해서 가족 관계가 많이 바뀌었죠? 네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미현 저희는 저희 신랑 시대 쪽이 2남 2녀예요. 이게 저희는 차남 쪽인데 애들 큰 아빠가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없어요. 우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애네가 우리 아들이 독자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독자네?”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시누들도 애가 둘이거나 하나 이러니까 점점 진짜로 우리 가족 구성원만 봐도 이게 지금 역삼각형이 되는구나.

이나희 저희는 애들 데리고 내려온 게 이제 어른들이 연세가 이제 들어가면서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걸리고 이제 어르신이 이제 이제 머리에 이제 뇌출혈 이런 걸로 아프시고. 치매 걸리시니까 어르신 밥도 안 차려주고. 내가 배가 안 고프면 옆에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을 한 그릇을 끌고 내려왔지만 그걸 보면 이 참 슬픈 일이지 한데, 우리 시누들도 있고 우리가 제일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애들도 어리고 그리고 이제 시누들은 다 그쪽 집안 자기네들 그거라서 안 되고. 큰형님은 이제 대학생이거나 이러니까, 저희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내려왔지만 또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많고 이제 있지만 시누들이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 시골에서 살기 싫다고 가버리면 또 애들은 다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서 또 막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를 낳으면서 이 애들 다 놔두고 가버리면 이게 다 고모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잘해주는 건 엄청 잘해줘. 그리고 1년에 몇 번씩은 꼭 와가지고 고사리 꺾으러 가고 뭐 온갖 산에 다니면서 풀은 다 뜯어가지고 가시고.

김정섭 주변에 마을에서 이렇게 옆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혼자 사시는 주로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이제 남성 그룹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 저는 좀 느낌이 달라요. 다른 지역에 가면 이걸 하면 1등으로 나오는 얘기가 노인돌봄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하다. 근데 거창은 좀 강도가 약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집들 다 혼자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그거?

이나희 혼자 사셔도 어르신들 지금 불편할 만큼의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자경 의식이 있고 생각 있는 분은 친구끼리가 이웃에 사는 친구 우리가 서로 보호

자고 또 이제 그것보다 또 조금 가시면 우리 거창군에는 돌봄 어른 돌봄, 아까 생활지원사가 다니면서 또 책임을 해요. 그리고 또 조금 만약에 등급을 받거나 어쩌면 유치원이라도 가요. 또 그게 또 아니면 방문해서 가정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또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또 거기서 또 가면 또 병원을 가지잖아. 그러니까는 도리어 자녀들이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 같아.

이나희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치매나 이런 문제, 만약에 지금 같으면 제가 안 내려왔을 수도 있죠. 도시에서 이제.

윤애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지금.

이나희 지금처럼 이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온 거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잖아 이게 서로.

김정섭 주변에 어느 마을에서 고독사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는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우자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고독사를 하실 분은 이제 생활지원사나 이런 분들이 자주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움직임이 있지 하루만 안 보여도 옆집에 이제 몇 번 오시면 한번 연락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다 스스로들 가보세요. 아직까지는.

김정섭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국에 다 있는데 그래도 고독사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는 이제 거창의 특징으로 알겠습니다. 거창은 노인복지 쪽으로 좀 별난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 쪽에서 움직이는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수백 명입니다. 다른 군에 비하면 몇 배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000 목사님하고 알고 지낸 지 한 열추 10년이 돼요. 그래서 000 목사님 노력도 크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노인 돌봄 얘기가 안 나온다 싶어서 몇 배로 다른 데 가면 이게 1등이에요.

우자경 그분이 유수상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봉사를 저는 오랫동안 30년 전부터 같이 그분하고도 했는데 제일 먼저 앞서갔죠. 다른 시군보다는 그러고서 그분이 들어서 다른 시군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지금.

김정섭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도시하고 다르게 농촌의 저는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사회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 조직 도시에 가면 시민단체가 있죠. 근데 농촌은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조직, 그래

서 기본적으로 리마다 3개씩 깔고 가잖아요. 부녀 외 노인의 청년은 최소한 이제 읍면에 와도 군에서 노는 것도 있고. 읍면에도 있고 아까도 면에 여성 단체만 한 6개씩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농촌에 가면 회장님들이 되게 많죠, 이게 도시하고 그 차이인데. 그 지역사회 조직이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농촌에서 하는 역할이 꽤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 그런 주민들이 만든 조직이 관변이든 민간에서 만든 것이든 농촌 지역사회 굴러가는 데는 그런 주민들의 조직, 주민들 또는 조직을 통하지 않더라도 주민들 사이에 서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군청 못지않게. 사실 뭐 군청 공무원이 뭐 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주민 조직들이 거기 맞춰주지 않으면 뭘 못 하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한 10년 20년 이렇게 놓고 보면 지역사회 조직 활동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고령화되고 인구 줄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자경 아까 제가 여성 단체가 6개 있다 이랬잖아요. 그 면에 50대 60대는 정해져 있거든요. 활동하는 분들은 그래서 6개 단체가 있으면 보통 4개는 같이.... 그 사람이 사람이예요. 근데 이것만 또 겸하는 게 아니죠. 또 더 있겠죠. 주민자치위원회, 다양한 거 많이 이거 우리 아까 보니까 어쨌든 체크 다 하던데... 겸해서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한 봉사자가 없다는 말이 그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계속하고 계속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인데 우리 끝나면 누가 하나 이거 없어지나? 없애야 되나? 지금부터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윤애순 그러니까 지역에 막내가 없는 것 같아.

우자경 맞아요. 막내들 다 모여 있잖아요.

이나희 어떤 말은 뭐 70 몇 살이 막내고.

우자경 그런 것도 있죠.

이나희 우리 친정엄마가 원래 70 좀 젊지. 그나마 좀 젊은 73살인데 아직까지 새덕이거든요.

윤애순 손자가 25, 26인데.

이나희 그만큼 밑에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80 넘어오시는 90대신 분도. 아니면, 지

금 지역사회는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있잖아요. 귀농·귀촌인들이 무슨 단체든지, 단체장을 맡든지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아까 때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어떤 현수막 문구를 걸었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지역민들하고 귀농·귀촌한 사람들하고 마찰이 심하니, “우리 마을은 귀농·귀촌이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이런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그렇게 융합해가지고 같이 살기가 진짜 지금 참 힘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텃세 부리는 거죠. 이게 변화를 좀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귀농·귀촌 분위기가 좀 변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변화를 싫어하고 하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지금은 이제 뭐 면 단위에 가면 특히 자기가 살고 있는 거짓 다 모르는 분들이예요.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거진 귀농·귀촌인들이 이런 단체 활동이나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우자경 안 해서 제가 전화해서 아무리 해주라고 해달라고 안 하는데 이게...

이나희 그러니까 두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정말 이런 어울리지 않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좀 봉사를 하더라도 편하게 살고 있어서 들어오셨다.

이나희 그렇지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딱 두 종류.

조미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여기 선생님도 농촌 마을을 다 이제 조직을 다 이해하기 힘들신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딱 들었는데 어느 마을은 회비를 내야 되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1/n해서 60만 원, 70만 원 갑자기 내라고 하면 아니, 내가 살러 들어왔는데 이 마을에 들어가는데 돈을 70만 원씩 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정말로 새마을 지도자가 갑자기 되면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야 새마을 지도자 감투 씌우고 “너 그러니까 돈 내놔.” 그래서 70만 원 한 사람은 냈고 한 사람은 “난 안 들어가고 안 할래.” 이래서 안 냈고 저희도 부녀회에 제가 총무를 한 6~7년 하고 있는데 부녀회는 정말 봉사잖아요. 마을에 일하는 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예를 들어 300만 원 모여 있으면 n분의 1에서 들어오는 사람 새로 온 사람한테 “30만 원 내고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통장을 새로 하나 0원짜리 만들어서 그냥 받으시라.” 얘기를 해도 아직은 납득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해서 돈을 없애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조직도 만나는 사람 웅양에는 지금 거창에는 지부가 전체 귀농인 카페도 있고 연합회가 있고 각 지부도 있어요. 웅양에도 지부가 있어서 단독방에다 사람이 모이고 하는데 다 낯선

사람들이예요. 나이도 다양한 것 같고.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거기서 활동 안 해요. 맞아 또 각자 왜냐하면 모인다고 한들 이게 또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성격도 다르고 이러니까 더 이게 좀 약간 합쳐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윤애순 반대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이제 저는 저희 동네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아까 신원이라고 했잖아요. 친정이 거기 동네에는 원래 어른들이 노력해서 모아놓은 돈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이제 귀농이나 그 자녀들이죠. 들어와서 이장들을 하거나 이러면 이 어르신들은 “그럼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으니까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자주 놀러도 가고.” 그럼 이 젊은 분들은 그러면 좀 호응을 해주고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돈 뭐하려고 쓰냐고. 그냥 놔두면 되지요.” 뭐 이런 식으로 도리어 안 하니까 이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이제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른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거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왜 그걸 너네가 몽땅 먹으려고 들어?” 딱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갈등들의 해소점은 누군가도 해줘야 되지 않아.

김정미 근데 이제 조직이 너무 이렇게 작게 작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조직끼리만 뭔가 이렇게 되고 조직과 조직들 간에 이렇게 전체 무슨 마을의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면하고도 그렇고 이렇게 또 그 조직 위원들하고도 그렇고. 또 이장단은 이장단 따로. 위원회는 위원회 따로. 서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경쟁하는 “저쪽 팀은 어떤 저기야?” 하면서 서로 막 경계하는 것들도 있고 조금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소통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끼리끼리...

우자경 지금은 조금 왜냐하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아까 일자리하고 같은 식으로 그거는 지금은 조금 소통이 저는 잘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단체가 최고! 우리가 최고!” 이래 했다면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중복돼 있고 저기도 중복돼 있으니까 니 이야기 내 이야기 모르는 게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자동으로 되던데.

김정섭 근데 이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역마다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에 이렇게 쪽 있던 조직들은 사실은 다 늙고 사람 죽었지만 사람은 줄고 늙었지만 그렇다고 조직은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조직들은 사실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말씀하신 그 조직들만 모아놓으면 소통이 잘 될 거예요.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조직들은 하도 오래돼서 수십 년 된 전통이 70년대부터 있던 거니까 질서가 있죠. 질서가 뭘 어떻게 한다라는

규칙이 있고 근데 최근에 귀농인들도 들어오고 뭐가 자꾸 생기고, 그다음에 무슨 정부 보조 사업 할 때마다 뭐 하나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생긴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전통적인 질서하곤 다른 조직인데 이걸 면에다 다 모아놓고 보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이제 앞으로 정리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역사회 분위기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너무 늦게까지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보통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제가 오늘 나온 얘기를 짧게 요약해 확인을 받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내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관점은 그러니까 저희 연구는 결국은 정확하게 연구 과제의 제목이 뭐냐 하면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 정책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뒤에 전환이라는 말이 되게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출산율 떨어지고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는 게 뻔한데 농촌 정책은 이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농촌 정책이라고 하면 농식품부의 거점 조성 사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정책 중에서도 농촌의 보건소 관련된 거 교육부의 학교 정책도 농촌 학교 하니까 이런 걸 다 싸잡아서 농촌 정책에 발상을 아예 좀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연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안 하기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서에 결론을 낼 텐데 그 결론에 절대로 쓰지 않기로 작정한 얘기가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이민을 받든 뭐 하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귀농·귀촌을 거창에서 많이 받으면 (다른데가 줄줄) 예 그런 거여서 그런데 뭐 아이도 많이 낳고 귀농·귀촌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책을 만들자라는 얘기는 일부러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무슨 대책이나 결국은 10년 15년 뒤에는 거창군도 예를 들면 인구가 줄고 지금보다 더 고령화될 텐데 그래도 사람은 남아서 살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적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그때 가서 적응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까지 적응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적응해야 될 중요한 분야나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미리 힌트를 주면 안 좋은 생각인데 예를 들면 야 고령화되니까 노인 돌봄 문제 이걸 지금부터 대비해서 적응해야 될 거 아니냐 노인 돌봄, 영유아 보육이 중요한 문제 아닌가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식의 분야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건데 하나씩만 생각을 해 오셔서 내일 오자마자 그걸 다 들은 다음에 시간이 짧아서 그중에 표수가 많은 거 두 가지만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분야에서 적응하고 하려면

지금부터 무슨 대비를 필요한가 그래서 국가는 뭘 해야 되고 뭘 했으면 뭘 준비했으면 좋겠고, 지방자치단체는 뭘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두 건에 관해서만 내일 두어시간 정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약간의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렇게 그냥 쪽 듣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적응하고 대비해야 될 중요한 분야 하나씩만 생각해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구 늘리자, 귀농·귀촌 많이 받자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무장하자 이런 얘기는 내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씩 어느 분야를 준비할 건가 생각해 오셔서 내일 1시 반이었던가요? 그때 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9

C그룹(홍성군, 50세 미만 여성)

1. 개요

- 일시: 2024년 4월 4일(목), 13:00~15:30
- 장소: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센터
- 참석자: 연구진 2명 외 홍성군 거주 50세 미만 여성 7명

홍성군에 사는 50세 미만 여성 주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 및 초고령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여러 영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 지역의 젊은 세대는 자녀 교육 문제와 경제적 이유로 읍내나 도시로 이주

하고 있어, 마을에 남은 인구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특히 마을 내 어린이와 젊은 인구가 감소해 아이들이 또래 친구를 찾기 어렵고, 공동체 생활이 약화되고 있다. 젊은 층의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농업을 비롯한 지역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노동력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1.2. 생활의 불편함

지역 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사거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읍내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응급한 상황에서 약을 구하기 어려우며, 의료 서비스와 약국의 접근성도 낮다. 교통 편의성도 큰 문제로 꼽힌다.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차가 없는 주민들은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통학 문제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1.3. 사회적 유대의 약화

마을의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문화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 단체 활동에 참여할 인원이 부족해지면서 지역사회 주민 단체들이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회, 부녀회 등 조직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4. 제안된 해결 방안

1.4.1.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공립유치원이나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청년 주택이나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2. 의료 및 교통 서비스 확충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식 의료 서비스 도입이나, 농촌 맞춤형 의료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읍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가 중요하다. 대중교통 노선을 재검토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통학 차량이나 주민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1.4.3. 농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청년 농업인 지원과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및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여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초점집단토론 내용

김정섭 해보니까 보통 한 째으면 2시간 길면 2시간 40분. 그러니까 아마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한 3시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아는 분은 지금 보니까 두 분이고. 나머지 분은 모르는데 서로 다 아세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원래 좀 농담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유들유들하게 만들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없어서 항상 초반전에 고생을 합니다.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이숙연 선생님부터 짧게 한 30초 안에 이름, 사시는 곳, 하시는 일, 그다음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혹시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 관심사가 없으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숙연 저는 도산 2구에 사는 이숙연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동네 부녀회

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여기 장곡, 예.

장이연 저도 장곡의 도산2구에 살고, 여기 협업농장 앞에 있는 도에서 지은 청년주택 여성용 청년주택인데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장이연입니다. 그리고 협업농장에서 뒤편도 따고, 회계 일도 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잘한 잡무 같은 거를 맡고 있습니다.

이화선 안녕하세요. 저는 장곡면 지정2구에 살고 있는 이화선라고 하고요. 저는 어떤 특별한 직업이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 키우고 싶어서 시골 내려와서 아이들 키우고 있으며 주로 학교와 마을학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채 안녕하세요. 저는 결성면에 살고요. 저도 학부모 회장 일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학교 대표를 맡고 있어요. 아이들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채입니다.

오도향 안녕하세요. 저는 오도향이고요. 사는 곳은 결성이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마을에 이제 참여하는 건 없고 저는 출퇴근을 홍성으로 이제 장애인 복지관, 이제 활동보조사로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고. 관심사는 아직은 아이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관심...

김정섭 이렇게 긴 이런 거 이름 써놓으니까 긴장되지요? 긴장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긴장을 푸시라는 뜻으로 녹음을 하잖아요. 목소리가 다 비슷해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키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보고 적고 그러면 초반에 딱 들으면서 목소리를 익히는 거야. 이진 누구 목소리구나. 그래야 나중에 이걸 글로 다 옮길 때 저희들이 녹음한 걸 글로 다 바꾸거든요. 오늘 얘기하시면 아마 한 30페이지 정도 나올 건데 그때 이제 헛갈리지 않으려고 붙여놓은 거니까 긴장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필요해서 해놓은 겁니다.

조옥현 저는 조옥현이라고 하고요. 주소지는 장곡면으로 되어 있고 주 활동지는 광천에서 농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청년농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지역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제 교육도 기획도 공부도 하고. 각자 이제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네트워크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아무래도 일적인 거 하는 거겠죠.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하는 거 하고. 아이들이 이제 3명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김정섭 일단 소개는 했으니까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아마 그 결과로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홍성에서도 내포 신도시 쪽이나 홍성읍은 안 그럴 테지만, 보통 장곡이나 면 지역은 전국의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 경험담을 듣자고 오늘 모인 겁니다. 사실은 그전에 이제 그냥 몸풀기 조로 이번엔 이쪽부터 들어올게 짧게 그냥 이제 소감, 그러니까 느낌만 얘기해주세요. ‘인구 감소’, ‘저출생’, 요새 또 뭐라고 그러지, ‘지방 소멸’, ‘고령화’ 이런 얘기를 오며가며 한두 번씩은 적어도 한두 번씩은 들으셨을 텐데 기분이 어때요? 느낌이?

조옥현 좀 그래요 왜냐면 막둥이가 지금 막내가 이제 큰애가 중학생이고 막내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또래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반에 이제 7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만 딸이에요. 7명 중에 여자애가 한 명이라 그래가지고 또래도 없고. 다 위아래로 이제 남자친구들이고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집에서 언니 안쪽으로 언니들이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어우렁더우렁 이제 살면서 이제 아이들이 겪는 일상생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도향 이제 지금 막 면 단위들이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골을 이제 살려주기보다는 더 큰 도시, 큰 읍내 쪽이나 이제 내포 신도시 같은 쪽을 이제 계속 그쪽으로 좀 많이 발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더 그것 때문에 더 인구 감소가 오지 않나 좀 그런 생각...

김정섭 송 선생님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런 얘기 들으면서.

송민채 이제 시골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여기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물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기도 좋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을 너무 진짜 잘 키우고 싶는데 저희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악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내로 나가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애들이 아토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면역력도 좋고. 근데 도시를 보면 거의 매일 감기를 달고 살고, 아토피 때문에 피부도 안 좋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애들이 너무 건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잘 키우고 싶는데 너무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시내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생겨요. 그런 생각이 안 생기게끔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좋겠는데. 항상 문제점은 어느 시골이든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시골에 들어올 수 있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계속 시내로 나간 이유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김정섭 돈 벌러 나가는 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간다.

송민채 예,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김정섭 여기서 시내라고 하면 저 흥북 아니면 (읍이나 흥성 신도시, 내포...) 이 선생님도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저출생 이런 말 들으면 그냥 어떤 기분이 드느냐 이거를 짧게 기분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화선 약간 기분이라고 하니까 그 느낌? 약간 걱정이 좀 염려가 많이 되고 특히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 때는 괜찮겠지만 그다음 미래가 조금 암담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니까 면 소재지에 유일하게 있는 것들이 교육기관들이 어린이집 하나, 장곡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하나 병설 유치원도 몇 번 문을 닫을 위기가 왔다가 지금은 유지 중에 있긴 한데. 유치원 하나, 그리고 학교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점점 급격하게 줄고 있고 그랬을 경우 학교가 사라지면은 면 소재지의 어린이들이 지낼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이들이 왔으면 그에 따른 또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암담함?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김정섭 장곡에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이화선 겨우 힘들게 이제 오픈을 했는데 (언제 생겼어요?) 그게 저희가 내려올 때부터 계속 하나 어린이집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거의 8년 전에 시도를 계속하다가 이제 무역흑자 끝에 오픈, 이제 이 개원한 지는 한 5년 됐나요?

조옥현 5년 더 됐어요.

오도향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바로는 못 하고 하다가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아이가 2명 있는데 맞아요.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어린이집도 힘들게 열었는데 또 존폐 위기를...

조옥현 그러니까 너무 좁은 공간에 그때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3살 때 어린이집을 갔는데. 좁은 공간에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그리고 선생님도 너무 벅차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살 때는 바로 그냥 유치원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오도향 그때는 그랬지만 그때는 그래도 좀 애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없어요. 공간이 넓게 느껴지는 애들이 더...

조옥현 그 애들이 너무 없어서.

오도향 들어올 아이들이 없어서 그럴 때 저는 확 와닿습니다.

조옥현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정작 이제는 아이들이 없어서.

김정섭 장이연 씨는?

장이연 그냥 이 말만 들으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먼 세상 얘기인 것 같고. 그냥 ‘누군가가 어떤 현상을 보고 저런 단어를 붙였나 보다.’ 이렇게 남 일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상황에 놓이면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안 낳았고. 그런 거에 딱히 막 “내가 결혼을 빨리 해야 돼.” 이런 생각도 없거든요. ‘나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아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문득 문득. 그리고 그냥 길을 가다가도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장곡에서도 일을 하고, 흥동에서도 일을 하는데. 이제 두 개의 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못 마주치거든요. 젊은 사람 없고. 그러면 그냥 하다못해 장곡면에서 흥동면 넘어가는 길만 해도 인도가 없어요, 차길 옆으로.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차도 옆으로 이렇게 다니고. 제가 맨날 그 차를 이렇게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단어들도 갑자기 문득문득 떠오르는...

김정섭 이제 막 오셨는데 김난영 선생님 먼저 이제 하시는 일하고 어디 살고 계신지, 혹시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야 같은 게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그러고 나서 저기 써 있죠. 저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느낌 기분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김난영 네 짧게요. 저는 은하면에 살고 있고요. 은하에서 은하 마을학교 매니저로 운영하고 있고 원래 본 직업은 문화예술 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지역, 그리고 계속 대학교를 나갔다 오고 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된 케이스고. 지금은 마을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섭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오늘 주제가 지방 소멸 저출생 고령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김난영 너무 무겁네요. 실은 너무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고요. 제가 이제 마을 사업도 같이 하고 아이들 마을 학교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몸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지방 소멸은 이제 어쨌든 사람이 없어지면 지방 소멸은 당연히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 평균 연령, 뭐 이런 걸 봤을 때 면의 평균 연령을 봤을 때, 젊은 층 그리고 아이들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면이 은하면이고요. 네 그래서 실은 저희 은하에 위치하고 있는 은하초등학교도 이제 통폐합 얘기가 계속 작년부터 오고 가고 있어서 저의 일거리도 줄어들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엄청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지역에 미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농촌에서 사는 게 저는 좋은데. 저도 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좀 처음에 딱 요청을 받고 좀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출산 고령화라 해서 저도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도 되나?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마을 이렇게 사람들 같이 만나서 문화예술을 하든 처음엔 문화예술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내는 이 관계가 너무 좋은데. 이것을 도시에 있는 사람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고, 최근에는 또 무슨 촌캉스 이런 거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시골로 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골을 체험해보고 싶다. 이 정도기 때문에 미래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보이기 싫습니다.

김정섭 이숙연 선생님 느낌을 얘기해 주세요.

이숙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 낳은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애 아빠가 여기가 고향이에요. 근데 애 아빠 친구들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가신 분들이 여럿 해요. 근데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아무리 뭐지 그것도 결혼을 해야 애를 낳잖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는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외국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또 결혼을 하고 없이 오시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해서 또 결혼하기는 또 싫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도 오래돼서 애 낳은 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문제점을 찾는 것도 어렵고. 이제 애가 막내가 지금 대학생이 거든요 저희는. 그래갖고 딱히 근데 또 시골 같은 데 다녀보면 애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저희 도산리 쪽도 여기 문영기 씨 빼고는요. 애가 아예 없어요. 애가 울음소리가 그친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김정섭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저기다 ‘지난 10년 동안’이라고 적어놓기는 했지만 꼭 10년에 한정하지는 않고요. 더 오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는데 최소 5년 이상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홍성 지역에서 이 농촌에서 사시는 동안 그동안에 지역 보면 계속 변하잖아요. 뭐가 변하든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변한 것 중에 인구가 줄거나, 고령화되거나, 아이가 안 태어나서. 이

런 ‘인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 같다.’라는 걸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이제 대략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변화가 무엇인가 이제 조금 아까 몇 분은 저거를 벌써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애 안 태어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오도향 고령화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노인 일자리가 많아졌죠. 젊은 사람이 이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많아지시고 하니까 노인 일자리를 이제 그 자리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김정섭 예를 들면은?

오도향 이제 학교 앞에 이제 그 통학도우미. 그런 것도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해 주시고. 돌아다니면 항상 이제 다 노인 그냥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제 다 돌아다니시면서 뭐 이제 청결 유지 같은 것도 하시고.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것도 이제 관리도 거의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해 주시고.

송민채 거기에 대해 조금 보태면요. 마을버스 정류장 의자도 할머니들이 나오셔갖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닦으세요. 그리고 마을회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잖아, 이제 놀러 오시면 그것도 이제 오시면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밥을 해줘서 해 주시면 이제 이제 정부에서 얼마씩 또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 있어서 이제 그걸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장이연 태어난 아기는 없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요즘 들어서. 어제 한 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노인 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노인들을 위한 혜택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을 위한 혜택은 없다.

오도향 마을에서나 지역에서 보면 각 연령층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청장년들이 없잖아요. 우스갯소리로 ‘60대가 청년회 회장이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 그러니까 마을이나 지역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연령대에 학교에서도 맞아요. 청장년 이제 30~40대가 해줘야 적어도 50대에서 해줘야 할 이제 그런 일자리가 있어도 할 사람이 없고.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또 장곡면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원래 장곡면의 학교가 초등학교 3개 있었는데요. 2개가 통폐합이 돼서 지금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그게 불과 10년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김정섭 조금만 예를 들면 마을에서 뭐 하여간 연령대별로 해야 될 일을 이제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 한다는데 예를 들면 마을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청년회가 하던 일, 예를 들면?

송민채 부녀회도 그렇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시니어 클럽 들어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청소 같은 거면 뭐 무슨 청을 만들어서 판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 노인 위주로.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안 돼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의 노인들이 살기 위한 혜택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계속 시내 쪽으로 나가고 노인들만 있으니까 마을에 발전이 없는 거죠. 10년 동안 발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홍성에 온 지가 한 10년 됐나요.

오도향 마트에 가면 아기용품이 없어요. 맞아요. 급하게 이제 막 사고 해야 되는데 못 마트도 진짜 다 노인분들 이제 좀 위주의 이제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송민채 아이들이 시내로 시내 쪽으로 이제 학원은 다니는데 학원을 가서 학원 주변에 있는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게 다 신기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트는 살 게 없는데 그 시내 쪽에 문구점 이런 데 그런데 되게 신기하고 그러게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애들이 누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김난영 올해 버스 배차도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배차 시간이란 기사랑 뭐 어쨌든 이제.

송민채 면 단위에는 다 똑같은 불만들이 많죠. 학부모들이...

김난영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동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버스로 가면 다 시내까지 이제 갔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이제 “버스 타고 와,” 소리를 못해요. 솔직히 무서워서 맞아.

오도향 그건 맞는 거고 왜냐면 장곡에도 중학교가 없고 하니까 이제 중학교부터는 이제 홍성 각지로 다 진짜 여기 장곡면이 이제 면적이 꽤 넓어요. 길도 넓어서 학교를 다 중학교를 홍성부터 해서 광천, 홍동, 이렇게 다 떨어져 가는데, 배차가 진짜 안 맞으니까 애들이 부모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진짜 등학교가 힘든, 그것도 하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김정섭 이연 씨가 보기에 여기 10년 이상 살았잖아.

장이연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 원래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괜찮은데 그 버스가 줄어든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변화라고 하니까 딱 뭐가 떠오

르지는 않는데 뭔가 이렇게 망가지거나 하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처음에 여기 흥성 내려와서는 초반에는 흥동에 살았고. 그다음에 그 뒤로 장곡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집이 없으니까 지정 1, 2구 살고 지금 도산2리 살고 있는데. 그 흥동, 장곡만 해도 차이가 크거든요. 흥동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고, 뭐라 해야 되지 시장도 훨씬 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데 뭐가 망가지거나 제일 큰 차이는 그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 이상하게 흥동면은 다 바뀌었거든요. 깨끗해졌어요. 길에 디자인도 바뀌고 의자도 바뀌었는데 장곡은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등이 나가거나 뭐가 망가지거나 하면 흥동까지는 들어오거든요. 밖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바뀌어...

조옥현 얘기를 하더라도요. 희라가. “흥동의 정류장은 의자가 따뜻하대.”

장이연 맞아요, 따뜻해요. 무슨 탄소의자? 그거 있잖아요. 겨울에 따뜻하게...

오도향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이렇다는데...

조옥현 그러니까 흥성읍은 아예 최첨단 정류장으로 바뀌었고요, 에어컨 나오는. 근데 흥동읍은 엉덩이 따뜻한 것까지는 왔거든요. 근데 장곡면은 그 옛날 부서진 그대로...

오도향 저희 동네도 그렇고 시설에 저희 동네 정류장은 아직도 이제 벽돌로 쌓아올린 정류장이예요.

김정섭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같은 것도 망가지면 인구가 적은 면단 지역에서는 쉽게 안 고쳐지고. 새로 들어오는 시설도 업그레이드가 늦고 탄 데도 그렇다는 얘기죠.

오도향 군에서 하는 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런 게 학교 같은 경우도 뭔가 개선을 해달라고 하면 애들 이제 전교생 해봤자 30~40명인데, 거기에 투자하느니 큰 학교에 투자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래서 방과 후 교사들이 이제 좀 면 단위의 이제 학교로는 이제 잘 배치가 배치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좀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김정섭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과 후 교사를 배치를 안 한다는 얘기는 ‘면 단위 학교 예산은 안 준다.’ 이 뜻인가요?

오도향 교사들이 안 나오려고 한대요. 이제 거리도 멀고 이제 학생 수도 적으니까.

김정섭 교사들이 방과 후 수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도향 저희가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교사분은 이제 수락을 안 하시는 거죠. 이 근데 왕복하는 이제 시간이 이제 더 걸리고 하나까...

김정섭 그 교사라는 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강사죠?

오도향 네 외부 강사.

김정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저 읍에서 학원 강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만한 분이 몇 단위 학교로는 안 다니겠다.

조옥현 맞아 최근에 우유 배달을 안 해줘요. 장곡면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는. 그래서 멸균 우유로 바뀌었어요.

송민채 학교가요?

조옥현 작년까지는 생우유였다가 올해는 그게 너무 어렵고 학교 측에서는 애들은 우유를 먹이고 싶고. 그래서 대안이 멸균 우유를 한 달에 한 번 갖다주는 걸로.

김정섭 그러니까 우유 업체에서 학교에 우유를 갖다주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조옥현 그거를 매일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 그걸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송민채 최근에 그게 있었던 이제 면 단위는 이제 애들 수가 적으니까 이 몇 명 때문에 그냥 빠르게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한 번 들렀다가 이제 가야 되는 게...

조옥현 그러니까 신선식품의 그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난영 근데 우유 배달은 코스로 하는 거잖아요. 원래.

조옥현 근데 이제 그 코스가 여기까지 들어오기에는 기름값이나, 인력비가 이제 업체 측에서는 더 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오도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광천에 있는 우유 배달 업체였는데 업체가 아마 좀 거기 광천도 인구가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아마 그 업체도 유지가 힘들고 하나까 거기 이제 이제 올해는 안 돼가지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려고 하나까 이제 “읍에서는 못 들어 오겠다.” 이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김정섭 김난영 선생님께서는 느끼시는 좀 체감하는 변화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김난영 일단 경제활동이 아주 많이 줄어서 군 단위도 지금 심각할 정도로 임대 문의 이런 게 진짜 많고요. 소위 읍내라고 부르죠. 명동거리, 거기가 진짜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태고.

김정섭 명동거리라면 조양문...

조옥현 다들 문을 옛날에는 진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한산한...

오도향 지금은 아예 상관이 이제 아예 다 죽어가지고...

김난영 그렇다 보니 이제 면에서 하는 면에서 상권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희 다른 면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면은 미용실 하나 없어요. 약국도 없고요. 있는 거는 중국집 하나 한식집 3개.

김정섭 식당이 4개나 있네요.

김난영 그리고 마트는 하나로마트 조그만 거 그거 5시까지 하면 문 닫는 그게 하나 있고... 보여드릴게요. 편의점도 있잖아요. 편의점도 있어. 그리고 저희는 결성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무슨 치킨집도 있었는데 안 팔리니까 그냥 또 문 닫아버리고. 찻집도 문 닫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돈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섭 이숙연 선생님께서는 느끼시는 변화는 어떤 겁니까?

이숙연 그러게요 저희도 일단은 여기서 사니까 가게도 멀고 장곡 농협도 일단은 6시 인가 5시 반이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희도 흥동으로 8시까지 할 거예요. 저희도 흥동으로 가요. 근데 애 아빠가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과일이 먹고 싶다고 혼자 가고 같이 가자고. “나 안 갈래요.” 그러고 안 갔거든요. 근데 확실히 인구가 적으니까 문을 확실히 더 빨리 닫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치킨집도 저희가 치킨집이 2개예요. 여기가 2개인데, 근데도 재작년인가까지도 늦게까지 열었는데 올해는 늦게까지 여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김정섭 그래요. 또래오래 일찍 닫아요, 요새?

오도향 9시에 닫는 것 같아요.

김정섭 2018년에는 11시까지도 했는데.

오도향 맞아요 그 하나 있는 또 다른 치킨도 문 안 여는 날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용을 많이 안 하니깐.

이숙연 정도로 인구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제 인구가 줄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안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또 흥성으로도 안 가고 내포로 가요 옆으로.

오도향 내포가 문제인 것 같아.

송민채 그리고 흥성에서 사시는 분도 거진 이주를 다 내포로 가셨어요. 그래서 흥동 명동거리가 솔직히 말해서 부딪힐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모아야 된다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무슨 행사를 해야, 무슨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 인데 뭐를 하나 개발을 해갖고 특산품을 개발하든가 해갖고 모이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방법은 희박한 얘기고, 내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는 뭘 대책에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큰 학교가 들어온다든가 대학교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있는 대학교도 다 닫았잖아요.

김정섭 어느 대학이 없어졌어요?

조옥현 해전대가 탄 데로 갔을 거예요. 아니 청운대학교 일부 과가 다른 데 가긴 했는데. 지금 이제 있는 학교 해전대, 청운대도 학생 수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좀 많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옥현 그리고 거기 이제 예전에 신성역이 신설이 됐었는데 운영 안 하잖아요. 거기가 예전에 그래서 “상권이 이제 많이 더 많이 활발해질 거다.” 한참 그랬던 것 같은데 아예 역도 안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신성역 썼거든요. 맞아요 맞아 근데 지금 역도 안 쓰고. 상권도 안 좋고 학교는 이제 일부과는 가고 그렇죠.

김정섭 지금 일부 얘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 다음 질문은 저희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좀 초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 지금 이미 벌써 좀 얘기들 해 주셨는데, 뭐가 없어져가지고 불편해지거나 심한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많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서 좀 심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인구 줄고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막 뭐가 줄어들거나 없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어떤 것,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살아가려면 내가 필요한 걸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돈 주고 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 미장원 이런 돈 내고 머리를 해야 되니까 있고, 또 어떤 거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 내가 직접 돈 내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학교 이런 게 있는데 국가나 군청에서 해줘야 되는 건 좀 이따 여쭙볼 거고요. 지금 시간에는 돈 주고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데 뭐가 됐든 굉장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말하자면 내가 ‘돈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불편해졌다.’ 이런 것들이 아까도 몇 개는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파란색 매직을 큰 글씨로 거기다 붙여놓고 볼 거니까 한 장에 한 가지씩 해서 여러 장을 좀 적어주세요. 한 장에 한 가지씩 해서 몇 장을 적어주세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해진 거 인구 줄고 고령화되면서 특히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 예 돈 주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어려워진 것 이런 것들을 한 장에 한 가지씩 쪽 붙여서 제 생각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써서 저쪽 유리창에 붙여주세요. 아예 구할 수 없게 된 것도 있고 구할 수는 있는데 예전보다는 어려워진 것 더 불편해진 것, 뭐 미장원 갈 수 있죠. 흥성 어딘가에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면사무소 앞에만 가면 됐는데, 이제는 그리고 본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옆집에 사는 다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다른 남자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불편해진 것 같다 싶으면 여러 장을 적어주십시오.

김정섭 예, 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딱 알겠는데 그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친구’라고 쓴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송민채 결성초등학교 총인원이 13명밖에 안 돼요. 교육적으로나 좀 부족한 게 없는데 부족한 게 친구가 많이 없다는 것.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시내 쪽으로 다니긴 하는데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이들 많은 데로 찾아서 다니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못 쓰지.

김정섭 그다음에 저기 ‘길 설명’ 저건 무슨 얘기인가요?

장이연 그러니까 뭔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 센터 이런 건 알지만, 보통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는 큰 건물 상가 같은 걸로 길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차 배터리 나가서 긴급 출동 불렀을 때나 택시 타고 집에 와야 되는데 마을회관에서 우회전해가지고. 그 좁은 길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아저씨는 계속 화내고. “왔는데 차가 없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그런 일이 대개 있는 것 같아요.

김정섭 배달 안 된다는 얘기는 주로 먹는 거 배달...

송민채 그렇죠 먹는 거 배달도 안 되고.

조옥현 돈 만약에 배달해준대도 돈을 더 받아요.

송민채 맞아요. 돈 더 받고 그리고 저기 또래오래 아저씨도 전에는 두 마리로 배달해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세 마리... 사람 막 끌어 모아서 두 마리 만들었거든요. 전에는 두 마리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는 안 해주되 “여기 바로 앞인데 안 될까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치킨도 비싸졌는데 그렇지 배짱 튕기는 건 거기 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거 말고도 뭐 당연히 다른 거 다 배달 안 되고...

조옥현 우리 애들이 배달 관련해서 한번 얘기할 건데요. 내포에 가서 배달을 시켜서 집에 갖다 주니까 “엄마, 저런 것도 있어?” 이러는 거야. 우리 애들이 약간 그 무인도에 살던 애들처럼 그럴 때 가장 슬퍼요. 진짜.

김정섭 위에 거부터 이제 이미 해 주신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잠깐 제가 다시 좀 여쭙고 경험담 같은 게 있으면 한두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음식점이 아까 어디는 꽤 있던데 결성이었던가. 음식점이 많이 줄었죠. 몇 지역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오도향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거의 어른들이 이 시골에는 많이 계시니까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한 번씩 먹고 싶다고 하면 꼭 읍내로 나가야 하니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다는 그런 불편함.

송민채 또 음식점이 늦게까지 안 해요.

오도향 9시에 다 문을 닫아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집밥을 계속 해 주죠. 집에서 밥을 계속 하고...

송민채 귀찮을 때도 있어서 배달 업체를 이용하고 싶은데 배달은 아예 안 되니까.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야밤에서 시내를 나가야 해요.

오도향 맞아. 한 번씩 먹고 싶다는 거...

송민채 애들인지라 피자, 치킨, 이런 거... 진짜 결성에 결성치킨이 있지만 요즘에 브랜드에 있는 치킨이 많잖아요. 맛있는 거. 그런 걸 또 굳이 어떻게 찾더라도 이제 요

즘 저기 유튜브를 보고 애들이 거기 알고 막 무슨 치킨 먹고 싶다고 왜냐면 나는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검색해가지고 찾아갈 정도로.

김정섭 마트, 슈퍼, 이게 소소하게 뭘 사러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아까도 몇 번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어요. 읍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까?

조옥현 왜냐면 마트에 가도 (기본적인 뭐가 없어요.)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마트가 문을 빨리 다른 불편함도 있지만 종류가 없어요.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이나 이제 그런 게 거의 할머니들이 자주 찾는 물건, 잘 팔리는 물건들을 갖다 놓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면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없어서 그럴 때는 한 번씩 그때 가서 사 올 수밖에 없는...

김난영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보통은 그렇게 물건을 안 사는 하나로 마트나 아니면 조금 이제 늦게까지 여는 마트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이 끝나면. 그러다가 어제는 급하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대접을 해야 되니까 시장통에 있는 떡집에서 떡을 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동네 슈퍼에서 뭐냐 두유를 샀어요. 근데 아무도 두유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신 다음에 봤는데, 유통기한이 표지에 2002년 뭐 어찌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2024년인데 설마 유통기한이 지났나 라고 봤는데 두 달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은 못하고 유통기한까지는 안 지났는데 임박한 거를 내가 내놨더라고요. 거의 2년이 다 지난.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내가 물건 기껏 사왔더니, 되게 민망했어. 다행히 다 드시는 건 이제 제가 새로 누가 이제 꽃차를 주셔서 오픈해서 “이제 이거 되게 좋은 차래요.” 하면서 드렸는데 그것만 드시고 가셨거든. 근데 왜 온전히 이게 다 이렇게 있지? 이거는 2022년, 계산이 안 되더라고.

김정섭 여기 이제 자녀가 학교 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문방구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어요?

오도향 없어요.

김정섭 요새 다 학교에서 해주니까?

오도향 예. 저희 작은 학교라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불편하지 않아요. 사실 교육적으로.

송민채 100% 다 지원을 해주니까.

오도향 학교에서 준비물이 없어.

조옥현 마찬가지로 그거는 문방구 지금 문방구로 가면요. 오히려 덤탕이를 쓰여요.

조옥현 파일, 10개 있는 투명 파일을 사려고 이제 문방구를 갔는데 1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이제 돈은 냈는데 그래서 이제 문방구를 진짜 가가지고 시내에 있는 문방구 가서 했더니 3천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요새 진짜 막... 하....

김정섭 장곡에 문방구가 있어요?

조옥현 문방구에는 없어요. 광천에 광천. 근데 이제 주말에 여는 문방구가 사실 없으니까, 주말에 그랬다가 또 육은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랬죠.

김정섭 여기 학교 차량이라고 적어주신 분은?

송민채 네. 저희 1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해마다 이제 관광 어디 회사가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김정섭 무슨 얘기입니까?

송민채 통학 차량...

김정섭 결성 초등학교 거기서 학교에서 관광버스...

송민채 은하만 해도 은하 개인 차량이 있더라고요.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매 해마다 이제 계약을 해서 km수만 딱 달려야 되는 그런 조건이 딱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차량 지원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안 되고 맨날 하는 게 은하랑 우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은하는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많았는데 그때 무리는 없었나 봐요.

김난영 그게 저희 은하 은하초등학교 버스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배정해줘서 오는...

송민채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청이 아니다. 우리는.

김난영 그냥 그냥 계약하시는 거죠?

오도향 그래요. 장곡도 매년 계약해요. 그거 그게 매년 이제 운전기사분이 이제 매년 이제 다른 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송민채 적응하기가 힘들어... 개개인마다 다 성격이 있고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에 맞추다 보면...

오도향 좀 까칠하신 분 걸리면 애들이 차를 타는 내내 이제 좀 눈치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애들이 되게 눈치 되게 많이 봐요. 기사님 안 들어줄까 봐 버스 좀 빌려줘요.

김정섭 병원 약국을 써주신 분이 꽤 많은데 약국이 더 많네. 병원보다. 그 실상을 누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지역인가.

송민채 동네 약국이 없을까 저는 아플 때.

장이연 제가 쓴 거는 그전에 흥동에 편의점 자리 그 옆에 원래 약국이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지금 문 닫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그 중간까지는 이렇게 할머니가 하고 싶은 때만 하셨다 해야 할까?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낮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 무슨 요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더 많이 하셨겠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약속은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 짧게 하셔서 그때 맞으면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문을 닫는다고 한 것도 한동안은 약국은 있는데 문을 안 열고 계시는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을 최종적으로 닫으셨는데 그걸 그 자리에 CU가 생겨서 그래도 약은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이 CU에서는 약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국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취급하는 편의점이 있고 아는데 여기는 안 팔고. 그래서 그 비상시에 읍내까지 나가야 되고. 그래도 늦게까지 하는 거 몇 개를 찾아서 밤 10시... 그리고 연중무휴인 약국 이런 데도 있어서 주말에도 살 수 있고. 이거는 좀 변화를 느낀 것 같아요. 그나마 있긴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김정섭 읍내에 있으니까 그래도 급하게 읍내까지 가서 약을 사겠다. 이것도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장이연 근데 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약국을 꼭 가서 사는 편인데 진통제, 두통.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운전도 못 하는 거죠. 한 하루 정도 끙끙 앓다가 이제 가거나 누구 차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요.

김난영 저희는 약국도 병원도 병원은 보건소에 있었고. 약국은 없어진 지가 한 20년도 넘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병원도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조옥현 여긴 약국이 아니라 약방. 여기 중간중간에 외출할 땐 문 잠궂고.

김난영 그래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마트도 없고 약국도 없고 그러니까 실

은 여기에 많은 것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원래 뭐 배달 안 되고. 원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흥성 나갔을 때 가서 사 오고. 여기에 있는 건 대다수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게 가장 클 때는 좀 이런 거죠. 오늘 생맥 먹고 싶은데, 생맥 한 잔이 없어. 돈은 있는데.

송민채 생맥 한 잔 먹고 대리 불러.

오도향 맞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김난영 그러니까 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나가서 살 데도 없어서 정말 몸을 안전하게 해주고요. 치킨을 자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돈 쓰는 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시골에 있으면.

송민채 아니 아기가 없어서 그래요. 아기 있으면 찾아서 가야 되는데.

김난영 그래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회관에 이제 조금 쟁여놔요. 막 술, 약도 그쪽에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당장 뭐가 없으면 술이나 이런 거는 빌릴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 두 배로 갚아야 되지만. 말이 그냥 2배고 그냥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오도향 다시 채워 놔야...

김난영 네 먹고. 필요한 거 갖다가 쓰고 다시 넣어놓고. 근데 약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회관 비밀번호 다 알려드리고 급한 일 있으시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제 대안이...

오도향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막내가 아직 조금 어리거든요. 그 아픈 애를 데리고서 또 흥성까지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나와야 되고. 병원에 또 사람이 많으면 또 거기서 한참 기다렸다가 집에 오면은 그게 거의 한두 시간을 다 잡아먹고. 이동하는 데만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이러니까, 아픈 애를 데리고서 좀 병원 왔다 갔다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거를 신랑은 일하고 있으니까 온전히 이제 제가 혼자서 애들을 이제 케어를 하고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조옥현 한 명이야 근데? 저는 애기가 3명 있단 말이에요. 3명을 다 데리고 가야 돼...

장이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쪼르륵 있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셔틀을 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 주변에 그래도 이제 외지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해서 말 못 할 때도 있고 도

저히 안 되겠어서 먼저 말할 때도 있지만. 제가 한 번씩 체크도 하고. 무슨 일 없는지 그리고 어디 간다 그러면 “너 차는 어떻게 하나?” 뭐 기차는 8시인데 첫차를 첫차 버스 타고 나가야 된대요. 그럼 “그러지 말고 내가 7시 반에 태워줄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아픈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여기에 실습을 하러 오는 외지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길도 잘 모르고 버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머무는 기간 동안 제가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밤에 갑자기 어디서 버스를 놓쳤다 하면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막차 끊기면. 그러니까 술도 못 먹고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김정섭 학원 얘기를 두 분이서 써주셨는데...

오도향 저희 이제 사실 이게 작은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원되는 게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굳이 학원 안 다녀도 학교에서 잘 채워주고 또 저희도 아동센터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못 배우는 것들을 배우고 싶은 학원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광천이나 이런 데서 태권도 차량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금 30명대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니는 아이들도 없다 보니까 차량 지원을 안 해줘서 매일 데리고 보내고는 싶은데 그러면 다니려면은 가까이는 흥동까지는 오는데 이제 장곡까지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매일 본의 아니게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되는.

송민채 맞아요. 예전에는 차량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학원들도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요. 애들도 없는데 그 애들 2~3명 태우려고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약간 이런?

오도향 그래서 흥성이랑 인접한 이제 면 단위는 이제 학원 차량이든 이제 배달이든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이제 벗어나는 순간은 아무것도 없고.

조옥현 아니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한 몇 명 5명 5명을 데리고 곳에 있는데도 지원을 해 당연히 그 둘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송민채 갔다가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야 하니까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기가 애매한 시간이 한 시간 50분만 기다렸다가 와야 하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애매한 시간이어서 그냥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와야. 그래서 많은 과목을 못 지키고 한 과목만. 수학도 가르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김정섭 이제 또 써주신 게 미용실, 세탁소, 철물점. 뭐 이런 것들인데 세탁소가 없죠? 면 단위에는.

조옥현 근데 광천에 코인 세탁방만 2개 생겼어요.

오도향 그래요?

조옥현 빨래방, 거기 아파트 들어서면서 사람 많이 몰릴까 봐.

김정섭 보통 그 옷가지들 간단한 것들은 집에서 세탁기들이 있으니까 쓰잖아요.

송민채 점퍼 같은 거 세탁소 맡겨야 되는데, 맡기러 가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찾으러 가기도 오래 걸리고.

오도향 아예 수선해야 되거나. 이런 데 빨래 같은 경우에는 못했다는 게 이런 걸 하는데...

김난영 모아놓으시면 세탁소에서 가지러 와요. 어디 양이 많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어디 수거를 해갖고 갔다가 수거해다 줘요. (어디예요?) 저희가 현대건... 아무튼 저희 집은 그렇게 해요. 어디 많은 세탁 그거를 맡길 수가 없어서 이제 겨울 이렇게 옷 정리하고 할 때는 그분이 왔다가 갖고 갔다가... 흥성이예요.

송민채 그 정도의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김난영 그러니까 이제 한 집 이렇게 하면 너무 적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좀 식구가 많아서 많은데, 겨울옷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이거 또 왔다 갔다 저희도 그거 엄청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거해 주시고 갖다주시고 하니까 편리하죠. 저희가.

오도향 한번 모아볼래요?

김정섭 철물점이 없어서 불편한...

조옥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부품 같은 거는 딱 필요한 거 없잖아요. 결국엔 다 큰 데로 가야 되는 맞아.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게 꼭 읍내로 가면 더 비싼 값을 입지도 않을뿐더러 더 많은 돈을 내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그 시내 읍내 읍내 거를 저는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혼자 어차피 큰 데로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주문을 한다든가. 요즘에 택배는 더 빨리 오니까. 택배가 오히려 하루 만에 주문하면 다음 날 오니까.

김정섭 미용실이 없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얘기가 아니죠. 어르신들 얘기 아닌가요? 누가 써주셨는데 미용실이라고.

김난영 저요. 저는 있어도 이해 안 할 것 같지만.

송민채 싸기는 싸요. 마을이.

김난영 미용실이 하나 없어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회관에 찾아오는 그 무슨 미용... 그걸로 그저 기다리셨다가 하시고. 머리 한 번 하려고 하면은 광천, 홍성. 하루종일 있다 오시는 것 같아요.

오도향 맞아요. 기다리시려면 장날 맞춰서. 결성에도 미용실이 많은데 (맞아요.) 결성에는 세 개 있나.

김정섭 결성은 그래도 뭐 미용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결성은 축산이 많아서 좀 공기가 돈이 좀 도나 보다.

김난영 결성 하나로마트 엄청 좋던데요.

오도향 좋다고요?

송민채 아니 근데 물건 없어요. 신선도가 떨어져 처음에는 진짜 좋았는데.

오도향 처음에 지을 때만 깨끗하게 지어놨지. 이제 종류가 별로 없어요.

김정섭 알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저 시계 2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섭 아까하고 같은 방식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행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아까도 몇 가지는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좀 아주 많이란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불편해진 것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인 경험 말고도 주변에 이게 경험이 사람에 따라 좀 많이 다르거든요. 확실히 오늘은 이렇게 모여놓으니까 아이들 얘기한 교육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기 경험 플러스 동네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 하던 일인데 이게 인구가 줄고 고령화돼서 잘 안 하게 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처럼 적어주세요. 여기서 행정이라는 건 아주 넓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학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돈 주고 사지 않더라도 원래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게 보건소, 학교, 소방대, 경찰. 이런 것들이 다 행정기관이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면 웬만한 건 다 행정이 하는 일이라고 봐야죠.

김정섭 가로등 얘기부터 할까요?

조옥현 이게 밖에서 들어오셔서 그래.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사람은 저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로등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가로등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

송민채 제가 먼저 얘기하게 해주지. 웃기면 웃긴 얘기인데 이제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해요. 그때는 여기가 더 어두웠어요. 근데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학교를 이제 중학교 다닐 때구나. 중학교를 광천중학교를 다녔어요. 내리면 여기서 내려서 오면은 이제 어두워요. 한 7시. 그러니까는 겨울 되면 어두워요. 그러면 애가 들어오다가 이쪽 길로 돌 수 있고, 이쪽 길로 돌 수 있어요. 오면은 이쪽에는 오면 근데 이 가로등이 없으니까 애가 겁이 많으니까 빨래가 나풀나풀하니까는 이 귀신이 춤추는 줄 알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막 울면서. 엄마 왜 그나는 안 좋은 일 있는 줄 알고 왜 그러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귀신이 있어서 못 가, 무서워” 그러는 거야. 귀신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니야 귀신이 또 여기서 막 춤추고 논대. 이렇게 가로등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귀신으로 안 보일 텐데 어둑어둑해진 상태에 그 하얀 게 이렇게 널리니까 귀신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막 왔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애한테 그때 조금 가로등 이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애가 놀라지 않았을 텐데. 그런 행정 저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로등을 써 봤어요.

조옥현 저는 이게 자꾸 이게 반대로 옛날엔 없었는데, 시골에도 생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김정섭 가로등이 많이 생겼죠.

오도향 많이 생겼어요.

송민채 근데 생긴 건 생겼는데 진짜 정작 필요한 데는 없어.

오도향 저도 가로등을 썼는데 저도 시골에 이제 눈에 가로등 당연히 없고 그런 건 이해하는데 진짜 필요하고 위험한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아무리 요구해도 만들어주는 경우 그걸 쓰는 거예요. 저는 진짜 산속으로...

송민채 저도 그 얘기를 애가 얼마나 놀랐으면 막...

오도향 농사에 피해 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외에 이제 그 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하는데 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설치해달라

고 할 때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도 “안 돼.” 그러면 개인이 차를 들여서 뭔가 등을 설치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김정섭 예를 들면 꼭 필요한 곳 예를 들면 어떤 곳일까요?

송민채 산속에 있는 집. 그러니까 어제인가 그저께도 산속에 데려다줘야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다주다 보면 막 쌍라이트를 키고 가잖아요. 진짜 생각지도 않은 곳에 사람이 있어요. 그 섬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보면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

오도향 면에 요청을 하면은 “몇 명 살지도 않은데 왜 설치하냐.”고.

송민채 마을 사람이 많은 사람들 들어오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많더라. 나도 거기 집 있는데 온라인 설치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잖아.

김정섭 근데 잠깐 설명이 필요한 게 있는데 저 오른쪽 위에 그냥 서비스라고 저 누가 적었었죠? 무슨 얘기인가요?

조옥현 예전에는 이제 관공서를 가면 다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해선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무슨 서류를 떼려고 해도 다 이렇게 기계로 다 돌아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문이 제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안 먹혀.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걸 요청을 해도 “저기가 있으니니까 하세요.” 무인 발급기로. 막 닦아도 안 돼. 결국 예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요청을 하면 다 뺏던 서비스들이 다 기계화가 돼서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요.

송민채 아예 그냥 사람이 없으면 기대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탁도 안 할 텐데, 그 사람이 다 놓고 있는데 기계로만 하라니까 열받죠.

조옥현 공무원분들이 좀. 지금도 얼마 전에도 이 사업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고 공모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진행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기술센터나 관공서에 가서 이렇게 다 해주셨던 일들이 제가 다 집에서 컴퓨터에서 제가 작성하고, 제가 그거를 스캔해 갖고 올려가지고 클릭까지 다 해야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향 그럼 거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조옥현 점점 제가 그렇게 막 나이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어르신들과 내가 뭐가 다르지?' 이제는 기계를 다루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으면 난 이제 도태되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요즘에 가끔 하거든요.

김정섭 그 오른쪽에 '관공서에 갈 일이 없음.'이라고 쓴 것도 비슷한 얘기인가요?

장이연 약간 비슷하고 조금 다르고 한테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여기에 홍성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혼자서 관공서를 가거나 서류를 떼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웬만하면 필요한 거 다 뺄 수 있고. 무인 기계를 쓰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내고 일하다 보면 주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거나. 이제 대신 서류를 제가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거라서 같이 가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그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다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정부24에 들어가고 뭐가 어디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 이랑은 그 얘기가 통하지 않고. 면사무소에 무조건 가고 군청에 무조건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벌어진 일을 몰라요. 그런 좀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기관 단체를 만들거나 운영을 할 때 이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에 엮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동네 장국 몇몇 분들이 밀리랑 메밀을 새로 작목반을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니가 젊으니까 총무 역할을 해라 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 분들이 다 동네 이장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농협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라.” 했는데 갔더니 저를 보고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작목반에 누가 있나?” 저는 그분들 다 모르는데. 그래서 회의록을 만들어오래요. 그래서 회의록을 만들려고 갔더니 그냥 메밀, 밀 작목반 해가지고 어디 장 누구 사인, 어디 누구 이렇게 해서 그거 한 점 가져갔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의 룰을 몰라. 근데 이분들의 방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공서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김정섭 알겠습니다. 도로 도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인도가 없거나...

오도향 인도 없고 도로 보수가 안 되고.

김정섭 그런 것도 인구가 줄어서 신경 안 쓰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오도향 사람이 없어서. 왜냐하면 홍성 같은 데는 이제 민원 넣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면 단위보다는 더 많겠죠.

김정섭 그래서 홍성 관내에서도 읍하고 인구 작은 면하고 그 차이가 느껴지세요? 도

로 상태 차이가.

오도향 그럼요. 은하만 해도 거기 회전로 엄청 움푹 파져 있는 데 있던데 맞아요. 거기 지금 다니면서 한 번도 고쳐진 걸 못 봤어.

김난영 민원은 한 사람이 넣으면 안 되고.

오도향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넣으니까. 블랙리스트인가...

송민채 민원 넣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오도향 약간 민원 넣어놓는 것도. ‘불편한 사람은 얼마 없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김정섭 지역의 읍면 사이에서도 그 인구의 차이 때문에 말하자면 정치적 힘이 모자라서 되는데 힘이 센 지역은 좀 먼저 해 줄 건데 맞아요. 그 하는 지역은 안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데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버스 얘기를 두 분이 적어주셨어요.

김난영 버스 같은 경우는 실은 저도 초등학교 때 계속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버스를 타본 게 한 23살, 2살까지는 버스를 타고. 그 뒤로 실은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차가 있고 난 뒤로는 버스를 탄 적이 없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차량 시간표를 뽑아드리려고 그거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버스 간격이. 막차는 8시면 끊기고, 원래 8시 10분이 막차였는데 이제 도착하는 시간이 8시면 거의 끊기는 상황이니까. 정말 누가 들어와서 여기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차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배차가 너무 이렇게 간격이 크니까 저도 시내로 이제 학교를 다니면 학교는 8시 20분까지인데, 버스 시간이 다음 차를 타면은 지각이고. 그 전차를 타면 빨리 가 첫 번째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6시 40분 차를 항상 탔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절대 지각할 일은 없죠. 아무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이런 시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먼 단위로 들어오려면 그런 교통수단은 조금 좋아야 되지 않을까.

장이연 저도 요즘에 저도 버스를 잘 안 타는데 운전하면서 버스를 솔직히 말해서 타기가 싫거든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아저씨들이 너무 성질을 많이 내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고 내릴 때 너무 천천히 타고 짐 옮기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고 짜증을 진짜 많이 내시거든요. 장날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앞문밖에 안 여는데 뒷문 열어달라고 하고 하면, 이제 짐이 크니까 뒷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뒷문 열어주면 막 사람들이 막 다 들어주고 하면은 막 짜증 내면서 아저씨들이 엄청 뭐라고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그 연령대가 점점 그대로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타는 사람도 없고 저 같은 사람만 해도 몇 년 동안 버스 타다가 이제 ‘차라리 택시를 타거나 차를 산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이분들은 연세가 점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핸드폰 알려달라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신고 내릴 때 무조건 도와드려야 되고 그래서 점점 저희는 이제 교통수단인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진짜 많이 빠져요. 제가 같이 버스 타고 다녔던 애들은 차라리 그 차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기름 한 번 넣어주고 얻어 타고 이렇게 하지, 버스를 타지 않아요.

김난영 그렇기도 하고 이제 여기 들어오는 차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마을을 많이 들러요. 그러니까 홍성에서 은하까지 자가용으로 오면은 20분 그 정도면 되는데 버스 타고 1시간을 돌아가야 돼요.

조옥현 얼마 전에 이제 큰 애가 학교에서 9시까지 놀다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집에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차가 8시 반 차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타고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노선이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냐? 아니면 장곡으로 돌아서 우리 집 근처에 내리는 거냐?” 그랬더니 집 앞에 내린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경험상 타고 와 봐라 그랬더니 “엄마, 장곡으로 가고 있어.” 이 결국에는 그냥 10분 만에 데리러 가면 될 것을 1시간 기다려서 그 앞에서 30분 기다려갖고 태워갖고 들어온 거 우리는 그 생각이 드는 거지. ‘버스는 또 못 태우겠구나.’

김정섭 파출소를 적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파출소 없어도 별 관계 없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난영 어디 사세요?

김정섭 저희 지금 사는 데는 나주에 저희 연구원이 서울에 있다가 나주로 옮겨가서 거기에 혁신도시라고 부르는 데 사는데, 크기가 이 내포 신도시 정도 인구 규모가. 그런데 내포 신도시는 조금 넓고 나주 신도시는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2 정도에서 좀 밀도가 있어요. 도시죠?

김난영 원래는 저는 시는 시골이라고 해봤자 시골에서도 도시에 살기 때문에 소재지

이기 때문에 농협 당연히 다 있을 거잖아. 소방서, 파출소, 우체국.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아까 10년이라 얘기하셨는데, 10년 사이에 다 없어졌어요.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바뀌어서 센터장님은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안 계세요. 진짜 지금은 광천 경찰서로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네 그쪽하고 이렇게 가끔 일 있을 때 순찰 한 번 돌 때 이럴 때 정말 가끔 오고. 소방서도 역시 건물만 소방서가 있고. 거기서는 이제 소방대원분들이 활동하시는 그것만 사용하고 출동은 거기서 안 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소방서 앞에서 불이 나도 광천에서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경찰서 또한 위험에 처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동하는 사이에 이미 다 사건 끝이에요.

오도향 다른 데에서 다른 면에서 만약에 신고를 해도 다른 면에서 이제 넘어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나.

조옥현 그래서 전화했는데 한참 걸리면 의미가 없는 거지. 119도 그렇지.

오도향 요즘엔 119 타도 갈 병원이 없어 맞아 (무조건 의료원으로) 의료원 안 받아주더라 맞아 의료 그래 그래서 저기 순천향이나 그쪽으로 많이...

김정섭 요새 의료원에서 안 받아주는 건 올해 그런 것일 거고. 내년쯤에 흥성의료원 정도는 받아주죠. 웬만하면 아주 심각한 진짜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는 지경이면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그게 또 도립이고 의원인데. 근데 요즘은 거기에 의사가 없을 테니까.

송민채 제가 올봄에 다쳐갔고 흥성의료원으로 갔는데 해주던데 응급실로 가서 그런가?

김정섭 요새 이제 안 나오니까 레지던트들이 안 나오고 지방에 있는 국공립의료원도 다 서울 큰 병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도 쉽지는 않죠. 그래도 흥성은 도립의료원이 있어서 조금 나은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라고 적어주신 건 무슨 얘기 인가요?

송민채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했을 때 아기가 아플 때는 정말 갓난 아기가 아플 때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어도 아기가 막 울고 있어서 운전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 외국인들을 아예 운전면허증을 못 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이용할 때 버스도 타야 되는데 버스 노선도 모를뿐더러 남편분들은 다 일을 해야 되고 여자들이 이제 운전을 해야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런 것도.

김정섭 어르신들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잘 돼 있다는 얘기를 결성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민채 아직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하는데 사업으로.

김정섭 주민자치 사업으로.

송민채 근데 어른들만 해당돼요.

김정섭 동행을 해주는 사람들이 주민 중에 정해져 있습니까?

송민채 아니요. 무조건 동행을 해서 증거를 증거를 사진으로 남겨서 제출을 하면 수
당이 3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노인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김정섭 노인들의 경우에 그러면 이웃집이나 이런 좀 젊은 분이...

송민채 우리가 우리 엄마가 다쳐서 우리 엄마는 못 데려가 다른 사람이 다...

김정섭 가족끼리는 안 되고.

송민채 가족은 안 되고.

오도향 아까 그 말씀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화 사회니까 이게 그 고령의 서비
스를 위한 서비스도 나오고 그래도 좀 정부 차원에서 사업들이 나오는데 그 다른 연령
대에 그는 복지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나이대가 참 애매한 나이대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청년도 그렇고.

김정섭 은행이라고 써주신 분은 누구시죠?

송민채 은행도 사라졌나요?

김난영 은행이 통합되고. 네 농협이 은하 농협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광천농협 은하
지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해져 있고. 다른 우체국 같은 경우도 택배 무슨 이런 무슨
뭐 그런 거는 광천으로 가... 아, 집배원분들이 광천에서 오세요. 저희 저희 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체국에 전화하면 이름 확인이 안 되고.

오도향 맞아 찾으러 갈 때 광천까지 가야 돼. 저희도 우편물 보관을 광천에 하니까 저
희 같은 경우도. 등기를 바로 못 받으면 찾으러 이제 광천으로 가요. 여기에 있어도 장

꼭에 있어도 장곡에서 찾을 수 없어요.

김난영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 농협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은행 있던 거 다 다 없애고 그냥 안 쓰니까 당연히 그냥 없애고 농협에서... 아니 바로 앞에 있는 계 농협밖에 없으니까. 네 농협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김정섭 선택권이 없다. 대충 ‘방제, 제설 작업 방제’는 무슨 얘기...?

조옥현 이거는 애매한데 이제 가로수 방제를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나방 벌레가 너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보이면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집은 친환경 농가잖아요. 어찌다 낮잠 자는데 뭔가 소리가 너무 세하니까 눈이 딱 뻗는데 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밖을 나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이제 보는데 방제차가 저희 집까지 들어와서 정말 대포를 쏘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비산이 돼서 유기인증 취소가 한 번 돼가지고 그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갖고 다행히 이제 우리가 농사짓는 땅은 아니었지만 미친 듯이 달려가 갖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환경 농가인데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관공서에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했더니 길을 가다가 벌레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나무를 보고 그대로 썩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벌레 몇 년 동안 이제 먹었던 나무들을 올해 다 베어버렸어요. 진짜 그게 지표가 되더라고요.

김정섭 그 얘기는 이제 인구 변동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조옥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농사를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너무 서비스가 그런가?

김정섭 임금 문제랑 관계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일하는 방식들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도 잘한다 볼 순 없지만 자꾸 보면 볼수록 대충 하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 얼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원시설 근린 시설 이거는 면 단위 안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난영 그렇죠 이제 운동 저녁 먹고 나서 어른들 이렇게 운동하신다고 나가면 볼 곳이 없어요. 그냥 뭐 논길 따라서 걷다가 들어오시고. 근데 논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딱히 돌 이렇게 돌면은 그 동네 개들이 다 사람들을 깨워버리고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있어도 학교 운동장 외에는 뭐 자전거 탈 것도 없고. (또 광천으로 가야 돼.)

송민채 근데 저도 원래 시골 사람이고 계속 살았으니까 이런 걸 잘 못 알아차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새를 보러 가야 돼서 검색하다 보니까 도시에는 그렇게 공원 많은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변화라든가 필요를 몰랐을 뿐이고. 그런 그런 게 있구나 도시에는. 왜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일부러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가지고 그런 걸 가꾸고 사람들이 거기서 주말에 쉬고, 놀고, 걷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있었구나, 나는 몰랐었구나. 우리 군에는 없었구나...

김난영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공모 사업으로 쓰면 공모 시설하는 게 뭐 몇천만 원 갖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까지 하고 또 끊겼다가 또 다음 사업을 내년에 이만큼 하고. 이제 저희 마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는 됐어요. 그게 한 2~3년 걸렸어요 하는 데. 근데 그 길이 공원 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농로 길을 이렇게 좀 포장도 하고 보도블록도 깔아서 그냥 어른들 여기가 다 논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농사하시다가 잠깐 올라와서 좀 쉬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공간인데 제가 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진짜 좀 잔디밭도 있고.

오도향 이걸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시골에 어떤 새로운 시설을 아예 이렇게 공모 사업해도 큰 사업은 안 주고 작은 간단한 사업들만 주고. 저도 주민자치회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참여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고 했을 때 큰 사업은 절대 안 되고. 진짜 조그만 사업들 있잖아요. 큰 사업은 다 이제 이 면 단위 그냥 읍 단위 이런 데로 간다 그런 얘기 듣는...

김정섭 이제 뭘 붙이는 건 안 할 거고요.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제 한참 전부터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 숫자는 줄고 아이들 숫자는 적어지면서 생겨난 지역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야기할 거는 경제적인 측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경제적이란 거는 돈 버는 일과 관계된 것도 있겠고 소비와 관계된 것도 있겠죠. 하여간 경제활동 측면에서 직업에 관계없이, 이제 오늘 일부러 가능한 한 다 농사짓는 사람들만 모아주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직업적 배경이 조금씩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있기도 한데 경제활동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 변화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인구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 같다 싶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장이연 제가 돈을 수익을 얻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도시에 사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이제 농촌 농업 경험을 시켜주고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서 안내하고, 이제 좀 케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전혀 생각 못 했던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여기에 온 게 한 13년 14년 전이

니까, 제가 청소년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 고향에서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제가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내는지 이해를 잘 못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시골에서 좀 청년들을 좀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할 때도 이해를 잘 못 하셨어요. 그런 게 어떻게 일이 되는가. 근데 요즘에는 군이나 도의 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만들어지고, 제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로 월급을 받고. 그런 거를 그런 일자리가 새로 생기기도 했지만 고향에서 그 이제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시냐면 “그런 일을 할 거면 우리 동네 와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좀 사고방식이 바뀌고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섭 그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시골에 없어서 그런 젊은 사람은 시골에 붙들어 두고 모으는 것과 관련된 일자리가 생겼으니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런 일을 하라고 돈을 쥐가면서 젊은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니 이게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렇게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장이연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원받았던 사업은 그 사업을 농업 기술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는 또 그 평가 지표가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주소지를 옮겼는가. 그리고 이제 영농 활동을 하는가인데, 그런 결과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그런 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뭐 하지만 그... 원하는 결과는 딱히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주고 나서 뭘 하라고 그러면 할 텐데 자기들이 온전히 그냥 돈을 갖고 와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주거지를 옮긴다고 하면 “여기서 나는 뭐 해 먹고 살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그거에 대한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할 데가 있으면 그 할 텐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알바를 한다. 그럼 파트 타임으로 일하면서 버티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김정섭 또 지역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오도향 새롭게 어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시골에 살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남편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그쪽에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시골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새롭게 누군가가 여기 이제 인구가 지금 없고 인구 감소가 하고 있는데 새롭게 누군가가 들어오길 바랐을 때 경제활동 할 만한 일이 많이 없으니까, 추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신 집이 많은... 인구가 없어서 아이들은 사실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내가 받고 있는 이런 혜택들이 장점이지만 뭔가 이게 좋은 건가? 이런 약간

딜레마 빠질 때 좋지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김남영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말하면 나쁘지만 오히려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획서나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소외계층 찾아가는 네 그런 거를 할 때 이 시골이 사람 없죠, 아이 없죠. 문화 공간, 문화시설 아주 저조하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공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의 역할이 없으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데. 여기서 해야 할 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했을 때 또 이렇게 뒤로 만들어지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강사님을 모셔도 뭐 어떤 강사님, 아니면 보조 강사님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거 보조 강사 해 줄테니까 여기에서 살아라.”라고 하면은 제가 소득을 책임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자 단점이 되고 있는 거죠.

김정섭 경제활동 측면 여쭙보니까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변 같이 이제 살고 있는 마을의 주변 집들을 한번 떠올려 봐주세요. 그 가족들 한집에 같이 사는 가구들이 많이 변했죠. 그 가족 구성이나 관계들은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조옥현 저희는 다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쯤이 되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돌봄의 형태로 오시거나 뭐 그 정도.

김정섭 자녀들이 이주, 아예 살겠다고...

조옥현 이주까지는 아니죠. 돌봐주러 오는.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부모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니 자녀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는 돌봄 때문에 같이 그냥 거주하는 형식? 주소는 안 옮기시고.

김정섭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더러더러?

조옥현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거의.

송민채 부부가 같이 살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혼자 살아야 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혼자 살아야 하고...

조옥현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시고.

송민채 거의 자식들이 내려와서 사는 경우는...

오도향 부모를 모시고 가는 경우는 있어도 자식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살지는 않죠.

장이연 이 익명이 보장되니까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저기 세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그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이 동네에 가장 자녀가 많은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2층에 살아요. 거기에서의 그 소음이 엄청나거든요. 주변에 뒤에 아무것도 없고 아기들이 많은 집인데, 그 앞에서 신나게 뛰어놀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집이 너무 귀한 집이어서 정말 때로는 저는 뭐 이렇게 너무 진짜 토요일 날 너무 날씨가 좋다 이렇게 딱 베란다 문 딱 열었는데 까르륵 까르륵 막 난리가 났는데, 그냥 문 닫고. 그러니까 너무 귀한 집이라서 저 같은 죄인은 조용히 지내고. 그리고 어딜 가도 그 집은 주목받고 너무 귀하고 이장님은 저 아이들이 다 초에 들어가면 장곡초에 학생이 그만큼 놀아보고 이런 이런 느낌이...

조옥현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저희 애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듯이 저희 집 앞에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이니까 차들이 너무 썩썩 달리니까 민원을 넣었어요. “마을에 아이 있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다. 내 차들이 너무 썩썩 달려서 아이들이 어린데 만약에라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 있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 이제 노인 이제 정류장도 바로 앞이고 뭐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고, 교회로 들어가는 이제 삼각형대에 있는 위치한 집이니, 앞에 방지턱을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바로 되고 또 마침 이제 대평초등학교 고 길 도로 이제 한 예산이 있었나 봐요. 저희 집만 인도가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법 CCTV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가는 입구에 이렇게 삼각으로.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보통은 이제 거기 문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니 까 농장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이날은 애가 집 밖으로 나가서 막 언덕을 2개를 넘은 거죠. 낮에 비 오는 날, 미친 듯이 하는데 한 30분 40분을 찾아봐도 집에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집에서 보이지 않으니 CCTV를 좀 확인을 좀 해줘라.” 이제 했을 때 그것도 다 돌려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시간을 위치를 알려주고 했더니 나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시골에서는 이렇게 일 처리가 늦으시잖아요. 근데 홍성에서 광천에서 경찰차가 6대가 출동해서...

김정섭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드론도 띄웠어. 지금 유라 얘기하는 거죠?

조옥현 그러니까 이제 도로 앞이 차니까 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애를 태워서 갔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답이 없어 어떻게 찾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밖으로

나갔다. 이제 어디까지 갔다라는 게 특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제 마을 방송 다 때리고 이제 하는 사이에 이제 전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다. 옆 동네 어르신이 데리고 들어가신 거. 아니 애는 이제 자기는 숨바꼭질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도 엄마는 찾으러 오겠지.’ 하고 나간 거야. 그쯤에서 그 노래에 심취해 있었고 숨고 막 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표정이 딱 만났을 때는 무서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또. “엄마 나 찾아왔네.” 자기는. 그리고 이제 할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오빠가 5명 있고...

송민채 근데 이 얘기 얘기를 저희가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여러 번 들었는데 워낙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찾았냐? 어디서 찾았냐? 뭐 그거를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너는 뭐 했나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김정섭 장곡면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알아요. 지금 나도 사실 나도 알고 있어.

오도향 시골에서 아이 키우면서 아이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한 명 한 명을 되게 소중히 여겼잖아요.

김난영 지금 아기들이 가족의 구성이 약간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마을에서 살면서 그냥 진짜 우리 친가족 말고요. 진짜 옆집 뭐 옆옆집 이렇게 가족의 구성이 약간 이 공동체로 더 와야 맞지 않나 내가 진짜 아플 때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족의 구성이 마을에 살면 공동체 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섭 지역사회 이제 이젠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도시하고 농촌의 큰 차이점의 하나는 지역사회는 주민 조직이 많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마을에 최소 회장님 3명 있어요.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그리고 읍면으로 올라가면 무슨무슨회, 의용소방대, 등등 짝 있고. 그것들이 또 모여서 군에도 있고, 도시에 가면 대도시에 가면 그런 조직은 없죠. 대도시에 가면 시민단체들은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주민 조직은 별로 없고. 근데 농촌의 이 주민 조직, 지역사회 조직은 역사가 되게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수십 년 그런데 하여간 그동안에 인구가 쭉 고령화되면서 이런 조직들의 활동이나 분위기 주로 읍면 수준에서 지역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많이 변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이숙연 장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워낙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지역사회 모든 그런 문제의 화두가 돌봄 사업이 주를 이루고. 그래서 이 노인 돌봄에 대한 이야기

가 되게 많이 나오고. 또 그다음으로는 이제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 위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조금 젊은 계층의 사람들을 모으고 취약계층이 있는 그러니까 취약 아동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어떻게 농촌에 정착하게 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거.

김난영 주민 조직 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똑같은...

조옥현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러 갔을 때, 나랑 이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꼬시잖아요. “우리 동네로 들어와.” 그렇게 계속 하기는 하지만.

오도향 새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인원수는 채워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여러 이제 활동을 다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조옥현 좋다는 건 아는데, 사실 아까처럼 저런 서비스 자체들이 없으니까 사실 들어 오기까지는 쉽지 않아. 결국에는 고등학교 아이가 이제 어릴 때는 괜찮지만 고등학교 쯤 되면 다 또 어차피 큰 도시로 나가야 되고. 그럼 결국엔 가족들이 다 나가게 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조금...

김정섭 여기 지금 부녀회장님이 계시죠?

조옥현 부녀회장님이 “마을에 아파트 하나 지어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아.

김정섭 부녀회 활동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숙연 그러게요. 저도 한 지는 얼마 안 돼갔고요. 그다지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저부터도 벌써 4년인가 벌써 올해가 4년째거든요. 원래 6년이 저기예요. 근데 우리 동네도 솔직히 좀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도 “야 이제 나 그만하고 네가 좀 해라.” 그러면 “그냥 만 년 지기 혀.” 그런 식이고요. 타 동네들은 이제 우리 저희도 산리만큼 젊은 분들이 안 계신데도 이제 없으니까 또 그 한 분이 계속 10년까지 10년도 하시는 분이 계시요. 부녀회장은 옛날같이 저기 뭐야 많지 않으니까.

김정섭 제가 최근에 만난 부녀회장님 중에 이 선생님 제일 젊어요.

이숙연 내가 제일 그리고 저희 부녀회에서든 제가 제일 젊어요.

김정섭 막내이면서 대장.

이숙연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쪽 흥동 어디 이런 데 가봐도 있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군 김장을 하잖아요. 부녀회에서 군 김장을 하고 뭘 해도 이렇게 가면은 죽으라고 일만 해야 돼요. 현재 마흔 아홉이요. 현재 저기 뭐야 주민 그러니까는 이 나이 변동이 없어졌을 때 옛날 나이로.

송민채 우리 동네는 나이대가 안 됐다고 아직 멀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의 70~80대가 있는데, 너는 아직 멀었다고.” 위에 있는 나이인데도 아직 순서가 멀었다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젊은 나이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김남영 진짜 이게 고령화로서 그 단체들, 그러니까 마을에 작은작은 단체들 청년 회장님은 70대고. 그리고 노인 회장님은 80대고. 부녀회장님은 저희도 좀 젊으신 편인데, 부녀회장님은 50대신데 이제 부녀회원분들이 활동을 다 못 하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회비 내죠. “근데 왜 너네 뭐 우리 이거 왜 안 해주냐? 밥 안 사주냐? 안 놀러 가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그걸 운영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음도 있고, 다음 세대도 있는데 왜 여기서 다 먹고 끝내려고 하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다 먹고 써야 된다.” 그럼 이게 부녀회가 약간 조직이 뭔가 마음에 드는...

조옥현 하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 부녀회에서 면에 이제 한두 번 놀러 가시는 게 예전에 여행이 지금처럼 쉽지 않았잖아요. 그게 큰 행사고 그게 일 년의 어떤 기분을 좌우하는 일일 정도로 되게 크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여행이...

김정섭 관광차 타고 가는 거랑 뭐 요새는 다르겠지만 예전에 지금도 부녀회에 계신 분 중에 70 넘으신 분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술 마시고 춤출 수 있는 날이에요. 그것도 밖에서 못해 버스 안에서만. 1년에 한두 번 유일하게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여자들은, 그래서 그 기억이 아주 강할 거예요.

조옥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고에고”하고 타가지고 신나게 갈 때도 서 계시고 올 때도 서 계셨어.

송민채 근데 지금은 너무 고령화가 돼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신다고 그래도 걷지를 못하시니까 이거 혼드는 건 또 어려운 얘기에요. 솔직히 말해서 잘못 흔들으면 그 버스 안에서 주저앉으면 솔직히 말해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한 번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김난영 이게 젊은 사람들이 옆에 보조로 많이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겠다고 선뜻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송민채 젊은 사람들이 거기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막내들이 심부름이고 뭐고 다 해야 그러니까 아예 갈 생각은 안 해.

김난영 고령화로서 이제 어른들은 “물 갖다 줘, 뭐 갖다 줘.” 이렇게 하시니까 좋다 좋다.

송민채 뭐 시키면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돼.” 뒤로 빼고 먹을 때는 어떻게든 가자고.

김정섭 그러니까 조직들은 없어진 조직은 별로 없고. 이름은 간판은 다 달고 있는데, 그 이제 안에서는 숫자도 줄고 다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그 조직 안에서도 세대 간에 지금 편치는 않은 상황이다. 이 얘기죠?

조옥현 심지어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르신들은 다 80대인데, 제일 젊으신 분이 70대 초반. 근데 이제 전도회를 나누는 데도 이게 한 살 차이로 이렇게 딱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옛날에 어떤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어느 누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조금 편해지고 싶은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사실은 없어요. 저부터도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부모 세대가 이렇게 모시는 건 보고 자랐지만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경험은 많지 않고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중심이었지 어른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부모 세대만 해도 어른 중심이고 아이들은 조금 그게 중심이 조금 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간 세대가 없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진짜 유일하게 저 40대.

이숙연 그만둘 수가 없네.

조옥현 그만두면 큰일 회장님이 제일 잘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이연 뭔가 역할은 많이 주어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는 세계가 너무 달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근데 정말로 한 10년 정도 텀으로 봤을 때 1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그전에는 부담을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부담을 많이 주시고 어른들이. 근데 최근에 제가 외부에 누가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부탁하느라고 이제 장곡면에 몇몇 이장님을 만났는데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 그냥 이렇게 외지에서 젊은이들이 와가

지고 뭐 동네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대요. “뭐 도산리 어떤 것 같으세요?” “도산이 너무 부럽다. 젊은 사람...” 너무 놀랐어요. 그분은 10년 전에만 해도 “빨리 시집 가야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다 개인의...”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 딸내미도 시집 안 간다고 그러고 참 그런 것 같아, 세상이 많이 변했어.” 이러면서 그게 너무 놀랐어요.

김정섭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도 하도 상황이 절박해지니까 생각들이 좀 바뀌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시 사람이 시골로 내려온다면 흔히들 하는 얘기가 텃세가 있네 배타적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분들은 “배타적이고 텃세가 있는 동네는 아직 배가 불러서 그렇다, 좀 더 힘들어지면 그거 없어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오늘 한 두어 시간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있다 보니까 이게 토론회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토론, 그러니까 우리 딱 품 잡고 하는 그런 토론이 아니고요. 일단 오늘은 그동안에 경험하셨던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일 수 있는데 저희 연구자들 입장에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모아보면 이 그림을 지역마다 조금 같은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을 때, 종합적으로 모아놓고 펼쳐보면 또 모으면 소소한 얘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아놓고 보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내일 또 이 시간에 오실 텐데 숙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그것도 내일도 심각한 토론을 할 건 아니지만 오늘보다 약간 좀 생각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뭐냐 하면 그렇게 안 받아 적어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면 내일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저희 이번에 이 연구에서 시작을 하면서 안 하기로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줄고 고령화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농촌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연구를 하는 건데 교과서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늙어서 그런 거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젊은 사람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죠?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 귀농·귀촌 받지 말자.’ 이게 아니고 받고 받아야 되는데 늘려야 되는데 그건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일단 애도 많이 낳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건 답하지 않을 거다. 왜냐,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귀농·귀촌 인구 늘리자, 출산율을 높이자라는 얘기는 이런 쪽에 고민하는 모든 학자들이 여기서 그걸 연구하고 있어서 내가 해봐야 그 사람들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해도 이민을 엄청 받고 애 낳으면 뭐 이런 건씩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지금보다 인구가 늘지 않을 거라는

게 정설입니다. 인구학을 연구하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지금보다 늘지는 않아요.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게 조금 늦출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귀농·귀촌 같은 것도 홍성군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던 말이에요. 숫자가, 도시에, 홍성에서 많이 받으면 예산은 적게 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농촌 전체로 보면 더하기 빼기 하면 그게 똑같아지는 거여서 내 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자, 그다음에 뭐 아이를 많이 낳자.’ 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이런 얘기도 안 할 겁니다. 정신력으로 무장하자 이런 건 안 할 거고 그럼 어떤 관점에서 얘기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인구는 지금보다 앞으로 한 10년쯤 뒤가 되면 지금보다 더 줄고 지금보다 더 늘어 있을 텐데 그래도 사람들은 남아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남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도 어쨌든 그 상태에서도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적응을 하려고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잘 적응하려면 사실 지금부터 뭔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지금도 버스가 끊어지고 노선이 줄어가지고 배차 시간이 더 뜸해졌는데 앞으로 더 뜸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도 심각한데,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버스 배차 시간을 엄청나게 늘릴 수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응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분야를 한 두어 가지를 정해놓고 약간의 토론을 할 겁니다.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적응하고 준비하고 앞으로 적응하고 대비해야 될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나온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그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20~30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각자 제일 중요한 게 준비해야 될 분야가 뭔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일 와서 그 얘기를 한번 다 돌아가면서 얘기한 다음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공통된 의견이 같은 분야를 얘기하는 분이 몇 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투표 방식으로 1등, 2등 두 가지 분야를 놓고 그러면 이거를 이 분야에서 준비하고 적응 대비해서 앞으로도 여기에 적응해서 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는가 내일 잠깐 좀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때 누가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홍성군이 노력해야 될 분야가 있고, 국가 정부가 노력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이나 지역사회 단체가 민간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일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구가 줄어도 이것만큼은 아주 중요하게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씩만 생각을 해가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A그룹(홍성군, 50세 미만 남성)

1. 개요

- 일시: 2024년 4월 4일(목), 16:00~18:30
- 장소: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센터
- 참석자: 연구진 3명 외 홍성군 거주 50세 미만 남성 6명

홍성군에 거주하는 50세 미만 남성 주민들로 구성된 초점집단의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홍성군 지역은 젊은 세대가 자녀 교육과 경제적 이유로 읍내나 도시로 떠나며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로 지역 내 아이들 숫자도 줄어

들며 학교와 같은 사회적 기반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아이들이 또래 친구를 찾기 어려워지고, 공동체 유대가 약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농업과 지역 경제 부문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용 부담이 크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1.2. 사회적 유대 약화와 공동체 활동 감소

젊은 층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내 전통적인 사회단체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청년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와 같은 단체들이 고령화로 활동 인원이 줄어들고, 젊은 층의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마을 내 결속력이 점차 약화되고, 주민 간의 교류가 줄고 있다.

1.3. 생활 편의와 공공 서비스 부족

지역의 편의시설과 의료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을 사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읍내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줄어들어 차가 없는 주민들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등하교 문제와 노년층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1.4. 제안된 해결 방안

1.4.1. 정주 여건 개선

청년층의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작은 학교를 유지하며 지역 내 학생 유입

을 도모하고, 청년 주택 지원 정책을 통해 젊은 층의 농촌 정착을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4.2. 의료 및 교통 서비스 확충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시설을 강화하고 이동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통 서비스도 개선하여 대중교통 배차 간격을 줄이고, 통학 차량과 지역 주민을 위한 셔틀버스를 도입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초점집단토론 내용

김정섭 이 다들 생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하시는 말씀들이 달라요. 사실은 저희들이 나중에 통계적으로 비교를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써달라고 했는데 적지 않은 신상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노출이 안 될 겁니다. 역시 보고서에서는 숫자로만 표현되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처리하겠다고 얘기고. 마지막 두 페이지는 그래도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약소하지만 저희가 사례를 준비했고, 그 영수증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숙 씨한테 어떻게 전달받고 왔어요? 토론회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황철수 아니요. 저는 집단 인터뷰를 하는데 구체적인 주제에 관련돼서는 들었으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김정섭 박사님께서서 이런 뭔가 집단 인터뷰를 하려고 하시는데 사람을 좀 구하고 있고 추천을 받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들어왔습니다.

김정섭 그래서 하여간 지역의 인구가 늙고 사람 숫자가 적어지고 애들 숫자는 없고 젊은 사람 숫자는 넣고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이제 경험담이나 꼭 내가 경험한 거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옆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저희들이 좀 짧은, 이게 사실은 한 사람 붙들고 한 3시간씩 얘기 들어도 모자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모아놓고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 아시는 사이

인가요?(아니요.) 그렇죠? 안 그럴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부터 쪽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한 20~30초 줄 테니까 자기소개를. 이름, 사는 곳, 하는 일, 지역사회에서 혹시 관심 있는 사안. 그런 게 있다면 없으면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황철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철수입니다. 지금 흥동면 금당리에 살고 있고 이제 흥성군으로 온 지 9년 차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아시다시피 여기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올해 3월부터 흥성군청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라는 곳에서 들어가서 지금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농촌사회의 관심 이런 건 아무래도 이제 연구 같은 것들을 했었으니까, 주로 이제 농촌마을, 농촌정책.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인 정욱인이라고 하고요. 흥동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고 있고요. 지금 발달장애 청소년들 수업하는 곳에서 마을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길성 안녕하세요. 최길성이고요. 여기 지정리에 살고 있고요. 온 지는 7년 정도 됐고 지금 농민이고요. 동산은 방토나 대파나 호박이나 이런 거 작물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환영이고요. 여기 도산 2리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젊은협업농장에서 지금 같이 농사를 짓고 있고. 관심사는 어떻게든 도시만큼 돈을 잘 벌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문규형 예 안녕하세요? 저 문규형이고요. 귀농한 지 11년 차 됐고요. 장곡 도산에 살고 있고. 현재 직업은 농업이고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한 두 가지인데 뭐 제가 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일단 돈벌이가 좀 가장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래서 기존 농업으로는 좀 농사를 먹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좀 기계 쪽으로 기계 장비 쪽으로 옮기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이 약간 좀 아무래도 소멸 위기에 있기도 하고, 인원도 없고, 인프라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지금 5명 되는데 그 애들이 놀 곳이나 갈 곳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장곡면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구경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경본이라고 합니다. 사는 곳은 지금 흥동에서 살고 있

고요. 하는 일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그냥 백수인데, 이것저것 알바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는 그때그때 좀 달랐는데 요즘의 관심사는 제 개인적인 그냥 그 진로에 관련된 고민인 것 같아요. 지역에 관련해서 옛날에 관심이 이것저것 갖았던 주제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건 다음 관련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김정섭 여기서 농사 안 지어요?

구경본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농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한지 모르겠네. 일단은 아직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이번에는 거꾸로 돌아가면서 그냥 짧게, 이걸 정식 질문은 아니에요.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지방 소멸, 인구소멸, 등등. 이런 말들 오며가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짧게 한 번씩 나누고 그다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경본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선 드는 생각은 ‘그게 사실이다. 그게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역의 인구 감소가 제가 직접 체감이 든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야기 듣는 것들 예를 들면 학교가 폐교가 된다는가 그런 이야기들 듣거나. 그냥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올해 신입생은 1명이더라, 2명이더라.” 뭐 그런 얘기 들은 거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 실감이 난다, 이런 느낌은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떠오르는 말이 ‘지역소멸’이라는 일본 어느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아주 자세히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 ‘지역소멸’이라는 게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아무리 인구가 줄고 고령화된다고 해도 그렇다고 이 지역이 없어질까? 이게 그냥 완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 지대가 되진 않지 않을 거 아닌가. 그래서 지역소멸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섭 문규형 선생 어떤 기분이 드세요?

문규형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고령화, 인구 감소, 저출생은 다 저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서울에 살다가 이제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내려오긴 했는데, 잘한 선택인가 후회하는 선택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학교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한 학급에서 체육 활동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이 보통 체육 활동을 하고. 그래도 막 이제 어찌면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아빠와 체육 활동’이라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이번에는 한 네 분 아버지들이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늘려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그래도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애들이 뛰어다니고 놀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저출생 문제가 저한테는 좀 화두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향후에 계속 이렇게 가면은 진짜 뭐... 청년들이 일하기도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간 저는 좀 이렇게 저의 저보다 한 10년 정도 되신 50대 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격동기였잖아요. 나름 이제 끝물에 막 80년대 그때 분들이 어떤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때는 뭐 ‘하나만 낚아서 잘 기르자.’가 대사였고 그런 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나 저 밑에 세대들은 이제 혼자 큰 애들이 많고. 약간 약간 뭐랄까 협동보다는 독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커서 만나야 되는데, 배운 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협업도 안 되고 이렇게 관계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정섭 환영 씨는 어때?

정환영 일단 다 와닿는 말이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애가 셋이 있고. 애가 셋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지금 중학교를 가요, 가는데 친구들 만나려고 놀려고 하다 보면 버스타고 나가서 막차 타고 이제 돌아오고 그러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제 옆면에서 놀다가 막차 시간 보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잘못 탔다고 또 데리러 나오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는 그래도 뭐 그렇고. 근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반에 다섯 명인데 다 여자야. 그리고 셋째는 지금 이제 유치원인데 작년도 오빠 다섯하고, 혼자 여자였었는데 동생들 “그러면 이제 여동생 생겼겠네?” 그랬더니 2명이 들어왔는데 다 남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좀 안에서 성비가 맞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막내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게 애가 올라갔을 때 만약에 4명 3명이다 애를 장곡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부모로서 애 위해서 ‘그 머릿수가 좀 있는 데가 필요한데.’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마을에서 그래도 이제 농사를 13년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고 저도 여기서 이제 새마을 지도자나 이제 마을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치면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하나 왜냐하면 후배 세대들이 또 보여야지 같이 뭘 나누고 일을 주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저하고 제 선배 세대들은 계속 선배 세대대로 계속 가고 있지만, 후배 세대들이 안 오게 되니까 동네 소위 막내 생활을 몇 년 동안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고령화가 되는데, 이제 나이대가 많아지신 만큼 근데 정정해요, 어른들이. 60대, 70대, 80대 돼도 정정하시는데, 뭔가 40대면 나도 뭔가 뜻을 한번 갖고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나는 이제 계속 뭐라고 할까요? 동네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뒷받침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문제인 것도 있지만. 청년이라는 청장년이라는 게 농촌에서는 거의 50대까지는 참 그렇죠? 60대까지 다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청년을 49세까지 올렸다가, 어디는 45세다.’ 우리는 40세인데 어떤 사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농촌에서 보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대가 높고 새마을지도자도 형이 거의 제일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왔잖아) 제가 봤는데 어차피 안 나오니까 이제 이장 협의회가 있고. 이장님들이 이렇게 있고 새마을 지도자가 이렇게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의 대부분 이장보다 약간 이제 이장님은 못 되고, 약간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 좀 보면 20년 30년 동안 최대 20년까지 새마을지도자를 계속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투덜투덜거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세대가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올라간다는 게, 어떤 삶의 질에 느껴지는 이렇게 지루함이나 어떤 이런 무기력함이 같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저출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 동창들이나 주변에서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많이 낳으셔서 잘 체감은 안 돼요. 근데 여기 황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셋이 있고, 여기 규형 형도 다섯이 있고, 저도 셋이고. 이러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막상 이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학교로만 딱 보내도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곁들여서 장곡초에 지금 다문화도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다문화도 의외로 좀 있고.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방학 때 내 친구는 베트남에 놀러 갔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놀러 가냐?” 개는 이제 자기는 외가에 간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 소멸의 한 부분이 이제 약간의 곁들여서 다문화가 가장 이제 차지하는 그 비중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황철수 저는 일단은 지방 소멸 이제 저도 이제 그 ‘지방 소멸’부터 하면 이제 지방에 살고는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완주에서 한 3년 정도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계속 이제 체감은 잘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완주 홍성의 특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막 뭐가 없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뭔가 잘 몰랐지만 멀리서 한 발짝 뒤에서는 그런 걱정들에 대한 우려는 많이 듣지만, 막상 내가 경험한 농촌 현장에서는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다 있긴 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물론 어르신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예 이제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공동화된 것 같은 거에서 오는 느낌보다는 반대로 그렇게 막 밖에서 우려를 엄청 크게 하는 목소리에 비해서는 제가 경험했던 농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밀도가 낮은 게 좀 좋다, 편리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가끔씩 서울에 가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농촌, 여기 지역에 살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사는 곳이 또 산 밑에 마을 기존 마을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여유롭고 좀 거리감을 두고 하는 거가 저한테는 좀 좋은 점이여가지고 지역에 사는 이유이기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저런 것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냥 딱 떠올렸었던 좋은 점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저보다는 이제 와이프가 주로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고 애 셋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직장 때문이라도 그렇고 밖에서 사회활동을 좀 하니깐 그래도 많이 느끼지 않았는데, 와이프는 종일 이제 애들 이제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집에서 이제 집안일 하고 저녁 때 제가 좀 늦게 들어가면 ‘하루종일 좀 외로웠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거의 대화를 안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면 저는 좀 빨리 씻고 쉬고 싶은데 이제 외로웠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다를 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흥동 같은 경우에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농촌살이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나,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폭이 좀 좁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외로움 같은 것들을 느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출생’, 그러니까 아이는 많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나 그룹들은 좀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살고 있는 부모로서는 조금 답답함도 외로움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섭 최길성 선생님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지방 소멸, 고령화. 뭐 이런 논의에...

최길성 저는 솔직히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그런 건 잘 못 느꼈고요. 요즘 보면서 TV 매체나 이런 거 보면 ‘소멸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흥성이나 이런 게.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느끼는 부분이 요즘 들어 조금씩 있고. ‘농사짓으면서 솔직히 지금 인구 줄었다.’ 이런 거 이 지역에서는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아직은 근데 고령화를 좀 느낀 이유는, 고령화 쪽은 좀 느끼는 원래 제가 7년 전에만 해도 여기 왔을 때는 일하는 분들이 좀 상당했어요, 마을에도. 청년이라고 60대 이런 분들도 있었고, 50대분들 몇 분이 그래갖고, 60대 몇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70 넘어가고 이제 80 넘어가고 이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장님이 자꾸 저만 젊은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자꾸 찾으니까. 했던 사람 또 없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제가 저도 쫓아다니고,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됐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요. 저희 친구들이나 누가 이렇게 오면은 그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저희 때는 60명이었는데 지금은 반에 20명밖에 안 된다.” 4반밖에 안 된다 이럴 때 좀 느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정섭 옥인 씨도 기분을 얘기해 주세요.

정욱인 보통 수치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이제 주변에서 뭐가 크게 와닿는 건 없었거든요. 저출산도 그렇고, 인구 감소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고. 그 친구들은 뭐 남아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학교를 보낸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크게 수치는 알고 있지만 크게 와닿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지금 얘기 들어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파보면 심각하긴 하구나를 느끼게 돼요. 뒤에 쪽 얘기 듣다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 지방 소멸에 대해서 예전에 느꼈던 게, 요 앞에 보면 다리... 형, 기억나죠? 이 다리 밑에 보면 소, 집에서 풀 먹이려고, 이렇게 계속 가져가신 분이 있어요. 여기가 풀이 계속 팍 찼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 돌아가시니까 거기 제초제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제초제를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을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지방이 소멸이 되나?' 사람이 없는 그 흔적들이 남겨질 때마다 이런 생각도 그때 들었습니다.

김정섭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먼저 말씀하실 분은 먼저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마을로 봐도 좋고요. 흥동면이나 장곡면 단위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하여간 10년 또는 그 이상 봐도 좋습니다. 15년, 또는 5년이어도 괜찮고요.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 동네 읍면은 변하기 마련인데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그중에서 고령화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든지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변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좀 뭐랄까 딱 생각나는 거 두드러진 거 어떤 것이 변했을까요?

정환영 저는 장곡초등학교 손모내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5월 손모내기, 6월에 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학생 수가 원래 많은 건 아니지만 40명에서 50명대였는데 애들 수가 점점 저희 애 기수가 그래도 9명이었어요. 이 9명이 나가고 두 명인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 이제 몇 명 안 되네? 3년 뒤면 20명대로 떨어지는 거 어떡하지? 그러면 눈을 좁은 눈에서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딱 눈으로 보였던 저출산, 아니면 인구가 적어서 생기는 일들이 이제 보여줬던 어떤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구경본 저는 떠오르는 거는 버스 노선이 줄은 거. 원래는 버스 노선이 그래도 읍내 나가는 게 한 12개,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10개 정도 남았나. 그래서 10년 전에는 그래도 좀 더 막차도 시간이 더 많았고 갈만했었는데. 뭐 안 가는 지역이 생겼는

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대는 확실히 줄었다는 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서 또 체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규형 일단 버스 얘기하니깐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여기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첫 차가 6시 40분에 있는데 그다음 차가 8시 반이야. 애들이 학교를 가려면 무조건 픽업을 해가야 되는 거니까 애들이 6시 반에 학교 가는 것도 웃긴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7시 반쯤에 이제 애들을 픽업해서 보내긴 하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마을에서 지금 면에서는 ‘수요버스’라고 해서 만들긴 했지만 겨우 저 버스는 그냥 마을에 있는 분들을 면으로 그냥 데려다 놓는 역할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고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행정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을 면으로 모아놓으면 어쨌든 면에서 버스 타고 나가라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출생 아니면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들은 일일이 다 부모가 케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농촌 특성상 부모들은 대부분 농사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농사 특성상 날이 좋아지면 새벽에 나가서 아침 될 때까지 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번 제가 건의 한번 드렸거든요. 저런 시내버스를 애들 이제 등교 시간에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냐? 물어봤더니 그건 안 된다 그건 면에만 들어오는 거고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초점 자체가 이미 고령화 어르신들의 교통 약자의 편익 거기 맞춰져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좀 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자꾸 결국은 지역이 소멸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고령화돼서 소멸도 되셨겠지만 결국은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인구가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30~40대, 저나 한 50대 사실상 유입되는 분들은 대 60대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솔직히 그분들은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자기 사랑에 아주 그냥 심취해서 맨날 보는 동네에서 그냥 큰소리치는 분들인데 솔직히 그런 분들보다는 어쨌든 30~40대가 좀 더 들어와서 또 그분들이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낳고 해서 뭔가 좀 더 지역이 좀 활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고령자에만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고령화 사회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가장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만 쳐다보고 있자니 그럼 진짜 지역에서 점점 그분들이 진짜 돌아가시면 들어올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왜, 인프라도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특히 장곡 같은 경우는 지금 마트가 6시에 문 닫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장 편한 가장 흔히 쓰는 건데, 6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볼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와서 장을 보려면 결국은 흥동 아니면 광천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별로 좀 나한텐 생활하기 좀 안 좋아. 그리고 점점 학교는 줄어들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교

통편도 없어.” 당장 흥동만 해도 한 흥성 나가는 게 10편이 넘지만, 장곡은 몇 편 안 돼요 4편인가 5편밖에 안 돼요. 더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잘,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을 좀 더 관이나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단순히 농촌이라서 농사에만 “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가 아니고 지역 면 소재지에 어떤 최소한의 어떤 직업군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좀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쪽에는 좀 되게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40~50대 딱 끼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드는데 나 같은데 안 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귀농·귀촌을 자꾸 하라고 하지만 전 안 와요. 여기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바깥에서 못 나가는데 그럼 자가용을 몰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 친구들은 가끔 보면 이제 전기자전거 이제 일부 이제 귀농한 청년들은 그렇게 타고 다니지만 그 청년일 때나 가능한 거지 사실상 그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더 고민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자꾸 뭔가 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자꾸 사람들이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뭔가가 좀 이렇게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좀 정부나 이런 관계기관에서 좀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냥 뭐 이렇게 일회성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꾸준히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야 들어가 봐, 거기 일할 거 있어.” 라고 던져주는 게 낫지. 맨날 기간제 아니면 몇 달 이런 거는 좀 저는 모르겠어요. 인구 감소에서는 좀 안 맞지 않나 되게. 지역소멸도 마찬가지고.

김정섭 다른 분들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역이 어떻게 변한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최길성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는 지금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되면서 풍습이나 옛것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좀 젊은 사람도 좀 있고 청년들도 있으니까,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같이 안장하러 이제 같이 가서 떼 입히고 이것까지 다 하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서 했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 하고 재작년까지는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선 내려와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얼굴 보고 서로 대화하고. 또 누가 왔으면 이제 스며들었으면 그분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에. 그분도 이제 다른 업체를 불러 이제 하거나, 이장님이 찾아도 없으니까 사람이. 그러거나 눈치껏,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점점 얼굴도 안 만나게 되고 회관에서 안 모이고. 그래서 누가 이사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전에 사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풍습도 이런 것도 있고. 마을에서 이렇게 잔치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거든요 거의. 지금 배달시켜 먹고 진짜

중국집에서 어떻게든 여기 하나 있는 거. 그런 게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구경본 저는 저희 부모님 사시는 서천 판교면에 사시는데,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생태 마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단지인데 거기 갈 때가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길에서 고속도로 내려가지고 그 마을로 갈 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영화 세트장처럼 있던 집에 이제 딱 마을에 몇 채 저기쯤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개네가 하여튼 10년 넘게 늘 그대로 있는 거가 너무 이제 가끔씩 약간 타임머신 탄 것처럼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대로 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없고. 그 대신 그 상태에서 계속 낡고 한 번 갔을 때 벽 무너져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대로 그냥 보존돼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가 떠올랐고 또 동시에 그 마을 지나서 이렇게 꺾어서 가면 저희 부모님이 사는 주택 단지와 유사하게 개발업자가 이렇게 딱 그거 이렇게 대지 닦아가지고 집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앞에는 분명히 세트장처럼 그대로였는데 딱 꺾자마자 그냥 약간 좀 집도 좀 싸구려틱한 느낌의 전원주택 같은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영성하게 모여 있는 것들을 보는 거. 그래서 그거가 10년 사이에 그 그 구간을 지날 때마다 좀 다르게 느껴졌었던. 그게 떠올랐습니다.

정육인 저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살면서 이제 걸어다닐 때는 뭐 빈집도 가끔 이제 종종 발견하고 그러는데, 몇 년간은 차를 타고 다녔고. 그래서 버스 노선이 줄었다는 것도 크게 알아차린 적도 없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50대 6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변화? 어떤 그런 것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규형 생각했는데 10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거는 10년 전에는 저는 항상 이제 위에 이장님 아니면 40대 여성분들한테 일을 배웠는데,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시간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섭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하여간 인구가 줄면서 농촌은 없어지는 게 많아요, 되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없어지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불편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크게 봐서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시장'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인데 내가 돈 주고 필요한 걸 어디서 뭐가 됐든 돈 주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가지고 이게 돈이 있어도 이제 해결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디 멀리 나가야 된다거나 돈 들고 사러 멀리 나간다거나.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

는데 이런 식으로 돈 주고 해결하는 일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 국가나 홍성군청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들인데 인구 줄었다고 내 버려두거나 아니면 덜 해가지고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인구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불편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내는 게 중요한 작업이어서 지금부터 한 2~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돈 주고 사는 것 중에 돈 주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사람을 불러와서 뭘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돈 주고 해결하는 것 중에 인구가 줄어가지고 이게 좀 안 되거나 아니면 되긴 되는데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거나,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있을 겁니다. 떠오르는 대로 그 포스트잇에다가 큰 글씨로 파란색 매직 쓰십시오. 큰 글씨로 붙여놓고 다 보게. 큰 글씨로 한 장에 한 가지씩 해서 몇 장을 적어주세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경험이 아닌 내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또는 동네에서 누가 그렇게 불편해진 것 같다 싶은 것도 적어주세요. 꼭 내 얘기 아니더라도 남 얘기더라도.

김정섭 다양하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숫자 많은 것부터 봅시다. 노동력, 일손, 일할 사람. 저거 적어주신 분들은 좀 본인이 경험했다거나 옆에서 본 그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규형 일단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저 내려올 때 이제 어머니들 인건비가 5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즌 때 되면 10만 원이라도 못 구해요. 웃돈 주고 해서 한 12~13만 원 보통 줘야 되고, 외국인도 그 정도 가고. 근데 문제는 이제 농산물 가격은 그때에 비해서 한 10%, 20%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노동력 가격은 거의 배로 뛰어 있는 상태인데, 플러스 뭐 식비나 모든 자재비가 다 올라 상태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대로 일손이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홍성에서 못 구하니까 보령 아니면 서산, 예산 이런 데서 내 인력에서 끌고 오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 비용 더 대고 이렇게 데려오고, 그래도 그 시즌 어차피 농사라는 특성상 그 시즌에 다 수확을 해야 되고 그 시즌에 다 심어야 되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히 노지는 그런 게 가장 컸고.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는 힘들겠다.' 해서 이제 기계로 이제 기계로 수확하고 기계로 파종하고 기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농사의 방향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는 이제 마찬가지로 장비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번처럼 이제 어떤 사업이 돼서 선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에는 또 이제 본인 돈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점점 약간 같은 맥락이지만 좀 농산물 가격이 좀 올라갔다면은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맨날 그 TV나 이런 데서 이슈

되는 거 맨날 농산물만 올라갔다 하면 뭐 그냥 물가 다 때려잡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끌어 잡는데 떨어졌을 때는 안 떨어졌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떨어지면 농민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저시급을 주든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꼭 올라갈 때만 난리 난리 쳐서 지금도 여기 대파로 문제가 많지만 그런 등등을 전혀 신경 안 쓰다가 꼭 플레이하기 좋을 때만 꼭 와서 막 “우리가 인심 써줄게 우리가 풀어줄게.” 안 될 때는 안 될 때는 아무도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가장 그런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농사짓기는 어려워지고. 가게는 점점씩 핍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굳이 아까 말한 해결을 한 게 이제 기계 위주로 가려는 거고. 그런데도 장비대가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의 형태로서 그 지원·보조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에서 맨날 얘기했던 얘기지만 어차피 쓸 돈인데 “그럼 개인한테 똑같이 그냥 분등해 줘라, 너네들이 알아서 쓸 거 아니냐.” 근데 꼭 왜 보조사업을 만들어서 꼭 이걸 해서만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간에 업자들이만 배불리는 꼴이 현재 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진짜 민감한 사항이지만 정책적으로 엮여 있는지 어떻게 다 그 끈들이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풀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좀 더 하나씩 바뀌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울면 갖다 줄게.” 이렇게 던져주는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농촌에서 살아가기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것도 좀 바뀌야 되고. 우리도 좀 맨날 “주세요.”가 아닌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길들여진 것 같아요. 자꾸 울면 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를 찾아서 또 고령화돼서 그분들이 못 하는 것들을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그걸 대변해 주고, 또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타협하고 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고령이기도 하시고 또 젊은 청년들은 하다 보면 모르니까 막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Stop 되고. “똥어 거기까지만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섭 일손이라고 적어주신 다른 분들도 뭐 어떻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최길성 일단은 이제 급하게 저도 이제 급하게 이제 저희 집 일을 보고 할 때 ‘한두 사람만 좀 잠깐 일할 사람이 있냐?’ 대체를 찾았는데 안 돼요.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아까 규형 형이 얘기했던 대로 농사 시기가 있는데 농번기가 되면 웃돈 주면서 한다는 게 이제 그래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하는데 옆에서 “야 난 12만 원 줄게, 이리 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 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납품하는 내포에 있는 음식점에서 농번기가 되면 애네들이 안 나온대요. 그 식당으로. 애네들이 갑자기 이제 갑질하면서 “나 여기에서 지금 좀 있으면 내일 14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 가면 돼.”

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 안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번기가 되면 애네들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버스에서 안 내린다.” 30명, 40명. 버스에서 “사장님, 저 얼마 이상이면 안 내려요.”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 7년 전인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고령화가 심하네.” 그러면서 지역에 이제 000 씨네 였나? 그래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버스로 해서 이제 전라도에서 할머니들이 우르르 올라와서 같이 이제 밭일하고 막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고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다 대체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율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서 에피소드로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이제 구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그 정규가 아니라 불법 체류로 해서 온 분이 됐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점심에 내가 맛있는 거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그 매바위에서 닭개장 먹자 이렇게 보여줬는데 애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했더니 보신탕인 줄 알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도 이제 에피소드로 있었는데 시기가 됐을 때는 사람을 못 구한다, 오히려. 그래서 적었어요.

김정섭 다 비슷합니까? 노동력 부족한 얘기는?

정환영 저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뭘 산다는 것보다 저는 이제 지인들이나 그 어떤 친구들 말고 여기 내려와서 알게 된 친구들이나 그렇게 해서 같이 품앗이나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 농사짓이 힘들니까 이제 많이 떠나간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 귀농 내려와서 그러면 떠나가고 또 저기 나이 드신 분 이제 농사를 안 짓고 하니까 그 일손이 이제 부족한 면이 그런 데서 저는 못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외국인 쓰고 일하는 사람을 쓰고 이런 건 안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많이 하니까. 품앗이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점점. 같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손 부족을...

정욱인 저는 저한테까지 얘기가 와요. 좀 도와달라고. 이제 웬만하면 거절을 항상 했는데, 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얘기가 와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서. 주변에 더 이상 일할 사람이 너무 없구나 이제는 그런 상황을 봤었습니다.

김정섭 그다음에 저기 ‘가정 출산, 출생’ 같은 얘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가정 출산’이라고 적은, 무슨 얘기에요?

황철수 저는 일상생활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출산이 일상은 아니니까.

김정섭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황철수 저는 그냥 에피소드인데 제가 셋째를 집에서 낳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첫째 둘째를 부친에 있는 조산원에서 낳고 이 정도면 어차피 조산사 선생님을 거기 가보니까 그냥 가정집 같은 데에서 이렇게 낳길래 집에 조산 선생님을 모셔서 낳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홍성에 와가지고 홍성 읍내 부영아파트 살 때 이제 조산 선생님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주시는 조산사가 전국에 수소문을 해도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아주 프리미엄을 해가지고 비싼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그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성은 고사하고 충남에서 못 찾아서 결국 대구 쪽에서 와서 받아주셨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고 적어봤습니다.

정환영 형 막내 어디서 낳았어?

문규형 난 다 의료원에서 낳았어.

정환영 홍성의료원?

문규형 거기 옛날 그냥 진짜 한 70~80년대 그 산후 장비를 쓰고 있더라고.

정환영 어, 진짜 그래. 모니터 막 이렇게...

김정섭 저 빨간색 출생이라고 누가 적었어요?

정환영 제가 적었는데 왜 지금 형한테 물어본 이유가 저는 다 당진에서 낳어요. 둘째, 셋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H의료원에서 애 낳는 거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시설도 지금 얘기했던 거는 완전히 이제 옛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그래도 서산, 당진, 대전, 천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산후조리원이 거의 없어.

문규형 옆에 있는데 이제 운영하나? 난 둘 낳았는데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정환영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까지 같이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그리고 애 엄마는 이제 서산 사람이다 보니까 또 서산은 또 인정을 안 해. 서산 둘러다 이렇게 얘기해. 이래서 당진까지 가서 이제 두 번 이렇게 낳았는데 저는 덕분에 한여름 저희는 다 여름에 얘기를 낳아서 같이 산후조리원 2주씩 쉬었죠. 좋긴 좋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가 않다. 당진은 대도시야.

김정섭 지금은 당진이 많이 커졌죠? 그 밑에 병원 해놓고 밑에 팔호가 응급하고 또 뭐지?

정환영 응급 아동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것도 제가 적었는데 저희 애들 셋 다 천안으로 밤에 한 번씩 뛰었어요. 이제 의료원. 응급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은 이제 첫째는 갑자기 새벽에 복통이 있는데 H의료원에서 “천안으로 바로 뛰어라. 이거는 우리 쪽에서 이제 담당 의사가 없다. 전문의가 지금 현재 오늘 당직이 아니다. 쉬는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고. 둘째는 여기가 찢어졌어요. 여기가 살짝 찢어졌는데 놀다가 H의료원에 갔더니 이거는 성형 쪽에서 자기네가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김정섭 흥터가 남는다고.

정환영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거기로 보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응급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작년에 앰블런스를 탔죠. 근데 앰블런스는 잘 돼 있어요. 바로 와서 이제 하는데 앰블런스 안에서 문제인 거예요. “야 거기에 여기 있는데 심장내과 전문의가 없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천안으로 뛰어야 하나, 홍성이 일단 홍성의료원 가는데 안 돼. “그러니까 천안으로 뛰어, 서산을 뛰어, 서산도 아니야, 대전으로 가야 돼.” 여기에서 이제 거기서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전문의나 당직 이런 게 지금 요즘에도 의사 문제 때문에 되게 큰데 응급 상황이 됐었을 때 여기서 해결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김정섭 저 밑에 아이들이라고 적어주신 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규형 일단 아이들을 땅을 밟고 키우고 싶어서 내려오긴 했는데 땅을 밟는 것까지 좋고 뭐 다 좋았는데 문제는 지역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 가도 솔직히 애들이 신나게 뛰어놀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장곡. 흥동초는 그나마 이제 한 전교생이 100명이 넘어서 좀 학급별로 한 거의 20명 가까이 됐었는데 장곡으로 넘어오니까 학급에서 많아야 한 8명, 9명, 7명. 지금 이제 넷째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3명인가, 4명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 밑에 이제 어린이집에는 아마 개가 2명인가 개 포함해서, 2명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서영이랑 해서. 근데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놀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어쩔 수 없이 아빠는 핑계 삼아 너 핸드폰 해라고 주는데 또 그거를 너무 애들이 거기에 폭 빠지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궁여지책을 만들어낸 게 이제 토요일날 이제 토요일 돌봄이 원래 학교에서 하는데 매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빠들이 한번 놀아주면 안 되겠냐.” 라는

애기가 나왔고 또 아이들이 그걸 원했고 막 해가지고 당장 돌봄이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놓고 사실상 거기 선생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애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케어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단순한 놀이로 밖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들이 좀 박세계 좀 움직이기도 하고 단체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아이들만으로 부족하고. 또 연령층이 다양하니까 커버치려면 이제 아버지가 좀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좀 그거를 메꿔주면서 애들하고 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 이제 4명. 너 안 나와? 이런 데 해서 아버지들이 자꾸 모여서 최대한 아버지 딱 10명까지 만들어서 좀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 이제 밖에서 축구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만들어보려고 이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해요.

정환영 여기서 반론. 아니 이쪽만 분위기가 그럴지 몰라도 너무 부모들을 계속 뭘 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애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흥동중학교에서도 부모하고 무슨 이상한 문자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학교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부모들은 다 바쁘고. 근데 부모들이 와야 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임원이 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활동을 해야 하니 아예 학교하고 오히려 더 거리를 뒀다라는 이제 생각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아까 장곡초 손모내기 했는데 지금 10년 차야. 손모내기 할 사람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막내까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10년, 15년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다음엔 누가 하지?

정환영 “부모들하고 같이 해야지 않겠냐.”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게 저는 저나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어렸을 때 부모가 학교에 오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부모가 학교에 오지 않으면은 꼭 이상한 것처럼 되는 게 이게 말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문규형 아빠들이 웃자고 하는 애한테 아빠들이 어찌면 원래 평소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를 모아서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속으로. 그래서 어차피 엄마들한테 들어가면 등쌀이라도 트일 거니까. 아이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놀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들은 이제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3~4시간씩 놀아준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명분으로 밖에 나가서 또 놀 수 있는 거리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제 약간 이제 알팍한 또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한대. 아까 되게 부담스러워했는데 잠깐 좀 문제 단톡방에 아버지들 학부모 어머니 올렸는데 아까 환영이처럼 되게 “꼭 내가 참여해야 돼?”라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부담을 갖기도 하고.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

도 하는데 그래서 약간 큰 틀에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놀아주면 어떨겠냐.’라는 거였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3시간 정도 시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이제 정해진 날이니까. 그래서 매달 나오라는 건 아니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리고 어쨌건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애들만 나와 있으면은 “누구 아빠는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제 뭐 한 달 건너서 나오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좀 한두 달씩 안 나오면 아이가 좀 소침해지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부담 없이 애들하고 못 놀아서 그러니까. 대신 여기서 좋은 거는 이제 아빠들이 나왔을 경우에 내 아이를 케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를 케어해요 보통.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 활동에 되게 좋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나가면 내가 내 아이를 케어하는 게 아니고 난 다른 아이 케어하고 다른 아빠가 우리 아이 케어하고. 그래서 그럼 반대로 이제 뭐랄까 애들이 그 찡찡댄다 그러나 그런 엄살도 생각처럼 그렇게 집처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수궁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사회성이 좀 될 수도 있고. 또 집에서는 애가 막 울면은 애 달래는 데 바쁜데 이 오픈된 데서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아빠가 훈육을 잘 못해요. 함부로.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아빠가 들어와서 막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도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성숙해지는 것 같고 아빠도 반대로 이제 내가 지금 다른 아이를 케어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막상 내 아이 케어할 때는 막 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섭 이 자전거 수리?

정육인 제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별로. 이제 듣고 나니까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딱 눈이 떠지는 느낌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었는데 하기 어려워진 거 돈이 비용이 더 많이 들은 거 이런 거는 자전거 수리... 돈이 없어서 뭔가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뭔가를 해봤던 경험도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아니, 오히려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좋아진 것들이 더 많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김정섭 좋아진 게 많은데 그게 인구가 줄어서 좋아진 것은 아닌 것 같고.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본인이 10년 전보다 돈도 좀 생겼고 자전거 수리점이 없어진 거예요?

정육인 없어진 것도 있고. 원래는 흥동에 흥동중학교 옆에 있었잖아요. 농기계 수리해주고 거기, 이제 자전거는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는 에피소드 나도 얘기해 줄게. 저희는 자전거를 제가 얼마 전에 7대로 수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자전거를 다 수리를 해가지고 읍내 가가지고 이제 자전

거를 이제 거기 갔는데 18만 원이 나왔어. 7대인데, 18만 원이 나왔는데 아저씨가 너무 좋아해요. 자전거에서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 분들한테 전화를 해본 분이 좋은 일 하신다고 우리 트럭으로 한 번 다 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난 이제 자전거 수리라는 거 봤었을 때 아이폰은 난 아이폰 유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아이폰은 보면 수리 도시에서만 되지 않나? 맞죠?

정환영 맞지. 흥성에는 근데 있어가지고 있어. 10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있어.

김정섭 농기계 수리 같은 거는 불편해지지 않았어요? 다 각자 하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최길성 농기계는 저는 좀 애초에 좀 불편한 데를 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요.

문규형 농기는 늘 언제나 불편했죠.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불편해, 똑같이. 똑같이 가면 함흥차사고 그러니까 자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 여차피 개네들이 그냥 단순해 되게 약간 좀 배짱 플레이하죠. 시즌 때 몰려오면 “야 기다려, 나도 바빠.” (지금의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되면 원래 미리 고치지 않거든요. 갑자기 또 미리 고쳐도 시즌 때 되면 또 망가져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몰리니까 이사람들은 기다려 그냥 뭐 그냥 그렇게 하죠. 좀 거기에 익숙해져 있죠.

김정섭 음주가무할 데가 없어서 힘들다. 취미생활 할 데가 없다 이 얘기죠. 지금?

구경본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공감합니다.

정육인 저게 너무 당연히 나올 것 같아서 음주가무가 불편해졌다.

최길성 취미 같은 건 제가 썼는데,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청양에 수영장을 다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인구 감소, 이제 돈이 있어도 못한다는 얘기가 거기도 강사가 여기 시골을 안 내려와서 이제 강사가 없는 거죠. 근데 수영장에 가보신 분들 라인이 있잖아요. 초급, 중급. 근데 여기 하나씩 있던 그네들이 이제 시골에 내려와 정착을 안 하고 이제 여기 없으니까 인구가 두 분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커버하는 게 10명일 거 아니에요? 10명.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하더라도 순환이 안 돼. 그분 거기 있는 분만 해도 거기서도 모자라 청양에서도. 딱 차.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걸 수영만 얘기한 거지 따져보면 아마 강사가 모자랄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그

러니까 돈을 먹고 가려고 그래도 어디 식당 갈래도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 근린생활 뭐 이런 게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죠.

문규형 어른들이 놀라면 무조건 읍을 나가요. 면 단위에는 아예 없으니까.

김정섭 근데 읍을 나가면 술 먹기가 힘들잖아.

문규형 술만 아니라 이렇게 축구든 풋살이든 배드민턴이든 당구든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나가야지만이. 그리고 농사 특성상 저희가 6시 땡 치고 “야 끝났으니까 가자.”라고 못 하잖아요. 그럼 뭐 해 떨어질 때 하다 보면 8시 되는데 8시에 그래도 “나 뭐 하나 좀.” 읍주를 떠나서라도 운동도 하고 싶은데 이미 읍은 그래도 한 10시까지 하더라고요. 이 면 자체에서는 애초에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죠.

김정섭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담배 한 잔씩 피우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섭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인데요. 이제 뻐한 얘기긴 해요. 근데 이게 우리 네 군데 지역에서 듣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돈 주고 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응당해야 되는 일들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중에도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니까 덜 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거나. 공공부문이라고 하죠, 국가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잘 안 되게 돼서 좀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써주십시오. 본인 얘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변 다른 사람의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해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학교, 보건소 뭐 이런 거잖아.

김정섭 참 희한한 일인데 이 그룹 인터뷰는 평창, 거창, 완주, 홍성. 네 군데서 8팀에서 하고 있는데 평창, 거창에서는 쓰레기가 나와, 저 얘기가 안 나왔어. 근데 완주에서도 조금 나오긴 했는데, 홍성이 유난히 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황철수 저는 저는 마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지금 4년째 사는데 일단 쓰레기 모아서 이렇게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희 집하고 가까운 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밑에서 수거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이 위쪽 동네가 집이 원래 한 채 있었는데 네 채로 늘었거든요. 근데도 깊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안 오시더라고요. 이유는 정확히 설명

안 해 주시지만. 그리고 횡수도 일주일에 두 번, 1.5번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번으로 줄고. 그게 있었어요.

김정섭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황철수 네 횡수도 줄고 장소도 집 가까이 왔던 거가 좀 멀리.

김정섭 왜 줄었는지 물어봤어요?

정환영 일단 저도 쓰레기를 썼는데 저는 사실 저게 처음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니까 치워버리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한 번 실랑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근데 뭐였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시에서 쓰레기 분류하는 법과 농촌에서 쓰려고 하는 법이 약간 달라요. 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오히려 이제 과자 봉지 같은 것도 애네들 다 수거해. 근데 우리는 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수거하는 것들도 다르고, 물론 쓰레기 양도 그다음에 쓰레기 내용들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농촌인데. 농촌이 그만큼 부피가 크죠. 그다음에 치우기가 힘든 게 많고. 근데 잘 치워주지 않...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봐가지고 안 가져가 그러면 한 달 두 달 계속 방치가 되고. 나중에는 그런 쓰레기들이 계속 쌓여. 그러면서 이제 이제 동네 일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고. 아마 연계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결국은 소각을 하는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정섭 소각이라고 쓴 건 문 선생님이 쓴 거죠?

문규형 저건 그러니까 같은 얘기긴 한데 이제 농산물, 영농폐기물도 좀 소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새벽에 보통 6시, 5시에 일을 나가면은 제일 먼저 나는 냄새가 소각. 쓰레기 태운 냄새가 그냥 돌아요. 그냥 마을 전체를 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레기봉투를 쥐도 우리가 가서 수거해 와도 그분들이 그냥 태우세요 그냥. 그리고 새벽에 태우니까 이제 어쨌건 이제 소리 주변에서 말 안 나오니까 꼭 새벽에 4시, 5시에 태워서 아니면 이제 일몰할 때 7시, 8시 사이에 꼭 태우세요. 근데 어쨌건 그게 정서상 문제긴 하지만. 또 어쨌든 그게 더 그분들한테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걸로 해서 좀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지역 주민인데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다고 약간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랑 또 틀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약간 뭐 욕심이 생긴 게 아니지만 좀 진짜 사례를 좀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전파하면 또 되니까. 좀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결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환영 일주일에 한 번 사실 치우는 건 사실 좀 애매해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날 아침에 이제 내려놓는 게 이제 원래 모범적이고 정석이기는 한데, 그 시기 놓치면 그러면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버리게 되는 거고. 이제 방치가 되는데. 행정에서 만약에 이것을 조금 조금 주기를 좀 빠르게 해준다든가 뭐 이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섭 저 ‘불법 행위 단속’이라고 쓴 건 무슨 얘긴가요?

최길성 일단 여러 가지보다 이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냥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쇼파나 이런 부분 지나다 보면 되게 많이 그냥 구석구석 다 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안 들어갈 데까지 가서 버리고 나오고 하는데. 거기다 저희가 가서 쓰레기 치우기는 하지만 이제 저가 단속을 쓴 거는 이제 가장 큰 건 좀 우리가 좀 축산의 도시이긴 한데, 이때만 꼭 발생하는 게 지금 도로에 이제 분변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많이 떨어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축산하시는 분들이 인지는 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무대포로 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약간 시골 특성상 좀 과속을 하다 보니까 특히 비 오는 날 그걸 걸러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봤어요. 그 경찰이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비 오는 날 또 그걸 또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흙과 변들이 막 섞여서 난리가 났어요 도로가. 싹 해서 경찰에 왔더니 야 “나 할 때만 왜 단속하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히려 큰소리치고 언성 올라가고 막 차들 막 뒤에 밀리고 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좀 어쨌면 그분들이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막 불법으로 이제 방류도 하고 돈사...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도 단속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저수지에서 물이 분명히 깨끗한 물이 내려가거든요. 여기 거는 어쨌건 제가 일하는 곳이 하천 옆이거든요. 보면 항상 물이 누래요. 꺼머틱해 있어요. 이것을 정화했다지만 이렇게 하천에 버리는 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개중에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버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 아주 뭐 비 오는 날도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냥저냥 저냥 넘어가고. 특히 여기 낚시도 마찬가지로 주말 되면 한 40~50명이 몰려와서 막 쓰레기 버리고 뭐 떡밥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네는 고기하고 몸만 사라지는 아주 나쁜...

정환영 그 내용이 근데 저수지가 농어촌 공사 소유 어떻게 되는 거죠?

김정섭 농어촌공사 소유도 있고 지자체 소유도 있는데 우리나라 저수지 4천 개 중에 한 3,500개 정도는 농어촌공사 거고. 한 500개 정도는 시군 건데 이거는 농어촌공사 거잖아.

정환영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너무 힘들다, 막아달라. 현수막 붙여달라.”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대요. 자기네는 그거 못한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면 되냐?” 그랬더니 “마을 주민이 관리해 주면 감사하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꾼들하고 자기는 안 붙겠다고 그리고. 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홍성군에서 딱 고기가 제일 잘 잡히는 10대 저수지로... 우리는 청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는데 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평구 쓰레기 봉지가 나왔었어요. 전에 그런 일들이 이제 행정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떠넘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길성 그러니까 저수지 관리하니까 얼마니까 작년 재작년 이제 여기 옆에 조그마한 하천 이제 상송리 쪽에 하우스 농사짓는 친구가 있는데 2년 연속 침수를 당했어요. 하우스가 침수를 당했는데. 이제 이유는 이제 결론은 이제 나가는 물이 많다 보니까 새길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거기에 치여서 이제 역류하는 거였는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수지 수문을 열었으면 되는 거였어요. 일부 좀 낮춰줬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수문이 높다 보니까 개네들도 들어온 양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다시 역류되면서 이제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침수를 당했는데. 저수지 관리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하겠지만 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먼저 모니터링하고 이걸 열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민원을 넣어야지만이 열어주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분들도 뭔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위하다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날만큼 그 비가 많이 온다고 했고 뭐 했으면 그날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어쨌면 그 사람들은 그걸로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런 자체를 안 하고 신고하고 한 2시간, 3시간 뒤에 왔어요. 이미 끝난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그제서야 문을 열겠다고 “문을 왜 안 열었어요?” 했더니 “또 괜히 잘못 열었다가 이제 물 없어서 농번기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좀 그런 거는 좀 제대로 특히 여기 특성상 시골인데, 되게 물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약간 피해를 입으면은....

김정섭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하는 분들이 ‘수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수

갑 농어촌공사에 말하자면 그 사람은 저기서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건데. 오랫동안 한번 하면 계속하니까 10년, 20년 하지만, 판단하기가 힘들지 잘 모르지. 이걸 열어야 되는지 어쩐지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도로 보행 문제' 저게...

정환영 간단하게 저는 인도가 없으니까...

김정섭 그제 사람이 적어서 안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환영 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있어야 할 곳들에 없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 가면 사람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 흥동 같은 경우는 자전거길까지 조금 있잖아. 없나? 보행로, 등까지 설치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쪽에는 사람이 없는 데들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바리케이트까지 딱 붙여가지고 글로 지나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면 아예 이렇게 붙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 가면 인도 있고, 자전거 도로 있고, 그다음에 차도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도로라고 썼습니다.

김정섭 보행 문제도 같은 얘기죠. 그렇죠?

문규형 아니면 밤에 이렇게 불빛이라도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차별, 그것도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또 어르신들이 이제 밤에 검은 옷 입고 걸어다니면 모르거든. 안 보이거나 중간 중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원래 행정에서 못하면 행정에서 마을끼리 이렇게 조인을 해갖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김정섭 돈 많이 들어 간다고 안 해주겠죠, 보통은. '연령 제한'이라고 쓴 거는 무슨 얘긴가요?

문규형 무슨 얘기 이거는 제가 행정적인 의제...

최길성 사무쳤구나.

문규형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니까 그거에 맞게 제한이라는 게 규정돼야 되는데,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있죠. 좀 사실 저희가 지금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40~50대가 제일 많아요. 저희 중에서. 30대나 근데 실질적으로 정책이 다 40대 이하에는 묶여 있으니까. 청년 정책, 그쪽으로만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정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최길성 저는 그냥 저 문제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정책이 어쨌건 지금 이제 막 바뀌어서 45세, 49세까지 이제 청년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허리 역할을 하는 게 사실상 40대, 50대가 지금 허리 역할을 이제 농촌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 괜찮은가. 그 사람들이 도시가 불편해서 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상 그러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거기서 못 버티니까 이제 내려왔던 것이고. 여기가 또 나의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있는 거랑 몸뚱이밖에 없는데. 뭐 좀 그런 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40대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점점 정책이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밑에 친구들이 좋아지는 건 맞겠지만 그렇다면 20~30대 초점을 맞췄다면 최소한 40~50대들한테도 뭔가를 좀 기회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고 정책도 좀 따라가야 되는데 거의 뭐 20~30대에 몰빵해놓고 “너는 안 돼.”라고 하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40~50대는 되게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동네 일 하며 놀았는데 “저 새끼 재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재 경쟁자야.”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행정적인 것은 좀 지역 특성상 어쨌건 지금 행정이 그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정책을 쓰고 있고. “너네 좀 제발 도시 말고 판 데 가라.” 해서 지금 이걸 만들어 놓고 정작 내려 왔는데 “그럼 어릴 때 내려와야지 왜 나이 들어서 내려와가지고 무시를 당해?” 이런 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나라 정부나 이런 데서는 좀 심각하게 맨날 농사 농업 정책 이런저런 얘기 떠들지만 정작 어떻게 보면 약간 독자생존하라고 그냥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은 우리의 이슈가 아니야.”라고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40~50대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못 버티고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유는 농사는 돈을 못 벌겠대. 그러다 보면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다시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역순환되는 게 있어서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섭 버스 얘기는 아까 초반에 했으니까 건너뛰고. 통학버스 저기...

황철수 서비스라고 써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읍에 살 때는 학교를 어느 면이든 선택 골라서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그런 학교 선택의 어떤 권리, 이런 교육의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이제 면 지역의 학교는 학생이 워낙 적으니까. 딱 학군에만 보낼 수 있는 거가 약간 사실은 극복돼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가지고.

김정섭 그거는 면 지역 학교 폐교를 막으려고 한 불가피한 조치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전국이 되는 게 아니고 광역학부제라고 하는데. 이제 시장 군수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의견 수렴해서 왜냐하면 주로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줘야 조레 개정해서 하는 건데 뭐냐면 읍에서 몇 년 있는 학교로 애를 보낼 수는 있는데 면에서 읍으로 보낼 수는 없어. 면에서 읍으로 갈 수 있게 하면 다 읍으로 가지 면 지역 학교는 없어지는데 근데 면은 모자라잖아. 읍에서 “혹시 면으로 좀 가세요.” 이렇게 한 건데 냉정하게 따지면 어디를 가든 마음대로 그러니까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공평하게 같지만, 논쟁의 여지는 있지. 근데 이제 면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폐교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 그렇게 봐야 되고.

정환영 근데 이쪽은 또 재밌는 게 장곡면에서 우리 애들 보내는 시간이 근데 광천읍이 더 난리를 쳤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천읍이 더 흥동중보다 사람이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안 뺏기게 하려고 여기 장곡면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주소지나 이런 것들 확인해가지고 (단속한대 이제?) 어, 작년엔 단속했어.

황철수 중학교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자기 학군으로만 보내야 하나요?

김정섭 그러니까 장곡에 살면서 흥동중학교로 가는 거는 불법이니까 그걸 찾아내서 고발한 게 광천 사람들이다?

황철수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정환영 여기 되게 유명하니까.

김정섭 결국은 3개 면이 지금 막 학생 놓고 싸운 거네. 그렇죠 세계 읍면이.

정환영 장곡은 중학교가 없고. 광천하고 흥동하고 중학교가...

김정섭 그래서 이제 법대로만 하면 광천으로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흥동으로 보내는 것 같더라.

정환영 그런 식으로 해서 도산1리, 지정1리 같은 경우는 “하늘마을까지는 흥동이 가져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가 있대요.

황철수 학군이 정해져 있을 거야. 지금.

정환영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지정1리는 왜 또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작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장장입을 했구나) 그렇지.

김정섭 이제 붙이는 건 그만하고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이제 붙이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안 한 얘기가 있다면 이제 뭐냐 하면 '경제활동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경제활동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얘기하면 아까 이제 일손이 부족해졌다. 이 얘기는 좀 많이 나왔어요. 또 다른 측면의 변화가 없을까요?

최길성 제가 요즘 하는 게 이제 농작업 도우미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농작업 가르친 건데 어르신들이 노후된 것도 있고 할머니들도 나이가 들고. 어쨌든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보통 그 일을 해주고 했는데 안 그러면 자식들이 했는데, 자식들은 이제 예전 처럼 주말에 안 내려와요. 이제 그 세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20~30대에는 부모님이 좋으니까 내려왔는데 40~50대가 되니까 “나도 힘들어 어딜 내려가. 지금 주말 가서 나만 일 바쁘네. 라운드 가서 골프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80대 특히 이런 분들이 농사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데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면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농작업 도우미를 만들어서 작업해 주면 얼마씩 주겠다 좀 해달라 그런 게 예전에는 있었어요. 초창기 한 7~8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좀 다들 무시했어요. “에이 그거까지 해?” 근데 한 최근 한 2~3년 동안 보면은 계속 그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서 심지어 이제 인력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대부분 이제 자식들이 와서 발만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심어놓고 약도 쳐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식들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경제적인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일 거리가 또 생기기도 해요. 그거 덕분에 대신 제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동네 할머니들 봄만 되면 이번 봄에도 한 다섯 분 정도 제가 해드렸는데, 전화만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해줄까? 6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새벽에 걸어서 “돼, 안 돼?” 막 물어보고 그런 게 좀...

김정섭 그 농작업도우미 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예요?

최길성 원래는 그것도 이장님들이 보통 많이 하셨거든요. 이장님이 많이 하셨는데, 이장님들도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고령화됐어요. 그분들도 주축 연령이 벌써 60에서 70대가 주축이거든요. 대부분 읍면 부분은. 근데 그분들도 이제 본인도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노쇠화되다 보니까 자기들 일을 좀 털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반대로 저희처럼 이제 40~50대가 어떤 동네에 두세 명씩 몇 명씩 있으면은 “야 가서 좀 도와

줘.” 아니면 뭔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영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게 가능한데 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40~50대 되는 친구들은 만약에 동네에 10명 있다 쳐도 정작 영농하는 친구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다 내 부모는 다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시골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일 쏠림 현상도 생기고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 거 하기에다 바쁘데 난 못 가.” 보통 특히 40~50대 친구들은 대부분 하우스나 약간 고소득 작물 하다 보니까 거의 매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변화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영농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발농사는 진짜 농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왜? 안 해주니까, 돈을 준다고 해도 이제 안 해주니까 포기하고, 그나마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좀 연이 있는 할머니들만 이제 몇 분들만 해요. 그럼 그분들은 막 우쭐해요. 또 우쭐해 있고.

김정섭 농작업 도우미를 면사무소나 군청에서 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최길성 요즘은 그래서 외부 인력들이 많아. 그래서 약간 할머니들이 또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농사일을 모르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김정섭 경분 씨는 어때?

구경본 저는 뭐 적절한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한테 자꾸 아이들 돌봄 관련된 알바 제안이 들어와요. 이게 우연히 그쪽 커뮤니티에 접촉이 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이게 일거리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인구 감소로 그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이도 줄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주고 싶으니까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해서 선생님들 외에도 그냥 외부에서 알바를 구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돌봄을 하는 걸 부탁을 받아서 초등학교 학부모들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그 시간 동안 애들 돌봐주는 거 그런 거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그냥 무슨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듣는 동안 아이들을 그걸 듣고 싶는데 아이들 때문에 같이 듣기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강의하는 시간 동안 돌봄을 해준다든가. 그런 거를 최근에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김정섭 그게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나한테 부탁을 한 건지, 내가 애들을 잘 돌봐줄 거라고 믿어서 부탁을 한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지?

구경본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문규형 저희 마을은 저희 마을은 틀려진 거 딱 하나는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예초기도 돌리기 힘들시니까 예초기 돌려라 알바 좀 해달라 예초기 돌려달라 그걸 많이 얘기하셔요. 요즘 저희가 지금 50가구인데 한 80이 반 정도 되시거든요, 80 이상이. 그리고 70 이렇게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예초도 못 들 정도로 힘이 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년부터 계속 예초기 돌려달라고 해달라고 저한테 알바라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환영 이 알바가 조금 지역사회 안에서 아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른한테 이제 저기 도와드리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초기 알바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20만 원 부르죠.

구경본 이제 그게 20만 원 돼가지. 그렇죠.

정환영 근데 우리가 작년에 농프(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했을 때 3만 원인가 5만 원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안에서 같이 공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이제 너무 무수히 많아지는데 사람은 없고. 이제 그 사람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누가 놀리더라고 놀리듯이 “야 이거 이거 하면은 야 20만 원짜리인데, 이거 너네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페이지를 적정한 페이지보다는 한참 아래인 돈을 받으면서 일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는 나도 농사를 지어야 하고, 나 비닐하우스 지금 벌레 먹어가지고 저것들 다 해야 하는데 이장님이 이제 “뭘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하다가 우리 거 이제 다 이제 저는 상추 키우고 있는데 저소득 작물이잖아요. 빨리빨리 따가지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애네들도 갖다 버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인구가 마을에 사람들이 없고. 그 없는 사람들이 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일을 못 하면서 이제 부담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김정섭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마을 공동체에 봉사도 해야 되고. 알바 오라는 데는 또 있고.

정환영 그 와중에 결국은 그래도 동네에서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선순위가 어쨌든 마을 활동이 더 제일 우선시가 되거든요. 지역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액 이제 약간 도시처럼 이제 페이지를 보면서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관계를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결국 여기에서 움직이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일자

리는 없어도 일거리는 많다고 하잖아요. 이 일거리 중에서도 낫지만 관계에 치우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황철수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는 그 지역의 학교의 대안학교이긴 한데, 강화에 있는 학교에서 점심 식사 이제 준비해 주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전국에 많은 대안학교 같은 것들이 이제 학생 수 없어서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더 못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워낙 이제 노인 돌봄 이런 게 이제 많아질 거다.” 이러니까 그런 요양보호사나 이런 교육 같은 게 막 붙이어서 그 교육을 받으시고 그 일을 하신 지 한 6년 7년 정도 되신 4~5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그분들이 케어해야 되는 어르신들의 연령이 높아지니까 “일이 너무 어렵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케어해 주셨던 분들 돌아가시고 이런 경험을 몇 번 하시면서 “이제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일거리를 막 찾아보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섭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김정섭 가족 관계를 여쭙보려고 했는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거는. 제 생각에는 아까 시간에 들은 얘기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서 주변에 보면 가족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렇게 물어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 많아졌고 그렇죠? 자식들은 와보지도 않고 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에서 다른 얘기가 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사회는 읍면이나 마을 정도 여러 가지 단체. 단체는 시골에 겁나게 많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여간 그런 인구 감소 고령화 속에서 어떻게 변해온 것 같습니까? 단체들의 조직이나 활동.

최길성 저는 좀 생각보다 되게 끈끈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나면은 그러니까 제 눈에 봤을 때 얘기에요. 이제 귀농자니까 여기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 원주민들끼리 이거에 결속력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말로는 두려워하지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저런 단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관계는 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애네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지만, 반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애네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또 우리도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미 결속됐어요. 딱.

김정섭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최길성 제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로타리클럽’, ‘4H’ 이런 유신의 이런 데

많거든요. 하다못해 경찰 ‘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데 가보면 지네끼리 점조직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가면은 이렇게 가면 느낌이 그렇지만 좀 약간 놀리기 딱 좋구나 나를. 애들이 제가 할 얘기 다 해요. 진짜 하고 정작 말로는 “지역에 사람 없으니까 들어와 들어와.” 하지만 거의 뭐 진짜 꼬봉처럼 쓰거나 아니면 따까리, 그런 거 쓰고 아니면 총무 시켜서 맨날 결산 보게 하고. (중간 여러사람 이야기) 어떻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로는 뭐 좋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위에 있거든요. “니네들이 얼마나 잘났어? 누구 아빠 우리가 깔끔하게 밟아줄게.” 이런 약간 컨셉이 좀 있어요. 약간 우습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없으니까 땅도 없어, 농사 소득도...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 친구들은 부인들의 그 부와 이런 것들을 되게 과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없어 보이게 하죠. 우리랑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못 끼고 결론은 흥동이 좀 그렇긴 한데 귀농자들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자기네 그룹을 만들어서 따로 놀고 이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어떻게 보면 이런 조직 문화 이런 거는 좀 특히 시골에서는 좀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어서...

김정섭 조직들이 폐쇄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정환영 그러니까 약간 이거 저 저 나름대로 폐쇄적인 것보다도 관계 중심적인 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다 보면 이 단체에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형이 얘기한 대로 저는 약간 귀농인 아니면 좀 새로운 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계속 이제 커뮤니티가 계속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을 약간 공공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범위로 움직이면 좋은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많은 조직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부분들이 사람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약간 이해관계인들 이런 거에 이렇게 딱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계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그런 거는 다 생기기 마련인데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조직이나 아니면 이렇게 마을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힘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여기에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보면 어떤 일을 하자고 했었을 때 보면 원주민들은 약간 보수성을 띠잖아요. “그런 거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뭘 갖고 있고 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체들이 좀 섞였으면 좋겠어요. 섞이고 사람들이 좀 섞여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문규형 애 관계 안 같잖아요, 그래서. 지역하고.

정환영 예를 들어서 규형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새마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들어가 보

면 50대 중반, 후반. 이런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라떼는’ 식의 어떤 그런 걸로 이제 그러면 그래도 같이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뭔가 좀 그래도 우리는 맨날 따까리 한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하면서 왜 근데 “왜 우리 동네 저수지 청소 안 하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약간은 뭐 이게 있어요. 그 안에 도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약간 더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 단체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로 바뀐 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더 섞이고 뭔가 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장님들, 그러니까 소위 약간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깨어 있지 못하시더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최길성 제가 이번에 기술센터 교육을 하나 몇 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폐쇄적인 거라고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는 어쨌건 뭐 이런저런 교육 활동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농민들을 상대로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고객은 귀농·귀촌하신 분들, 60대 은퇴하신 분들이 주 고객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에 세팅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다 60대 중후반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이 뭐 하여튼 뭐 교육 다 참여해요. 다 그리고 재네들이 다 더 잘 알아요. 이러이러 해야 되니까 주무관한테 막 사인을 오히려 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거기 켜 있었는데 이미 그분들이 플랜 다 짜놔어. 이렇게 짜놓고 약간 ‘나 뭐 왜 왔지? 이 시간이나 나 지금 한참 일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기억에 와서 하는데 몸은 막 좀 그런 문화들이 돼 있고. 정작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는 그냥 진짜 30~40대 이런 친구들한테 뭔가 좀 더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네들은 안 오거든요. 솔직히 그 친구들은 안 오니까. 우리한테 자주 오는 사람들이 60대 70대니까, 이 사람들이 컨셉에 맞춰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좀 그거 보니까 좀 많이 되게 안타깝네요.

정환영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이니까 이거 해줘.”

최길성 그렇지. 또 그런 거 많아. 그러니까 더 안 해.

문규형 제가 ‘전국농업기술자협회’라는 데를 지금 가입돼 있는데.

김정섭 용산에 사무실이 있는 이촌동에.

문규형 거기에 200 몇 명이 보여요. 회의할 때.

김정섭 저기 다 할아버지들인데.

문규형 80명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 밑에 젊은 사람들 사무직이나 저도 사무장 맡고 있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다 떠받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요즘은 시스템이 그런 거 막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컴퓨터로 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지냐면 그분들은 안 만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만져야 되니까 이 관계라는 게 될 수가 없어. 위에 분들이랑 자기가 다 이제 누가 그러잖아, 요즘 애들 65세 노인회들. 저기 거기 마을에 가겠냐고 나이 65세 넘어가면 다 밑에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죠. 그런 기술자 협회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뽑아놓으면 나가고 나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밑에도 다 받들어서 그거 해야 되고 사람 서류 정리 다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관계가 이렇게 붕 떠 있더라고요. 조직이라는 게 요즘 고령화되면서 약간.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붕 잘려갔고. 이렇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조직에서 요즘.

김정섭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인구 줄고 고령화되면서 농촌 지역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나간 과거 얘기를 들은 것이고 내일은 앞일을 얘기할 겁니다. 미래 얘기를. 근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연구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더 고령화되고 인구가 더 줄 것이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귀농·귀촌도 많이 받아야 되고 애도 많이 낳아야 되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저희 연구진 생각으로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야겠지만 아무리 해도 인구가 더 늘지는 않는다. 지금보다 늘지는 않는다. 이거는 그러니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인구가 줄어서 생기고 늙어서 생기는 문제니, 젊은 사람을 많이 받는 게 정답이겠지만 교과서로는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 1억 원씩 줄 테니까 애 낳는다고 해도 그러면 좀 늘 수는 있는데 출생아 수가 그 수라는 게 지금보다 인구를 늘린 만큼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시작은 어떻게 출발한 거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다 ‘애 많이 낳아야 된다.’ 이 소리밖에 없고 농촌으로 가면 ‘귀농·귀촌 많이 받아야 된다.’ 이 소리인데 홍성에서 귀농·귀촌 많이 받으면 청양에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 사람들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식의 얘기는 다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시라고 하고 많이들 하니깐, 거기까지 또 똑같은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연구는 저희들이 하는 연구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보다 더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 텐데 우울하죠? 10년 뒤에 더 줄어들 텐데 그래도 사람은 남아서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이 웬만하면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불편하고 더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대비를 해야 되는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저희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런 의견을 좀 여쭙볼 건데 “뭘 준

비하고 뭘 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귀농·귀촌 많이 받아야 된다. 애 많이 낳아야 된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 많이 하니까. 또는 ‘마음 독하게 먹고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 세 가지 얘기는 논외로 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뭘 대비할 거냐 이거부터 무엇을 대비 어느 분야 어떤 문제를 대비할 거냐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온 것만 해도 한 20가지는 넘어요. 그렇죠? 또는 오늘 안 나온 얘기를 해도 돌아가셔서 오늘 내일 오시기 전까지 이 분야만큼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이 문제만큼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앞으로 인구가 10년 뒤 지금보다 더 높고 줄어들어도 그나마 좀 덜 불편하게 농촌에서 살 수 있다. 이 분야가 중요하다라는 게 뭘지 한 분야씩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씩만. 그러면 내일 오자마자 다 그걸 생각한 걸 다 까가지고 한번 얘기한 다음에 그중에 쪽수가 제일 많은 거 두 가지, 2시간 동안에 6가지는 힘들고요. 해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던가 한 가지를 얘기하던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골라서 각각에 대해서 이 분야에 앞으로 데뷔를 한다면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국가가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국가가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있고 홍성군수한테 얘기할 게 있겠죠. 분이 해야 될 게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뭘지를 내일 좀 오늘 보다는 약간 토론식일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어느 분야를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 분야씩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을 하셔서 내일 오시면 됩니다.



1차 초점집단토론(저출생·초고령화의 경험) 가이드

(Q1 / opening)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어느 면에 살고 있으며, 직업이나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일 같은 것을 포함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이 모임에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들었는지도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연구 과제, 초점집단토론의 목적과 일정 등에 관해 짧게 소개한다.

참여자가 거주하는 읍·면과 시·군의 고령화율, 출생율, 인구 감소 추세 등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짧게 설명한다.

초점집단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 주제를 상기하고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

(Q2 / introduction)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소멸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Q3 / transition) 살고 계신 마을, 읍·면 지역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같은 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할 수 있는 시장(market)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재화·서비스 유형별로 평가하기 위해 붙임쪽지를 나눠 준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농촌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나눠드린 붙임쪽지에 한두 단어로 써 주십시오. 여러 장을 쓰셔도 좋습니다. 노란색 쪽지에는 본인의 경험을 본인 이름과 함께, 빨간색 쪽지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쓰시면서 본인 이름과 함께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 노인, 아동, 학생, 장애인, 여성 등등 하는 식으로 적어주세요.”

3~5분 정도 시간을 주고 적는다. 붙임쪽지를 ‘어려움의 정도’를 ‘붙임판’에 붙이도록 안내한다.

		아주 조금 불편해졌다	조금 불편해졌다	상당히 곤란해졌다	아주 곤란해졌다
본인 경험	생활물품				
	먹거리				
	약국				
	금융(은행 등)				
	병원				
	이미용실, 목욕탕				
	기타()				
다른 사람의 경험	생활물품				
	먹거리				
	약국				
	금융(은행 등)				
	병원				
	이미용실, 목욕탕				
	기타()				

(Q4 / key) 앞에 붙인 쪽지들 중에 ‘아주 곤란해졌다’라고 붙어 있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주 곤란해졌다’라고 쪽지를 붙인 사람에게] ○○○ 씨께서는 □□□□가 아주 곤란해졌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책임을 지는 중요한 것들도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 관리, 아동 보육 같은 것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인과 남을 가리지 말고 지역사회 주민이 그런 문제를 겪었는지를 생각하셔서 앞에서처럼 ‘붙임판’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붙임 쪽지를 붙여 주세요.

3~5분 정도 시간을 주고 적는다. 다 적은 후에는 붙임쪽지를 ‘어려움의 정도’를 4구간 척도로 표현한 ‘붙임판’에 붙이도록 안내한다.

	아주 조금 불편해졌다	조금 불편해졌다	상당히 곤란해졌다	아주 곤란해졌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보건소 등 공공의료				
환경 관리				
경찰서 치안 서비스				
노인 돌봄				
교통				
기타()				

(Q5 / key) [‘아주 곤란해졌다’라고 쪽지를 붙인 사람에게] ○○○씨께서는 □□□가 아주 곤란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Q6 / key)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농업 그리고 농업 외에 다른 종류의 경제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Q7 / key)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Q8 / key) 마을과 읍·면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람들의 관계나 이리저리한 조직, 단체 들의 활동 또는 관계, 지역사회의 분위기 등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Q9 / key)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변화가 지역사회 안의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Q10 / summary) [진행자가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한 후] 오늘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대략 요약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요약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Q11 / final)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빠트린 이야기가 없을까요? 가령,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은 것도 있는데 다루지 않았다거나, 농촌 지역사회에 중요한 부정적 결과를 만들었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10년 뒤에 살고 계신 농촌 지역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려보고, 그런 상황으로 변하더라도 농촌 주민이 '잘 살아가려면' 정부나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지를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도 논의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김정섭·마상진·허주녕·강마야·이다겸(2024),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가옥·장묘욱(1993), “주제별 집단토의 방법론”, 보건사회연구, 13(1): 84-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열(2019),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21세기북스.
- 이재열·신인철(2014), “연구의 배경, 이론과 방법, 함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 3-6, 한국사회학회.
- De Haan, E., S. Meier, T. Haartsen & D. Strijker(2018), “Defining ‘Success’ of Local Citizens’ Initiatives in Maintaining Public Services in Rural Areas: A Professional’s Perspective”, *Sociologia Ruralis*, 58(2): 312-330, WILEY.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초점집단토론 자료(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9 791161 497457 95520
ISBN 979-11-6149-745-7